

慶尙北道 盈德郡 丑山面 景汀1里

# 景汀里 民俗誌

Ethnography about Baetbul village,  
Gyeongjeong1-ri, Ch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沈一鍾 · 朴宰弘

Sim, Il-Jong · Park, Jae-Hong

<b>집필자</b>	심일종 · 박재홍(민속연구과 연구원) · 이상은 본문 집필 순서임
<b>조사자</b>	<b>1차조사(2008년 1월 - 6월)</b> 박선주(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윤수경(민속연구과 연구원) <b>2차조사(2008년 7월 - 11월)</b> 심일종 · 박재홍(민속연구과 연구원)
<b>사진촬영</b>	박선주(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심일종, 박재홍, 윤수경(민속연구과 연구원) 최호식(사진작가)
<b>편집</b>	장장식(민속연구과 학예연구관) 안정윤(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강정모(민속연구과 연구원)
<b>발행일</b>	2009년 5월 29일
<b>발행인</b>	신광섭
<b>발행처</b>	국립민속박물관 (110-82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 02-3704-3114 www.nfm.go.kr
<b>제작</b>	(주)디자인인트로 Tel : 02-2285-0789 www.gointro.com
<b>디자인</b>	박찬호 · 안태영 · 권진희 · 손동희
<b>발간등록번호</b>	11-1371036-000028-01
<b>ISBN</b>	978-89-92128-51-3 94380 978-89-92128-49-0 (세트)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09 경복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썬여진 뱃불마을 민속조사보고서이다.
  - 이 책에 인용된 역사서, 문집, 고문서, 신문의 내용들은 최대한 원문을 표기하였다.
  - 구술자료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현지어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문맥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필자가 읽기 편하게 요약하였다.
  -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일종 연구원이 1-3장, 10장을, 박재홍 연구원이 4-9장을 집필하였다.
  - 제보자의 구술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민속조사사업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뱃불마을

# 뱃불, 푸른 동해에서 피어나다

심일종 · 박재홍

# 민족문화를 풍성하게 가꾸어온 경북의 민속문화

● 2009년 ‘경북민속문화의 해’ 준비사업으로 경상북도의 향토성 짙은 민속문화의 변화양상과 생활모습을 조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민속문화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북의 민속조사는 2008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 산간마을인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해안마을인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2개 마을에 조사자가 10개월간 상주하면서 마을조직의 주요활동, 생업, 의식주, 세시풍속, 종교와 민간 신앙, 일생의례, 구비전승사 등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현존실태 및 변천사를 세밀하게 조사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경북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8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전문가들이 특징과 생성배경, 현존실태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기록영상물로 제작하여 공중과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북민속의 특성과 가치를 잘 나타냄과 아울러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는 고대 가야문화, 신라천년의 불교문화, 조선유교의 정신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역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유·무형의 문화가 우리 삶의 모습속에 면면히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의 18%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역사와 세월 속에서 문화를 주도해 왔다는 방증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성주 한개마을, 봉화 닭실마을 등 민속마을에서 볼 수 있는 양반문화,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래되는 어촌문화, 그리고 봉화, 영양, 울진 등에 남아 있는 산촌생활문화 등 다양한 민속문화 자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민속문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민중의 삶 속에서 탄생한 생활양식입니다. 이러한 민속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하여 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이어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우리 삶의 줄기를 가장 우리답게 가꾸어가는 정체성 확립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의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멀어져 가는 소외된 분야에서 뜻한 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이 사업을 추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경상북도지사 

# 산 · 강 · 바다와 사람의 어울림

●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을 다녀 봐도 아름답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터전도 아름답게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곳, 그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지역문화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으로 2006년부터 ‘지역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 번째 지역인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09년 경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에 2개 지역에 마을민속조사를 시작으로 8개의 주제로 경북 지역의 민속문화를 조사하는 학술조사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어 2009년에는 ‘경북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선포식, 민속조사보고서 발간, 민속마을 현판식, 사진전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민속조사는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군위와 영덕에서 상주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한밤마을은 팔공산으로 둘러싸인 돌담이 아름다운 반촌으로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와 더불어 사과·마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사람들은 동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미역채취, 오징어건조, 대게잡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모내기, 야콘 심기, 마 심기, 사과수확, 오징어 말리기, 미역씨 감기, 고동배 조업 등을 함께 도우며 마을사람들과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상을 기록·촬영하였습니다. 특히 살림살이 조사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꺼내 사용자의 눈을 통해서 재해석·기록하는 과정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경북의 민속문화’는 경북의 대표 문화를 8개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현지조사와 연구작업을 토대로 집필되었습니다. 1권에는 ‘영남대로와 낙동강’, ‘선비와 양반’, ‘마을과 문중’, ‘경북 여성의 글하기’를, 2권에는 ‘민속문화로 본 경북의 마을숲’, ‘경북의 술과 음식문화’, ‘나물과 약초의 민속지’, ‘동해안별신굿의 전승 양상’을 담았습니다. 잊혀지기 쉬운 경북 전통문화의 생생한 현장이 전문가의 눈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가 경북의 문화와 경북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일상의 삶에 ‘이방인’을 ‘가족’으로서 받아들이 주시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산과 강,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헌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하기 위해 수고한 지역 연구자와 우리관 민속연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9년 5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신광섭**

1 마을개관

자연 지리적 경관 12  
역사 · 인문환경 26

3 생업과 경제생활

생산과 노동 68  
생업별 경제활동 76

5 의식주

의생활 148  
식생활 170  
주생활 194

2 가족과 친족

인구 44  
통혼과 가족의 구성 50  
친족의 형성과 활동 56

4 사회조직

마을개발위원회(이장단) 106  
어촌계 114  
경로회 126  
부녀회 134  
청년회 136  
계 조직 140  
기타 조직 144

**7 일생의례**

백일과 돌 258  
혼례 264  
상례 270  
제례 288

**9 여가생활과 놀이**

청소년의 놀이 376  
중장년층의 여가와 놀이 380  
노년층의 여가와 놀이 382

**6 세시풍속**

설 212  
정월대보름 218  
영등 226  
사월초파일 230  
단오 236  
추석 240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252

**8 종교생활**

개인신앙 298  
가정신앙 316  
마을신앙 322  
참고자료 344  
(경정2리 별신굿 조사 현장 노트)

**10 구비전승**

설화와 속신 388  
지명유래 396

# 1 마을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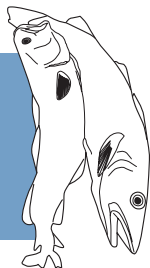
자연 지리적 경관  
역사 · 인문환경











# 자연 지리적 경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자리잡은 경정1리 뱃불마을의 공간적 특징은 가구가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마을의 취락은 경정2리(차유)와 경정3리(오매)의 취락 모습과 달리 돌출된 형태가 아니고, 안쪽으로 둥글게 해안선을 그리면서 반달모양을 띠고 있고 그 뒤편에 평지가 위치하고 있다.

## 경정(景汀)을 품고 가는 영덕군(盈德郡)의 산과 들, 강과 바다

● ○ ○

경정1리(景汀一里) 뱃불마을은 경상북도(慶尙北道) 영덕군(盈德郡) 축산면(丑山面)에 위치한 어촌마을이다. 한반도의 동남부, 동해안에 연하여 있다. 영덕군은 위도상으로 북위 36° 15' - 36° 40', 경도상으로는 동경 129° 09' - 129° 27'에 위치한다. 동서간으로 최장거리 27.4km에 이르는데, 동쪽으로는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강구면과 남정면이 부분적으로 동해와 접하며, 서쪽으로는 창수면, 영해면, 지품면과 달산면이 영양군, 청송군과 인접하고 있다. 남북간으로 최장거리 45.15km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남정면이 포항시, 북쪽으로는 창수면과 병곡면이 울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영덕군 기후는 냉온대에 속하며, 동해를 끼고 있어 지독한 추위는 없는 편이다. 특히 동해를 관류하는 해류의 영향으로 연중 한서(寒暑)의 차가 작다. 봄철에는 동북풍, 가을철에는 남동풍이 주기적으로 불고 있어 봄이 짧고 가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덕의 여름은 비교적 빠르게 오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sup>01</sup>

영덕군에는 현재 741.06km<sup>2</sup>의 면적에 1읍 8면 204개의 행정리와 자연부락 325개가 있다. 이는 자연·지리적 환경 아래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낙동정맥(洛東正脈)을 들 수 있다. 낙동정맥은 태백산에서 갈라져 나와 동해를 따라 내려오다가 울진, 평해에서 백암산을 만들어 영덕군과 울진군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이후 영덕군 내에 들어와서 등운산·칠보산·맹동산·국사봉·화림산·대둔산·팔각산·동

01 영덕군, "영덕군지", 2002, 16쪽





대산·봉황산·해월봉 등의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남쪽으로 펼쳐져 있다. 이 때 낙동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산세가 동해를 향해 국사봉·화림산·봉화산·용당산·경산·대돈산 등의 산봉우리들로 이어진다. 이 산세가 현재 영덕군 영덕읍과 영덕군 축산면을 가르면서 ‘남부 생활권’과 ‘북부 생활권’으로 나누는 자연 지리적 경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영덕군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세를 형성하는 한편 긴 강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생태적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덕군은 약 30km<sup>2</sup>에 이르는 비교적 너른 충적지를 형성시키는 40여 km에 이르는 오십천<sup>02</sup>과 동해안에서 제일 넓은 평야로 꼽히는 ‘영해들[坪]’을 가로지르는 송천(松川)이 있다.

한편, 영덕군의 지질(地質)은 영해지역의 영동층과 영해역암층, 축산지역의 도곡층 등 신생대 제3계의 지질구조를 가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생대의 백악기에 형성되었다. 축산면의 경우 경정리 일부 지역만 경정동층의 암회색질암, 사암 및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경상계 신라통의 오천동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덕군은 1읍 8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개의 지역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진다. 남부 생활권과 북부 생활권이 그것인데, 이는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영덕군이 확대 조정되기 이전까지 영해부(寧海府)와 영덕현(盈德縣)으로 분리되어 있던 두 지역이 현재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03</sup> 지금도 영덕 사람들에게서 이 두 생활권역을 ‘원(元)영덕(盈德)’, ‘원(元)영해(寧海)’라 하여 개념적으로 구분 짓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sup>04</sup> 남부 생활권, 즉 ‘원영덕’은 영덕읍을 중심으로 남정면, 강구면, 달산면과 지품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 생활권, 즉 ‘원영해’는 영해면을 중심으로 축산면, 창수면, 병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02 오십천(五+川)은 영덕군 지품면, 달산면, 영덕읍, 강구면의 중앙부를 통과하여 동해로 흘러든다.

03 영해부와 영덕현을 가르는 자연 지리적 경계는 면현(縣)이었다. 이곳에서 흔히 ‘자뽕재’('자뽕터고개', '자뽕터재', '장구모기')로 불리는 면현은 현재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古谷里, 고실)와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사이에 있는 고개다. 이 고개가 자뽕재(縣)가 된 연유는 다음과 같은 일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옛날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산리를 구하러 가다가 이 고개에 이르러 피곤하여 조는데, 황(黃)이란 아전이 술을 베풀므로,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이 새로 나서 그 아전의 이름을 ‘수술’이라 하고 이 산을 자뽕재(縣)라 하였다.”(『영해도독부(寧海都護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고 한다.

04 여기서 ‘원영덕’과 ‘원영해’를 영덕군으로 통합한 것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결과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를 놓고 볼 때, 영덕은 종5품의 품계를 가진 현령(縣令)과 종9품의 훈도(訓導)가 중앙으로부터 외관(外官)으로 임명되던 현(縣)으로, 영해는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설치된 곳으로 종3품의 부사(府使)와 종6품의 교수(敎授) 등이 중앙으로부터 임명되던 부(府)의 모습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경정(景汀)과 더불어 사는 영덕군(盈德郡) 축산면(丑山面)의 산과 들, 하천과 바다

경정1리 어촌이 입지해 있는 축산면은 ‘(원)영해’ 북부 생활권에 속한다. 북쪽으로 영해면, 서쪽으로 지품면, 남쪽으로 영덕읍과 접하며, 동쪽은 동해에 면한다. 지형은 서쪽에 태백산맥의 낙동정맥이 뻗어있고, 인근의 봉화산, 망월산, 용당산, 화림산 등에 둘러싸여 있어 전반적으로 구릉성 지형을 이룬다.

이들 산지에서 발원하여 축산면을 적시는 지천(支川)으로는 화천리(華川里) 축산천(丑山川), 대곡리(大谷里) 동로천(東魯川)과 조항리(鳥項里) 조항천(鳥項川) 등이 있다. 이들은 지방2급 하천들이며 각기 아삼리(牙三里)와 상원리(上元里) 근방에서 축산천으로 합류된다. 축산천은 계속 흘러 축산면 소재지가 있는 도곡리(陶谷里)와 축산리(丑山里)를 휘돌며 동해로 흘러든다.



영해(寧海)와 영덕(盈德) 지역의 지도

축산천이 흘러 축산리에 오게 되면 북쪽에 솟아있는 봉화산 자락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남동쪽에 경정리와 경계를 이루는 월부산(月浮山, 흔히 ‘동네산’)이나 ‘말의 형국을 하고 있다’는 마산(馬山)에 막히게 되어 바로 동해로 빠지지 못하고 북동쪽으로 크게 휘어져 동해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염장들(일명 구평(龜坪) 혹은 ‘거북들’)과 ‘축산들’이 개간될 수 있는 자연 지형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축산면은 전체적으로 해안까지 산지가 압박하여 쌀이나 보리 등의 농산물을 다량으로 수확하기 어려운 자연 입지 조건을 지녔지만, 축산천이 만들어 놓은 천혜의 환경으로 인해 염장(양장(良庄)이라고도 불린다)을 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큰 마을 취락

1. 대소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축산들'
2. '염장들'



이 들어설 수 있었다. 이곳의 들(坪)은 인근 농촌인 도곡리, 고곡리, 재궁마을 등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염장들'에 가까운 어촌 사람들까지 농사를 짓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sup>05</sup>

경정1리(뱃불마을) 사람들은 지금은 해안으로 나있는 강축도로(江丑道路, 강구-축산간 해안도로, 918번지방도로)를 이용하여 염장들로 가지만, 강축도로가 생기기 이전(1990년대 초반)에는 월부산의 고개('月浮峴' = '다불재' 또는 '달부릿재')를 넘어서 염장들로 들어갔다. 경정(景汀)이라는 마을의 역사가 조선조(朝鮮朝)를 거치고 오늘날까지 줄곧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마을 북쪽 배후지로 염장들이라는 농업적 생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up>06</sup>

'(원)영해' 북부 생활권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영해시장(寧海市場)'이 있다. 영해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동해안에서 어획 또는 채취된 것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산물의 생산·소비를 가능케 하는 요인은 유통체계의 발달보다는 지리적으로 국가지정 어항인 축산항(丑山港)이 있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sup>07</sup>

축산항은 조선시대에 축산포(丑山浦)로 불리었는데, 수군의 만호(萬戶)가 다스리던 곳으로 동해안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항은 동해안에서 국방과 해산물 산지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에도 축산항 주변에 솟아 있는 북쪽의 와우산, 서쪽의 대소산, 그리고 남쪽의 죽도산은 바람을 막아 주어 피항지(避港地)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축산항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어항으로 개발되어 영덕의 수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사를 간직해 나가고 있다.

축산항의 수산물은 축산수협 유통판매과의 관할 아래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입찰을 통해 어민 생산자에게서 중매인들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축산항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어업생산자의 수산물 입찰권역(入札圈域)은 영덕군 영해면(대진리, 사진리)과 축산면(축산1리, 축산 3리, 경정1리, 경정2리, 경정3리), 그리고 영덕읍 일부 지역(석동, 도물, 오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권역의 어업생산자들은 대개 연안어업인들이며 정치망(定置網)이나 복합양식어업 등과 같은 먼허어업과 '통발'이나 나잠어업(裸潛漁業) 등과 같은 신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

<sup>05</sup> 축산면 면적은 59.38㎢로 영덕군 전체 면적의 약 8%를 구성한다.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47.42㎢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전(田)이 2.75㎢(4.6%), 답(畓)이 4.26㎢(7.2%)며 기타 과수원과 목장을 지가 약간 이용되고 있다(영덕군 2007년 통계연보) 참조, 여기서 답이 전보다 높은 것은 축산면 자체의 특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덕군에서 해안 쪽에 위치하는 이유로 산지보다는 하천의 하류에서 농지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영덕군에서 낙동강맥과 접하여 있는 청수면, 지품면과 달산면에 밭의 비율이 논보다 높아 병곡면, 영해면,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축산면과 대조를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자연 지형의 특징은 동해안에 나타나는 마을 취락을 이해하는데 고려할 대목이기도 하다.

<sup>06</sup> 실제로 경정1리 사람들은 과거에 이 염장들일명 구평들과 함께 살아 나왔다. 후술하겠지만, 지금은 경정1리에서 여섯 가구만 이 염장들의 논을 일부 경작하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들의 토지소유나 소작 등을 통해 국물생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sup>07</sup> 영덕군에는 있는 대표적인 국가지정 어항으로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항과 영덕군 축산면의 축산항을 들 수 있다. 강구항이 영덕군 남부 생활권의 수산 어획물의 집산지이려면, 축산항은 영덕군 북부 생활권 수산 어획물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영덕군 어항, 어가, 어선 보유, 수산물어획고에 대해서는 영덕군 통계연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www.yd.go.kr).





1. 새벽 축산항 풍경
2. 축산항 입찰 전의 모습
3. 대소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축산항

나 축산항을 이용하는 어선(魚船)의 어류 어획권은 계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 유는 양식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동해안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어류의 회유성 과도 관련이 깊은데, 특히 오징어잡이 철에 뚜렷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동해라는 ‘바다밭’에서 축산항을 통해 생산 유통되는 대표적인 계절별 어종(魚種)으로는 ‘오징어’, ‘한치’, ‘마래미 (일명 ‘마르미’ = 방어새끼)’, ‘청어’, ‘고등어(‘고도리’ 포함)’, ‘숭어’, ‘대구’, ‘문 어’, ‘쥐치’, ‘메가리’, ‘우럭’, ‘아귀’, ‘히라스’, ‘전어’, ‘물곰’, ‘가자미’, ‘가오리’ 등으로 20여 종 남짓이다. 특히, 영덕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게의 경우는 ‘대게(紫蟹)의 명칭이 이곳 축산항 남쪽에 위치한 죽도산(竹島山)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양력 12월과 이듬해 1월, 2월, 3월, 4월까지 상당한 수 확량을 보이고 있다.



1. 축산수협경매실
2. 축산항 입찰 풍경

한편, 동해안 연안의 자연 생태학적 특징으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에 바위 암초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동해안은 큰 어항이 발달하기 어려운 작은 포(浦)나 진(津)으로 어촌이 형성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해안이 한류성, 난류성 어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로기술이 발달하지 못

축산항에서 거래되는 어류



하던 시기에는 “어장(漁場)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적었다.”는 기록(『세종실록지리지』참조)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영해부 남면(南面) 어민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산면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생태조건을 생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생업 방식 중의 하나가 바위를 이용한 ‘자연산 돌미역(藁)’ 채취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짬’이라 일컬어지는 해안 암초에서 자연 채취가능한 해조류(海藻類)로는 ‘미역’, ‘천초(우뭇가사리)’, ‘청각’, ‘김’ 등이 있다. 그리고 해변에서 대략 수심 10m 안쪽에서는 잠녀(潛女)나 잠수부(潛水夫, 일명 ‘머구리’)<sup>08</sup>들이 들어가 해수면 아래의 암초와 바다밑 작업을 통해 해산물을 얻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영해부 남면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영덕군 축산면으로 행정 개편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생산되던 주요 토산·해산물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경상도지리지』, 영해도호부(1425년)**

藁, 牛毛(우뭇가사리), 細毛(참가사리), 大口魚, 全鮑(전복), 雙魚(상어), 乾蛤(말린조개), 海衣, 鎮卜(생전복)

**『세종실록 지리지』, 영해도호부(1454년)**

大口魚,, 文魚, 靑角, 年魚, 海衣, 藁

**『신증동국여지승람』, 영해도호부(1530년)**

魴魚, 大口魚, 洪魚, 靑角, 文魚, 松魚, 廣魚, 鰱魚, 紫蟹, 古刀魚, 鰻, 海衣, 藁

**『여지도서』, 안동진영녕해도호부(安東鎮營寧海都護府)(1757~1765년)**

魴魚, 大口魚, 洪魚, 靑角, 文魚, 松魚, 廣魚, 鰱魚, 紫蟹, 古刀魚, 鰻, 海衣, 藁, 紅蛤

**『경상도읍지』, 영해부읍지(1832년경)**

魴魚, 大口魚, 洪魚, 靑角, 文魚, 松魚, 廣魚, 鰱魚(今無), 紫蟹, 古刀魚, 紅蛤, 鰻, 海衣, 藁

**『영남읍지』, 영해(1895년경)**

魴魚, 大口魚, 洪魚, 靑角, 文魚, 松魚, 廣魚, 紫蟹, 古冬魚, 紅蛤, 鰻, 海衣, 藁

**『한국수산지』(권2), 경상북도 영해군(1908년)**

全鰻, 爾魚, 道味魚, 多浪魚, 三雉魚, 文魚, 海鼠, 靑魚, 魴魚, 古登魚

<sup>08</sup> 비닷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를 속칭하여 부르는 말. 경정1리에서는 1960년대 후반 무렵 잠수부 착용 장비를 갖추어 비닷물에 들어가는 머구리와 머구리배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경정1리에서 생업으로 머구리하던 잠수부는 2008년 4월에 작고하였다. 이들은 주로 전복, 해삼, 성게 등을 채취하였다고 한다.



## 경정(景汀)의 자연, 공간과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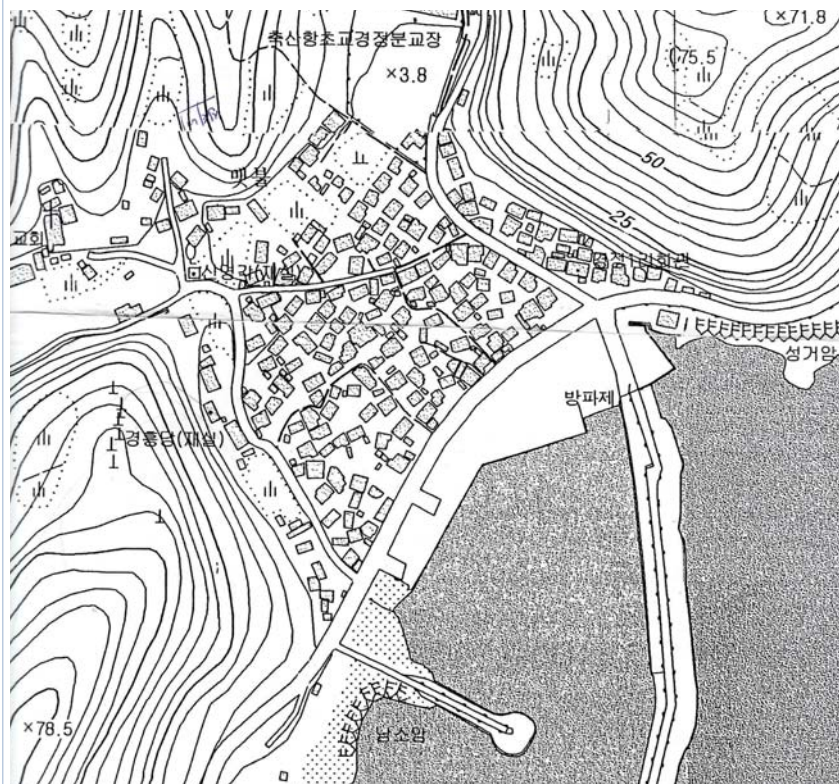
○ ○ ●

여는(경정(景汀)) 박씨 터전에 김씨 골맥인가라. 그러니까 먼저 박씨가 반남박씨인지 무안박씨인지 영해박씨는 아니라고 하고 어떤 박씨인지는 모르지만 배판을 했다고 그래. 한 오백년 됐을기라데. 그리고 나서 김해김씨네가...(중략)... 골짜기(골짜기)에서 농사지어먹고 살았지. 아, 저 넘어 염장에도 여기 사람들 땅이 많았지...(중략)... 우리 조부가 관주(舊主)였어. 고기도 많이 낚지. 옛날 양반 상놈하던 시절에는 뱃사람들은 여 위에 알선도 못하고 제당(甞堂)에 제사도 못드렸지...(하략). (김태상, 남, 83세)

경정1리를 감싸고 있는 산으로는 남쪽의 북행산(北行山)<sup>09</sup>, 서쪽의 무술산(武術山)<sup>10</sup> 그리고 북쪽의 월부산(月浮山)<sup>11</sup>이 있다. 동쪽은 동해와 직접 닿아있으며 해안으로는 아름다운 ‘흰 백사장(뱃불, 景汀)’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정항’이 마을 해안에 들어선 이후 모래밭은 약 700여m로 축소되었고, 그곳은 ‘장작밭’로 불리는 곳이며 ‘경정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자리 잡은 경정1리 뱃불마을의 공간적 특징은 0.72km<sup>2</sup>의 크기에 170여 남짓한 가구가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마을의 취락은 경정2리(차유)와 경정3리(오매)의 취락 모습과 달리 해안에 돌출된 형태가 아니고, 안쪽으로

경정1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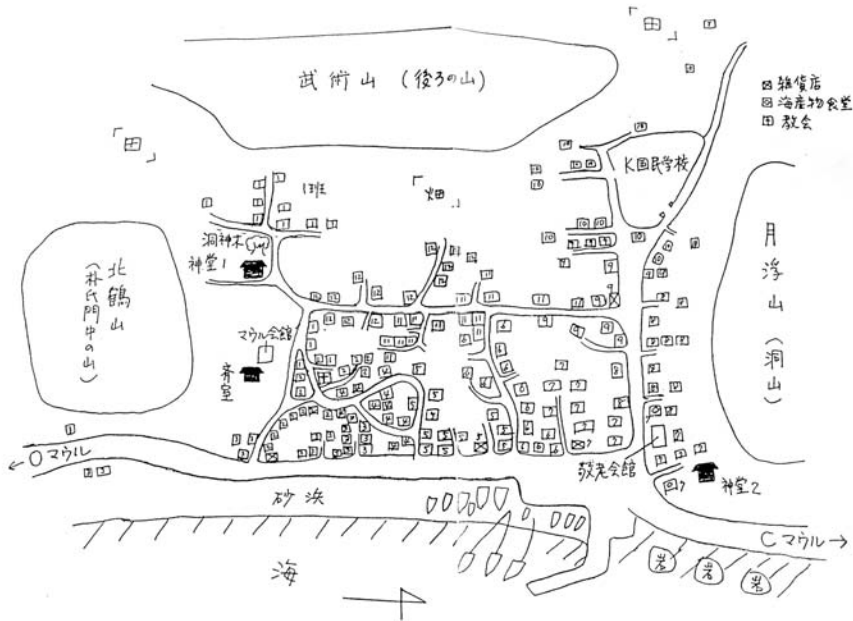
09 '북학산(北鶴山)'이라고도 한다. 옛날 박씨 집안에서 묘자리를 뒀더니 학이 나와 북으로 향하여 날아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산이 북쪽을 향하여 있다. 현재 경정에 살고 있는 영해박씨 문중산으로, 경흥당(景興堂) 뒷산을 가리키며 현재의 영해박씨 족보에는 이곳을 불공땅이라고 적고 있다.

10 '무등산(武甕山)'이라고도 한다. 연대는 미상이나 장수가 말을 타고 이 산으로 제일 내리며 무술을 닦았다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산이다. 마을에서는 무당을 청하여 장수놀이 곳으로 칼을 들고 춤을 추고 풍년을 기원하며 무등제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라고 한다.

11 현재 '동네산'으로 더 잘 불리고 있다. 달이 바다에 솟아 있을 때, 이 산으로 제일 크게 밝게 떠서 참으로 경관이 좋게 여긴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보름에 부녀자들이 차미를 퍼서 달을 담아 오면 득남(得男)한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図2) K トンネの略図



일본인 연구자 오쿠마(奥間葉子)가 1996년에 그린 경정1리 그림

등글개 해안선을 그리면서 반달모양을 띠고 있고 그 뒤편에 평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입지조건은 일반적으로 동해안에 나타나는 어촌의 모습과 다른 장소적 특징을 보여준다.

마을의 집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북쪽과 남쪽으로는 지금은 복개(覆蓋)가 되어 있지만 실개천이 흐르면서 경정항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흐르는 두 갈래의 개천은 마을의 북서쪽 방향 즉, 현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 뒤를 가리키는 곰등골과 윗당(神明閣)과 경정교회 그리고 오징어공장이 있는 마을 남서쪽의 '큰골'에서 흘러나온다. 곰등골과 큰골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시 각각 여러 골짜기로 갈라진다. 이러한 곳은 취락과 토지 이용으로 볼 때 경정리 마을 사람들의 역사와 같이 하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두 골짜기가 논과 밭으로 이용되면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던 곳이었다."는

1. 경정1리
2. 경정항



마을사람들의 생생한 기억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마을 사람들은 “경정1리에 있던 논은 비록 ‘봉답(천수답)’이었지만, 과거에는 안골논 한 마지기는 염장논 두 마지기와의 안바꾼다고 할 정도였다.”고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이는 토질(土質) 못지않게 이 곳 사람들에게 이 공간이 단순한 논·밭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지녔음을 알게 해 준다. 논으로 경작되는 것은 경정초등학교 뒤 곰등골 입구에서 750평 정도가 유일하다. 그 외 경정1리 내의 토지 대부분은 경작되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 고추, 파, 배추, 깨, 상추 등을 재배하여 자가(自家)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신 오징어공장 부지 혹은 교회부지 등 과거와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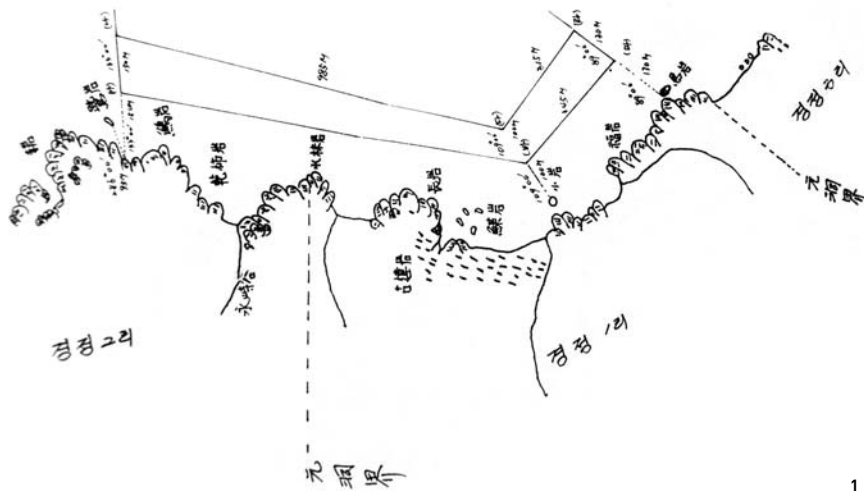
1. 큰골 입구
2. 곰등골 입구
3. 큰골



김영학(남, 68세)은 “마을은 본래 지금보다 훨씬 안쪽에 있었다고 그래. 현재 마을이 있는 위치는 원래 바다였고,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밭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차츰 물이 빠지면서 현재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준다.<sup>12</sup> 이는 단순히 경정1리의 동쪽 해안선의 경관이 바뀌어 왔다는 자연 지리적 변화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마을의 규모(대지, 인구 등)가 확대되어 나갔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정1리 어촌마을에서 동쪽 해안 지형 및 그 바다의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경정1리의 동쪽의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 경정1리는 북쪽의 차유마을(경정2리)·남쪽의 오매마을(경정3리)과 마을의 경계를 이룬다. 육지의 경계가 산이라면 바다의 경계를 이루는 것은 ‘짚’이라는 해안의 바위

<sup>12</sup> 이는 과거의 취락 모습과 현재의 마을이 들어선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점과 아울러 마을 사람들의 삶이 농업중심에서 어업을 겸하는 생업활동을 해왔던 역사적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2장 마을의 역사·인문환경’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1. 동계와 다물의 팜
2. 장갓불에서 낚시하는 모습
3. 장갓불
- 4,5 장갓불 '다물(단물)'
6. '다물(단물)'에서 천초를 줌는 주민들

1



2



3



4



5



6



이다. 짬은 전통적으로 뱃불마을(경정1리) 생업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짬은 인위적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이용되어 왔다. 경정1리 어촌계는 현재 동쪽 해안을 따라 8구역의 짬을 관리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짬들이 펼쳐져 있는 북쪽을 마을 사람들은 ‘다물’ 혹은 ‘단물’이라고 하며, 경정항 남쪽을 ‘장갓불’이라고 통칭하여 부른다. 경정항은 바로 이 짬들 사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경정항이 들어서면서 짬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방파제를 따라 데트라포트(TTP, 일명 삼별이)를 설치하면서 ‘육수암’이라는 큰 짬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오늘날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는 국가어항, 지방어항<sup>14</sup>,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으로 구분된다. 경정1리는 지방어항에 해당된다. 경정항은 1980년대까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짬’을 이용하여 배의 정박을 이용해왔다. 이후 뱃불마을(경정1리) 뿐만 아니라 차유마을(경정2리)과 오매마을(경정3리)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에 따라 경정1리의 흰백사장을 인공적으로 메워 조성하였다.

영덕군 해양수산업과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경정항은 1972년 2월 7일자로 2종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5년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인 어항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3년에 이르러 지방어항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 영덕군 수산과에서는 해수면 및 기상여건 변화 등 어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어항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자연 생태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경정항은 경정1리 마을 어민들을 비롯하여 가까운 차유마을, 오매마을, 석동마을 어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과 어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수산지, (권2), 경상북도 영해군 남면 (1908년)』

군면	영해군 남면
리동	차유, 경정, 오매
사계어채물명 (四季魚採物名)	차유: 三雉魚, 紫蟹, 海衣(김), 古登魚, 洪魚, 文魚 경정: 三雉魚, 廣魚, 大口魚, 鰻(새우 혹은 고래의 암컷), 紫蟹, 達江魚, 藿, 海衣, 海鼠, 多浪魚, 全鰻, 魴魚, 爾魚 오매: 三雉魚, 大口魚, 爾魚, 藿, 海鼠(해삼류), 古登魚

<sup>13</sup> 짬은 수면으로 드러난 바위 하나를 일컫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바위를 중심으로 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면아래 있는 주변의 바위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sup>14</sup> 지방어항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동해안의 경우 30척 이상의 배와 90톤 이상을 정박시킬 수 있는 정도다. 어촌·어항법(제정 2006.5.31 법률 제7571호,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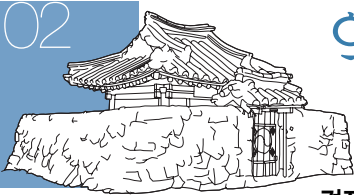
판매지는 읍내시장(영해읍)으로 되어 있다. 시장과의 거리는 20리이다. 1년 어채액(魚採額)의 경우 당시 영해군 전체 개산액(概算額)이 6,000엔인데, 경정은 천엔으로 차유의 240엔과 오매의 200엔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 액수는 당시 축산의 700엔보다 높다. 영해군에서 가장 높은 어채액을 올리고 있다.



경정리 해수욕장



경정항



## 역사 · 인문환경

경정(景汀)은 조선후기 영조 33년(1757)~영조 41년(1765) 간에 각 읍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경상도 영해(寧海) 방리(方里)조에 “경정(景汀)은 부(府)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 마을의 형성과 변천

경정(景汀)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는 문헌사료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옛 지리지(地理志)들을 통해 대략적인 이 지역 사정을 살필 수 있다. ‘경정(景汀)’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사료는 조선조 예종 1년(1469)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로 보인다. 그에 앞서 참고할 만한 지리지로는 세종 7년(1425)의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있다. 이 두 지리서는 조선전기 지방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지금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기서 ‘경정’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경상도속찬지리지』간관(緊關) 조에는 현재의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포구를 뜻하는 ‘경정포(景汀浦)’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러한 지명의 등장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만한 대목으로는 경정리 마을의 유래와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는 『영덕군향토사』축산면편에 실린 글이다.

조선조 세종 31년(1449)에 영해(寧海)박씨 선비가 월부현(月浮峴)에 올라 지형을 살펴보고 이곳에 마을을 형성하면 참으로 좋다고 김해김씨 선비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한다. 마을 앞에 약 2Km 정도 백모래가 청명한 날에는 금빛을 이루니 마을명을 백불(白沙)이라 칭하였으며 마을 경관이 참으로 아름다워 ‘경정(景亭)’이라 개칭하다가 서기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정동(景汀洞)’이라 하였다. (영덕군 편, 『영덕군향토사』〈축산면편〉, 1992, 372쪽)

『영덕군향토사』에 실린 글은 마을의 유래에 관한 전거(典據)를 밝히고 있지 않아 지리지와 견주어 살피기는 어렵지만, 조선 초에 사람들이 이 근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정황은 경정을 포함한 영해(寧海)지역이 고구려 조 우시군(于尸郡), 신라조 유린군(有隣郡)으로, 이어 고려조에는 예주(禮州), 단양(丹陽), 덕원소도호부(德原小都護府), 예주목(禮州牧) 등으로 불려오다가 고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영해부(寧海府)로 되는 역사적 궤적을 통해서도 이미 사람들의 시간 속에 있던 장소였음을 알게 해 준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영해는 태조 6년(1397)에 진(鎭)으로서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겸 부사(府使)를 두어 다스려지며<sup>15</sup>, 태종 14년(1414)에는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가 된다. 이 무렵 『경상도지리지』(1425)에는 영해도호부의 호수(戶數)가 215호이며, 남자가 1,538구(口), 여자는 1,861구로 총 3,399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해부 토성(土姓)은 박씨, 김씨, 황씨, 이씨, 임씨, 신씨의 6성(姓)이 있다고 한다(『세종실록지리지』).

조선시대 영해부에서 동쪽으로 14리 떨어져 있던 축산포(丑山浦)는 병선 12척, 군사 429명을 거느린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하고 있던 경상좌도의 군사적 요충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했다(『세종실록지리지』참조). 이와 관련하여 경정포(景汀浦)가 『경상도속찬지리지』긴관(緊關)조에 기록되는 것도 당시 동해안에 출몰이 잦던 왜구 등을 방어하는 국방상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 초기 영해부 해안의 국방을 담당하던 축산포를 비롯한 병곡포, 대진포, 경정포 등은 동시에 이 지역의 해산물 산지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오던 해안에 접한 마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 언급된 각 포구들이 현재에도 동해안의 자연·지리적 입지 조건에 적합한 어촌이며, 앞서 언급한 각종 지리지, 읍지나 수산지 등에 보이는 대표적인 토산·해산물이 최근까지도 이들 주요 어촌에서 생산해 오던 물목들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정리라는 마을의 유래는 조선전기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을의 형성에는 영해부의 국방상 그리고 해산물 생산에 주요한 위치를 점하는 장소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경정에 구체적으로 누가 살면서 마을을 일궈나갔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선 후기 마을의 주요 입향조를 통해 그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경정은 조선후기 영조 33년(1757)~영조 41년(1765)간에 각 읍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경상도 영해(寧海) 방리(方里)조에 “경정은 부(府)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또 18세기 후반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한 책인 『호구총수(戶口總數)』경상도 영해를 보면, 당시 경정은 영해도호부의 남면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된다. 당시 남면에는 원호가 635구가 있었으며 인구는 2천1백77명(남 1033, 여1144)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행정구역상 경정리가 속한 영해의 남면을 이루던 마을들의 역사적 추이를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sup>15</sup> 당시 군관 300명, 수성군 80명이 수어하였다.



『호구총수(戶口總數)』 경상도 영해(寧海)(1789년)

남면(南面): 축산육리, 축산진리, 양장리, 차유진경정육리, 경정진리, 고곡리,  
상반포원포리, 하반포리, 부곡리, 칠성리, 복기암웅창리, 대동리,  
백일동부곡리, 원부리, 오금리

『경상도읍지』, 『영해부읍지(1832년경)』, 『영남읍지』, 『영해(1895년경)』

남면: 축산, 양장(羊場), 경정, 차유, 고곡, 반포, 수일정(守一亭), 부곡, 아삼,  
복기암(沃基巖), 웅천, 대곡, 화전

『경상북도 영해군읍지』(1899년)

남면: 축산, 양장, 반포, 경정, 지경, 차유, 고곡, 반포, 수일정, 부곡, 아삼, 복기암, 웅창, 대곡, 화전

영해부는 고종(高宗) 32년(서기 1895년) 영해군(寧海郡)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방침이 결정되었고, 1895년 5월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의 개혁이 단행된 결과다. 영해군은 이 당시 조선정부가 새로이 편제한 23부제 아래 총 337개의 군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때까지도 영해군 아래에 놓여 있던 남면(南面)이나 그 아래의 관할 촌락의 크기나 명칭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 들어 시행된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당시 ‘영해군’은 ‘영덕군’에 통합되었고, ‘남면’은 ‘축산면(丑山面)’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남면의 촌락간 경계도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지역단위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즉 마을 지명은 조선후기 이후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 행정구역의 변화

앞서 문헌자료에 근거한 경정리 마을의 형성과 그 변천은 주로 관찬사료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조선전기, 후기를 거치면서 전개된 사람들의 삶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해서는 문헌과 구술을 통해 경정리의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한결 다채롭게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이 지역의 관심은 ‘경정리’라는 어촌의 생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뱃불마을의 마을민속지를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경정리 뱃불마을은 생업을 기준으로 어촌마을로 볼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동해안의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산물을 통해 삶을 꾸려가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염장들(‘구평들’)에 논을 소유하고 있는 5가구들 중 4가구를 지탱시키고 있는 힘 또한 어업이라고 말할 때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경정리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이 마을은 과거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펼쳐 왔다. 어업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이 안 되었고, 그나마 땅도 없고 아주 못사는 경우가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진술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든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다. 마을민속지 기록을 위해 1년 여를 머물고 마을의 전체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되거나 달리 구술되는 것부터 너무도 많은 세세한 내용들까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발생하였다.

셋째,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거칠게 말해 어촌보다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 전통이 강한 학문적 경향은 그간 어촌을 농촌이 기술되는 방식으로 읊기는 관례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인식을 견어내 보자는 조사연구자들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경정리 마을민속지 기술(記述)에서도 위에서 말한 촌락사회를 이해하는 기본틀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를 보여주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제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한편, 1914년 일제강점기 들어 시행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결과 ‘영덕군 축산면’은 도곡동(陶谷洞), 기암동, 부곡동, 고곡동, 대독동, 상원동, 경정동(경정, 차유, 지경), 조항동, 축산동, 화천동, 칠성동 등 11개 동으로 개편된다. 이에 대해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동리명칭을 보면 아래와 같다.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영덕군 축산면<sup>16</sup> (1917년)

축산동: 양장동, 축산동, 차유동각일부

경정동: 경정동, 오매동, 차유동일부

고곡동: 고곡동, 하반동일부

도곡동: 효촌, 하반동일부

상원동: 상반동, 하반동, 원포동각일부

부곡동: 부곡동, 원포동각일부

화천동: 금천동, 화계동

기암동: 보기암, 아심동, 묘곡면칠성동일부

대곡동: 동로동, 대곡동, 묘곡면조항산동일부

칠성동: 묘곡면 칠성동, 화전동각일부

조항동: 조항산동일부

1917년 동리명칭일람에서는 기존의 읍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 즉, 경정동의 행정구역이 분명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경정리(景汀里) 아래 편제되어 있는 경정1리(경정동), 경정2리(차유동일부), 경정3리(오매동)는 이 당시의 행정체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남면은 축산면이 되었으며, 축산의 이러한 부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군사적 생업적 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감안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해부의 남면이었던 시절부터 축산(丑山)의 존재는 현재에도 대나무로 울창한 ‘죽도(竹島) 혹은 ‘죽산(竹山)’으로 불리고 있는 축산항에 접해있는 산과 인근에 위치한 대소산봉수대를 통해 국방상에서 중요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영덕군에서 볼 때, 축산면의 축산리가 점하고 있는 공간은 이 근방에서 어업과 농업 양 측면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던 곳 가운데 한 곳이었다. 따라서 영해군이 영덕군으로 합병되면서(1914년) 더 이상 남면은 논리적으로도 영덕군의 남쪽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面)의 명칭에 대한 새로운 지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축산면’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축산이 군사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조선후기 들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어업방면의 부각은 또 다른 국면과 마주치는 것 같다. 1908년 일본은 ‘한국어업법’을 발표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어업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종래 한국 궁내부의 직할어장 또는 부호 양반 등의 독점물이었던 중요어장은 널리 한일 양국인에 개방되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어업권의 허가는 한국 거주자에 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통어에서 이주 어촌경영으로 전환 진출하게 된다.<sup>17</sup> 이렇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출어를 조장한 최초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어민들은 조선내의 어업상의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 한국 각지에 일본인의 이주와 거주가 촉발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독려

<sup>16</sup> 축산면이 그 이전에 영해군 남면이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sup>17</sup> 吉田敦市, 『韓國水産開發史』, 朝水會, 1964, 247-248쪽, (여박동, 『일제의 조선 어업지배와 이주어촌형성』 보고서, 2002, 124-125쪽에서 재인용)

는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축산의 중요성도 함께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준다.<sup>18</sup>

영덕군 축산면 사무소는 1914년 부곡동에 있었으나, 1941년 4월 부곡동에서 도곡동 43의 3번지로 옮기게 된다. 1963년 8월 23일에는 군조례 제43호에 의하여 축산면 출장소가 축산항에 설치된다. 1988년 5월 1일에는 군조례 제 972호에 의하여 ‘동’을 ‘리’로 개칭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현재(2007.12.31) 축산면은 축산1, 2, 3리, 경정1, 2, 3리, 고곡 1, 2리, 상원리, 부곡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암1, 2리 등으로 18개리와 10개 법정리, 그리고 33개의 자연부락과 9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문화적 경험의 공유: 이야기 소재와 장소

뱃볼마을에는 현재 두 곳의 마을 제당이 있다. 이 두 곳의 제당과 마을의 제청인 경흥당(景興堂)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윗당’과 ‘아랫당’으로 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짜’와 ‘새짜’ 제당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윗당을 ‘할배당’, 아랫당을 ‘할매당(혹은 할배당)’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명칭에 대한 생각보다 당이 두 개라는 존재가 사실상 이 곳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경험을 대변해주고 있다.

제당의 역사에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반농반어’를 해오던 뱃볼마을의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또 제당은 ‘양반’과 ‘상놈’ 등에 대한 오래된 관념이 녹아있던 시절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저 위에 가면 ‘박씨 터전에 김씨 골매이’ 당이 있어요. 반남박씨라 반남 박씨요. 반남박씨 했는데 그 박씨가 없어요. 이제 뭐 그 후손들 없고 옛날부터 우리가 제사 지냈는데. 옛날에 저 양반, 상놈 이런 식의 제사요. 그런 제사 때, 뱃사람들이가 저기 와서 제사를 못 지내는 거라

<sup>18</sup>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년도별)는 당시 축산리에 거주하던 내지인(內地人)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연장선에서 한국통감부에서 발간한 『한국수산지』(1908) 가운데 축산과 경정에 대한 기록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윗당



요. (그래서) 여기(아랫당)다 당을 모셔 김태상 조부씨가. 그때는 땅도 이거 김태상 조부가 맘대로 했어요. 그 우리 조업할 때, 짬도 그 조부가 맘대로. 농사지는 사람 안 줬어요. 김태상 조부씨가 당(아랫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고기 잡으면 여기 걸어놓고 치성 드리고 했어요. 나중에 고기 안 잡히면 여기 와서 치성 드리고 그런게 고기 잡히니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뱃사람들 잘 안 해요. 고기도 안 걸어요. 안 지냅니다 제사. 그러니 할 수 없이 동네에서 지내주죠. 와서 딱 고대로 채립니다. 오 위에나 어디나 똑같이 합니다. 아침에 제사 꼭 지내고 합니다. 그러기 텃밭에 만일 김태상이 살아계시니까 지내지 그 없으면 안 지냅니다. 일명 '박씨 터전에 김씨 골맥' 이고 여기도 '박씨 터전에 김씨 골맥'. 할아버지가 여기 먹고 저기 먹고 두 군데 오는 식이라. 배불르게 자시는 거라. 그렇다는 이야기라. (유OO, 남, 1937년생)

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로 김태상(남, 1925년생)의 조부는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한편으로 관주(藿主)였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김태상의 조부가 아랫당을 지었다고 진술되고 있지만, 윗당과 아랫당에 대한 이러한 구술을 뱃볼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뱃볼의 아랫당이 어민들의 제당으로 분리되어 나갔고, 그것은 '그다지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는 많은 마을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다. 이것은 뱃볼 사람들에게 농사가 주었고, 어업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호되지 않았거나 바람직하게 간주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윗당과 아랫당은 언제 분리되고 언제 같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일제강점기 뱃볼의 어업과 결부하여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한편, 뱃볼 사람들 중에는 한국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몇 명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맞고 한국전쟁에 출전하여 다친 사람들이다. 그들의 친구나 선배들 중에는 물론 전쟁터에 나가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비록 뱃볼이 당시 동해안의 한적한 어촌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해방 후 어지러웠던 정국의 상황이 마을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비껴가지 않은 전쟁에 대한 짙막한 체험 사례를 실어본다.

**조사자** 여기는 해방 후 좌익 우익 이렇게 있었나요?

**김영진** 영덕에는 해방전 후 빨갱이 세상이었다. 어느 동네든 빨갱이 없는 마을이 없다. 심했다. 영덕이 심했다. 젊은 사람은 모두 빨갱이라고 보면 된다. 얼마 후 잘살게 된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었다. 6.25전까지 전부 빨갱이였다.

**조사자** 이 동네도 좌익이 많았군요.

**김영진** 우리동네는 순 빨갱이다. 우리 산에도 (산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된다. 국방군 순경과 군인들이 빨갱이 잡아다가 때려죽이기도 했다. 6.25 직전까지만 해

도 돌(군인·순경측과 빨갱이) 사이의 갈등이 매우 강했다. 6·25 직전 끌려가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다.

**조사자** 군인과 순경들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나 봐요?

**김영진** 밤에는 순경들이 여기 오지도 못했다. 낮에 내려와서 아는 척을 하면서 이리 저리 다니면서 정보파악을 한다. 누구누구는 어느 집에 논다. 잡아다 끌고 가기도 하고, 반항하면 대창으로 찔러죽이기도 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안다. 국가 기강이 없어서 그랬다. 대한청년단이나 지서에서 나오면 혼난다. 빨갱이라하면 지서 끌려가서 세(혀)가 두발세 발 나와서 맞아죽고 그렇다. 우리 선배들이 2-3살 많은 선배들이 산에서 그런 짓을 했다. 빨갱이들은 동네의 똑똑한 청년들이 됐다고 봐야한다. 그들은 이북에서 김일성이 내려오면 너네들은 다 죽는다, 김일성 만세 등의 사상에 물들었던 것이다. 그런 행세를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낮에는 경찰하고 서북청년한테 끌려가서 맞고, 빨갱이 행세를 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다가 어두워지면 빨갱이가 내려와서 혼낸다. 반항하면 산으로 끌고 올라간다. 산에는 굴 같은 곳에 산다. 곡식도 뺏어가고 그랬다. 우익으로 좌익으로 맞아죽는 셈이다. 말 잘못하면 산으로 끌고 간다. 반의 일을 하면 괜찮다. 저녁밥을 먹고 반별로 10여 명이 어울려서 총을 메고 동네를 돌았다. 식량이나 장같은 거 거두어 주면 괜찮기도 했다. (빨갱이들은) 산에 굴을 파고 낮에는 굴속에 생활했다. 그런데 이들이 북한 사람들이 아니다. 모두 여기 근방 사람들이다.

**조사자** 총을 멘다구요?

**김영진** 우리가 메는 것은 진짜 총이 아니다. 대나무를 까맣게 칠해서 줄을 매고 등에 걸치면 머리 근처까지 올라오는 길이였다. 한 1.5m 정도 된다. 버드나무를 해다가 깎아서 검정 숲이 나 해서 붓으로 까맣게 칠했다. 저녁에 만나오면 안된다. 총마냥 만들었다. 마을을 돌때는 다들 나와서 같이 한바퀴 두바퀴를 돌았다. 많을 때는 한 50여 명 정도 되었다. 20명이 된 적도 있고 그렇다. 순경조차 무서워서 못 온다. 동네 청년이라하면 18살 - 30살 미만 정도가 모였다.

**조사자** 그때 어디서 모였는데요?

**김영진** 동사(同舍). 동사무소(당시 경흥당)에 모인다. 경흥당 마당에 저녁만 먹으면 모인다. 그래가지고 두바퀴 돌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집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 빨치산들은 총도 있고 실탄도 있었다. 청년들은 대창이나 버드나무로 깎아 만든 총모양의 막대기를 들었다. 동네 청년들 중에는 산에 끌려가서 많이 죽었다. 경흥당을 동사라고 해서 동사에 누가 근무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모이는 장소였다.

축산은 지서가 있었기 때문에 축산항쪽으로 그래서 도망간 청년들이 있다. 청년들의 이런 행세는 한 3-4년정도 했다. 4년은 안되고 많이 한 사람은 3년 정도 된다.

**조사자** 그러다가 6.25 났겠네요?

**김영진** 나는 6.25때 21살 정도 되었다. 군대 가서 전쟁을 해야 했다. 38선 이북에도 갔다. 여기 사람들 중에는 강구에서 부산 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이 많다. 내(김영진)의 군번은 0176028이다. 파편을 맞아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그전에는 상이용사였다. 상이용사는 있었는데, 김대중대통령 때 유공자제도가 있어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상이용사로 돼있을 때 그 때는 돈을 못타먹었다. 국가유공자 5급이다. (김영진, 남, 1931년생)

해방 후 공간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한가할 때' 나올 법한 '지나간' 과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이야기를 포함하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전쟁과 같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남성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의 남성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는 마을에 있는 경정수퍼 앞, 경로당, 뒷당 근처의 평상, 경정해수욕장에 마련된 정자각, 그리고 마을 앞 경정항 근처의 일터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기는 주로 논다. 어장, 채낚기 제외하면 뭐 할게 있나. 거의 논다. 채낚기 해도 고기도 많이 안잡히는데. 가격 여기는 같은데, 기름값은 자주 오른다.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것은 더 부담이 되는 실정이니 나가면 손해라고 알고 안 가게 되지. 나는 미역일이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다. (이정록, 남, 1942년생, 어촌계장)

흥미로운 것은 한담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에 모이는 주민들의 그룹은 각기 조금씩 그 성향과 나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선호되는 장소가 다른데, 여름철이 가장 분산된 모습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에는 경로당이 주로 이용된다. 때문에 이야기 소재 또한 장소에 따라서 차별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부분 현실에 밀착한 이야기들이며, 특히 어촌과 어업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회자된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는 이야기들을 이끌어 가는 주민들이 한둘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오수(午睡)를 즐기거나 조용히 풍경을 즐기다가 헤어져 집으로 들어간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각과 시간의 양은 계절과 장소와 모인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 식사 전 경정수퍼 앞에 모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일 볼 수 있는 아침 풍경이다. 1시간 30여 분 동안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배들이 잠은 고기와 고기 수



확량, 어장과 어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과거의 어장일을 할 때 자신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 곳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위한 토론장이 되기도 한다.

아침식사는 늦봄과 여름이 주로 7시 30분에 이루어지며, 초봄과 가을·겨울은 8시에 시작된다. 아침식사 시간이 되면 일시에 이 공간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이 공간은 다시 아침나절 혹은 점심을 마치고 오후시간대에 또 채워지고 흩어지는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있지는 않고 저녁식사 시간 이전에는 헤어진다. 현재(2008년) 경정슈퍼 앞의 도로를 면한 공간은 마을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공유되고 소통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주민들에게 봄철 미역건조(3월-5월)와 가을철 오징어건조(9월-12월)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다. 여기에 대게 판매가 1월 - 4월경에 이루어진다. 3장에서 알아보겠지만, 이 계절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활동에는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2008년) 경정1리 사람들에게 일년 중 가장 한가로운 때는 5월 미역일을 끝내고 9월 오징어 건조일이 시작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약 두 달 반가량 마을 사람들은 평소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거나 한담을 하면서 소일을 한다. 바로 이 기간은 여성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은 뱃불의 주요한 노동력이다. 현재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동해안을 끼고 미역을 양식하는 곳은 영덕군에서 단 두 곳, 경정리와 노물리뿐이다. 이 미역일은 연안의 양식어장에서 ‘땃마선’을 이용하여 미역씨를 감고 미역이 자란 후 미역채취를 하여 항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남성의 노동이 작

1. 마을 노인들
2. 경정슈퍼 앞에 모인 마을 노인들
3. 경정항에 나온 마을 노인들



1



2



3



1. 경로당 앞에 모인 마을 노인들
2. 상노인들이 모여 담소하는 모습
3. 미역작업 중인 부녀자들



용하며 다음 단계는 대부분 여성의 노동으로 남는다. 여성의 노동의 시기가 3월 - 5월에 걸쳐 있다. 이후 가을철 오징어 건조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여성들은 한시름 놓게 된다. 이때 여성 주민들은 주요한 소일거리로 관광이나 여행을 간다. 뱃불마을에서 여러 개의 친목계가 발견되고 또 그들이 모여 5월 말 - 8월 말에 주로 여행이나 관광을 가는 이유도 이러한 노동관행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농촌과는 달리 이곳은 어촌이라서 봄이나 가을에 단체관광 가자고 사람 모으기가 힘들지. 일이 밀리는 시긴데.”라는 말을 곧잘 한다. 사람에 따라 단체여행 같은 것을 다녀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많이 남는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삼삼오오 화투를 치며 논다. 이 때 화투를 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모이는 부류들에 대해서는 9장 ‘여가생활과 놀이’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여성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여성들의 일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주민들에게 관광이나 여행, 또는 ‘여가와 놀이’의 시간 못지않게 ‘일터’는 여성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을 여성들의 일상에서 일터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사실 일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개는 서로 친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일의 성격상 여성들의 일터가 주로 여성들로 이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남성들의 일터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미역나는 철에는 어장일을



하는 남성들이 작업을 하는 마을 앞 공터가 여성들의 일차 건조장이 된다. 그래서 이 무렵 마을 앞 경정항 공터는 분주하고 꽤 차 있다. 여기서 오고가는 이야기는 힘든 노동 속에 심리적 위안이 되기도 한다. 미역 건조장이 각자의 집 마당이나 옥상으로 옮겨지면 ‘함께 일하는 쉽터’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오징어 건조철 여성의 일터 또한 쉽터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징어 건조 작업과 미역 건조 작업이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딱히 오징어 건조철 일터를 쉽터라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 ‘생업과 경제활동’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건조일 또한 주로 여성의 노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곧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통로가 된다. 다만 이 이야기가 반드시 뱃불 사람들의 ‘공동체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같은 혹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일체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 듯 했다.

#### 마을의 변화: 경정항과 길과 교통

20세기 이후 경정1리 뱃불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왔던 큰 동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생업적인 부분에서 농사와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3장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농사를 지어 생활하던 모습이 차츰 사라지고, 어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 ‘넛따’가 당시 경정동의 앞바다(현 장갯불 근방)에 어장을 경영하면서 ‘어장을 꾸미는 기술’이 마을에 보급되는 시기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후 1960년대 말 - 70년대 초반부터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업이 서서히 보급되면서 바다의 이용과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마을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뱃불의 ‘개발’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자연 생태 경관이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업 방식도 마을의 개발과 함께 연동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은 경정항 조성사업과 마을을 관통하는 길의 확충이다.



1. 1970년대 후반 경정1리의 모습과 달무재  
2. 동내산

뱃불은 희고 넓은 모래사장으로 마을 앞 해수욕장이 유명했으나, 마을 앞 방파제와 배를 달 수 있는 항이 만들어진 후 해수욕장은 예전의 풍광을 잃어버렸지요. 과거 주의보가 떨어져도 놀 수 있는 해변은 경정뿐이었고, 항 만들기 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나 현재는 오지 않아요. 당시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청년들이 모두 나와 교통정리를 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여름이 되도 손님이 많지 않아요. (한경섭, 남, 1964년생, 이장)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정항이 1972년 2종어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영덕군과 어민들의 노력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에 따라 경정1리의 흰백사장을 인공적으로 메워서 조성해 나가게 된다. 마을의 어민들에게 배를 안전하게 댈 곳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숙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뱃불의 흰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의 존재성보다 어촌 항구로서의 기능을 위해 차츰 사라져 간다. 지방어항 기본 계획은 2003년 일단 완료가 되었다.

물론 경정은 오늘날과 같은 항이 생기기 이전에도 작은 어촌 항구의 입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던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아랫당과 가까운 곳에서 배를 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인근 마을(경정2동, 경정3동, 석동 등)에서도 현재와 같이 배가 닿을 접안 시설이 마련되기 이전 경정1동을 이용했다고 한다.

본래 조건으로 영덕대계를 잡을 수 있는 마을은 경정1리이나 문헌에 의해 차유마을이 원조 마을로 된거라고 봐. 예전 어른들에 의하면 차유(경정2리)에 대개 하기도 전에 젊었을 때 뚝 단배 타고 나가서 잡곤 했는데 “그는 배달 때도 없고 그그가 먼저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그그는 항 입지 조건도 안 되는데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거지. (박OO, 남)

마을에 인구가 넘쳐 났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이 마을에는 200여가구에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 이러한 인구규모는 1964년 경정동이 경정1동, 경정2동, 경정3동으로 분동되고 나서 얼마 후 경정1동을 다시 경정1동과 경정4동으로 분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물론 경정4동은 법정동은 아니었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 마을 내부에서는 1동과 4동으로 나누는 관행이 생겼

1. 경정1리와 경정2리 사이를 잇는 도로  
2. 경정1리 앞을 지나는 강측도로





설날 무렵의 영해시장(2008년)

다고 한다. 경정1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동쪽을 가리켜 ‘새짜’이라고 하고, 남쪽을 ‘마짜’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새짜’와 ‘마짜’의 구분은 한 마을에 1동과 4동의 동장을 두기도 했다. 정월대보름과 같은 명절날 줄다리기나 ‘경정초등학교’ 행사에서 학부형으로 참가하여 편을 갈라 놀았다. 마을 주민들은 마짜는 농사짓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새짜는 어업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해주기도 했다.

도로시설 및 길과 교통로의 발달은 마을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 현재 경정1리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는 918번 지방도다.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과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일명 ‘강축도로(강구 - 축산)’로 불리고 있다.

이 길은 1994년 무렵 경정1리(뱃불)의 ‘다물’ 방면으로 경정2리(차유)와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되면서 예전에 경정1리 사람들이 염장으로 넘어가던 ‘다불재’는 그 이용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마을의 길에 대해 이인균(남, 1934년생)과 마을 주민들에게 여쭙어보고 조사연구자가 관찰한 바를 정리하여 기술해 본다. 우선 (원)영해권역에 위치한 경정에서 영해장(5일, 10일)을 본다고 했을 때 그 경로를 보자.

현재 경정1리(뱃불)사람들이 ‘영해’로 가는 길은 자가용, 화물차나 (좌석·일반) 버스를 이용한다. 가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도보를 이용하여 영해(寧海)로 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이용하는 길은 918번 지방도가 뚫리면서 ‘뱃불 - 다물 - 차유 마을(경정2리)’을 거쳐 ‘염장 - 도곡(陶谷)(축산면사무소 소재지)’에서 7번국도 구도로를 타고, 영덕아산병원 앞을 지나서 영해로 들어간다. 자가용으로 10여 분 소요된다.

또 하나 영해로 들어가는 길은 ‘뱃불 - 차유마을’로 이어지는 918번 지방도를 타고 ‘경정교(景汀橋)’에서 우측으로 꺾어 축산출장소와 축산항이 있는 ‘축산리’를 경유하여 가는 길이 있다. 이 길은 계속하여 축산출장소-축산항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해안을 끼고 나 있는 7번 군도(郡道)와 연결된다. 군도를 따라 ‘사진2리’에서 ‘망월봉’ 자락의 급한 오르막 경사길을 넘게 되면 영해가 나온다. 자가용으로 15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경정1리 사람들이 영해를 가기위해 ‘축산리’ 축산항 방향을 이용하는 일은 드물다.

이인균(남, 1934년생)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군내버스가 들어오기 전에 경정1리 뱃불마을 사람들이 영해읍내로 가는 주요한 길은 현재 ‘안골’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서 몇 개의 ‘재’를 넘어서 고곡리(古谷里)의 ‘고실(古室)’로 가는 좁은 도보길이었다. 고실에서 다시 도보로 도곡(陶谷)으로 나 있는 신작로를 따라 ‘목골재’를 넘어서 현재 ‘영덕레미콘’자리를 경유하여 ‘영해읍내’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경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경정1리(안골)→안가문골→수태미기→아르신재→윗신재→요물장등(‘용물장디’라고도 부른다)→갈치등→고실→(고곡국민학교 앞)→도곡→목골재→영해읍내’가 된다.

이인균은 해방을 전후하여 고곡에 있는 ‘고실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도 오솔길을 따라 ‘재’를 넘어다녔다고 한다. 그가 영해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도 위에 언급된 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는 영해까지의 거리를 20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시간은 대략 40분-1시간가량 걸렸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시장을 보러 보따리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들이나 지게에 짐을 지고 가는 아저씨들의 경우는 2시간도 넘게 걸린 거리였다고 한다.

한편, 예부터 ‘다불재’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차츰 길이 넓어지게 되면서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을 접하고 이용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는 다불재로 길이 난 이유를 이 지역의 해안으로 통하는 수송로를 위해 육군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버스개통은 아주 오래되었지. 1960년 중반 무렵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땐 염장까지였어. 그래서 (영해)시장에 갈 때는 걸어서 고개(달부릿재)를 넘어 버스는 염장가서 탔어요. 여긴 아직 차 못다녔으니까. 염장가서 타아지. 내가 창포 올 때(1974년 무렵)는 차가 다녔다. 월부령재로 해서 강축도로가 하루에 두 번 세 번 버스가 땡긴거 같아요. 내가 (어촌계장)할 때, 그때 도로가 시작되었던 것 같고, 길은 군인들이 시작했는 걸로 안다. 길은 1-2년 만에 끝나더라. 문태준국회의원(제7대 국회, 1967.7.1-1971.6.30)과 최명신 장군하고 연결되어서 군사용 도로를 났다고 들었다. 그래가 도로가 시작되었다고. 80년대는 이미 나있었고 도로를 넓히는 작업이 진행되던 때지 그때는.(박노갑, 남, 1934년생)

지금도 마을 인근에는 해안을 끼고 서있는 군인들의 초소가 보이기도 한다. 이





초소들의 상당수는 지금 빈 곳으로 남아 있지만, 수시로 마을로 군인을 실은 차량이 이동하거나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석동'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불재가 군사작전도로로 활용되었음은 지금도 알 수 있을 법하다. 다불재가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군내버스나 다른 이동수단이 될 만한 차량이 직접 마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고실'로 넘어가는 도보길의 이용이 잦았다. 다만 다불재가 넓혀지면서 축산천이 흐르는 염장의 너른 들이나 축산리 축산항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한다. 즉 다불재는 918번 지방도가 생기기 전까지 경정1리에서 축산으로 통하는 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다불재를 넘어 염장의 축산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도보로 영해로 가기에는 선호되던 길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편 1970년대 초반까지 영덕읍내로 가는 길은 앞서 영해로 가기위한 길과 비슷하다. '경정1리(벉불안골)→안가문골→수태미기→아르신재→윗신재→요물장등(‘용물장디’라고도 부른다)→갈치등→고실'로 가기까지는 동일했다. 그 이후 고실에서 영덕읍내까지는 현재의 7번국도(구도로)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나있던 도보길 혹은 버스를 이용하였다. 버스가 염장에 들어올 무렵에 영덕 가는 길은 염장에서 버스를 타는 방법이 선호되었다. 또 하나의 길은 군사용 도로로 시작한 918번 지방도로(강축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오보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지금의 매정교차로로 나와 7번국도로 합류하는 길도 있어 아주 드물게 이용되었다고 한다. 918번 해안도로가 발달하기 전 경정으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은 영덕읍이나 영해읍을 거쳐 염장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다불재를 넘어 마을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지금도 쉽게 들을 수 있다.<sup>19)</sup>

<sup>19)</sup> 참고로 현재 2008년 영덕과 대구, 영덕과 동서울간 고속버스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또한 영덕에서 경정리간 군내버스 시간표도 첨부한다.

〈고속버스 운행시간표〉

영덕-대구	영덕-동서울	동서울-영덕
10:25	06:40	07:00
12:11	07:40	08:00
13:45	09:20	09:30
14:35	10:50	11:00
16:15	12:40	13:00
17:05	14:30	14:30
17:55	15:30	15:40
	16:40	16:40
	18:30	18:00
직행고속	직행고속	직행고속

〈영덕↔경정리간 군내버스 운행시간표〉

영덕-경정		
08:00	08:40	10:30
12:00	14:30	16:00
일반좌석		

\*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노선에 따라 바뀐다.





## 2 가족과 친족

마을의 인구  
통혼과 가족의 구성  
친족의 형성과 활동





# 인구

현재(2008.8.1) 경정1리에는 164가구에 351명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남성은 157명이고 여성은 194명이 살고 있다.

경정은 가파른 경사면에 형성된 동해안에 위치한 대부분의 어촌과는 다르게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 경정1리 뱃불마을의 면적은 0.72km<sup>2</sup>으로 비록 인근에 위치한 경정2리(차유마을, 2.62km<sup>2</sup>)나 경정3리(오매마을, 0.94km<sup>2</sup>)보다는 넓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주거지를 꾸미기에 알맞은 지형이라서 가구수와 인구가 두 마을보다 월등히 많다. 아래의 [표 1]은 경정동이 경정1동과 경정2동 그리고 경정3동으로 분동된 이후 영덕군에서 매년 작성한 통계연보를 기초로 경정1리의 가구와 인구

[표 1] 경정1리 가구 및 인구

연도	인구			
	가구	계	남	여
1964.12	198	1,140	591	549
1965.10.13	194	1141	590	551
1967. 1. 1	194	1141	590	551
1967.10. 1	216	1105	559	546
1968.10. 1	203	1108	563	545
1970.10. 1	193	1060	525	535
1972.10. 1	193	1076	535	541
1974.10. 1	191	1062	538	524
1976.10. 1	201	1075	549	526
1977.10. 1	201	1053	535	518
1978.10. 1	196	1024	506	518
1979.10. 1	191	909	416	493
1981.10. 1	187	827	407	420
1983.10. 1	178	807	388	419
1985.10. 1	184	720	342	378
1987.10. 1	179	646	299	347



연도	인구			
	가구	계	남	여
1988.10.1	174	635	302	333
1989.10.1	173	630	298	332
1990.10.1	172	632	296	336
1993.12.31	168	538	249	289
1994.12.31	171	534	251	283
1995.12.31	168	510	239	271
1996.12.31	169	485	215	270
1997.12.31	173	467	209	258
1998.12.31	175	474	220	254
1999.12.31	169	454	211	243
2000.12.31	171	437	201	236
2001.12.31	166	419	193	226
2002.12.31	169	423	193	230
2003.12.31	165	401	186	215
2004.12.31	168	399	180	219
2005.12.31	167	396	173	223
2006.12.31	165	366	162	204
2007.12.31	162	348	153	195

\* 영덕군, 『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연보는 작성한 다음해의 연보로 발행되고 있다.

\*\* 『통계연보』에는 그 이전년도의 기록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기록하지 않았다.

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통계자료는 정정1리의 가구와 인구수가 1967년을 정점으로 가구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수의 변화보다 인구의 급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산업화 시기 인구의 유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의 인구비율에서는 1978년과 1979년을 기점으로 거주 인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있다.<sup>01</sup> 이러한 흐름은 그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한편, 영덕군 통계연보에는 두 차례(1967년, 1968년)에 정정1리의 가구수를 농가(農家)와 비농가(非農家)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1967년 연보에는 194가구 중 농가가 119가구이고 비농가가 75가구였으며, 1968년 연보에는 216가구 중 농가가 116가구이며 비농가가 95가구로 기록되고 있다.<sup>02</sup> 두 해에 걸친 기록이기는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농가의 수는 감소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전환기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2008.8.1) 정정1리에는 164가구에 351명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남성은 157명이고 여성은 19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거주 인구를 성별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 [표 3]과 같다.

<sup>01</sup> 인구통계를 볼 때 특이한 점은 1978년과 1979년 한 해 동안 남성의 수가 90명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sup>02</sup> 1967년 『통계연보』(1967. 1. 1)의 기록은 1966년 『통계연보』(1966. 10. 13)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는 1966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즉 이 당시 통계연보에서 농가와 비농가의 기준이 무엇이며, 비농가를 '어업을 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표 2] 연령대별 여성인구

(출생년 기준)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4명	18명	33명	38명	37명	21명	4명	15명	14명	10명

[표 3] 연령대별 남성인구

(출생년 기준)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0명	3명	33명	29명	26명	21명	11명	18명	11명	5명

이들 연령대별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129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전체 경정1리 인구의 36.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척은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인구 비율이 높고 인구유입 요인이 젊은 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당분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마을의 노인들
2. 교회활동을 하는 마을 노인들
3. 경흥당에서 회의를 하는 마을 노인들



특히 이러한 고령화는 남성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들에게서 ‘중노인’과 ‘상노인’의 구별을 낳고 있다. 경정1리에서는 중노인은 경정경로회 가입조건인 65세 이상에서 75~77세 정도에 이르는 노인을 말하고, 상노인은 75세 이상 혹은 80세 이상의 노인을 암묵적으로 가리킨다. 중노인과 상노인을 편의상 나이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일상의 행위 속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이면서 구분되기도 한다. 가령, 경로회관을 이용할 때라든가, 화투를 칠 때, 어린아이들의 유모차를 변형한 ‘똥똥이’ 구루마의 사용유무, 머리수건을 쓰느냐의 유



1. 경정1리 경로회 회의 모습  
2. 화투를 치며 소일하는 여자 노인들

무, 생업에 종사하는 방식의 차이 등에서 나타난다.

경정1리 경로회관은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로회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나있는 큰 직사각형의 방은 남성의 영역이다. 입구에서 정면(가운데)과 왼쪽에 붙어있는 방은 여성이 사용하는데, 방의 크기는 남성의 공간보다 작다. 가운데 방은 상노인들이 사용하고 왼쪽 방은 중노인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중노인방에서 상노인방으로의 선택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정한 방식은 없지만, 혼자 선택하기보다 나이가 서로 비슷하면서 젊어서부터 동리에서 친하던 여성들 몇이 함께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평소 중노인방의 노인들은 화투를 치며 소일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일이 없을 때는 중노인방을 찾고 있지만, 미역철이나 오징어철에는 ‘재미삼아’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노인들이 많다.



1. 소일삼아 함께 모여 지내는 노인들  
2. 점심식사 하는 노인들

이에 비해 상노인들은 일하기조차 힘든 연령대이기 때문에 화투를 치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 주로 누워있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가벼운 군것질을 하는 정도다. 그런데 상노인들이라고 하여도 7월과 8월 중순에 걸쳐 바닷가 해안으로 많이 밀려드는 천초(우뭇가사리)를 줍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예전만 못한 양이고 또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나 중노인들은 기피하고 요즘은 상노인들의 차지가 되고 있다.

1. 유모차(일명 돌돌이)를 앞에 두고 쉬는 상노인들
2. 경정1리경노화관앞에 놓여 있는 유모차들
3. 유모차를 끌고 가는 상노인
4. 천초 채취 중인 상노인들





한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상노인인 경우가 많다. 유모차를 ‘구루마’라고도 하는데, ‘뽕뽕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부른다. 이것은 실제로 상노인에 이르러 허리가 굽고 아픈 할머니들에게 지지대 역할과 함께 이동을 할 때 힘을 덜어주기도 하여 선호되고 있다. 그래서 도회지에 나가서 사는 자녀들은 쓰다가 버리기 아깝거나 남은 유모차를 보내주기도 한다. 상노인들 중에는 ‘뽕뽕이(유모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사람들도 있다. 조사연구를 통해 관찰한 바로는 평소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도 상노인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았다.



## 통혼과 가족의 구성

촌락내혼율은 22%, (경정)리내혼율은 28.8%, (축산)면내혼율은 30.5%, (영덕)군내혼율은 75.4%, (경상북)도내혼율은 83.9%가 된다. 따라서 경정사람들의 통혼은 군내혼(郡內婚) 단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 내 약 30여 가구에는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으로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장에게 노인연금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한 달에 8만 5천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부로 살고 있지만 독거노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늙어가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서로 만나서 혼인을 하였으며, 경정에 살게 되었을까?

혼인을 중심으로 가족을 설명해 본다면, 가족은 부부(夫婦)를 중심으로 그 근처인 혈연자들이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는 경정에 살고 있는 부부들의 혼인망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부의 혼인 형태를 살펴 보겠다. 동해안 어촌의 혼인형태에 대해 경정 출신의 남자와 출신지별 여성의 혼인율을 한 일본인 연구자<sup>03</sup>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계산한 바 있다.

위의 표 4를 보면 촌락내혼율은 22%, (경정)리내혼율은 28.8%, (축산)면내혼율은 30.5%, (영덕)군내혼율은 75.4%, (경상북)도내혼율은 83.9%가 된다. 따라서 경정사람들의 통혼은 군내혼(郡內婚)단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정리 사람들은 군내의 어떤 마을 사람들과 혼인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오꾸마(奥間葉子, 1996, 112쪽)’는 아내의 출신지를 살피고 있다.

경정리의 통혼권역을 ‘군내혼’으로 보면서 경정리로 시집을 오는 신부의 출신 지역을 위의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어촌의 혼인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오꾸마(1996, 112쪽)는 “해안(어촌)사람들은 해안

03 奥間葉子, 『韓國漁村における「村落統合」の社會人類學的研究-日本の事例との比較から』, 東洋大學大学院 社會學研究科社會學專攻 博士學位論文, 1996, 111쪽

[표 4] 행정단위로 본 통혼권

단위: 사례(%)

夫 妻	總數	景汀	景汀里	丑山面	盈德郡慶	尙北道	道外
總數	118 (100.0)	30 (25.4)	8 (6.8)	2 (1.7)	53 (44.9)	11 (9.3)	14 (11.9)
景汀	110 (94.1)	26 (22.0)	8 (6.8)	2 (1.7)	53 (44.9)	10 (8.5)	11 (9.3)
景汀里			-	-	-	-	-
丑山面			-	-	-	-	-
盈德郡	2 (1.7)	1 (0.8)	-	-	-	-	1 (0.8)
慶尙北道	3 (2.5)	1 (0.8)	-	-	-	1 (0.8)	1 (0.8)
道外	3 (2.5)	2 (1.7)	-	-	-	-	1 (0.8)

[표 5] 아내의 출신지

단위: 사례(%)

	경정	경정리	축산면	영덕군	계
농촌	-	-	2	11	13
어촌	26	8	-	42	76
계	26	8	2	53	89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고, 내륙부(농촌) 사람들은 어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관례를 재확인해주는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비록 영덕군 지역의 농촌에서 어촌으로 시집을 가는 여성의 경우는 잘 아는 지인의 연줄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매의 형태이며 혼한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는 일정부분 농촌과 어촌간의 ‘양반’과 ‘상민(상놈)’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혼인사례를 통한 통혼권과 혼인에서 드러나는 농촌의 심리적 우월의식에 대해서는 2008년 경정1리의 조사연구에서도 일정부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 소개된 사례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멈추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당시 이미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던 경정1리의 인구유출을 고려해 볼 때, 통혼권은 영덕군을 훨씬 벗어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결혼을 하여 이곳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 어귀마의 연구를 비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구하던 무렵 연구서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옮겨볼까 한다.

## 동네혼

경정1리 뱃불마을에서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결혼했지.”라고 대답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경정1리가 농사를 위주로 하되, 어업이 활기를 띠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동네에서 짝을 찾는 경우가 생기는 이치라고 마을사람들은 설명하곤 한다.

이러한 동네혼 즉, 경정1리의 남성과 경정1리에 사는 여성이 만나 혼례를 하는 경우는 앞서 「오꾸마(奥間葉子)」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무렵에 26쌍이 보고된 바 있다. 쉽게 말하면 동네혼은 같은 동네에서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 혼인을 하거나, 또 동네의 양가(兩家)에서 서로 혼약을 맺어 결혼시키는 일로 인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록(남, 1942년생, 어촌계장)의 경우도 부인 박정자(여, 1943년생)와 동네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정록·박정자 부부



예전에는 (동네혼이) 더 많았다. 나는 중간 즈음에 해당할 걸. 결혼은 69년도에 했는데 그 때 내가 27살 때, 집사람은 26살이었지. 보통 한집에 6~7명씩 살던 시절이었어. 당시는 이 동네에서 (서로) 아는 거야 알지만, 안 가본 집도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 만나냐 하면 그때는 놀면 방하나 얻어서 ‘아엠 그라운드’ 하다가 결혼하고 그랬지. 동네가 컸어. (이정록 제보)

현재(2008년) 경정1리 뱃불마을에서 동네혼을 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26가구에 이른다. 물론 이들 가운데서는 사별자 가구도 포함된다.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박명두, 권봉도, 이정록, 이복란, 최건일, 이대우, 최수룡, 최부식, 김옥출, 남영팔, 박항로, 김병태, 유진수, 김정식, 이춘식, 이종수, 김병철, 이정달, 이종근, 유은중, 김성일, 서한도, 김세권, 유길중, 이정록(여, 부녀회장), 이태상-이상 26가구. (이정록 제보)

‘동네혼’을 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던 마을의 비공식적 모임의 성격을 갖는 계, ‘찬밥계’에 대해 이정록 어촌계장으로부터 들은 바를 조사연구자의 시각을 통해 옮겨보고자 한다.

찬밥계는 일명 ‘식은밥계’라고도 한다. 그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처갓집이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처가에 가면 (장모가) 닭을 잡아 주기는커녕 (장모에게) 따스한 밥 한 공기 얻어 먹기도 힘들고, 그나마 식은 밥이라도 있으니 먹고가라는 식의 대접을 받기 일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찬밥계는 장모한테 ‘웁은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본 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정록(남, 1942년생, 어촌계장)은 1969년에 동네에서 한살 어린 신부를 맞아 들였다. 그에 따르면 “그때만 하더라도 동네 처자와 어찌어찌 하여 결혼을 한 사람들만 해도 30쌍도 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1년 무렵 같은 동네의 김병철, 박항로, 김정식, 이정록 등이 주축이 되어 “한동네에서 결혼 한 사람끼리 계를 모으자.”하여 지금의 찬밥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찬밥계가 만들어질 무렵(1981년), 이 마을에는 187가구, 인구수 827명(남 407, 여 420)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찬밥계회원만 40명이 넘었으니, 적어도 20쌍 이상은 모인 셈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간단했다. 그것은 동네혼을 한 남성을 위시한 부부들이 지난 세월 받아 왔던 찬밥신세를 위로하며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 모임이 아니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여기저기 관광은 가고 싶은데 관광버스는 대절해야겠고 부부 동반이면 더할 나위 없는데, 각출한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구실을 찾던 중에 ‘찬밥계’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마을 내의 비공식적 모임이나 계의 성격이 그러한 이유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동네혼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또 관광이라는 매력적 자극제가 없었다면 찬밥계는 없었을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 지역의 특이성이 현상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81년 이전이나 그 전 세대에는 찬밥계가 있었을까? 없었다. 그러나 그 이전 동네혼 남성들 또한 처갓집에 찬밥신세였던 것은 그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찬밥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어촌계장의 부인이자 찬밥계 총무를 오래 맡아 온 박정자(여, 68)에 따르면 “잘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작년(2007년)에는 관광을 다녀왔지만, 올해(2008년)에는 모임이 구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동네혼을 한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 마을에는 여전히 26쌍(사별자 포함)의 동네혼 기혼자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 관광하기에 좋은 청춘은 아니라는 점일 수도 있고, 또 마을에서 ‘동네혼’이 일어나

지 않는 상황에서 ‘동네혼’이 혼인의 형태에서 결락되었다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찬밥계는 더 이상 잘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동네혼이 남긴 유산은 복잡하고 이루 말하기 힘든 마을 내의 친족구조를 만들었고 어촌사람들 속에 내재한 ‘친한 사이’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되고있다.

아래는 동네혼을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성 중심에서 듣고 옮겨본다.<sup>04</sup>

친정은 경정1리다. 신랑이 좋아서 경정에서 시집갔다. 연애를 했다. 동네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시집오고 그랬다. 옛날에 농사로는 논은 없고 밭이 조금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업일을 조금 했다. 어머니는 오징어 일과 미역일을 했다. 23살 때 시집을 갔다. 형제는 6남매다. 친정어머니가 이 마을에 산다.

친정은 경정1리다. 동네에서 만났다. 연애혼이다. 25살에 결혼했다. 자식은 딸 둘, 아들 하나. 아들, 딸, 딸이다. 지금 아이들은 서울에 산다. 며느리도 서울에서 만났다고 한다. 직장생활하다가 만났다고 한다. 아들은 올해 42살이다. 비깅어르신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런데서 ‘배 짝’하고 그랬다. 아이들이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동네가 고향이다. 성이 김씨다. 김OO이다. 자녀는 1남 1녀고 결혼은 26살에 했다. 그때는 늦다고 했다. 이 동네분을 만났다. 중매를 했다. 이OO가 남편이었다. 52살에 돌아갔다. 지금 74살이 된다. 아들은 부산 직장 다니던 때고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갔다. 원래 우리집 아저씨가 아들이 귀하다. 3대 독자다. 아들을 못 낳아서 점쟁이에게 많이 빌었다. 물으면 이거해라 저거해라 했다. 딸 낳은 이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어전스럽다.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귀해서 딸을 위해서도. 지금 딸이 36살, 아들이 45살이다.

아들은 딸 셋만 낳았다. 아들은 없다. 그래도 자식은 많으면 좋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딸은 8남매 있는 집으로 시집갔다. 아들 넷 딸 넷이라고 하더라. 나는 딸을 귀하게 키웠다. 지금 딸은 영덕에서 산다. 영덕읍에 산다. 할 일은 특별한 것 없이 봉사활동으로 바쁘다고 하더라. 아키우면서 놀라고 하니 심심코해서 하는 모양이다.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런 것 같다.

#### **제보자 :** 이복란(여, 1934년생)

이 곳에서 태어났다. 친정이 여기다. 친정은 경주 월성이씨다. 아버지는 이사숙이시고, 어머니는 김상복이시다. 8남매(3남 5녀)를 두셨다. 이두성이 친척이다. 돌아가셨다. 이종수도 친척이다. 우리 동생댁은 김정례, 김태성이 둘째 동생이다.

(우리집은) 이인균 씨덕 위에 터가 커다랗게 지어놓고 살았다. 지금은 헐렸다. 이인균 씨와면 일가이다. 밭이 큰 것이 있는데, 터가 그곳이었다. 우환으로 그 전의 집을 팔았다. 그러다가 조그만한 집을 새로 지어 내려왔다. 이두성은 거기서 살다가 새로 지었다. 집을 새로 지을 무렵 분가를 했다. 이복란 씨가 시집온 때는 21살이었다.

<sup>04</sup> 제보자는 모두 여성이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제보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가급적 읽기 편하게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친정은 발농사. 발농사가 많았다. 소도 많이 먹었고, 논도 많았다. 우리는 농사를 많이 했다. 집에서 한 마리 키우고 남은 두 마리 주고 있었다. 바깥어르신(고 김두준)은 정치망도 크게 했다. 책임자였다. 소는 옛날에는 남을 줄 수도 있다. 남을 빌려주니까 송아지 놓으면 갈라놓고 하데요. 그 때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논은 염장에 있고 개울가(안골)에 있었다. 꽤 잘살았다. 좀 살았다.

농사를 지어 세 명 포항에서 공부하고 하나는 영덕에서 공부시켰다. 고등학교로. 동지상고 영덕 농고(둘째). 정치망한다고 논과 밭을 팔았다. 정치망으로 손해를 보았다. 옛날에서는 쥐치를 많이 잡았다. 김병철, 유길중, 이두성 등 어울려서 정치망 크게 했다. 돈을 많이 부었다. 정치망은 큰 배가 두대였다. 처음에는 노를 저었다. 발동기가 나중에 나왔다. 뚝단배로 저어다니기도 했다.

시집은 김해김씨다. 바깥어르신은 김두준이다. 바깥양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다(당시 63세). 살아있으면 78살이다. 후두수 수술하다가 돌아가셨다. 포항 성모병원에서. 병원에서 자신했으니 마취가 깨지 않았다. 전신마취. 자식은 육남매였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이다. 넷은 포항에 있고, 둘은 서울, 딸은 포항, 첫째 둘째 막내 그리고 딸 이렇게 네 명이 포항 산다. 셋째와 넷째는 서울 산다. 막내아들은 37살이다. 포항 호텔에 근무한다.

시집 오니까 시어른, 시동생, 아들 네 명, 딸 하나가 있었다. 시집은 오남매였다.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시할머니 있었다. 시집왔을 때, 7-8명이 살았다. 시아버지는 김석봉이다. 살아계셨을 때, 문장이었다. 집안일을 많이 보셨다. 지금 집안일은 8촌 시숙인 축산에 계신 분이 본다. 현 시대는 얹혀놓고 몇 대 몇 대 가르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그렇게들 어르신들이 가르쳤다. 해전산소(마을 김해김씨가 묘들이 있다)에 모이면 20여 분 정도 된다. 시아버지 형제는 서울, 진해, 대전에 있다.

현재 이 동네 연고가 있는 분은 고 이두성 부인 김정례, 고 이종수 부인 김태성. 이수정 씨와는 5촌 당숙간이다. 추석에는 친정동생댁 김정례 씨댁에 모인다. 포항 있는 맏이와 둘째하고 추석에 벌초하러 온다. 공동묘지에 묘가 있다. 해전산소에도 벌초하러 온다. 13일은 해전산소로 집안 모두가 모여서 한다. 해전산소는 집안의 큰 산소인데, 안골 오징어공장 그 앞에 있다. 고 김정식 씨 창고 지어놓은 곳 바로 뒤에 묘가 있다. 친척들은 부산, 서울, 대구 등지에 있다. 음식장만은 부인회 회장(이정록, 여, 1952년생)이 8촌 동서인데, 마련한다. 이정록 부녀회장님의 남편은 고 김수길이다. 이복란 씨의 남편과는 8촌 관계다. 친정에서도 8촌, 시집에서 8촌이 된다. 먼 집안 8촌은 아직도 이 동네 있다.



## 친족의 형성과 활동

현재 경정1리 뱃불마을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는 이씨들이다. 모두 37호 가운데, 경주이씨들은 32호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경주 월성이씨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을에서는 익재공파, 백사공파, 상서공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뱃불마을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마을 주민들은 동신을 가리켜 '박씨 터전에 김씨 골맥이'라 한다. 주민들은 설촌조로 간주되는 영해박씨와 김해김씨의 입촌조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정월보름과 단오 그리고 시월보름 세 차례에 걸쳐 제당에 설촌조를 모시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 제당에 제를 지낼 때 제청으로 쓰이는 경흥당(景興堂)에 남아 있는 경흥당기(景興堂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록을 글로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전문과 해석을 덧붙여둔다.

경흥당





## (전문)

### 景興堂記

東海之上 北山之下 有翼然新築者 乃景汀里祭神之堂也 堂成 朴承福金昊榮諸人請余爲記 曰景之爲里 殆不可計年 設壇祀神 亦不知昉於何代 而以朴氏爲奠基之神 以金氏爲洞主之神 設有兩壇 一 曰陸壇 一曰海壇 陸人祭陸壇 海人祭海壇 至於挽近 陸海通祭 然露地行祀 實爲未安之甚 故一洞協議 鳩財竭力 構兩神閣 奉安神主 又築數間祭堂 爲永久致誠行祀之地 余曰 里之有社 古矣 古者以神爲萬能 故自天子至於庶人皆有事神之節 如國有國社 鄉有鄉社 里有里社 是也 凡天災時變 吉凶禍福 興亡盛衰之運 唯神是仰事 祀之必誠必敬 而後世因之爲終古不易之定例逮 夫西潮東瀾科學昌明 則以神爲不必崇奉 而無神之論 亦起矣 然其所 因深 而所關大者 不可一概論也 鄉國之社 旣屋矣 無論已至於里社 則尙自若可見古道之一班 而惟 茲景汀 濱海爲里 居人稠廣 或農或漁或工或商 各 自治生而陰陽風雨之變 海嶽淘汰之患 瘡痍侵凌之憂 有非人力可免 故其於事神之道 極盡誠敬而無少解弛 以今觀之可謂渺茫甚矣 然心者萬事之本 誠者一心之主也 苟一其心而致其誠 則神明感通 災變爲祥 凶變爲吉 禍變爲福 不然則反 是誠之爲用大矣哉 先聖云 有其誠則有其神 無其誠則無其神 至哉斯言景人蓋有見於此乎 旣建祠而奉主更築堂而致齋 吾知景之里 將自此而必有振興昌大之日也 斯爲記

丁丑四月下泮眞城李炳斗

### 勤務錄

主事者 朴承福 金昊榮

有志者 朴承益 崔千年 劉永秀

金文學 李重九 黃學先

李弼榮 金鍾述 金井謙

區長 李曦榮

## (해석)

### 경흥당기

동해가 바라보이는 북산(북행산을 의미함-역자주) 아래 나래를 편 듯 새로 지은 당집은 경정리에서 신을 모시는 집이라. 당집을 만들고 박승복, 김호영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나에게 경흥당기를 지어 달라고 하였다. 하기에

“경정이 마을을 이룬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제단을 만들어 신을 모신 것 역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구나. 박씨는 이 터의 신을 모셨고, 김씨는 이 마을의 신을 모셔왔도다. 두 개의 단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육단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해단이라 하였다. 물사람은 육단에서 제사지내고 바닷가 사람은 해단에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까지도 육지와 바다 모두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러

나 노지에서 제사를 모시려 하니 그 불편하고 그 성의를 다하지 못함이 심하였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재물을 모으고 힘을 써서 두 신을 위한 제각을 세우고 신주를 모셨다. 더불어 몇 간의 제당을 세웠으니 영원토록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모시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마을에 신을 모시는 곳은 고대부터 있었다. 옛날에는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천자로부터 못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을 모시는 법절이 있었다. 나라에 국사가 있고 고을에 향사가 있고 마을에 이사(里社)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 흥망성쇠의 운은 오로지 신에게 기달 일이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만 했다. 그러나 후세에는 이러한 근본도 종말이 와서 옛날에는 바꿀 수 없었던 법식에도 미치게 되었구나. 서양의 물결이 동으로 번져 과학이 창성해지니 신을 받들 필요가 없다 하고 신이 없다는 말도 나오게 되었다. 하나(제사를 모시는 일은) 그 유래한 바가 깊고 관계된 것도 커서 단번에 누를 수는 없도다. 향사와 국사는 이미 집을 갖추었으니 말할 것도 없지만(경정리)이사에서 오히려 옛 법도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경정리는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었으며, 여기에 사람 또한 많아 어떤 사람을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수공을 하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여 각자 생업을 이루고 있다. 일기와 비바람의 변화나 바다와 산이 넘치고 무너지는 근심과 질병이 창궐하는 걱정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도다. 그러하니 신을 모시는 방도는 정성과 공경을 극진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해이해서는 안된다. 지금 보니 아득함이 끝이 없도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며, 정성은 마음의 중심이라. 비록 하나라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신명은 이를 알 것이니, 재앙의 기운이 변하여 상서로움이 되고 흉한 것이 변하여 길한 것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리니 정성을 다한 결과가 클 것이다.' 성현이 말하기를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신의 영험이 있을 것이요,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신의 영험도 없을 것이다(論語 八佾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范氏注)'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뜻이로다. 경정리 사람들은 모두 이 뜻을 잘 알도록 하라. 이제 사당을 지어 신주를 모셨고 또 경흥당을 짓고 치재를 하게 되었으니, 경정리가 장차 크게 떨쳐서 번창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겠도다."라고 경흥당기를 짓는다.

정축년(1937) 4월 하순에 진성후인 이병두

위의 전문에서 “박씨는 이 터의 신(奠基之神)을 모셨고, 김씨는 이 마을의 신(洞主之神)을 모셔왔도다. 두 개의 단(兩壇)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육단(陸壇)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해단(海壇)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sup>05</sup> 뱃불에서 두 설촌조를 각기 터신과 골맥이신으로 모시고 있으나, 이 두 신은 입촌 순서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sup>06</sup> 그렇다면 박씨들의 입촌시기와 김해김씨들의 입촌시기는 언제인가가 관건이 된다. 후술하겠지만, 영해박씨의 경우는 조선의 제11대 왕인 중종(1506-1544 재위)연간에 태어나서 이후 진천군수(鎭川郡守)를 지낸 박인보(朴麟寶, 1535 - ?)라는 사람이 16세기 후반에 뱃불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김해김씨의 입향과 골맥이신을 모시게 된 경위에 대해 경정1리에 살고 있는 최중식(남, 1933년생)은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sup>05</sup> 육단과 해단에 대해서는 '마을에는 '뿔당'과 '아랫당'이 있는데, 뿔당이 먼저 세워졌다. 향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의 방파제 자리에 뿔단배를 정박했었는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어민을 위한 당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따로 아랫당을 만들게 되었다.'(유은중, 김귀천 제보)

<sup>06</sup> 현재 뱃불의 설촌조로 알려져 있는 박씨와 김씨는 영해박씨와 김해김씨로 간주된다. 이는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최근 까지도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해김씨가 1790년경에 입촌하여 약 6, 7년이 경과한 다음에 터신보다 낮은 골매이 동신을 박씨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들에 의하면 김씨들이 많은 공을 들인 다음에야 골매이 동신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박씨 터전에 박씨 골매이’에서 ‘박씨 터전에 김씨 골매이’로 변경되었다.<sup>07</sup>

위의 글에 나타난 김해김씨의 입향시기와 영해박씨 입향조를 함께 생각하면, 박씨가 16세기 후반이고 김씨는 이보다 200여 년 뒤인 18세기 후반에 입향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 200여 년 뒤에 입촌한 김씨들은 뱃불에서 골매이신을 모시게 되기까지 박씨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동신의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런데 앞선 장에서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경정의 입향조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았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뱃불의 구성원을 이루어왔다고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마을의 타성씨들은 상대적으로 영해박씨나 김해김씨들에 비하여 마을에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에서 덜 중요했는지라도 그들을 조상으로 모시는 후손들은 여전히 이 마을에서 친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경정1리의 설촌조를 통해 마을의 성씨와 친족의 이야기를 이끌어 보았다. 사실 현재는 마을을 이끌어 왔다고 여겨지는 영해박씨와 김해김씨들이 타성씨들에 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경정1리에서의 문중조직의 질서는 매우 약화되어 있으며, 같은 종족 성원들의 중심적인 활동은 묘사와 별조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현재(2008년) 경정1리를 구성하는 주요 성씨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표 6] 경정1리의 주요 성씨<sup>08</sup>

단위: 호

연도	경주이씨	김해김씨	강릉유씨	영해박씨	경주최씨	안동김씨
1990년	43	39	20	16	17	8
1995년	45	38	18	14	9	10
2008년	32	20	11	10	6	6

현재 경정1리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는 이씨들이다. 모두 37호 가운데, 경주이씨들은 32호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경주 월성이씨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을에서는 익재공파, 백사공파, 상서공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상서공파는 경주이씨 37대손들이 추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장수(남, 1940년생), 이정록(남, 1942년생), 이우천(남, 1943년생), 이창근(남, 1965년생), 박옥분(여, 1938년생), 권을임(여, 1934년생) 등의 집안들이 여기에 속한다.

<sup>07</sup> 최중식, 1999, 「축산면 경정1리의 최중식 이야기」, 『영덕문화, 제10집』, 영덕문화원, 263쪽

<sup>08</sup> 마을의 성씨 조사의 문제점은 호주승계가 뒤편에 이어진 가구의 경우다. 예를 들면 어떤 가구의 자식들의 성씨가 월성이씨인 경우, 김해김씨 성을 가진 여자호주를 경주이씨로 파악해야 하는지 김해김씨로 파악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자식들의 성씨를 따라서 파악하였다. 그런데 호주가 여성으로 독신가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동네혼이나 군내혼을 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무조건 남편 쪽 성씨로 파악할 수만은 없다. 가령 어떤 부인은 경정 출신으로 여기서 홀로 살아가는데, 주요 성씨 이외의 성씨와 혼인하여 자식을 둔 경우 스스로 이 마을의 주요 성씨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마을에서는 실제로 당사자 혹은 마을 어른들에게 도움을 얻어 구분 짓도록 유도했을 때, 난감해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경주이씨와 김해김씨의 파악이 그러하였다. 어촌에서 주요 성씨에 대해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성 집안중심의 성씨 파악에 대해 이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씨들은 모두 48호가 있다. 그 중 김해김씨가 20호였고, 안동김씨가 6호 있었다. 김영대(남, 1936년생)는 김해김씨 영변공파(寧邊公派)다. 그의 집에는 1924년

1. 추석날 차례 지내러 가는 모습(경주이씨)
2. 추석날 차례 지내는 모습(이인균 집)
3. 경주이씨 족보
4. 경주이씨 추석날 차례상 모습



1. 추석날 차례 때 의관 입은 모습(김영대)
2. 추석날 차례상 진설 모습(김영대 집)
3. 추석날 차례 지는 모습(경주김씨)



(대정 13)에 작성된 ‘가첩(家牒)’도 전해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씨 골맥이에서 말하는 김해김씨의 후손이 된다. 김영대의 6대조 김제한(金濟漢, 1777-?)의 묘가 ‘담방골’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생전에 이곳 경정으로 세거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김해김씨 뱃불 입향조의 입향 시기와 어우러지고 있다. 그가 들려주는 집안의 애기와 생업에 대해 간략하게 옮겨 본다.





김영대(金榮大)는 1936년 10월 25일생이다. 6대째 뱃불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김영대의 7대 조의 산소가 하저에 있다고 한다. 족보에 의하면 ‘김제한(金濟漢)(1777년 생, 묘가 담방골에 있으며 좌향은 축좌(丑坐) - 김창식(金昌植)(계해년 생) - 김현준(金顯春)(1839년 생) - 김명암(金命培)(1860년 생) - 김종술(金鍾述)(1882년 생) - 김휴대(金畦泰)(1911년 생) - 김영대(金榮大)(본인)’로 이어지고 있었다. 5대 봉사를 하고 있어 1년에 12차례(설, 추석 포함)의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명절제사는 큰집에서 먼저 지내고 작은집으로 이동하여 모신다. 큰집 제사 후 아침식사를 하고 이동한다. 지금은 일가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 살기 때문에 제사 때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 그는 김해김씨 영변공파다. 김영대의 부인(사망)은 밀양박씨로 1942년 10월 15일 생이다. 김영대의 형제로 같은 동네에 동생 김영학(金榮學)이 살고 있다. 이곳의 김해김씨는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여 의성을 거쳐 영해로 들어왔다고 알고있다. 오지로 들어오는 것은 주로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 골짜기로 숨어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본래 (경정의) 아랫모퉁이(모퉁이)에 살다가 약 50년 전 파도의 위협을 피하여 지금의 집을 사서 이사했다. 어업을 생업으로 살아왔다. 그는 슬하에 3남 2녀 정경(井謙, 1965.10.15 생), 봉겸(鳳謙, 1968.04.18생), 창겸(昌謙, 1973.03.20생), 미숙(美淑), 미자(美子)를 두었다.

경정1리에는 강릉유씨들이 현재 11호가 살고 있으며, 강릉유씨(시조 승비) 경력공과 23세손들이 주축을 이룬다. 가족과 동거인을 포함하여 15가구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21명의 후손들이 있다. 유성중(남, 1936년 생)은 강릉유씨 경력공과가 이 마을에서 세거를 하게 된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강릉유씨들은) ‘양자 월자’라는 15세손이 처음으로 경정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경정에 있는 (유씨들은) 10대에 걸쳐 살고 있는 셈이 되지. 후손이 없는 경우 출계를 하면서 장손이 이어져 왔고. 본래는 평해에 살다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나 어떤 이유로 경정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 어렸을 때는 평해로 할아버지 묘에 제사를 지내러 자주 갔지.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10월 묘사에 여기 사람들 집안 전체가 되든 누가 가든 꼭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어. 여기 사람들은 대개 부모 형제관계를 비롯하여 4촌, 6촌, 9촌간이 대부분이고 ‘장갓불(현 경정해수욕장 근처를 이름)’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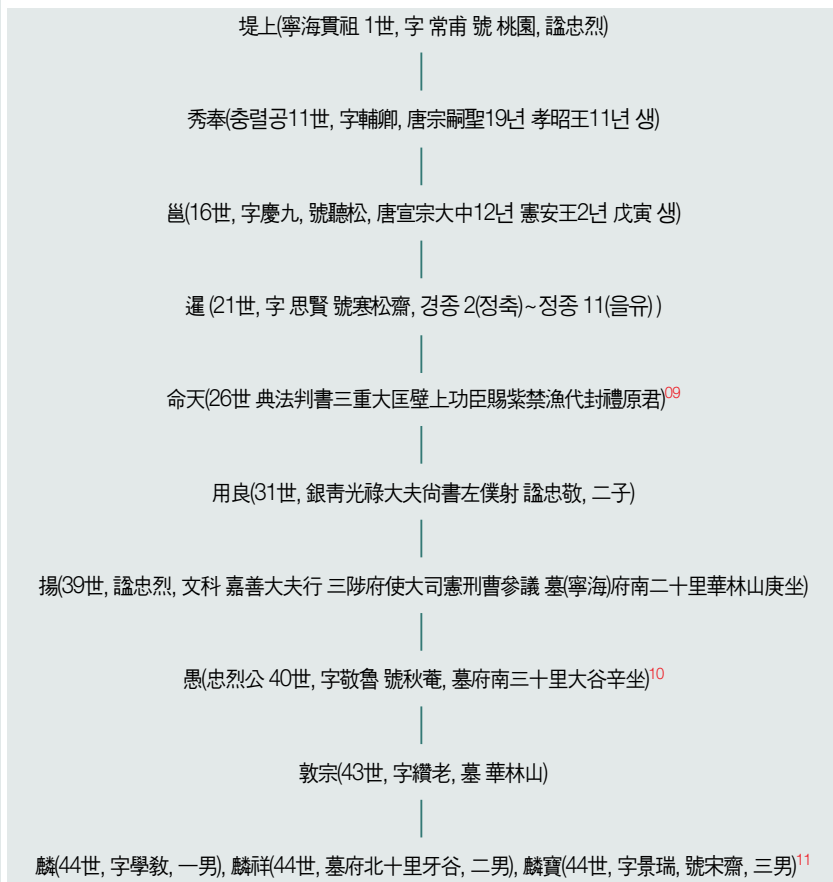
집 옆의 나무 두 개 서 있는 곳이 백자 원자’ 할아버지 묘인데, 그 후손이 지금 여기서 만장손이지. 평해할아버지(‘양월’)가 여기 왔을 때를 서른살 정도라고 칠 때, 우리는 여기서 대로 따져도 250년 정도는 될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이며, 김씨박씨가 있었지만 동네에 집도 얼마 없었을 거야. (유성중 제보)

추석날 차례상 진열장(강릉유씨)



## 영해박씨

영해박씨는 신라 5대 파사왕(婆娑王)의 후손으로 눌지왕(訥祗王)대의 이름난 충신인 제상(堤上, 충렬공)을 시조(始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다가 제상의 26세손인 명천(命天)이 고려조에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자금어대(紫金魚袋, 허리에 차던 장신구)를 하사받고 예원(禮原, 현 영해)군(君)으로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영해(寧海)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영해박씨 봉화공파보〉 참조).



<sup>09</sup> 박명천은 고려조에 삼중대광벽상공신에 추증되었고 예원군에 봉해졌으며 양동(楊東, 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송례사(崇禮祠)에 배향되었다.

<sup>10</sup> 조선 성종(成宗)대 사람이다. 통훈대부행 봉화현감(通訓大夫行奉化縣監)을 지냈다. 송례사에 배향되었다. 영해박씨 봉화공파의 파조다.

<sup>11</sup> 인보(麟寶)는 증중 을미(1535년) 2월 4일 생이다. 통정대부부산감사진천군수(通政大夫釜山僉使鎭川郡守)를 지냈고 묘는 영해부 남쪽 경정의 면화현(寧海府南景丁后 綿花峴面坐)의 서쪽에 있다. 숙부인 월성이씨는 모예현의 북서쪽에 무덤이 있다. 박인보의 묘는 지금도 경정 마을사람들이 묘제를 올려주고 있다. 영해박씨 경정 입향조로 전해지는 사람이다.

여기서 계속하여 영해박씨 박인보(朴麟寶)(44세, 字 景瑞, 號 宋齋, 三男)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내려가면 아래와 같다.



1. 영덕박씨 44세, 박인보의 무덤  
2. 영덕박씨 44세, 박인보의 비석

麟寶(44세, 字景瑞, 號宋齋, 通政大夫釜山僉使鎭川郡守, 墓 寧海府南景汀后 綿花峴西坐)

成運(53세, 字成河, 英祖 癸亥生, 一男, 墓南麓末坐)

壽鳳(54세, 字覽輝, 英祖 庚寅生, 一男, 墓南麓午坐, 配 月城崔氏 墓西門峴艮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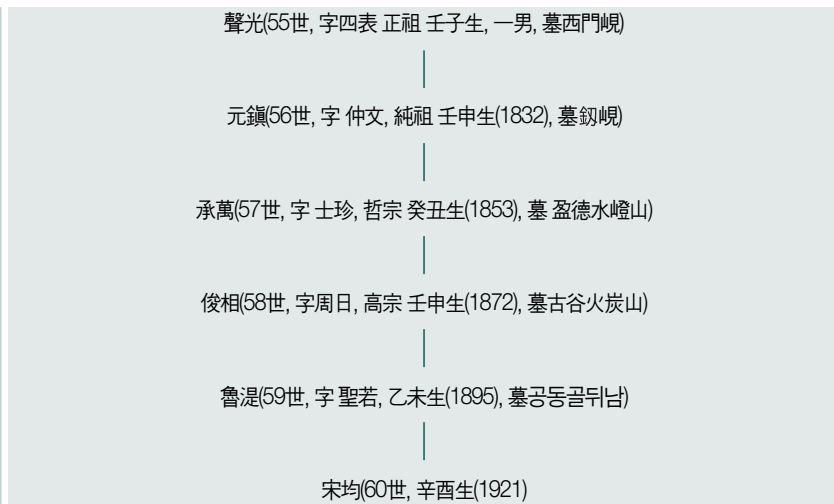
聲光(55세, 字四表 正祖 壬子生, 一男, 墓西門峴), 大光(55세, 字仕日, 正祖 丁巳生, 二男, 墓劔峴)

仁光(55세, 字成昭, 純祖 壬戌生, 三男, 五衛將司憲府監察, 墓綿花峴坤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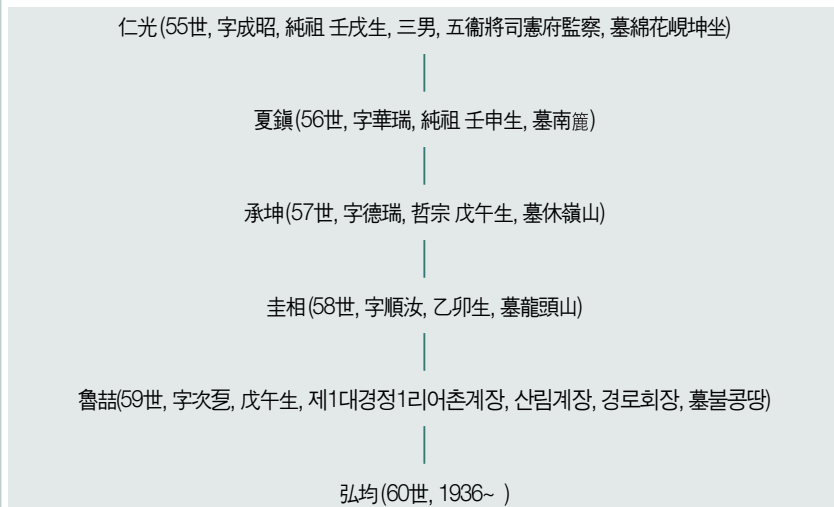
여기서 이들 3형제의 맏이 성광(聲光)이 후사가 없어 둘째 대광(大光)의 큰아들 원진(元鎭)이 출계를 간다. 대광(大光)은 인광(仁光)의 첫째 아들 춘진(春鎭)을 양자로 맞아들인다. 경정1리에는 이성광(聲光)(55세, 字四表 正祖 壬子生, 一男, 墓西門峴)의 아들 원진(元鎭)의 후손을 장손으로 삼아 오고 있다.



영덕박씨 54세, 박수봉의 묘



한편, 박홍균(남, 1936년생, 국립농산물검사소검사4급)은 경정1리에서 동장을 지낸바 있는데,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뱃불에 살고 있다. 박홍균 맥은 경정1리 내에서 천수답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논을 경작하는 유일한 집이다. 그는 인광(仁光)의 둘째 아들 하진(夏鎭)의 후손이다.



현재(2008) 경정1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41명이다. 이 중 남성은 19명이고, 여성은 22명이다. 또한 이들을 본관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 기과 같다.



## [표 7] 박씨 현황

	남	여
영해박씨	15	7
밀양박씨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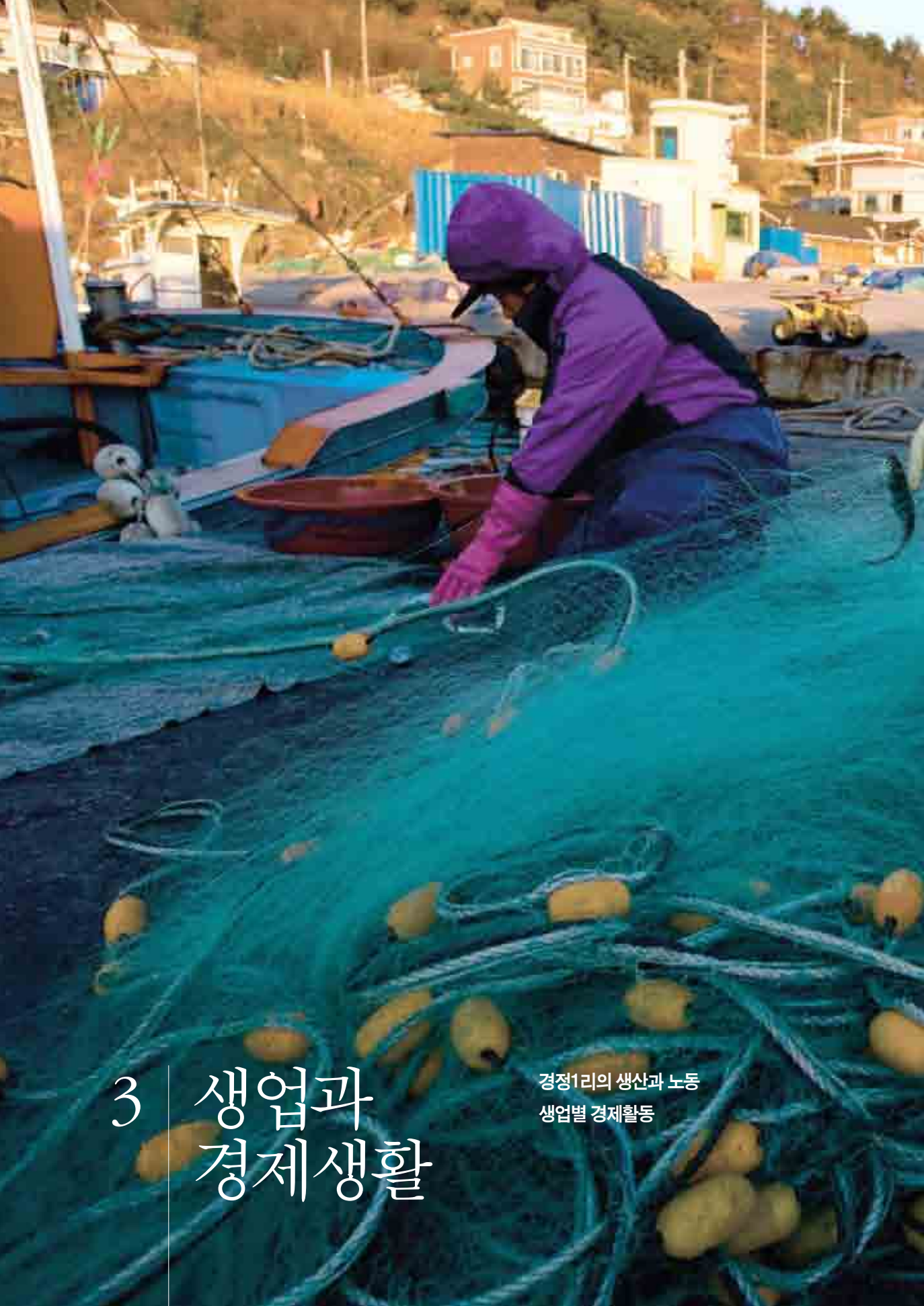
이들을 세대주별로 구분해 보면 경정 1리에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온 영해박씨는 10호이며, 그 중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가 7호,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가 3호가 된다. 영해박씨들 중 여성 기혼자는 모두 6명인데, 이들이 이곳에 사는 이유는 ‘동네혼’ 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영해박씨 남성 세대주는 박대로(남, 1934), 박홍균(남, 1939), 박향로(남, 1939), 박명두(남, 1940) 박정웅(남, 1945), 박수남(남, 1957), 박부길(남, 1954) 등이 있다.

영해박씨 여성으로는 박필녀(여, 1926년생, 남편과의 사별로 세대주 취득, 동네혼), 박실광(여, 1928), 박몽낭(여, 1933년생, 남편과의 사별로 세대주 취득, 동네혼), 박정자(여, 1943년생, 남편 이정록과 동네혼), 박노여(여, 1952년생, 김성일과 혼인, 동네혼), 박OO(여, 1960년생, 남편과 혼인, 혼인 후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경우에 해당함), 박수빈(여, 2008년생, 박수남의 손녀) 등이 현재 살고 있다.



영덕박씨 55세, 박성광의 묘



### 3 | 생업과 경제생활

경정1리의 생산과 노동  
생업별 경제활동







# 생산과 노동

생업방식별로 분류하면 크게 어업, 농업, 상업 그리고 민박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업은 다시 정치망, 미역(양식미역과 자연산돌미역 포함) 채취·건조·판매, 오징어 건조·판매, 통발어업, 대게잡이·조리 및 판매, 나잠업, 천초 채취 등으로 나뉜다.

## 경정1리 생업의 사적 전개

어촌(漁村, fishing village)을 ‘주민들의 대다수가 어업(漁業, fishery) 즉,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촌락’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현재(2008년) 경정1리 뱃불마을은 어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업의 어로활동에 ‘건조와 가공’ 및 ‘유통과 판매’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경정1리는 본래부터 어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어촌으로 변모하여 나간 것일까. 또한 어촌으로 변모되었다면, 어떤 동력이 역사적으로 추동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과연 누가 속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을까. 마을 주민들은 알고 있을까. 사실 장기간 마을에 머물렀다고 하여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경정1리의 20세기 ‘바다밭’의 경작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그 단초를 찾는 작업의 밑거름이라도 될 만한 것을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급은 오늘날의 경정1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기초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사자는 뱃불마을 사람들 중 상당수는 1980년대 초반까지도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금도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원래 여기는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던 동네라 그런지,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면 양반으로 대접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뱃놈이니 뉘니 하면서 상놈으로 취급하더라. 다 옛날 얘기지.” 하는 이야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경정1리에 국한된 것도 아니며, 소위 ‘반농반



어' 하는 어촌에서는 과거에 흔한 표현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헌으로 볼 때, 경정리가 농사를 짓던 마을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까. 20세기 문헌자료 가운데 『한국수산지』(권2)(한국통감부, 1908)가 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당시 경상북도 영해군 남면에 있던 경정(現 경정1리), 차유(現 경정2리), 오매(現 경정3리)에 아래의 [표 1]과 같은 자료가 보인다.<sup>01</sup>

[표 1] 경정, 차유, 오매의 어업 현황(1908)

	총호구수	어업자호구수	어선수
농경정	112	11	11
차유	28	12	3
오매	27	3	1

위의 자료에서 '총호구수'가 과연 농업호구와 어업호구로 구성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수산지』라는 자료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어업호구에 대한 파악은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경정의 총호구 112호 중 어업자호구수 11호를 뺀 101호의 상당수는 농가호구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정은 1908년 무렵 분명히 농촌의 모습을 띤 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앞선 장에서 언급한 마을의 인구를 다시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덕군 통계연보 1967년과 1968년의 기록이 그것인데,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영덕군 『통계연보』(1967년, 1968년)

	총가구	농가	비농가
1967년	194	119	75
1968년	216	116	95

여기에는 1967년과 1968년에는 경정1리의 총가구수와 농가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1967년과 1968년의 '비농가(非農家)'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1908년의 『한국수산지』자료와 견주어 설명하면 경정1리의 어가(漁家)에 대한 윤곽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어업자호구가 기록된 1908년의 자료에 설명되지 않고 있는 농가에 대한 호구가 총호구수에서 찾아 질 수 있듯이 1967년과 1968년의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어가에 대한 정보는 '비농가(非農家)'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비농가가 어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정1리 생업의 문법구조 안에서는 그것이 어가와 대등할 정도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1967년의 시점을 놓고 볼 때, 한 해 동안 증가하는 22호의 가구 중에서 농가는 줄어드는데, 비

<sup>01</sup> 이 [표 1]은 일반자료를 조사자가 표로 만든 것이다.

농가가 20호가 증가했다는 의미에서 어촌 어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시의 사례들은 많이 있다.

친정은 발농사. 발농사가 많았다. 소도 많이 먹었고, 논도 많았다. 우리는 농사를 많이 했다. 집에서 한마리 키우고 남은 두 마리 주고 있었다. 바깥어르신(고 김두준)은 정치망도 크게 했다. 책임자였다. (...) 논은 염장에 있고 개울가(안골)에 있었다. 꽤 잘살았다. 좀 살았다. 농사를 지어 세 명 포항에서 공부하고 하나는 영덕에서 공부시켰다. (...) 정치망한다고 논과 밭을 팔았다. 정치망으로 손해를 보았다. 옛날에서는 쥐치를 많이 잡았다. 김병철, 유길중, 이두성 등 어울려서 정치망 크게 했다. 돈을 많이 부었다. 정치망은 큰 배가 두대였다. 처음에는 노를 저었다. 발동기가 나중에 나왔다. 뚝단배로 저어다니기도 했다. (이복란, 여, 1934년생)

1959년 제대를 하니까 삼촌은 정미소도 하고 어장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더라. 형제가 많은 삼촌은 집안사람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어장을 했고, 삼촌은 처음에 6명으로, 이 때 (뱃불의) 배는 13척 정도가 있었지. 삼촌은 1960년 초에 '정치망' 을 시작. 정치망으로 조업하는 일은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당시 12~13명 정도, 삼촌은 이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그러다가 삼촌은 1970년대 초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의) 사촌 막동생이 그 일을 맡아서 계속해 나갔지. 이때는 이미 나도 어업일에 종사한지 꽤 오래 되었지. 그런데 배를 한척 더 구입하면서 어업성과가 차츰 떨어지기 시작했고 빛도 지게 되어 접기도 하고, 남의 어장일도 해보고 또 동업을 해서 어장을 했는데 부침이 많았다고 봐야지. (이인균, 남, 1934년생)

염장의 들이 뱃불사람들 땅이 많아 그곳까지 가서 농사를 지었지. (어업은) 나이가 들면 일에 종사하기가 힘든 일지만, 노동품을 사흘만 팔아도 쌀 한가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진거 같어. 그래 가지고 있는 농토도 사람을 사가 짓게하고 팔아 처분해뿌리기는 집들이 많았지. (유은중, 남, 1935년생)

1960~1965년까지는 농사를 많이 지었으나, 보릿고개를 넘기고 가격이 시원치 않게 되면서 농사를 안지었고, 당시 경정은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차유와 염장에서선 그나마 논농사를 많이 하였다. 지금도 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 안된다. (김영대, 남, 1937년생)

위와 같은 사례들은 마을에서 쉽게 나오는 1960년대 상황을 대변해 준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논과 밭을 팔아' 어업에 투자하는 이도 늘어나고 있었고, 당시 12-13명이 필요한 '정치망' 어장을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어업성과가 나빠서 빛을 지거나 남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고 한다. 여기에 모두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사례들을 토대로 영덕군 『통계연보』 1967년과 1968년의 자료에 보이는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경정1리에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본과 고용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필두로 농사보다는 (혹은 농사를 접고)

어업을 통한 생계활동으로 전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비농가의 증가는 어가의 증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경정1리 뱃불마을이 농촌에서 어촌으로의 변화해 가는 시점을 1960년대 중후반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 경정1리가 1908년 무렵에 총가구수에 비해 어가의 비율이 낮아서 농사를 기반으로 한 촌락이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1960년대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이전의 상황을 통해 현재의 경정의 ‘바다밭’의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론하는 일이 남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박동의 글로 대신 할까한다. 여박동은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2002)에서 일본어민의 조선이주는 한 일어업협약(1908년)과 한국어업법(1908년)의 제정을 계기로 한국인과 동등한 어업권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조선 거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어민의 조선연안 이주 실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본인의 조선에의 이주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한일통상조약〉이 체결된 1976년에 54(남 52, 여 2)명이던 것이, (...) 한일어업협약과 한국어업법 제정 후인 1909년에는 3,903명,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에는 11,417명, 1918년 1,261명, 1919년 10,028명으로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1920년 12,521명에 달하여 인구수로는 최다를 나타내고 있다. (...) 이후로는 1931년까지 1만명에서 1만 2천 명 전후를 오르내리다가 1932년 이후로는 제업업자를 포함하여서 1만 명 남짓하게 되며, 1936년 이후는 1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 감소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sup>02</sup>

영덕군에 일본어민의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는 보고는 없지만, 축산면 축산항에서 일본인(‘内地人’)이 어업활동을 벌이는 기록은 이미 『한국수산지』(1908)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국내 거주를 통한 조업활동을 하는 예는 경정1리에도 등장한다. 바로 ‘넛따’라는 일본인이 그다. 그리고 넛따의 조수격이자 ‘선수’(그물 재단사라 하여 그물짜는 사람. 최근에는 ‘어류장’이라 한다.)로 마을에 들어와 살았던 사람이 ‘미우라’라는 사람이다. 이들은 경정1리 사람들 특히, 어민들에게 자주 회자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정치망이나 어장을 꾸미는 기술 등 어업전반에 관한 기술은 ‘왜정시대’ 일본인들에 배웠다고 봐야지. 당시 ‘넛따’라는 일본인이 ‘장갓불’(현재 경정1리 해수욕장에서 경정3리 오매로 이어지는 째 근방을 지칭)에서 집지어놓고 어장을 했었어. 일본인 ‘넛따’는 ‘정치망’을 다루는 기술, 어장을 꾸미는 기술 등을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마을 어른들(김정경 등)에게 가르쳐주었다고 해. (이인균, 남, 1934년생)

내가 할 때 선수질(그물짜는 일) 한 사람은 이승만박사다 배로가(별명이). 경정가서 옛날의

02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도판) 참조. (여박동, 2002,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보고사, 130-131쪽에서 재인용)

이승만이라고 하면 다 안다(이기출 씨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나하면 옛 날에 미우라하고 같이 했는기라. (박노갑, 남, 1934년생, 어류장, 제3대 경정1리어촌계장, 창포거주)

경정2리(차유마을)는 영덕군 대게원조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경정1리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조사연구자가 경정1리 사람들에게 “왜 여 기사사람들은 대게를 하는 사람들이 적냐?”고 물어보면 각가지 대답이 나온다. 그 중에서 “여는 어장촌인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장촌! 경정1리가 어장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도입된 근대식 정치망 기술과 어장을 꾸미는 기술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박노갑이 말하는 ‘미우라’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정1리에 눌러앉았는데, 이로 인해 ‘선수 기술’은 뱃불사람들에게로 더욱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넛따’라는 사람이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꾸뻐던 정치망 어장은 그 이후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몇 해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경정 앞바다에 출현한 일본인들의 존재는 이후 경정1리의 어촌으로의 변모를 이야기 하는 데 빠져서는 안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03</sup>

<sup>03</sup> 일제강점기와 오늘날로 이어지는 경정리 뱃불마을의 어업 양상과 변화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지면을 통해 기술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경정1리 어업의 역사적 개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경정1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래의 2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생업방식별로 분류하면 크게 어업, 농업, 상업 그리고 민박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업은 다시 정치망, 미역(양식미역과 자연산돌미역 포함) 채취·건조·판매, 오징어 건조·판매, 통발어업, 대게잡이·조리 및 판매, 나잠업, 천초 채취 등으로 행해지고 있다. 농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축소된 형태로 행해지는 노동이다. 현재(2008) 논농사는 논을 소유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작하는 7가구가 있으며, 밭농사는 경정의 뒤쪽 골짜기를 이용하거나 해변을 따라 나있는 공간을 개간하여 밭으로 일구어 사용하고 있는 정도다.

또한 상업은 ‘상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형태를 달리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해산물·토산물 판매 행위를 상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상업을 통한 노동행위는 슈퍼마켓과 횡집(여름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한 영업 포함), 낚시 가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민박업은 현재 많이 쇠퇴한 측면이 있지만 여름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마을 내 다수의 집에서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민박은 한철에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들이나 여행객들 또는 직업상 장기체류로 인근 지역내에 머무는 사람들이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숙박 형태다.

그렇다면 경정1리의 생계 노동활동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기술적 환경적 기반을 잠시 살펴보자. 경정1리의 어민들은 주로 연근해에서 작업을 한다.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어업면허증이나 어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의 경정1리의 면허어업 방식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경정1리의 면허어업

번호	면허어업	내용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번호	면허어업	내용
5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

자료출처 : 수산업법(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경정리에 사는 어민들 중에는 이러한 면허어업의 취득을 통해 바다의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정치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과 마을어업이 행해지고 있다. 한편 어업허가증을 지니고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연안어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어선의 주요 어업적 기능을 어선수와 함께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어선(漁船)을 살펴본다는 의미는 경정1리 사람들이 조업을 통해 포획·채취하는 수산물의 종류와 양이 배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어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선의 수와 종류에 따라 어부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은 ‘바다고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얼마나 넓은 ‘바다밭’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4] 경정1리의 어업에 따른 어선 수

단위:척

구분		강선	목선	F.R.P
연안어업	연안채낚기어업	-	-	-
	연안유지망어업	-	-	4
	연안통발어업	-	-	6
	연안복합어업	-	-	1
	구획어업(정치성)	-	1	-
	구획어업(이동성)	-	-	-
	정치망어업	-	2	2
양식업	천해양식	-	-	38

※ 경정리에서는 천해양식과 연안통발어업에 같은 종류의 배를 이용하기도 한다.

경정1리 사람들은 위의 [표 4]에 있는 어선 중에서 연안유지망어업을 통해 ‘기(계)’를 잡고 있고, 연안통발어업으로 쥐치, 문어, 도다리 등과 같은 어류를 잡으며, 양식업을 통해서도 해조류인 미역을 집중적으로 양식하고 있다.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는 45척이네. 개풍호, 용성호 등 모두 포함해서. 뱃마도. (어선관 리대장에는) 배이름이 다 있다. 작은 배라도. 큰 배(1톤 이상)는 13척, 1톤 이상은 32척. 뱃마

는 1톤 미만이 거의 다지. 무동력선으로 등록된 배도 있는데 거의 안하지. (이정록, 남, 1942년생, 어촌계장)

어선이 어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포획의 목표로 삼는 수산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역양식과 채취에 주로 이용되는 배인 ‘뗏마선’의 수가 경정1리에서는 가장 많다.

본 장의 어업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지만, 영덕군내에서 1966년 한 해 동안의 수산업 생산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산물을 비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영덕군의 수산업(1966년)

구분	종류	비고
어류	가오리, 가지미, 명태, 도루묵, 방어, 꽁치, 고등어, 송어, 멸치, 양미리, 상어, 장어	
패류	대합, 키조개, 백합, 홍합, 반지락, 기타	
해조류	미역, 먹도박, 진도박, 김, 천초	
기타	게, 새우	
동식물	문어, 오징어, 성게, 기타	

자료출처 : 영덕군통계연보(1967)

[표 5]에는 어류가 12종류가 나오고, 패류가 5종류, 해조류가 5종류가 보인다. 그런데 위의 [표 5]에 언급된 패류의 경우 정정 앞바다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 마을에서 나잡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패류의 경우 바다의 물밑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축산면 백석리 쪽에 가면 [표 5]에 나와 있는 패류가 난다고 알고 있었다. 해조류에서 ‘도박’ 종류로 이곳 해녀들은 ‘먹도박’을 다시마와 비교하면서 먹도박을 다시마(‘검은물도박’)보다 뚜껍고 잎이 넓은 것이라고 하였다. ‘진도박’은 처음 들어보는 말로 생소하게 여기고 있었다.

끝으로 생업형태에 따른 노동방식 즉, 노동의 과정 하루일과 그리고 생업력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2. 생업별 경제활동)에서 다루고자 하며, 이때 사진도 함께 실어보겠다.

오징어어업은 ‘없으면 이 동네가 절단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생계활동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쟁사람들은 오징어철이 돌아오면 채낚기 대신 먼 바다에서 잡아서 축산항에 입찰되고 있는 오징어를 ‘과고(‘마무리’라고도 한다)’째 사와서 건조하고 판매하는 일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고 있다.

● ○ ○ ○ ○

현재 경정1리 뱃불마을의 생업력은 아래 [표 6]과 같이 구분하고 그 월별 작업 시기를 나타내 볼 수 있다.

[표 6] 경정1리의 월별 생업력

생업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업	정치망어업												
	미역어업												
	오징어업												
	통발어업												
	대게잡이												
	나잠업												
	천초채취												
	농업												
상업													
민박업													



어업은 크게 6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정치망(定置網) 어업은 어장배를 이용하는데, 경정1리에는 5척이 운영되고 있다. 개별 어장배의 사정이나 바다조업환경에 따라 조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년 중 거의 매일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역어업은 '짬'에서 나는 이용한 자연산 돌미역과 양식미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년 중 작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곧 설명하겠지만, 노동의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오징어어업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데, 노동방식과 시기는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징어어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통발어업은 통발의 재질이 변한 것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는 조업방식 중에 하나다. 주로 텃마로 연안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 대게잡이의 경우 영덕군에서 바다의 대게 생육과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망'시기를 조율해주기 때문에 시작되는 시기는 동일하다. 그러나 작업하는 '기배(대게배)'의 선주에 따라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고 조금 늦추어 한 해의 조업을 끝맺을 수도 있다.

나잠업은 해녀가 해안의 바다밭에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정1리에는 4명 정도의 해녀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해녀들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작업시기는 연중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천초 채취는 별도로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본래 천초(우뭇가사리)는 경정앞바다에서 6월초부터 8월말까지 많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천초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여기에 투입하는 사람도 적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주로 70대 이후의 여자 노인들 위주로 천초 채취작업이 8월달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도 경정1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에 생업력을 만들어보면서 구분해 보았다.

농업은 앞선 장들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논농사는 염장들('구평들')과 축산들에서 주로 행해진다. 어촌인 경정1리의 논농사 또한 일반 농촌과 작업시기 작업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인지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단위에서 주요한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다. 밭농사의 경우는 경정1리 마을 내에서 조금씩이나마 15-16호 정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과 성장을 관찰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다만 여기서 밭농사의 생업력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경정1리에서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촌마을의 밭작물의 작업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표시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을 다룰 때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상업의 생업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년 내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상업에서 마을에 있는 두 개의 슈퍼마켓을

제외하면 어촌의 일반 사정이 반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언급을 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박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민박이라는 것이 특정한 시기에 발달했지만 지금은 연중 진행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래의 민박업 부분에서 다루겠다.

## 어업

○ ● ○ ○ ○

### 정치성어업

어장배는 5척이 경정1리 소속인데,<sup>04</sup> 개풍호, 용성호, 성광호, 영덕호, 경신호가 있다. 이중 개풍호가 16톤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그 나머지는 2톤 내외 정도이다. 경상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배들은 경북 해안 어디서나 조업이 가능하지만, 톤 수에 따라 작업 반경이 달라지게 된다. 어쨌든 정치성어업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태가 보인다.

정치망어업과 정치성 구획어업이 그것이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어장을 고정시켜 꾸며 둔다는 점에서는 같다. 차이는 바다 공간과 정치망 크기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바다공간은 수심을 결정 짓는데, 정치망 어업은 수심이 40m-50m 정도에 설치되며,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직선으로 0.8km-2km정도 밖에 설치된다. 한편, 구획어업(정치성)은 수심 15m 안팎에서 설치되며, 어장의 크기가 정치망어업에 비하여 1/3수준의 크기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물을 어망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서 ‘뒤통(실제 고기가 드는 곳)’ 그물 구조로 두 형태를 나누어 부르는데, ‘정치망’과 ‘삼각망’이 그것이다.<sup>05</sup> 삼각망은 정치성 구획어업 조건에 알맞은 뒤통의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실제로 정치망 어업과 정치성 구획어업은 계절에 따라 다른 어종의 어류가 잡히는 일이 빈번하다. 그래서 어부들은 기본적으로 어망

#### 그물 보망 작업

<sup>04</sup> 소속배는 다음과 같다. 개풍호(이정달, 이종우, 장대호, 남복이, 김민수, 하용민), 경신호(권봉도, 유영중), 용성호(김이성, 이귀중), 성광호(김복덕), 영덕호(유영춘). 이 배들의 소유는 공동 선주도 있고 선주 자체가 외지사람들인 경우도 있다.

<sup>05</sup> ‘용성호’가 사용하는 ‘정치망’과 ‘삼각망’의 중간 정도의 그물 크기를 일컬어 ‘중간망’이라는 것도 있다. 용성호는 정치망어업을 하며 그물 구조는 삼각망 구조다.





어장그물을 걷어내는 모습

을 꾸밀 때부터 그 목표하는 바의 어종을 염두하고 있으며, 만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낭패를 보기도 한다.

경정앞바다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닛따’의 정치망과 1950년대 연풍회사의 정치망 어장어업을 제외하고 마을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정치망을 시작한 사람은 이인균(남, 1942년생)의 삼촌 이학진이라고 한다. 그가 하던 어장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그 때가 1960년대 초반이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인균도 어업일을 통해 기술을 익힌 후 30대에 자신이 직접 ‘발동선(기계선)’을 구입하여 조업을 한 바 있다고 한다.

0.9톤 짜리 발동선으로 ‘우럭’, ‘오징어’ 등을 주로 잡았었어. 1969년 당시 동네에서 발동선은 2대밖에 없었지. 물밑 짬에서 우럭, 대구 등을 잡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1972년 오징어배 한척을 더 구입하기도 했지. 당시는 ‘오대구리’가 아니고, ‘고대구리’였어. (이인균 제보)

현재 경정1리 뱃불마을에는 정치망 어장이 2곳, 정치성 구획어업 어장이 1곳 있다. 용성호, 성광호가 정치망 어장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sup>06</sup> 정치성 구획어업은 제2영덕호(2.99톤)를 소유하여 조업을 하는 유영춘(남, 1956년생)<sup>07</sup>이 경정1리 어촌계와 일정한 금액에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1. 입찰 중인 개풍호의 모습

2. 개풍호에서 잡은 고기

<sup>06</sup> 개풍호의 경우, 정치망 어업을 하는데 어장의 위치는 인근 마을 석동에 있다.

<sup>07</sup> 유영춘에 대해서는 경북영덕 경정1리 생 활재 부부 이야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급적 중복설명을 피하겠다.

그렇다면 실제 어장배의 운영 및 기타 조업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가. 마을 앞 바다에서 정치망 어업을 하고 있는 용성호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 ● 〈사례〉 용성호

중간망인 용성호 주주는 이장상 외 마을사람 3명으로 총 4명이다. 주주들이 직접 나가서 조업을 하며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지는 않는다.

용성호는 5명 → 7명 → 4명으로 주주들의 수가 바뀌어 왔다. 4명이 인수한 지는 3년째가 된다. 과거에는 큰 어장을 하였으나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 주주를 줄인 것이다. 더불어 작업이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4명으로 된 큰 이유는 고기가 자꾸 줄기 때문에 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2명이 일을 할 때(70년대 후반)는 한 배에 6명씩 타서 두 척이 바다에 조업하러 나가기도 했고, 그물을 싣는 배 한 척이 더 나갔다. 이들의 정치성 어업은 삼각망과 구조가 같으나 더 크다. 정치망의 어장규모는 150m 정도라고 한다. 본래 정치망을 막는 구역은 정해져 있다. 어장 금지 구역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곳으로 영덕군 수산과에 신청하여 면허를 받는 형태다.

3년 전 처음 어장을 인수할 때는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투자하였다. 인수할 당시에 어장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 비용이 적게 들었던 것이다. 조업으로 생기는 이익은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4명의 주주가 똑같이 나누며, 수입은 평균 한 달 200만 원 정도가 된다.

용성호는 과거 고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고기가 잘 들지 않는 경우에 고사를 행하기는 한다. 날씨는 특정일을 정해놓지 않고 다른 정치망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유독 우리 어장배에 덜 잡힐 때에 고사를 지낸다. 과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그물을 교체할 때마다 술을 뿌리면서 고사를 지냈으나 요즘은 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고기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기도 했다.

용성호에도 성주는 모신다. 새 배를 지어왔을 때, 성주를 모시며 당시 술, 과일 등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으나 그 이후에는 성주고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1. 개풍호의 배성주

2. 용성호의 배성주





## 미역어업

경정1리의 미역어업은 크게 양식미역과 자연산 돌미역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는 양식미역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자연산 돌미역에 대해 알아보겠다.

경정1리에서 양식미역은 1970년대 초중반부터 행해지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역양식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 때는 제대로 된 기술의 발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추리로 미역증식을 시키기 위해 한 일이 있었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경정리 어민대표들 모임끼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시도는 이런 것이었다.

처음에는 마른 미역귀로 양식을 시도했는데, ‘미역귀가 말라도 거기서 미역씨가 나온다’라고 하여 큰 바위에 새끼줄을 묶은 후 마른 미역귀를 끼워서 물에 투하를 하는 방식이었지. 수하식인데, 마른 미역씨가 다시 살아나 바위에 붙을 것이라고 이해하여서 시작하였으나, 상식적으로 미역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다구. 씨가 미역귀에 있긴 하나 마르면 다 죽어버리지 그게 살겠어. (김병철, 남, 1938년생)

1970년대 초반, 수산진흥원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연구하여 미역도 양식으로 할 수 있다고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뱃불마을은 다시마 시범 양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수산진흥원에서 투자를 해서 바다에 시설을 만들었으며 양식도 성공하였으나, 다시마의 소비가 많지 않고 생산은 많았기 때문에 소득원으로는 불충분했다고 한다. 다시마양식은 2년 정도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미역은 소비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다시마양식 이후 미역양식이 개발되어 수산진흥원에서 장려사업이 펼쳐졌다. 경정은 일찍이 그 사업에 개입을 하여 종자를 수산진흥원에 배정받게 된다. 미역업은 개인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수산진흥원에서 장려하여 관심 있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허가를 내서 했다고 한다.

미역양식은 75년 무렵에 시작하였으며 그때도 어촌계가 먼저 시작했지. 정부에서 시험 양식을 한 번 해서 시작한데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가까운 곳에 해서 실패가 많았지. 나중에는 파도가 많이 쳐서 다 떨어지더라구. 그 후 면허제도가 생겼어. 근데 면허를 얻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 자리가 없어 면허를 못 얻는 사람들은 그냥 불법으로 하기도 했지. (면허를)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지. 그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역일에 달려 들었지. 그 후 (경정)항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대부분 개인면허들은 취소되고 어촌계장이 마을공동어장에 면허를 내게 되었지(2002년). 저 앞에 어장 보이잖아. (유진수, 남, 1942년생)

1. 미역포자를 푸는 모습
2.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



1



2

마을에서는 처음에 10여 명이 먼저 시작하였는데, 미역이 크고 무겁게 자라는 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새끼로 줄로 묶어 어장을 만들었다가 해일이 와서 어장이 다 떠내려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후 좀 더 단단하게 하였고, 줄도 새끼에서 고무줄로 바꿨다고 한다. 현재(2008년)는 나일론 소재의 줄을 어장에 사용하고 있다.

미역 어장은 처음에는 줄간격을 1m로 하였는데, 바다밭이 좁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70cm까지 밀식도 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수산진흥청에서 병이 자주 온다고 하여 최소 5m 간격을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마을사람들의 경험으로 2~3m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는 마을사람들이 자연산미역과 양식미역의 개념을 잘 몰라서 돌미역 값으로 받아서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미역 양식 기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논과 밭을 팔아서 미역밭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는 미역값이 너무 떨어져서 부업에서 불로 땀 정도였다는 1980년대 중반 무렵의 일화도 동네에서 회자되기도 한다.

현재(2008년) 경정1리 미역양식어장은 세 곳에 있으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마을 어촌계가 면허를 얻어 미역어장을 꾸미고 여기에 마을 어촌계원들 27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연안복합어업이라고 하는데, 어장은 수심 7~15m 사이에 꾸며져 있다. 어장의 규모는 2ha(200m×100m)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개인들이 영덕군에서 면허를 받아서 미역어장을 별도로 경영하는 방식이다. 유영춘(남, 1956년생)<sup>08</sup>, 김순택(남, 1938년생) 그리고 김성일(남, 1948년생)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영춘은 자신의 개인 미역어장에서 3ha(200m×150m)를, 김순택과 김성일은 같은 공간의 개인 어장에서 2ha 규모로 하고 있다. 유영춘의 어장은 차유마을쪽에 있고, 김순택과 김성일의 어장은 뱃불마을과 차유마을 사이에 있다.

<sup>08</sup> 유영춘의 양식미역업에 대해서는 유영춘·김순자 부부의 실립살이 참조

경정1리의 양식미역포자는 주로 울산에서 개별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2008년 미역씨를 감는 일은 10월 30일에 시작하여 11월 5일과 6일 무렵 이루어졌다. 10월 30일이 제일 빨랐는데, 보통 10월말 11월초에 한다. 미역씨를 감는 일은 일주일이면 대개 끝난다고 한다.

양식미역이 자라나면 1월부터 생미역(여기서는 ‘생초’라고 한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미역은 칼이나 낫으로 채취를 한다. 미역을 채취하는 배는 큰 배라야 0.5톤이며, 대부분 0.25톤정도의 F.R.P 소재로 된 ‘뱃마’로 한다. 본격적인 미역채취는 2월말 - 3월초에 진행된다. 보통 한 번 배가 바다에 나갈 경우에는 1/5줄 정도를 하며 30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한창 채취하는 시기에는 하루에 5 - 6번을 나가서 1줄 정도를 채취하게 된다.

미역을 건조하는 과정은 우선 먼저 마을 앞 공터에서 채취한 미역을 ‘바재’에 낸다. 미역을 널 때 일할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일당은 4만 원씩 준다. 오전만 일할 경우에는 3만 원 정도를 주고 있었다. 일을 해주고 미역을 가져가는 사람은 5 - 7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다.

미역을 밖에 그대로 두었다가 밤에 이슬을 맞으면 미역이 눅게 변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 사실 미역 맛에 변화는 없으나 소비자들이 까만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집에 ‘굴’을 두어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말리는 방식을 선호한다. ‘굴’은 처음에 오징어건조를 위해 만들었다가 후에 미역을 말리는 데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역수확은 2008년에는 보통 1줄에 8통(약 400울) 정도를 하고 있었다. 잘 된 경우에는 10통 정도 하는 가구도 있었다. 그래서 평균 양식미역 4줄을 경영하는 경정1리 연안복합어장의 어촌계원들의 소득을 보면 올해(2008)에는 생초 100단과 건조미역 30통 정도를 수확하여 600여 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1. 미역을 채취한 뱃마의 모습

2. 뱃마에서 미역을 끌어올리는 모습



된다. 수익은 건조미역이 더 좋으나 건조미역을 하기 위해서는 노임비, 기름값 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미역으로 파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중순경 미역 작업이 끝나면 나무로 만든 배에 페인트칠을 하는데, 이는 방수를 위한 작업이다. 일년에 한 번 페인트칠을 해주는데, 나무가 잘 썩고 나무 먹는 벌레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미역어장 줄은 걸어서 도로변에 말렸다가 11월에 다시 어장을 준비할 때까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창고 등에 그대로 쌓아두는데 그 동안 미역에 붙어있던 해초들이 썩어 없어진다고 한다.

자연산 돌미역은 ‘짬’ 즉, 바위를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조선조 영해부의 해산물 가운데 광(藿, 미역)은 조선전기부터의 관찬사료 기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산이다. 이때 광은 바로 자연산 돌미역을 의미한다. 광암(藿巖) 즉, 광암의 소유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경정1리와 그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그 분석은 하지 않기로 하겠다.

옛날에는 광주, 신평주 구광주가 있었다. 어촌계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 당시에 경정2리 사람들이 동계가 여기니까 광암이 자신들 것이다 했는데, 당시에는 2리가 1리만큼은 세가 약했다. 안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각 어촌에서 합의를 보기를 조정하기도 했다. (이정록 제보)

자연산 돌미역을 생산하는 공간은 짬을 중심으로 해수면의 일정 영역을 뜻하며, 이를 경정에서는 광암이라고 한다. 돌미역은 여기에 붙어서 해수면 아래에서 자란다. 경정1리에는 현재 짬을 8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네에서는 ‘짬을 어느 가구가 경작할 것인가’를 당해에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은 가격의 상한을 쓴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을 취한다. 2008년 광암입찰은 10월 17일에 있었다. 광암은 11월 5일경에 입찰을 하여 11월 10일 무렵에 짬매기에 들어간다고 한다. 잡초를 빨리 제거해야 미역 포자가 떠내려 다니다가 점착을 해서 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빨리한다. 올해의 광암입찰 결과는 아래의 표 기과 같다.

1. 다물의 짬  
2. 돌미역 기세작업





[표 7] 2008년 광암입찰 결과

	낙찰자	비고
치암	김순란 (여, 1954년생, 해녀)	
건시암	이장상 (남, 1952년생)	부인 전후자 (여, 1956년생, 해녀)
육수암	김순란 (여, 1954년생)	
수시암	이장상 (남, 1952년생)	
성근암	이장상 (남, 1952년생)	
축강	이장상 (남, 1952년생)	방파제를 지칭. 가장 비싼 광암.
말암	김종태 (남, 1949년생)	부인 최영순 (여, 1952년생, 해녀), 소암이라고도 한다.
오암	장대호 (남, 1952년생)	부인 최숙이 (여, 1956년생, 해녀)

현재 짚은 동네의 해녀들이 경작한다. 경정1리에는 해녀가 모두 6명이 있는데, 올해는 4명이 나누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해녀 들은 간혹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광암 살 형편은 되지만, 미역건조 등의 조건(바재, 굴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딱히 해녀가 아니라도 짚의 미역을 채취할 수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경정1리 어촌계가 생기면서도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여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광암입찰이라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그 결과 대개는 해녀들이 실제로 경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미역바위를 어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팔아넘기는 것을 ‘빚매’라고 한다. 올해는 총 900만 원에 8개 구좌의 광암이 어촌계원 가구에게 판매되었다. 이 돈은 마을 전체 호구수대로 5만 원씩 분배하였는데, 어촌계장과 감사는 한 몫씩 더 받아 모두 164가구의 몫으로 820만 원이 지출되었다.

과거 자연미역은 많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미역은 물이 찰랑찰랑한 수면과의 경계에 있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다. 이것은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햇빛을 많이 받아 품질이 좋아지는 원리라고 한다. 돌미역은 수심이 3~5m 정도에서 자란다고 한다.

광암, 즉 미역바위는 보통 10월에 입찰을 하며, 10월 말에서 11월에 ‘개닭이’에 들어간다. 이를 ‘기세작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 해녀가 없을 때는 ‘실개’라 하여 꿩이처럼 생겼으나 날이 똑바로 생긴 것은 장대에 매어서 육지에 서서 해조를 떼어 밀어내면서 기세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해조를 떼어 바위에서 밀어내는 행위를 ‘실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연산 미역은 기후의 영향을 양식미역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특히 한참 자라기 시작하는 음력 12월 즉 양력 1월경에 파도가 많이 치면 그만큼 바위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해에도 작황이 좋지 않게 된다. 눈이 녹아 내려가면 미역이 뿌리 채 뽑혀 나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연산 돌미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3월 20일 무렵에 캐기 시작한다. 양식미역



돌미역을 넣고있는 해녀

과 자연미역의 채취 시기는 약 15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 양식미역이 더 빠르는데, 양식미역 건조는 ‘이월밥 먹고’ 양력 3월 5일-10일경에 채취를 시작해서 마감은 4월 20일 무렵에 한다. 과거 돌미역을 채취하는 방법은 “동그란 통나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거기에 나무를 박아 넣어 장대를 길게 매어서 미역 있는 곳으로 넣어 돌리면 미역이 감겨 올라오게 했다.”고 한다.<sup>09</sup>

한편, 미역 건조작업은 돌미역이든 양식미역이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작업의 양과 속도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곳 사람들은 바람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 ① 하늘바람 : ‘하늬바람’을 이렇게 부르는데,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북서풍, 서풍, 남서풍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섯바람 :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으로 북동풍, 동풍이다. ③ 갈바람 : 남풍 혹은 남동풍이다. 이중에 미역 건조에 가장 좋은 바람은 하늘바람이라고 한다.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습기를 덜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의 방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건조철에는 바람에 다들 민감하다. 동해안은 북동풍이 불면 파도가 높아지고, 갈바람이 해질녘에 불면 바람이 잦아진다고 했다. 또 서풍이 불면 물색이 맑아져 연안근처의 어획량이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 줄어든다고 한다.

#### 봄철 미역 건조



<sup>09</sup>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다.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하면 된다.

## 오징어 건조업

오징어 건조어업은 “없으면 이 동네가 절단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생계활동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징어 어업이란 오징어 채낚기가 아니라, 오징어 건조와 판매에 관한 일이다. 경정의 어부들은 과거에 오징어를 잡기위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먼 바다로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정의 앞바다로 나가 동해안 북쪽 해안을 훑으면서 오징어를 잡아서 유통 판매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 힘들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20-30톤 때로는 70-80톤에 가까운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경정사람들은 오징어철이 돌아오면 채낚기 대신 먼 바다에서 잡아서 축산항에 입찰되고 있는 오징어를 ‘과고(‘마뚜리’라고도 한다)’채 사와서 건조하고 판매하는 일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고 있다.

경정1리에서 오징어 건조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오징어 공장에 나가서 월급 혹은 일당을 받으며 인부로 고용되어 노동을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가구별로 축산항에서 유통되는 오징어를 구매하여 손수 건조·판매하면서 생계활동을 하는 노동이 그것이다.

경정1리에는 오징어 공장이 세 곳 운영되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그 공장을 지칭할 때, 최사장네, 정사장네, 안사장네라고 부른다. 정영택(남, 1963년생) 사장의 부인 안미영(여, 1963년생)은 안병균(남, 1969년생) 사장의 누이가 된다. 여기서는 최사장네의 사례를 통해 오징어 건조 공장의 현재와 작업 방식 및 생업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 오징어철 정영택 사장의 집에서 가끔 일하는 박순옥(여, 1947년생)의 사례를 옮겨 본다. 사례는 인터뷰 내용을 조사연구자가 정리한 형태로 실기로 한다.



축산항 수협 냉동창고

● <사례 1> 제보자: 최사장의 부인

① 오징어 건조 작업기간

올해는 9월 달 들어서 오징어 공장 일을 시작했다. 보통 오징어 일은 1월이 나 2월에 끝난다. 우리 공장(최사장네)은 6월까지 간다. 늦어지면 7월 초에 끝난다. 대개 7월, 8월, 9월을 쉰다.

② 오징어 조달과 건조

공장에서 건조하는 오징어는 축산항에서 할복해서 가져온다. 오징어 할복을 이 곳에서 직접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신고가 들어와서 공장에서는 할복을 하지 않는다. 개인집에서 하는 경우는 오징어 할복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작업은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난다. 고용인은 보통 여성이 6명, 남자가 1명으로 7명이다. 공장인부는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다. 이외에 사장님 사모님까지 해서 9명이 주로 작업을 한다.<sup>10</sup> 공장에서는 건조를 하고 마무리 손질을 해서 판매처로 나간다.

③ 오징어 공장의 시작과 운영

최사장의 부인은 충남 공주가 고향이다. 남편은 경남 진해사람이다. 본래 오징어 공장을 경남 고성에서 시작했다. 고성은 바다와 직접 닿아있는 곳이 아니라서 민물에서 작업을 했다. 내륙인 고성에서 작업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한다. 고성보다 오징어 시작 시기도 빠르고,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점이 있다. 오징어 공장터는 임대를 한 상태다. 2002년 2월 달에 오징어 공장을 시작했다.

● <사례 2> 제보자: 박순옥 (여, 1947년생)

① 오징어 탱기작업

오징어에 약 10-15cm 정도 되는 대나무를 끼우는 것을 ‘탱기한다’ 라고 한다. ‘탱기작업’이 끝나면, 먼저 건조장에 넣어둔 것은 꺼내와서 ‘피데기(반 건조 오징어)’를 바르게 편 후 냉동실에 다시 넣어둔다.

② 오징어 건조와 날씨

날이 좋으면 바깥에 널어둔다. 날이 나쁘면 거두어 들여서 건조실에서 말린다. 하늬바람하고 같이 불어야 건조가 잘 된다. 비가 안온다고 해서 마르는 것은 아니다. 탱기작업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바깥에서 말릴 수 있어 인부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공장입장에서는 굴에서 말리지 않아도 되니까 기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날이 좋지 않으면 인부들이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므로 피곤해 진다. 그냥 바람에 마르면 오징어 작업의 전 공장에서 2-3단계가 줄어든다. 즉 줄에서 말라가는 오징어를 선채로 펴도 되고, 마지막에는 줄에 널어둔 채로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sup>10</sup> 최사장네는 공장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여 생활하는 부부 한쌍과 공장주 부부가 같이 한다. 이들은 마산에서 같이 동업을 하다가 이 마을에서 들어왔다.



### ③ 오징어 공장 인부 생활

집에서 필요할 때는 조금 하고 여기서 거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면 일당 받고 한다. 무조건 한 과정을 끝내야 한다. 이것을 ‘한과정치기’라고 한다. ‘알바’식으로 잠깐 하는 사람은 할복을 한 생오징어가 공장에 도착한 이후 탱기까지 해주는 과정을 맡게 된다. 대개 오전에 끝나면 한 2만원 정도 준다. 전에 이런 식으로 알바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월과 11월은 계속 여기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품 받는 것 보다는 낫다.

### ④ 한과정치기

하루에 한 물량이 들어오면 탱기하고 저녁에 굴에서 말리고 다음날 다시 꺼내서 널고 펴주고 냉동실에 넣고 다음날 최종 박스로 묶어주는 일까지를 맡는다. 그렇게 한물 완전히 끝내면 어느 정도 품삯을 받는다. 한과정치기에서는 ‘한 물량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진다. 예를 들면 축산항 근처의 공장에서 오징어 할복부터 한과정을 하고 나면 8만원을 받고, 할복돼 있는 것을 받아서 하면 7만원을 받는다. 한물량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번 오징어가 들어 올 때를 이르는데, 보통 40박스(과고 혹은 마뚜리)나 50박스 정도다.

오징어 공장이 경정1리에 들어온 것은 1992년 무렵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의 경정해수욕장 근처에 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3~4년 동안 공장은 잘 운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징어 공장에 나가서 일하던 마을사람들이 차츰 개인적으로 집에서 건조작업을 하게 되면서 공장은 경쟁력을 잃어갔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오징어 작업을 개인 가구 단위로 할 때는 축산수협에서 건조된 오징어 물량을 전량 구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징어 건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건조오징어를 유통 - 판매를 하다가 팔리지 않으면 축산수협에 넘기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축산 수협이 구매하는 방식은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개인 가구 단위로 오징어 건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징어 건조제품

1. 오징어 손질하는 모습  
2. 오징어를 건조대에 올리는 모습





을 판매하는 루트가 당해 생계와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공장이 2002년 이후 마을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현재 오징어 공장이 세 개로 늘어나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오징어 건조 유통의 과정에 애를 먹는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끝으로 개인 단위에서 오징어철 건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사례는 5개가 소개되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하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1> 제보자: 김정식 (남, 1939년생)

김정식 부부는 하루에 8-10 '마뚜리(=과고)' 정도 공판장 경매에서 사와서 건조작업을 한다. 그 외에는 수협 중매인 제도를 이용하여 수협에 재산을 공탁해두고 그에 상응하는 양을 사와서 다른 사람에게 판다. 그 양이 하루에 약 100마뚜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는 4%의 수수료를 받는다. 건조작업을 마친 오징어는 서울 중부시장의 건어물상에 판매를 위탁하는데, 화물차로 실을 수 있는 양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보낸다.

● <사례 2> 제보자: 김병철 (남, 1938년생)

<사례 1>에서처럼 오징어 중매인을 하는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주고 오징어를 사서 건조작업을 직접 한 후에, 김정식과 같은 서울 중부시장의 한 상회에 판매를 한다. 김병철 부부는 김정식 부부처럼 매일 오징어 건조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사례 3> 제보자: 이균태 (남, 1941년생)

이균태 부부는 오징어 건조 과정을 위탁받아서 건조과정 일체를 맡아서 하고 건조과정이 끝나면 위탁 한 업주에게 돌려주는데, 한 축에 2,000원의 수고비를 받는다. 하루에 10마뚜리 정도를 작업하며 그 양은 약 75-80 '두름(축)' 정도가 된다.

● 〈사례 4〉 제보자: 김외삼 (남, 1965년생)

하루에 10마뚜리 정도 작업하는데, 축산 공판장에서 직접 경매를 해서 사온다. 오징어 작업은 분명 이윤이 많이 남지만, 고정적인 수입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판매는 영해시장과 대구에 있는 한 상회에 판매를 하는데, 이전부터 유통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게이다. 그 외에는 직접 구입해간 개인들이 오징어철이 되면 주 문전화를 해서 택배로 보내준다.

● 〈사례 5〉 제보자: 김순택 (남, 1938년생)

정영택 사장네에서 건조를 위탁받아서 샐건조를 해주고 있다. 하루에 9~10마 뚜리를 작업하고 한 축에 2,500원의 인건비를 받는다.

**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문어, 도다리, 쥐치 등을 주로 잡는다. 고동도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문어는 통발로 잡는다. 과거 문어가 혼할 때, 문어낚시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어낚시 다음으로 문어단지를 이용하여 문어를 잡기도 했다고 한다. 문어는 어딘가 은신처가 있어야 하는데, 문어단지는 문어의 은신처가 되는 썸이다. 문어단지를 사용할 때는 단지 밑바닥에 구멍을 하나 뚫는다. 그리고 문어단지를

오징어를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모습





약 3m 간격으로 하나씩 거는데, 이런 상태로 100m 정도 줄을 맨다. 하루나 이틀 후에 바다에 나가 문어단지를 건지면 그 속에 문어가 어김없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문어단지를 이용해서 문어를 잡던 방식은 1970년도 후반 통발이 도입되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문어단지’를 써서 문어를 잡는 방식은 고(故) 유경도가 마을에 도입시켰는데, 그는 유원필(남, 1938년생)의 큰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경정1리에서는 현재 이대우, 최건일, 김외삼, 이인규, 이태만, 엄재수 등이 ‘문어바리’를 한다. 문어의 미끼(이곳에서는 ‘메까’라고 함)는 정어리를 사용하는데, 정어리의 냄새를 맡고 문어가 통발로 들어오도록 한다. 하나의 통발에 보통 문어가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2마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마리가 죽는다. 이는 서로 살을 뜯어먹기 때문이다. 잡은 문어는 영덕에 단골로 거래하는 상인에게 판매한다. 문어는 연중 계속 잡히지만 1월에서 6월까지가 가장 많다. 마을에서 문어통발을 하는 집은 3가구이다. 정어리와 정어리를 담는 망도 축산의 만석 선구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도다리를 잡는 방식은 주로 낚시를 한다. 그물로 하기도 한다. 마을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도다리를 잡는다. 주로 ‘땃마’를 이용하여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타고 나간다. 마을 사람들은 “땃마 없을 때는 바다에 나가 도다리 같은 것은 못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다리 잡는 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어장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양식미역을 위해 땃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조사연구기간에도 미역건조철이 끝나자, 땃마를 이용하여 도다리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도다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잡게 되면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 1.고동
- 2.통발어업
- 3.고동





다. 문제는 연료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다리 낚시는 '경정의 바다밑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 마을에서는 이대우(남, 1938년생), 김외삼(남, 1965년생) 등이 경정 앞바다의 바다밑 사정에 밝다고들 한다.

마을에서는 뗏목을 이용하여 통발어업으로 쥐치를 잡아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경정1리 쥐치는 마을 앞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김성일(남, 1948년생)이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인데, 그는 쥐치 치어를 가두리 양식장에 방류하여 약 6개월 정도를 키워서 성어가 되면 시장에 판매하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팔려 나가는 쥐치 도매가는 1kg에 2만 원 정도하는데, 전국으로 배송된다. 쥐치는 헛감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이라고 한다.



통발어업으로 쥐치 잡는 모습

## 대게잡이

현재 경정1리에는 10톤 이상의 대게잡이 배가 없다. 16톤 이상이 되어야 주의보가 떠도 배가 출항할 수 있다. 경정 1, 2, 3리를 합하여 약 30여 대의 대게잡이 어선이 있으나, 경정1리에는 4대밖에 없는 상황이다.<sup>11</sup>

대게를 잡기 위한 방법은 통발과 그물 두 가지가 있는데, 통발은 수심 400m~1,000m 깊이에 설치하며, 그물로 잡을 경우에는 수심 200m~250m 정도에서 작업을 한다. 영덕대게 중에 가장 귀하고 비싼 값에 팔리는 박달대게는 그물로는 잡을 수가 없고 통발에만 들어온다. 도매가는 크기에 따라 25,000원~100,000원 정도이며, 소매가는 200,000원~300,000원까지 나간다. 100톤 이상이 되는 대게잡이 배들은 울릉도 근처까지 나가서 대게를 잡아 오는데, 한번 나가는 작업기간은 일주일 정도이다. 사실 이렇게 잡은 게는 영덕대게라고 할 수 없지만 영덕근해의 대게잡이가 워낙 생산량이 부족한데 반하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작업의 반경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소형어선으로 대게를 잡는 어민들은 대게를 위판장에 내릴 양도 많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을 수확 하게 될 때가 흔하다. 이렇게 잡은 대게는 마을의 횃집이나 개인 판매용으로 나가고 있다. 또 통발로 대게를 잡는 어민들이 통발의 위치를 자꾸 해안에서 가까운 쪽으로 들여와 그물로 잡는 어민들과의 분쟁이 계속 이어진다.



1

1. 대게
2. 대게잡는 그물 손질하는 모습
3. 대게잡이
4. 대게잡이
5. 대게잡이 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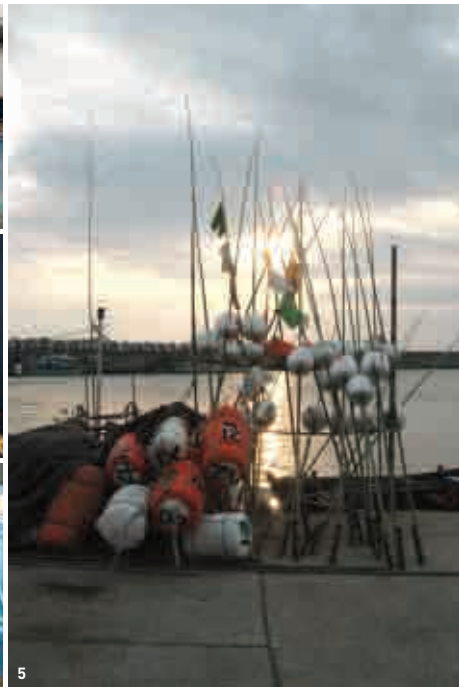
2



3



4



5

<sup>11</sup> 해경호(박건호·박홍균의 아들), 선일호(유영중), 우진호(윤금열, 한명진), 수진호(조귀순, 한인식)

## 나잠업

마을 해녀는 6명이 있으며, ‘나잠허가’라 하여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는 신고제이며, 이들이 들어가는 바다는 그 지역 어촌계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해녀들은 산란기에 있는 수산물을 잡아서는 안되며, 치패 사업으로 뿌린 것을 잡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치패사업으로 한 것은 어촌계의 관리이며, 대개 이는 따로 해녀들을 고용하여 어촌계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을 ‘물항입찰’이라고 한다.

김순란(여, 1954년생, 해녀)은 물항입찰과 자신의 해녀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물항입찰은 누가 사되, 예를 들면 4천원이다 하면 어촌계 2천원 내가 2천원 먹는 방식입니다. 어촌계가 팔면은 걸리지요,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직접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지요. 내가 만일 성게를 하겠다 싶으면 물건 나오는 킬로에 대해서 어촌계장하고 있는 사람하고 땀기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2500원이다 하면 어촌계 얼마 주고 자기가 얼마 먹고 하겠지요. 만일 구룡포 해녀들이 오면, 그분들 와서 하면 물항입찰하게 되지요. 지방 해녀들은 성게 전복을 하지 않습니다. 흑운단, 적운단, 검은 성게 등을 하지요. 성게와 운단 두 개는 달라요. 큰 것은 성게고 가격은 흑운단이 비싸다. 우리(경정1리 해녀들)는 작업바리 다닌다. 해삼줄고 문어잡고 요즘은 그런거 하러 다녀요. 우뚝가사리도 하는데 지금(2008년 10월)은 철이 아니니 못하지요, 봄이 되어야 합니다. 물에서 성게 전복을 잡을 수 없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잡을 수 있다. (김순란 제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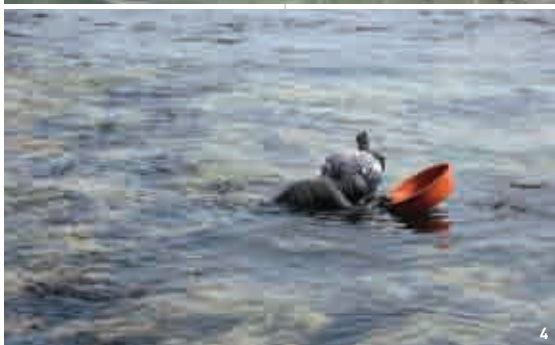
1. 해산물  
2,3,4 해녀



2



3



4

김순란의 해녀 생활의 연중 생업력은 1월~2월에는 문어·해삼·‘앵장기(성게)’, 2월(말)~4월에는 문어·전복·군소를 주로 잡는다. 동시에 4월은 미역채취일로 바쁘다고 한다. 5월~9월은 고동·해삼, 10월~12월에는 ‘앵장기(성게)’·문어를 잡고 가끔씩 해삼이 잡힌다고 한다. 또한 10월에는 짬매기(‘기세작업’)로 바쁘다고 한다. 고동은 경정항 가까이에서 잘 잡히며, 전복은 측강 방파제 있는 곳에서 많이 난다.

한편 경정1리 김순란의 해녀로서의 작업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월~12월에는 오전 9시반~오후 1시나 2시에 들어온다. 봄이 되면 아침 일찍 나간다. 오전 6시에나 오전 7시 즈음에 나가면 오후 3시, 4시까지도 있다. 여름에는 5시 반이나 6시에 나가면 보통 오후 3시, 4시에 들어온다. 가을도 여름과 비슷하다. 봄으로 물이 차갑다고 한다. 양력으로 따지면 1월~3월, 때로는 4월까지도 물이 찰 때가 있다고 한다. 그녀는 15년 정도 해녀일을 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런 식이었다고 한다.

### 천초 채취

천초(우뭇가사리)는 5월과 6월부터 시작하여 8월말까지 하는데, 파도가 치면 연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나지 않는다. 우뭇가사리 작업은 남녀 모두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박찬여(여, 1922년생)와 임례(여, 1932년생) 할머니는 우뭇가사리 일을 올해도 했다. 우뭇가사리는 연안에서 건져와서 집이나 도로변에서 건조를 하고 손질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건조를 하는데 있어 손질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kg당 시세가격이 각각 15,000원과 7,000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1. 천초 채취  
2. 천초 손질





경정1리 뱃볼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경정1리의 안골과 버등골에 있는 봉답뿐만 아니라, 수리조건이 한결 좋은 구평들과 염장들에 많은 논들을 부쳐왔다. 그러나 현재(2008년)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논을 소유하고 직접 경지를 이용해 쌀을 자급하는 집은 7가구에 불과하다. 그들이 부치는 논경작 규모는 [표 8]과 같다.

[표 8] 경정1리의 전답 소유 현황

	논의 평수	논의 위치
최수룡	900	구평들
유영춘	800	구평들
이중태	700	구평들
박홍균	700	버등골
이귀중	460	구평들
김복덕	460	구평들
김귀천	400	구평들

마을 사람들은 단오를 ‘마지막 가는 명절’이라고 부른다. 단오가 지나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단오를 전후해서 모를 심는 등 농번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마을 제당 제사(정월, 단오, 시월보름)를 마치고 꼭 동회를 하였는데, 단오 뒤에는 농사 품삯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머슴 품삯이나 모를 심는데 남자 품 여자 품, 타작 하는데 남자 품, 여자 품등을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 결정에 의해 사람을 사면 그 결정대로 품삯을 주었다고 한다. 품삯을 정한 사람들은 주로 마을 어른들이고 권한 있는 사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보리, 조, 콩도 단오 후에 밭을 갈고 모내기, 감매기도 단오 후에 했

1. 모를 심는 모습
2. 모판을 실은 이앙기
3. 논두렁 제초작업



다고 한다. 미리 밭을 갈아 품을 팔았다고 해도 단오 때 품값이 결정될 때까지 품값을 받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2008년 박홍균(남, 1939년생)은 6월 3일 모내기를 하였다. 작년에는 6월 2일에 모내기를 했다고 한다. 모판은 염장에서 부탁해서 가져왔다. 기계로 모내기를 했는데, 이 또한 염장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와서 해 주었다고 한다.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 뒤의 봉답에서 논을 부치고 있는 박홍균은 “올해는 물이 없어 비가 온 다음 못자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내기가 늦었다.”고 한다. 내년(2009)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1.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는 이균태
2. 밭을 매는 모습
3. 고추를 따는 이균태 부부



어촌이라고 하면 으레 횃집이 즐비할 것으로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정1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적어도 현재는 그렇다. 상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가게는 ‘경정슈퍼’와 ‘승리슈퍼’, 횃집으로는 ‘경정횃집’, ‘경정어촌계대게집’ 그리고 ‘대구회타운’과 낚시가게 하나가 있다. 슈퍼마켓은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매상을 올리지만 마을 앞 도로상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에 횃집이 세 곳이지만, 어촌계 소유인 ‘경정어촌계대게집’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어촌계에서는 ‘경정어촌계대게집’ 입주 조건으로 초기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세웠으나,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의 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한다. 상가가 비워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이번에는 월세 50만 원의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입주자는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입주하기를 원하지만 비워진 상태 그대로 있다. 동해안 최고의 생선과 영덕대게 본 고향의 맛을 길어 올리는 바다가 있고 그것을 잡아내는 어부들이 있는데도 ‘경정어촌계대게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 상업이 보여주는 경정1리의 또 다른 현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종 낚시도구를 파는 ‘경정대구낚시프라자’는 현재 경정1리 이장 한경섭(남, 1964년생)이 운영한다. ‘피싱스쿨’도 운영하며 낚시에 조예가 깊어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다고 한다. 한경섭 이장의 집은 이층에 민박을 주고 있는데, 여름철의 피서철은 물론이고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동해안의 바다낚시를 즐기는 민박객들이 투숙하는 일이 잦다. 마을에서 민박집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집 가운데 한 곳이다.

1. 횃집  
2. 낚시가게  
3. 경정슈퍼



경정1리에는 약 30년 전인 1970년대부터 민박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영순(여, 1942년생, 노인회 총무 부인)은 “현재의 경정항(景汀港)에 모래사장이 있던 시절에는 여름철 민박(民泊)이 잘 되었다.”고 한다. 방파제 공사를 하기 전에 피서철에는 마을 앞길에 차가 막혀 동네 청년회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민박 이용객들이 머무는 기간은 1박2일 많으며, 2박3일은 드문 편이었다고 한다.

과거 영덕군의 민박업은 영덕군청에 신고를 하고 실사를 통해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전부터 경정1리 주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민박집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민박업이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정1리에서의 민박업은 방파제가 생기고 모래사장의 상당부분이 항구로 활용되면서부터 피서객 또한 줄어들어 영업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또 다른 민박 이용객 감소요인으로는 최근 피서객들이 에어컨 시설을 갖추었는지, 샤워장 시설은 좋은지 혹은 화장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등과 같은 민박의 내부조건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해안을 따라 새로이 들어선 ‘펜션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외에 7번국도의 구간 확장으로 피서객들이 인근의 큰 해수욕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좋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모래사장도 작고 기반교통 여건이 안좋은 경정1리 해수욕장으로 피서객 유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경정1리로 이사를 와서 올해 처음 민박집을 운영해 본 임병욱(남, 1971년생) · 정차남(여, 1975년생)은 나름대로 피서철 민박의 수혜를 누렸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

2008년 처음 해봤어요. 한 백만원정도 벌었나. 7월 중순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8월 20일 폐장할 때까지 계산해보면요. 우리는 주위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민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15개 팀 정도를 받았나 그래요. 보통 하루나 이틀이고 그 이후 머무르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늘 방이 찼던 거 같아요. 대구, 부산, 서울, 안동, 영주 등등의 지역에서 왔다고 하데요. (동해안) 해변으로 올라오는데, 민박집이 없어서 올라오다가 오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펜션이 먼저 차지 않나 싶어요. 가격은 여름철 피크 기간이 끝났을 때 가격을 깎아서 받아요. 여기는 해수욕장이 작으니까 가족단위로 조용히 오는 분들은 이런 곳을 선호하는 거 같아요. 주변의 큰 해수욕장에 비하면 그런 점이 참 좋은 이점인 거 같아요. (정차남 씨 제보)



그러나 임병욱(남, 1971년생)·정차남(여, 1975년생)의 민박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 피서철 이보다 좋지 않은 민박수익을 올리는 집들도 많다. 특히, 해안 도로에 면하지 않고 동네의 안쪽에서 민박을 하는 집들의 경우는 더욱 사정이 좋지 않다. 평소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이나 부산 또는 인근 도시에서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하고 고요함을 즐기기 위해 동해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아름다운 길, 강축해안도로(918번 지방도)는 인기가 높아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정1리의 민박집 주인들에게 이러한 도시인들은 ‘해안도로의 드라이브를 즐기며 동해안의 회와 대게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며, ‘차신들의 민박집에 머물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강축해안도로를 따라 경정1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한 편이다. 이는 바로 옆 마을을 ‘영덕대계원조마을’로 만들고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12월에서 이듬해 4월, 5월까지 손님들로 붐비는 경정2리 차유마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경정1리에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게요리를 통해 ‘지나가는’ 고객들을 붙들려는 노력이 그 중 대표적이다. 최근 3~4년 전부터 마을의 젊은 층들 중에는 대게를 직접 잡는 집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집들에서도 민박 편의시설을 현대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이때 숙소로서의 기능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민박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제 민박업은 여름 한철 동해안으로 몰려드는 피서객들을 상대로 하여 특수를 누리던 일이 아니다. 또 민박업은 쇠퇴하는 것도 아니다. 경정1리의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민박은 동해안의 자연이 그리운 현대인들과 그 자연의 맛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1. 경정1리의 민박집  
2. 해수욕장











# 4 | 사회조직

마을개발위원회(이장단)

어촌계

경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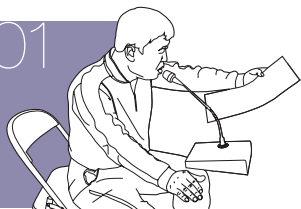
부녀회

청년회

계 조직

기타 조직





# 마을개발위원회(이장단)

한경섭 이장은 주변 마을의 이장에 비해 젊은 이점을 가지고 마을의 발전과 숙원사업 유치 및 복지를 위해 추진력 있게 봉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마을에 젊은 이장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 조직 구성 역사와 조직

● ○

경정1리의 이장단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12개 반의 반장으로 구성된 다. 이장은 한경섭으로<sup>01</sup> 2006년 정월대보름 대동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되어 2008년 봄까지 이장직을 맡았으며 2008년 대동회에서 유임을 받아 현재 3년째 이장일을 하고 있다. 이정록(남)은 현재 이장과 같은 역할이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민방위대장이었으며 자신이 우수 민방위대장으로 선정되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후 경정리가 경정동이었던 시절에는 현재 이장을 동장이라고 불렀으며 마을 주민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장을 동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2008년 11월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김하섭로 새마을운동 당시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새마을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지금은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개발위원은 총 14명으로 박홍균, 유은중, 이정록, 김하섭, 김병철, 박향로, 방상도, 이장상, 이태상, 이귀중, 권봉도, 김성일, 유영춘, 박수남이다. 개발위원은 이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이장이 바뀌면 개발위원도 새롭게 조직된다. 신임 이장이 새롭게 개발위원을 조직하려면 이장이 개발위원을 지명한 후 동의를 얻어 구성하게 된다. 현재 개발위원 총무는 이태상이 맡고 있으며, 개발위원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정1리에는 12개의 반이 존재하고 각 반에는 반장이 있는데 1반 황춘관, 2반 이상진, 3반 박정웅, 4반 김창중, 5반 김순란, 6반 박순옥, 7반 이상호, 8반 이정달, 9반 장대호, 10반 김성일, 11반 이정록(여), 12반 남북이가 반장을 맡고 있다. 개발위원과 마찬가지로 반장 역시 이장이 임명을 하며, 한경섭이 이장이 되면서 마을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반장을 임명하였다.

<sup>01</sup> 한경섭은 대구가 고향으로 뉴시를 좋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다 12년 전 경정1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가족들에게 2년 정도만 거주하고 도시로 돌아가자는 약속을 하고 마을에 들어왔으나 지금은 마을의 대표인 이장을 맡고 있다. 현재 자신의 취미를 살려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장의 역할은 마을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만 등을 수렴하여 숙원 사업을 유치하는 것 등이다. 이장을 맡으면 여름철 마을 해수욕장 운영위원장, 영농회장, 농지위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한경섭 이장은 축산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 영덕군 수상인명구조회 회장 등을 겸하고 있어서 마을 내외의 여러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장의 수입에는 월급 22만원, 영농회장 수당 7만원, 1년에 두 번 마을 주민들이 이장활동비로 거두어 주는 모곡이 있다. 과거에 마을 주민들이 한 가구당 한 되씩 벼나 보리로 이장에게 주는 것이 모곡이었으나 현재는 1년에 한 가구당 만원씩 거두어서 주고 있다. 모곡은 과거나 현재에 마을의 주요 조직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의 경우에는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거에는 이장이 마을 외에 출무 시 교통비 등을 마을에서 지급했는데 현재는 이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장의 연중 주요 업무는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는 음력 1월 보름 대동회와 정월대보름 행사, 5월 경로잔치, 여름 해수욕장 운영, 월 2회 축산면 이장단 회의 참석 등이 있고, 비정기적으로는 일 년에 한두 번 개발위원회 회의 실시, 영덕군 매정리에 위치한 '사랑의 공동체 양로원' 봉사활동, 마을 주민 복지를 위한 노인 연금 관련 업무,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 등이 있다. 음력 1월 정월대보름에는 동제와 마을 전체 회의를 실시하는데 이것을 대동회라고 하며 동제 및 회의 후에는 마을행사로 반별 주민 율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5월에는 어버이날이 있기도 하고 이 시기에 미역과 관련된 일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어 경로잔치를 실시한다. 여름 해수욕장은 이장과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 이장 회의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한 마을 숙원 사업 유치와 행정 지도전달을 주고받는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에 중대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9월 30일에 마을 숙원사업과 해수욕장 운영 결산과 관련된 회의를 실시하였다. <사례1> 매정리에 위치한 '사랑의 공동체 양로원' 봉사활동은 청년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마을에서 생선을 얻어서 갖다 주거나 여름이 오기 전 매년 봄에 방충망 교체 작업 및 양로원 시설 정비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한경섭 이장은 주변 마을의 이장에 비해 젊다는 이점을 가지고 마을의 발전과 숙원사업 유치 및 복지를 위해 추진력 있게 봉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마을에 젊은 이장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한경섭 이장이 2006년 이장으로 임명된 이후 추진한 사업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외에도 2009년 예정된 사업으로 중앙통 하수도 정비 및 도로 포장, 방파제가

[표 1] 이장 사업 추진 내용

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금액	추진연도(년)
도로 반사경 설치	경찰서 교통계		
경로당 증축 공사	영덕군	4200만원	2006
해수욕장 옆 소공원 조성	축산면	1000만원	2006
버스 승강장 건립	영덕군	1100만원	2006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영덕군		2006
마을 정보화센터	영덕군	3000만원	2007
해수욕장 샤워장	영덕군	1억 1천만원	2007
해수욕장 급수대	축산면	500만원	2007
해수욕장 관리실	영덕군	1000만원	2007
큰골 농로 시멘트 포장		1100만원	2007
마을 정보화센터 기기 구입		1000만원	2007
마을 공동 화장실		5000만원	2008

로등 설치, 방파제 난간대 설치 등이 있으며, 건의 중인 사업은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미역 및 오징어 공동 건조시설, 수산물 및 건어물 판매장, 승리슈퍼 옆 골목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있다. 중앙통 하수도 정비 및 도로 포장 사업과 방파제 가로등 설치의 확정된 사업으로 각각 약 1억원과 약 2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방파제 난간대 설치의 영덕군 수산과와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건의해 놓은 상태로 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건의 중인 사업은 유치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시·군청에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한정섭 이장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이나 축산면 행사에 인력 동원 등으로 지원을 하면서 공무원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 〈사례 1〉 마을개발위원회 회의

2008년 9월 30일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경정1리 마을회관 2층에서 마을개발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조사자를 제외하고 이장 한정섭 외 11명이었으며, 회의진행은 이장이 하였다. 회의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안건

##### ① 중앙통 하수도 및 도로포장

중앙통은 윗당 근처에서부터 현재 유은종 노인회장의 집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170m, 폭 약 2m 50cm 정도의 골목으로 강축도로에서부터 윗당 쪽 입구는 약 150m, 노인회장 집 앞 입구는 약 7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골목은 강축도로를 제외하면 마을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유일한 길로서 골목 좌우에는 집이

회의를 진행 중인 이장 한정섭





빠곡하게 들어서 있다. 또한 길 가운데는 일정한 간격으로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골목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빠져 나가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 하수구의 물이 넘쳐 주변 홍수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2009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약 1억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될 것이다.

#### ② 최건일 집 앞부터 항구까지 하수관로 확장

승리슈퍼 옆 골목의 하수관로는 폭 약 2m 50cm, 길이 약 100m 정도로 확장 및 정비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축산면장에게 건의하여 영덕군 건설과를 거쳐 영덕군의회의 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이장 및 개발위원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③ 해수욕장 화장실 교체

현재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꾸준히 건의 중에 있다.

#### ④ 항구 안 가로등 설치

항구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4-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총 2천만 원의 공사비가 들 계획이며 2009년 실시될 예정이다.

#### ⑤ 방파제 난간대 설치

방파제 난간대 설치하는 수산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을개발위원회 회의 모습

#### 2008년 해수욕장 운영결산

개발위원회 안건이 끝나고 2008년 해수욕장 운영결산이 있었다. 이장이 결산 내용을 하나씩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난 후 개발위원들의 반응은 “많이 남았네.”, “수고했구먼.”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인쇄물을 운영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 점에 대해서도 운영위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산 보고 후 이장은 “작년의 경우 잔액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생활용품들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잔액의 쓰임에 대해서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김병철 위원은 피서철에 장갓불과 담물에서 각 한 개씩 설치되는 포장마차에서 누구든지 입찰을 통해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2007년에 했던 방식처럼 잔액을 가구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포장마차 시설에 투자를 할 것을 제안했다.<sup>02</sup> 2008년에도 장갓불과 담물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개인이 전기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불편함 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시설 설치 및 정비를 제안한 것이다. 반면 김성일 위원은 만약을 대비하여 마을 기금으로 저축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유영춘 위원은 청년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청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회 기금으로 쓸 것을 제안하였다. 김병철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마을 일부 주민이 찬성을 하였고, 김성일 위원은 김병철 위원의 제안으로 생각을 바꾸었으며, 유영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청년회에서 크게 자금을 들여가면서 할 일이 없으며 현재 축적되어 있는 청년회 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이장의 설명이 있었다. 결국 거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해수욕장 장사 시설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다.

[표 2] 해수욕장 운영 결산

수입총액	6,475,000원
담물 식당	1,200,000원
장갓불 식당	1,150,000원
해수욕장 운영수입	3,805,000원
고시수입	320,000원
지출총액	3,291,580원
파이프	130,000원
차광망	125,000원
로프, 마대	71,000원
제초제	35,000원
튜브	310,000원
고사재료	210,000원
식참대	245,000원
휴지통, 비누, 쓰레기 봉투	198,850원
사위장 수도세	248,880원
이수정 인건비	1,200,000원
군에 내는 점포 사용료	117,850원
이장 판공비	400,000원
잔액	3,183,420원

<sup>02</sup> 피서철에 마을에는 총 두 개의 포장마차에서 마을 주민이 장사를 하는데 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장갓불은 해수욕장 주변을 말하는 것으로 해수욕장 관리실 옆에 포장마차가 설치되는데 2008년에는 박동희와 아들 엄재수가 운영하였다. 담물은 마을 강측도로를 따라 경정<sup>22</sup>로 가는 길에 위치한 짬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유영춘, 김순자 부부가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다.

## 기타 안전

기타 안전으로는 총 세 가지의 의견이 있었다. 첫 번째로 김병철 위원은 승리슈퍼 옆 골목은 비가 많이 올 경우 하수도가 빗물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목에서 바닷가로 통하는 승리슈퍼 옆 높은 지대에 구멍을 내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장은 하수도가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수도 폭을 넓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고 개발위원들이 축산면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고인이 된 김정식B 대신 개발위원을 새로 정해야 할 것인데, 이장이 권봉도를 개발위원으로 임명하였고, 권봉도는 “갑자기 개발위원이 되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보니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말하였고 개발위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으로 새로운 개발위원 임명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유영춘 위원은 마을에 빈 가구가 많은데, 빈가구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여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마을의 빈 집은 이정달, 김돌암, 김영일, 방영필, 박무웅, 박노운, 김용구, 유길종의 집이다. 이장은 과거에는 주소지 이전을 하면 이장과 반장의 도장을 받아서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개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집 주인들이 세를 내어 집을 빌려주면 그것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므로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유영춘 위원은 외지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면서 마을의 질서가 약간은 어지러워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개발위원회의를 자주 열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장은 현재 빈 집은 모두 경로회 회원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개발위원들이 경로회 회원들에게 말씀드려 각자가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면에서는 1년에 한 번 50만 원 정도 구가 뜯는 사업을 지원해줘서 2008년에는 이수정의 구가를 뜯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위원들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고, 이장은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함께 10월 2일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장에서 운동회가 열리는데 분교에서 열리는 마지막 운동회가 될 것이므로 많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가 끝났다.

마을에는 총 12개의 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반별로 모임을 갖거나 계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왔으나 현재는 반별 활동이 거의 와해된 상태이다. 현재 11반 반장을 맡고 있는 이정록(여)은 현재 부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10여 년 동안 11반 반장을 겸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마을 방송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힘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이장이 반장에게 연락을 하여 반장들이 반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연락망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만약 마을에 부역이 있으면 반장이 반원들에게 알리고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일일이 반원들에게 나누어주러 다녔으나, 현재는 마을 전체 방송<sup>03</sup>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을 일을 한 번에 알리고 세금고지서는 각 가구에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8년 9월 11일 마을 대청소가 있었는데 9월 10일 이장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전체에게 전달함으로써 반장이 각 가정에 알리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 모습이 반장 역할 축소 of 한 예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장의 역할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장에게 주는 모곡을 걷는 일로 모곡은 1년에 두 번 마을 주민들이 한 가구당 만원씩 거두어 이장에게 주고 있다. 이정록(여)은 모곡이 과거에 이장의 유일한 수입이었다고 한다.

반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반상회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반상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열리고 있다. 과거에 반상회가 열릴 때는 반장이 마을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반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경우 반장이 이장에게 보고한 후 이장은 반상회의 내용을 취합하여 고려 후에 면에 건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반상회가 거의 사라지면서 반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이렇게 반장과 각 반의 역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각 한 번의 반장회의와 반상회가 열렸다. 반장회의는 2월 19일 경로당 2층에서 저녁 7시에 열렸는데 각 반의 반장 12명과 이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반장회의의 목적은 음력 1월 정월대보름 대동회와 관련된 것으로 대동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반장들이 있으므로 회의를 하여 대동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미리 고려해보는 것이었다. 회의는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가 모두 모인 상태에서 대동회 자료를 열람한 후 이장이 대동회 내용을 미리 보고하였고, 1반과 12반 사이

<sup>03</sup> 경정1리 마을방송 시설은 총 두 개가 있다. 한 개는 마을회관 2층에 있는 것으로 주로 이장이 사용한다. 다른 한 개는 2008년 현재 어촌계장인 이정록의 집에 설치되어 있다.



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마을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무단 투기, 타지 않는 쓰레기 무단 소각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후 해수욕장 시설과 큰골 농노 공사 등에 대하여 논의한 후 대동회에 벌여질 반별 대항 옷놀이 경기방식을 설명하고 많은 참석을 부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회의가 끝났다.

마을 반상회는 2월 27일 저녁 7시에 경로당 남자 노인 방에서 7시 35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날 반상회의 제목은 '제17대 총선 공명선거를 위한 반상회'였다. 축산면사무소 직원 1명을 포함하여 마을 주민 15명이 참석, 총 16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명정대하게 17대 총선을 치루고 금품을 받지 말 것에 대한 당부, 도난과 금융사기가 많으니 주의할 것, 영해면에서 개최되는 3·1문화제 행사 안내 등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도난과 관련하여 근래에 유은종의 집과 김영곤의 집에 두 집에 도둑이 들었으며 김영곤의 집 도둑은 밀양에서 잡혔으나 당시 다불재로 넘어갔으므로 다불재로 올라가는 길을 막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다불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에 그물을 넣고 그 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다불재를 완전히 막아버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다불재는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길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인 초등학교 옆 길만 막자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석산에서 돌을 가져다 놓아 아예 출입을 막자는 주장과 열쇠로 잠가서 필요할 때만 열자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결국 후자로 결정하였고 열쇠는 두 개를 만들어 이장과 경로회관에서 하나씩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1. 반장회의
2. 반장회의
3. 반상회





## 어촌계

마을에서 비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마을의 행사와 발전을 위한 비용을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어촌계의 입지와 역할이 마을 내에서 크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역사와 조직

어촌계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상호 간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 조직이다. 2008년 10월 현재 경정1리 어촌계는 어촌계장을 비롯하여 총 53명의 어촌계원이 있다. 원래 52명이었으나 2008년 윤금렬이 새로 가입하여 53명이 된 것이다. 어촌계장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어촌계 정관, 어촌계 금전출납부, 수협에 나누어준 임원선거규정 등인데, 어촌계의 역사가 기록된 문서는 현재 보관이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의해 역대 어촌계장을 파악해 보았을 때 경정1리 어촌계는 196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어촌계가 있기 전에는 그 전신(前身)으로 어업조합이 195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따른 역대 어촌계장은 다음과 같다.

1. 어촌계장이 보관하고 기록하는 어촌계 금전출납부
2. 어촌계장이 보관중인 어촌계 정관과 어촌계 임원선거규정
3. 현 어촌계장 이정록과 부인 박정자



1



2



3

## ● 역대 어촌계장

송봉길 - 박노철 - 김태관 - 박노갑 - 김병철(1970년대) - 유성종 - 김태관 - 박항로 - 이종우 - 이정록(1994년 ~ 2002년) - 이종우(2002년 ~ 2006년) - 이정록(2006년 ~)

어촌계장의 임기는 4년인데, 연임을 한 경우도 있는데다가 박노갑 이전의 역대 어촌계장들은 현재 마을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어촌계의 시작연도와 역사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장과 경로회장 등의 임기가 2년인데 반해 어촌계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여타 마을조직에 비해 임기가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촌계장의 선출 방식은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게 되는데 투표권은 마을의 53명 어촌계원에게 있다. 어촌계원은 제한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자격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입비는 없으며 어촌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어촌계원이 되는 것인데, 성별 구분 없이 가구당 한 명만이 어촌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어촌계원의 자격을 다하지 않으면 제명을 당할 수 있는데, 제명된 경우 이후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이것은 경정1리 자체 규정으로 그 기간 안에 다시 어촌계원의 본분을 다하면 제명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08년에는 6명이 회원에서 제명 대상 인원으로 분리되었는데, 2007년에 이종술과 김영일이 사망하였고 2008년에는 김정식B가 사망하였으며 박영두, 김영학, 김귀천은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어촌계 정관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계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 총대, 어촌계원으로 구성되며 총대의 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정 1리 어촌계는 어촌계장 1명(이정록), 감사 1명(김병철), 총대 10명(유성종, 박항로, 박홍균, 김성일, 유영춘, 김차성, 김복덕, 남복이, 이장수, 권봉도), 어촌계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촌계장은 어촌계 전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각종 회의 참석과 개회를 하고 어민 및 어장과 관련된 일들을 관장한다. 어촌계장의 주요 업무와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어촌계장은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을 받게 된다. 매달마다 수협에서 1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선박입출항 대행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에서도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박입출항 대행소장은 선박입출항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며 어선의 수와 종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08년 8~10월에는 마을에 고래잡이배가 자주 나타나서 해양경찰이 마을에 들어와서 어선과 입출항기록부를 수시로 관리하였고, 그때마다 어촌계장이 나가서 해양경찰과 면담을 해야만 하였다. 그 외에도 현재 어촌계장 이정록은 적운단과 흑운단<sup>04</sup> 물량입찰 관리를 하고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적운단 물량입찰을 관리인을 두고 했는데, 어촌계원들이 총회 때 관리인을 두지 말고 어촌계장이 직접 할 것을 주장하여 2007년부터 물량입찰 관리를 어촌계장이 하게 되었다. 작년 적운단 관리비는 200만원, 흑운단 관리비는 70만원이었다.

<sup>04</sup> 운단은 성계의 사투리로, 적운단은 연장 계이라고도 부르며 흑운단에 비해 심이 잔잔하고 크기가 작다. 가을에 채취하며 붉은 빛을 띤다. 흑운단은 검은색을 띤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계를 일컫는 말인데 주로 여름에 채취하며 적운단에 비해 크기가 크고 심이 깊다. 적운단과 흑운단 채취는 마을의 해녀들이 어촌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일당을 받고 하게 되며 채취한 적운단은 kg당 물량입찰로 판매를 하게 된다.



어촌계장 이정록의 집에 설치된 방송시설

어촌계장 외에도 조직의 각 임원은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어촌계장이 작성한 입출금 내역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감사는 어촌계 규정상 총대가 되지 못한다. 즉 감사는 총대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감사는 김병철이며 수입은 따로 없다. 간사는 어촌계장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현재 경정1리 어촌계에는 간사가 없다. 총대는 총대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올해 총대 중의 한 명인 고 김정식B를 대신하여 권봉도가 새로운 총대가 되었다. 총대 선출은 총대회의에서 결정하여 본인의 의사를 묻은 후 동의를 받아내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총대 선출을 할 때 선거를 통했는데, 현재는 총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어촌계장 이외 어촌계의 다른 임원들은 수입이 전혀 없다.

### [표 3] 어촌계장 주요 업무

업무	내용
회의 개최	흑운단, 적운단, 광암 입찰 등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자금 운영	어촌계에는 총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자금을 운영, 관리한다.
어장 입찰 어촌계 횡집 입찰	5년에 한 번씩 어장 입찰을 하는데 현재는 유영춘이 어장을 사용하고 있다. 어촌계 횡집은 어촌계의 소유물이므로 입찰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선박 입출항 관리	큰 항구의 경우 해양경찰이 나와서 관리를 하지만 경정1리의 마을 항구의 경우 작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나오지 않고 어촌계장이 선박입출항 신고대행소장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선박의 입출항도 관리하고 있다.
각종 교육 참석	대표적으로 영덕 수산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어촌계장 교육이 있다. 영덕군과 울진군의 어촌계장이 모두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된다. 영덕군은 축산면 13개, 강구면 17개를 합해 총 30개의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울진군은 36개의 어촌계가 있다.
수협 대의원 선거	수협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큰 마을일 경우 두 사람, 작은 마을일 경우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된다. 경정1리는 비교적 큰 마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명을 뽑는데, 선거 기간 동안 어촌계장이 선거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수협이 선거규정안을 어촌계장에게 지급한다. 이 선거 규정은 대의원 선거 기간에 어촌계장에게 공통으로 지급된다.
마을 방송 <sup>05</sup>	어촌계장이 수산계로부터 어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 어촌계원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마을 방송을 하게 된다. 예) 2008년 9월 22일 오전 7시 50분경 어촌계장이 방송한 내용 “마을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바다 또는 육지에서 삼중 망 <sup>06</sup>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내용 3회 반복)

<sup>05</sup> 어촌계장 이정록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은 어촌계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어촌계장이 바깥 경우 방송시설 또한 새로 임명된 어촌계장에게 넘겨주게 된다. 어촌계장의 집에서 사용하는 방송시설은 주로 어촌계원들에게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만, 마을 주민 개인이 마을 주민 전체에게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촌계장에게 부탁하여 어촌계장이 그 내용을 마을에 알려주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다. 마을의 여타 사회조직과는 달리 어촌계장의 집에만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촌계의 역할이 마을 내에서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sup>06</sup> 삼중망은 그물이 세 겹으로 된 것으로 어업에 삼중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고, 어촌계장이 수산계로부터 단속기간을 전달받게 되면 마을 방송을 통해 단속 기간임을 알리게 된다. 2008년 삼중망 집중단속기간의 시작은 10월 1일부터이며 끝나는 시기는 공지되지 않았다.



어촌계는 기본적으로 어촌계원의 어업활동과 수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다른 사회조직과 모든 마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한다. 그것은 어촌계의 지출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어촌계의 수입을 볼 필요가 있다.

어촌계의 가장 큰 수입원은 당연히 바다이다. 바다는 마을어업권과 협동어업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육지에서부터 수심 7m까지가 마을어업권이고 7m부터 15m까지가 협동어업권이다. 이렇게 육지에서부터 수심 15m까지인 마을어업권과 협동어업권은 어촌계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sup>07</sup> 따라서 어촌계의 어업권 내에서 나는 수산물은 모두 어촌계 소득이 되는 것이다. 적운단과 흑운단이 주 수입원인데,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어촌계의 재산이라는 것은 어촌계원의 재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어촌계 어업권 내에서 나는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촌계원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어획물의 판매 등 수입이 비효율적이고 어촌계 조직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어촌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신 어촌계는 어촌계원들의 수협 출자금 대신 내어주게 된다.

두 번째로 어촌계 횃집 임대료가 있다. 어촌계 횃집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횃집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횃집인데, 2008년 10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1994년 현 어촌계장인 이정록이 어촌계장일 당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 어촌계 횃집을 짓고 임대를 시작하였다. 현재 어촌계 횃집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70만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삼각망 어장 자리 임대료가 있다. 군으로부터 어촌계가 1998년 즈음에 허가를 받은 것인데 경정1리에는 한 자리밖에 없으며 현재 유영춘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5년간 3000만원이다. 현재는 군에서 어장 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처음 어장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자리만 있으면 어장 허가를 내줬는데, 경정1리에는 어장 허가를 받을 당시 미역 양식 어장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한 자리만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어촌계의 주요 지출로는 마을 제사, 경로회관의 각종 세금, 그 외 마을의 주요 사업 비용 지원 등이 있다. 먼저, 과거에는 3년 또는 5년마다 해오던 풍어제를 현재는 10년에 한 번씩 열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풍어제 비용을 지원하며, 1년에 세 번 있는 마을 제사에 어촌계가 매년 200만원의 지원금을 경로회에 지원하고 있다. 마을 제사를 한 번 하는 데에는 200만원까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남은 돈은 경로회에서 제당 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경로당 전기세, 수도세 등 경로

<sup>07</sup> 동해안은 공통적으로 어촌계 재산 수심이 일정하다. 그러나 남해, 서해와는 수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다르고 바다 밑 땅의 경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회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금을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을에서 비 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시에는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마을의 행사와 발전을 위한 비용을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어촌 계의 입지와 역할이 마을 내에서 크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또 다른 어촌계의 지출로 들 수 있는 것은 수협 출자금이다. 수협에서는 매년 조합원 출자금을 배정하여 알려주는데 조합원 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약 15만원으로 정해진다. 현재 마을의 수협 조합원은 총 123명이므로 1년에 약 1850만원의 출자금이 배정되는 것이다. 한편 수협에서는 어촌계원에 한해서 공동출자를 인정하는데, 출자금 배정은 마을의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출자금 지불은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만의 명의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50만원의 출자금이 배정되었을 때 어촌계원이 53명이라면 어촌계에서 출자금을 지불할 경우 어촌계원마다 약 35만원의 출자금을 낸 격이 된다. 공동출자 외에 어촌계원이면서 개인출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특별출자라고 한다. 현재 수협이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조합원을 탈퇴해도 출자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보니 사람들이 출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현재 어촌계에서도 출자를 2년 정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어촌계에서 추진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는 방파제 공사와 등대 공사가 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년에 7억씩 6년 동안 42억을 지원받아서 항구 및 방파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남쪽 등대, 2007년에는 북쪽 등대 설치 공사를 하였다. 또한 2007년에 2억원을 지원받아 북쪽 방파제 총 140m 중 40m 보강공사를 하였고, 2008년에는 4억원을 지원받아 나머지 100m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방파제 공사의 지원금은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것이다.<sup>08</sup> 방파제의 테트라포트(TTP)를 들어낸 다음 아래에서부터 다시 쌓아 건설한 것인데 폭이 넓어지고 높이는 약간 높아지게 되었다. 2002년에는 풍어제를 실시하였는데, 풍어제 역시 어촌계가 추진하는 큰 사업 중 하나이다.

어촌계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총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어촌계의 인원은 53명이다. 2008년에는 총 다섯 번의 어촌계 회의가 있었다. 본래 어촌계 정기총회는 2~3월경 결산총회와 연말 예산총회로 두 번이 원칙이지만 큰 사업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총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에도 결산총회 한 번과 임시총회 세 번, 기타 어촌계원 회의 한 번이 있었다. 사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촌계 총대회의

2008년 3월 11일에 개최 예정인 어촌계 총회를 앞두고 2007년 결산보고를 위한 총대회의가 소집되어 2008년 3월 5일 오후 3

<sup>08</sup> 경정1리의 항구는 현재 도지정항이다. 경정2, 3리는 군지정항이며 과거에는 수산청지정항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반면 강구항과 축산항은 1종 어항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항구이다. 경정1리는 도지정항이다보니 공사의 지원도 경상북도로 부터 받는다.

시에 방과제 사이 매립지에 놓여 있는 어민대기실(포항해양경찰서 경정1리 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에서<sup>09</sup> 열렸다. 이날 참석자는 어촌계장인 이정록을 포함하여 총 8명이었으며, 오후 3시 15분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어촌계장의 개회 후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촌계장이 준비해온 회의의 진행내용은 ①결산보고 ②방과제공사와 테트라포트(TTP) 제작 및 이에 따른 미역채취량 감소 문제 ③어촌계원 정리 문제 ④총회일정 확인 ⑤그 외 어촌계횃집 임대 문제, 출자금 문제 등이었다.



1 2

## ● 회의 순서와 세부 내용

### ① 결산보고

어촌계에서 정월대보름 동제에 지원하는 200만원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월대보름 동제는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 ② 방과제공사와 테트라포트(TTP) 제작 및 이에 따른 미역채취량 감소 문제

올해 시행되는 방과제 보강공사의 기간과 테트라포트(TTP) 제작 장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테트라포트(TTP)는 제작 후에 마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제작 도구를 들여와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 장소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공사 시기가 미역 채취 작업 시기와 겹치게 되어 미역 채취 작업을 마친 후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미역 수확을 위해 좋을 것으로 보이거나 영덕 수산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테트라포트(TTP)를 다른 곳에 땅 임대료를 내고 제작해 오던지 아니면 미역수확을 마친 후에 마을에서 제작을 하든지 둘 중 한쪽으로 결정을 보기로 하였다.

### ③ 어촌계원 정리 문제

2008년 3월 현재 어촌계원의 수는 52명으로 계원이 50명 이내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운영지침이 달라지고, 어촌계 정관에 의하면 계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대 구성이 되지 않는다. 2007년에 2명이 사망하고 올해 제명 대상이 2명이므로 어촌계 가입 유치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제명이 되어도 제명 후 1년 동안은 어촌계원과 같은 자격을 부여해주고, 대신 제명 대상은 총회 전에 통보해 주도록 결정하였다.

### ④ 총회일정 확인

2008년 어촌계 총대회의를 3월 11일 오후 2시에 경로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돼지를 한 마리 잡기로 하였다. 암돼지 100kg(40관)을 기준으로 한 마리에 약 35만원으로 예상하였고 잡아주는 값은 약 5만원으로 예상하였다.

### ⑤ 기타

어촌계횃집 임대 계약이 올해 8월이면 끝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어촌계원

1. 어촌계 회의가 열리는 어민대기실(또한경찰서 경정1리 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과 회의참석자들이 타고 온 자전거
2. 어민대기실 입구에 걸려있는 간판

<sup>09</sup>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입구에는 '포항해양경찰서 경정1리 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으며, 경정1리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들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출입항신고일지에 기록을 해야 한다.

이 아니라도 입찰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어촌계 정관에는 어촌계원만 임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여 누구나 입찰을 하고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외지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어촌계와 외지인이 직접적으로는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어촌계원의 명의를 빌려 외부에서도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한편, 수협조합 출자금과 관련하여 2007년 경정2리 차유마을은 출자금 배정액의 120%를 냈으며, 다른 마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80~100%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있으나 경정1리 어촌계의 경우에는 2007년에 출자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래서 2008년에는 1인당 2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약 1,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2008년에는 출자금으로 약 1,000만원

[표 4] 2007년 결산 보고서

수입내역				
어촌계 회집 월세	900,000원	2007.04~06	관암대금 분배 후 잔액	800,000원
어촌계 회집 보증금 이자	846,432원		예탁금 결산 이자	123,793원
흑운단 수입금	1,522,000원		적운단 판매대금	10,000,000원
수입금 합계 : 14,192,225				
지출내역				
2007결산총회 경비	200,000원		장학기금	100,000원
경로당 전기료	812,530원	2008.01까지	초등학교 분담금	200,000원
경로당 수도세	172,630원		저울, 갈쿠리	64,000원
구획어장 측량비	600,000원		어류방류시경비	224,250원
공동어장연장 신청시면허세	40,000원		금곡풍어제협찬금	110,000원 교통비포함
공동어장연장시 경비	35,000원		구조지수누락분	117,070원 어촌계회집
복사꽃잔치협찬금	100,000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000원
해양수산업박람회	50,000원		마을협동양식면허세	54,000원
경로회 여행시	100,000원		어민대기 실온열기 수리	20,000원
총대회의 경비	137,000원	5회	대보름꽃놀이행사	500,000원
바다의날 행사시 경비	180,000원		마을제사 경비	2,000,000원
계장선진지 견학	100,000원		어촌계회집 재산세	125,420원
어민대기실 잠금쇠	20,000원		해녀 참대	50,000원 2회
흑운단체취 관리비	698,500원		일간신문 구독료	285,000원 조선일보 한겨레
장갓불소공원지붕	1,750,000원		적운단체취 관리비	2,000,000원
지출금 합계 : 10,945,400				
2008. 03 현재 잔액 : 34,230,931				
※30,984,106(전년도 이월금)+14,192,225-45,176,331-10,945,400				





1



2



3



4



5

1.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장 한정섭
2. 어촌계 결산총회를 진행 중인 어촌계장 이정록
3. 감사 보고 중인 어촌계 감사 김병철
4. 어촌계 결산총회 회의록
5. 어촌계 결산총회 참석자 및 회의 모습

을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 마을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안전들로 총대회의를 마무리한 후, 대구회집에서 제공한 회와 음료를 먹고 마신 후에 헤어졌다. 2007년 결산보고서의 내용은 표와 같다.

## 어촌계 결산총회

2008년 어촌계 결산보고 및 총대 선거를 위한 어촌계 결산총회가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경로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총회는 원래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회의 기준이 과반수를 넘어야하고, 과반수인 26명 이상의 어촌계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미역 작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오기가 힘든 것이다. 결국 오후 2시 20분에 어촌계장이 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방송을 하였고 2시 30분 과반수가 모이자 시작을 하였다.

### ● 회의 순서와 세부 내용

#### ① 국민의례

## ② 어촌계장 인사

우선 어촌계장은 모처럼 총회 성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시하였고 2008년 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사업이 있어서 4억원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렸다. 이어서 배의 입출항, 조업 중 쓰레기 버리는 일, 배의 속도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계원의 제명문제와 회원가입에 대한 총대회의 결과를 알렸다. 우선 제명 대상 인원이 되면 유예기간을 1년 두기로 하였고, 2008년 3월 현재 제명 대상 인원이 빠지게 될 경우 총대 구성의 기준 인원인 어촌계원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하였다.

## ③ 성원보고

어촌계원 52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알렸다.

## ④ 회의록에 서명할 대표 3인 선출

정관 32조 2항에 의거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대표 3인을 선출하여야 하였다. 선출 방법을 제안할 것을 어촌계장이 요청하였고, 박항노가 계장이 지명하는 방법을 추천하여 어촌계장이 김병철, 박홍균, 박항노를 지명하였다.

## ⑤ 감사보고

감사보고는 감사인 김병철이 하였다. 먼저 2007년에는 수입이 별로 없었으나 아직 어촌계횃집 월세를 받아야하므로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광암은 900만원에 판매를 하여, 마을 전체 호구 수대로 5만원씩 분배하였으며 어촌계장과 감사의 경우 한 가구의 몫을 더해서 총 164가구의 몫으로 84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적운단 판매로는 1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정산 과정에서 40만원 정도를 구매업자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은 어촌계에 기부가 될 것인지 구매업자에게 줘야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후에 총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출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말로 감사보고를 마쳤다.

## ⑥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결산보고서 유인물을 보면서 진행하였다. 먼저, '구조지수누락분'이라는 것은 어촌계횃집 세금을 2003년까지는 제대로 냈으나, 2003년부터 행정적 착오 때문에 건물이 다른 구조로 변경이 되어 세금이 누락된 것이다. 다음으로 적운단 관리비에 대한 것인데, 2006년에 관리인을 뒤서 했더니 500여만 원이 나왔다. 이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7년에는 관리를 어촌계장이 맡아서 하였고, 총대회의에서 2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적운단 관리비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2006년 500만원이었던 것에 대비하여 결정한 것이며 다음부터는 적절한 근거를 들기로 하였다.

## ⑦ 총대선출

먼저 어촌계장이 총대는 임기가 2년이며 총대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어촌계장이 총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요청하자 김정식A이 전형위원을 뽑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순택이 투표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참석 인원 26명 중 자신의 이름을 쓸 경우에는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형위원 5명을 선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어촌계장은 김외삼, 김병철, 박향노, 김정식A, 김정식B를 지명하였고, 어촌계장과 전형위원 5명이 회의장 안 방송실에서 의논을 하였다. 이전 총대 선출 때에 각 배의 선주를 한 명씩 넣기로 하였으므로 종전 그대로 유지하지만 김복덕을 유진수로 교체하여 총대는 박향로, 이장수, 박홍균, 김차성, 김성일, 유성중, 유영춘, 남복이, 유진수, 김정식B으로 결정하였다.

#### ⑧ 기타안건

다른 지역 배가 많이 들어와서 향이 더러워지고 질서가 없어진다는 의견을 박홍균이 제기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정2리 배가 가장 어지럽히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경정2리 어촌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깨끗이 이용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어촌계 임시 총대회의

2008년 5월 17일 오후 2시에는 어민대기실(포항해양경찰서 경정1리 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에서 어촌계횃집 입찰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총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참석 인원은 어촌계장인 이정록을 포함하여 박향로, 박홍균, 유영춘, 유성중, 박수남, 김성일, 김정식B으로 총 8명이었다. 문제는 보증금 지급과 재입찰과 관련된 논의였으며, 그 외에도 성계 성계물량입찰 보증금 입금 보고, 유영춘의 계약 어장 기간 확인, 김정식B의 전복 양식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1. 어촌계 임시 총대회의
2. 마을 항구에서 고래배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 중인 해양경찰



## 어촌계 임시 총대회의

2008년 9월 21일에는 오후 2시에는 적운단 입찰, 총대 인원 문제와 새 총대 구성에 관한 어촌계 임시 총대회의가 어민대기실(포항해양경찰서 경정1리 선박출입항대행신고소)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당일 오전 8시경 어촌계장이 마을 방송을 통해 어촌계 임시 총대회의를 알렸다.

### 2008년 9월 21일 오전 8시 어촌계장이 방송한 내용

어촌계 총무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각에 어민대기실에서 어촌계 임시 총대회의가 개최됩니다.

어촌계 총대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내용 4회 반복)

시작 전, 어촌계장 외 6명의 총대들이 모여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고 참석하지 않은 총대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며 주로 어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다. 주요 대화 내용은 예년과 다른 바닷물의 이상 온도, 금일 어류의 가격, 최근 어류의 가격, 마을 노인 박물관 초청 계획에 관한 건 등이었다. 총회는 오후 2시 정각에 시작을 하였다.

### ● 회의 순서와 세부 내용

#### ① 적운단 입찰

어촌계장이 적운단과 관련하여 적운단은 입찰을 통한 판매를 할 것인데,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룡포 해녀들이 살 생각이 있으므로 해녀들에게 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약 구룡포 해녀들이 사게 되면 해녀들이 작은 것을 잡아서 자신의 동네 바다에 풀 수 있으니 잡을 수 있는 치수를 정하기로 하였다.

#### ② 총대 인원

총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총대 인원은 10인 이상 15인 이하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올해에 총대 중 한 명인 김정식B이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총대가 9명이므로 어촌계장이 새로운 총대를 뽑아야 함을 설명하였다. 몇 명의 후보를 거론하다가 총대를 할 의사가 있으며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권봉도를 추천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 새 총대로 추대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총회가 14시 43분경에 끝이 나고, 14시 48분 음료수와 소주 1병, 쥐포로 간단한 뒤풀이를 하였다. 뒤풀이를 할 때에는 마을에 고래배가 들어와서 해경이 마을에 자주 들어온다는 이야기와 개인적인 어업 활동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 경로회

연중 경로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 년에 세 번 동제를 주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목도모와 놀이를 위한 여행 및 야유회이다.

### 조직구성

● ○ ○

경로회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경로회 임원은 116명으로<sup>10</sup> 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조직은 회장 1명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으로 총무 1명, 감사 2명, 고문 1명, 임원 7명, 경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들의 역할을 보면, 우선 회장은 축산면 경로회 회의에 참석하고 경로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총무는 경로회 자금 운영과 장부 정리를 맡고 있다. 감사는 행정 정리와 자금 감사의 역할을 하며 고문은 전 경로회장이 맡음으로써 경로회와 관련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경로회의 조직은 회장이 바뀔 때 새롭게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경정1리 경로회장은 유은종으로 과거에 4년을 단위로 선출하였으나 회장의 임기가 너무 길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아 현재는 2년을 회장 임기로 정하고 있다.

현재 경로회는 각 리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것을 총괄하는 면 단위의 경로회와 회장 및 총무가 있으며 면 경로회를 총괄하는 군 경로회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

<sup>10</sup>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청년회와 경로회의 회원수 비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청년회의 회원수가 불과 20명이고 그 중에서도 활동인원은 7-8명에 불과하다. 반면 경로회의 회원수는 116명으로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만 6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들도 있다. 경로회장 유은종은 신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가입 시기를 늦추어줄 것을 당부하여 경로회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로회 회원 명부



경정1리의 경로회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만 65세 이상이면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회원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재 경로회원의 수에 비해 더 많으며 경로회원과 경로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로회장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축산면 경로회의에 참가하는 것이다. 면 경로회의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가끔씩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한다. 면 경로회의에서는 군 지원금 지급 문제, 경로회 발전과 관련된 아이디어 계발, 마을 환경관리 등이 자주 논의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군 경로회의가 있으면 참가하고 있다. 또한 경로회관 문 개방 및 잠금도 경로회장의 업무 중 하나이다. 원래 경로회관 문 개방 및 잠금 등 경로회관 전체적인 관리와 장부 등 문서관리 및 여러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경로회 총무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경로회 총무인 김정식A은 장부 등 문서관리 및 경로회관 청소 등의 일반 자신이 맡고 있으며, 그 외 경로회의의 전체적인 운영과 경로회관 개방 및 잠금 등의 경로회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경로회장이 맡고 있다. 경로회관 문 개방 및 잠금은 정해진 시간이 없다. 회관에 마을주민들이 아무리 일찍 나와도 오전 9시는 넘어야 오기 때문에 아침에 유은종이 일어나서 경로회관에 나가는 시간에 여는데 보통 오전 7시정도이다. 잠금 시간은 마을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닫는다.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잠금 시간이 늦어지는 편이고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

총무의 역할 중에서는 장부 및 문서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재 입출금 내역 장부 작성은 총무가 하는 대신 통장 관리는 경로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부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식A이 통장을 관리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을 내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를 보려면 영해까지 나가야 하는데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김정식A은 이동이 불편하여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로회장이 통장관리를 맡기로 한 것이다.

경로회장은 보수가 전혀 없는 반면 총무는 일 년에 15만원의 수고비를 받게 된다. 사실 그것은 은행 업무를 비롯한 경로회 관련 여러 업무를 보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식A은 자신이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경로회 업무를 위한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도 거의 없으므로 15만원을 받으면 경로회 식사비용에 보태는 등의 방식으로 다시 환원할 계획이다. 총무에게 지급되는 15만원은 경로회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결국 경로회 임원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 경로회라는 마을의 한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정정1리 경로회의 재정 장부는 총무가 관리하고 통장은 경로회장이 관리하는데, 주요 수입은 경로회원이 가입 시 내는 회비 3만원과 만 70세가 되었을 때 기부금으로 내는 10만원이다. 또한 군에서 지원하는 분기별 40만원의 지원금과 겨울철 난방시설비 지원금 200만원이 있으며, 동제가 있을 때 어촌계로부터 받는 200만원의 지원금과 마을 주민들의 부조금이 있다. 그 외에도 부모가 경로회 회원인 자녀들 중 지원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포항과 부산의 향우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서철 경로회관을 민박이나 마을 주민들의 가족 행사를 위한 장소로 대여해줌으로써 얻는 수입도 가끔씩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각종 세금 납부와 겨울철 심야보일러 가동 등에 쓰이고 여름철 복날 전후에 야유회, 설과 추석 전에 온천 여행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 또한 동제를 실시할 때 필요한 제수 준비 비용과 제관 및 식모의 수고비에도 쓰인다. 심야보일러는 겨울철 한 달에 약 30~4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군 지원금은 겨울철 보일러 가동에 모두 쓰인다고 볼 수 있으며, 동제에 드는 비용은 동제 부조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촌계의 지원금 중 일부는 동제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비품 구입 및 제당과 재실을 수리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야유회와 온천여행 등 경로회원의 친목도모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경로회 자금으로 축적된다. 경로회관의 전기세와 수도세 등 난방비를 제외한 각종 세금은 어촌계에서 대신 지불해주는데, 어촌계가 경로회에 비해 자금이 넉넉하고 어촌계는 다른 마을 조직에 비해 마을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경로회를 위한 일종의 지원 차원에서 지불해주는 것이다.

연중 경로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 년에 세 번 동제를 주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목도모와 놀이를 위한 여행 및 야유회이다. 먼저 동제는 경로회의 행사이기보다는 마을의 행사이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어촌계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비를 어촌계에서 지불하지만 경로회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제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 즉 경로회에 소속될 수 있을 정도의 노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에 일정 정도 이상 나이의 노인을 제관으로 뽑았던 것과 연관된다. 현재는 경로회 회원 중 나이와 생일이 빠른 순서부터 두 명씩 차례로 제관을 맡아보고 있다.

여행 및 야유회는 연중 일정하게 정해진 날에 다녀온다. 일반적으로 설과 추석 전에는 백암온천으로 온천 여행을 다녀오고 복날을 전후로는 가까운 식당으로 복날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한다. 온천 여행에는 일인당 약 12,000원이 들고, 평균적으로 약 80~90명의 경로회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번 다녀오는 데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선진지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약 300~400만원의 비용이 들



기도 한다. 여행이나 야유회에 드는 비용은 그동안 모인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사용하여 경로회에서 모두 지불하는데, 만약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여행이나 야유회 중 한두 가지를 다녀오지 않기도 한다. 2008년에는 복날 음식을 먹으러 창수면 음식점에 다녀온 후 경로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석 전 온천 여행은 생략되었다.

### 창수야유회 참여관찰

2008년 7월 28일에는 경로회 회원들이 중북을 맞이하여 창수면 마당두들 약수터 인근 ‘마당두들식당’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원래 2008년 중복일은 7월 29일이지만 중복 당일에는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하루 전에 다녀온 것이다. 7월 27일 이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경로회 회원들에게 2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경로회관 앞으로 나올 것을 알렸다. 28일 10시 30분에 조사자가 경로당 앞에 나갔을 때는 이미 경로회 회원들이 회관 앞 공터에 모여 있었다. 잠시 후 버스 두 대가 도착하였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버스 한 대씩에 나누어 탔다. 경로회장인 유은종은 부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참석하지 못하고 총무 김정식A의 인솔 하에 10시 50분 버스가 출발하였다. 버스는 ‘마당두들식당’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경로회 회원들처럼 단체인원이 있을 때는 무료로 운행을 한다.

조사자는 사정상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못하고 11시에 조사차량으로 마을에서 출발하여 11시 30분경 식당에 도착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방을 나누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조사자는 여자 노인의 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남성과 여성은 방을 나누어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상노인과 여성 중노인도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다. 음료와 술이 식탁에 차려진 상태에서 경로회 회원들이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11시 40분경 닭을 잘게 썰어 고추장 양념을 한 후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네모난 모양으로 구워 만든 음식인 닭불고기가 나왔다. 식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 명의 선창으로 몇 명의 중노인 여성 회원들이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닭불고기를 다 먹고 난 후에는 닭다리와 녹두, 쌀이 들어간 닭죽이 나왔다.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식사를 모두 끝냈을 때는



1. 중북 맞이 창수야유회에서 식사하는 모습  
2. 식사 후 춤과 노래로 어울려 노는 경로회 회원들

오후 1시 20분경이었다. 식사를 다 마친 회원들은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식당 뒷마당에 있는 약수터에서 약수를 마시고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조사자가 커피를 타서 드리니 거의 모든 회원들이 커피를 마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시 50분경 남아서 야유회를 더 즐기고자 하는 일부 회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은 버스를 타고 먼저 마을로 출발하였다. 14시경 남은 회원들이 트로트 메들리 노래 반주에 맞추어 맥주를 약간씩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5분간 놀다가 14시 15분경 식당에서 출발하였다. 조사자가 15시경에 마을회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상노인 여성, 중노인 여성, 남성이 각자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노인 여성은 대부분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중노인 여성은 둘러 앉아 대화를 나누었으며 남성들은 상을 차리고 맥주와 소주를 약간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창수야유회에 참석한 경로회 회원은 남성 30명, 여성 33명으로 총 63명이었다.

마을에 경로회와 관련된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경로회장이 주관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2008년에는 신임 경로회장 선출을 위한 노인총회와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경로회 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 노인총회는 경로회 회원 모두가 참석하는 자리로 2008년 3월 3일 12시 30분 경로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노인총회를 위해서는 돼지를 한 마리 잡고 팔시루떡을 했다. 음식의 장만은 이장과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돼지는 이장의 가게에서 삶아서 가지고 오고 떡은 영해시장 떡집에 주문하여 가져왔다.<sup>11</sup>

가장 중요한 안건은 신임 노인회장 및 노인회 임원선출이었으며, 전임회장 박홍균의 경과보고가 먼저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안건들과 보고에 관한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회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은 경비사용 내역 보고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회장 선거 순서로 들어갔는데, 전임회장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의 지원을 받겠다고 하자, 유은종과 김영대가 입후보 하였다가 김영대가 후보 지원을 사퇴하고 유은종이 단일 입후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은종이 신임 노인회장에 선출되었다.

감사 및 운영위원장들의 선출 역시 전임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운영위원으로는 김복만, 유원필, 이장수, 최건일이 뽑혔으며, 감사에는 김병철과 김정식A, 고문은 전임회장 박홍균이 맡았다. 그 외에 많은 수고를 한 전임회장과 임원들에게는 감사패를 만들어 증정하지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를 마치고 음식이 차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임회장선출의 축하자리가 되었다. 유은종 신임회장이 건배제의를 하였고, 회원들은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들을 건넸다. 경로회관 마루에서는 음식과 음료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부녀회원들이 방을 계속 오가며 봉사했다.

이틀 뒤인 2008년 3월 5일 오후 4시에는 경로회 운영위원회의를 경로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총무선출 건이었다. 운영위원들은 총무가 할 일이

<sup>11</sup> 여자 노인들 방에 먼저 음식이 제공되고 남자 노인들 방에는 신임 노인회장 선거가 마친 다음에 방에 음식이 차려졌다.

많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이므로 개인적인 업무가 바빠지 않으면서 술도 많이 안 마시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의 주도 하에 김정식을 총무로 하고 유차돌을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하자는데 운영위원들이 동의하였고 감사는 이장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전임회장 및 간부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이었는데, 전임회장에게는 기념패보다 현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현금의 의미가 없으므로 감사패를 기증하는 것으로 전원 찬성을 보았다. 과거에 총무를 보다가 신병 때문에 중도 퇴임한 이종오에게도 노고를 치하하자는 의미에서 역시 기념패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는 총무 보수에 관한 건이었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15만원을 주었으나 조금 올리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총무는 봉사의 의미가 더 크므로 보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네 번째는 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찬반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가를 정하자는 것이었다. 금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고, 10만원 이상이 지출되어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단 정기적인 지출인 공과금은 예외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다. 그 이외의 기타 안건으로 매해 찬조금을 보내오는 부산 경우회와 포항 향우회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 등이 있었다.

1. 경로회 운영위원회의 모습
2.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유은종
3. 유은종 신임회장의 건배 제의
4. 경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모습
5. 노인총회 후 식사 모습
6. 경로회 노인총회에서 박흥균 전임회장의 경과보고



경로회관은 마을의 북쪽 동네산 밑에 위치해있으며 총 3개의 방과 화장실 1개, 부엌 1개가 있고, 마루에는 안마 의자가 2개 있다. 3개의 방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방은 남자 노인들이 사용하고 방의 크기가 같은 왼쪽 방과 가운데 방은 각각 여자 중노인과 여자 상노인이 나누어서 사용한다. 상노인과 중노인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상노인의 경우 나이로 볼 때 약 75세에서 80세 이상이고, 외 모로 볼 때에는 모자 대신 흰 수건을 머리에 쓰고 다니거나 유모차(똥똥이)를 지팡이 대신하여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부엌은 여자 상노인 방에 있는데, 싱크대 1개, 냉장고 1개, 조리도구 약간이 있어서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다. 마루 안마 의자는 경로회 회원들이 가끔 사용한다. 박옥례는 허리가 아플 때 안마의자를 사용하는데,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때 허리가 시원하며 사용한 후에는 허리가 조금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방은 원래 남자 노인방, 여자 노인방 총 2개였는데 2006년 4,200만원의 군 지원금을 받아 3개로 늘린 것이다. 회관 건물 앞마당에는 수도꼭지와 세면장이 갖추어져 있다. 이 세면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 해녀들이 채취 어업 후에 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몸을 씻기도 하는 곳이다.

경로회관은 원래 석유보일러였는데, 몇 년 전 독지가 김용중의 도움으로 심야전

1. 머리 수건을 하고 유모차(똥똥이)를 사용하는 천들남
2. 경정1리 경로회관
3. 경로회관 마당에 있는 여자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똥똥이)





기보일러로 바꿀 수 있었다. 매년 군에서는 난방 시설비 지원으로 200만원이 나오는데, 석유보일러였을 때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었지만 이제는 전기보일러이기 때문에 지원금만으로도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중 경로회관에 경로회 회원들이 가장 많은 계절은 겨울이다. 여름철 실내보다는 방파제나 윗당 느티나무 그늘, 김정식A의 집 앞 평상 등에서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따뜻한 회관을 높이 공간이자 여가 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여름철 회관의 거의 찾지 않는데, 이 때문에 여름철 피서객이 오면 남자 노인방을 민박으로 내놓기도 한다. 2008년 8월 1일에도 회관을 찾았을 때 남자 노인들 방에 피서객들이 민박을 하고 있었다. 경로회 총무 김정식A은 어차피 남자 노인방은 쓰지 않기 때문에 경로회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민박을 내준 것이며 하루 숙박비는 10~15만원이라고 하였다.



경로회관 거실에서 안마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박옥례



## 부녀회

부녀회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정기적인 모임, 회의가 없으며 회의나 모임은 필요시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녀회는 청년회와 더불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힘을 보태고 특히 마을 노인들을 위한 행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1년 중에 부녀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마을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였는데,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이장이 부녀회장에게 연락을 하고 부녀회장은 부녀회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개발위원회 및 청년회와 힘을 합하여 일을 처리한다.

부녀회는 회장 이정록(여)과 총무 백교흠, 회원 37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과거에는 부회장도 있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부녀회 임원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한때 회장 혼자서 부녀회 임원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회장 1명, 총무1명이다. 박홍균이 전 이장을 하고 있던 당시에는 부녀회 회원들이 임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원 구성이 되지 않아 자칫 부녀회가 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이정록이 회장직을 맡아 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정록은 현재 5년째 부녀회 회장을 하고 있다. 부녀회장은 축산면 부녀회 회장단 회의나 영덕군 부녀회 회장단 회의 등에 참석을 하며 총무는 부녀회 재정을 관리하고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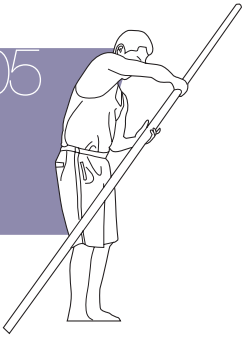
부녀회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매년 5월 8일경에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버이날 행사가 있다. 어버이날 행사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다가 몇 년 전부터 부녀회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주관할 때는 부녀회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음식을 노인들에게 대접하고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부조금을 주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청년회가 음식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부조금은 청년회 재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 부녀회는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든 대신 행사의 전반적인 일을 도와주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녀

회는 다른 마을조직에서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며 그 외에도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음식준비 등의 일손을 돕는 데 봉사하고 있다.

부녀회는 부녀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1년에 2,000~3,000원 정도를 거두다가 2007년에는 10,000원을 거두었다고 한다. 보다 활발한 부녀회 활동을 위하여 1년에 두 번씩 회비를 걷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회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1년에 한 번만 회비를 내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에서는 마을 노인들이 부녀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각자 5,000원에서 10,000원씩 거두어서 30여만 원을 부녀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부녀회는 자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정기적인 모임, 회의가 없으며 회의나 모임은 필요시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로회 운영위원회에서 음식을 준비 중인 부녀회원





## 청년회

청년회는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을 위한 봉사는 청년회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는 해나가기가 힘든 일로 마을의 발전과 봉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청년회는 마을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전신인 청년회가 없어졌다가 10여 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당시 처음에는 경정 1, 2, 3리가 하나의 청년회로 구성되었으나 2, 3리가 통합된 청년회 활동을 그만두면서 현재는 경정1리 회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단 멤버인 이수정, 박수남, 한경섭 등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경조사 시 힘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마을의 발전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정1리 청년회의 회원은 20명이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7~8명에 불과하며 박수남이 10여 년 전 초대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청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연임을 하다 보니 10년이 넘게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조직 구성원으로 부회장 최영주(남, 48), 총무국장 김하섭(남, 45), 총무차장 안병군(남, 40)이 있다. 회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맡으며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등 회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차기 회장을 맡게 된다. 총무국장은 청년회 회의를 주최하고 총무차장은 청년회 재무를 관리하게 된다. 청년회 입회 자격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며 탈퇴는 나이 제한이 없다.

청년회는 비공식적 조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 자금은 없으며, 회비는 한 달에 만원이지만 연초에 일 년 회비를 모두 내면 10만원이다. 청년회의 모든 활동은 거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경로회원들을 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처음 발족할 때는 회장 이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각 얼마씩 모아서 시작을 하였다.

청년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5월 마을 어버이날 행사 자원봉사, 2년 전부





경정1리 간이해수욕장 그늘 천막 철수 작업 중인 청년회원들

터 매년 6경에 실시하고 있는 경로회 노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방충망 교체 및 수리 작업, 7월~8월에 해수욕장 운영과 그늘 천막 설치 및 철거 작업, 세 달에 한 번씩 마을에 거주하는 30여명의 독거노인을 위한 쌀 기부, 1년에 2~3회 매정 사랑의 공동체 양로원 봉사활동 등이 있다. 양로원 봉사활동은 한경섭 이장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청년회 회원이 참여하여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전 청년회원이었던 이정달은 자전거 등의 기계 수리를 돕고 있다. 몇 년 전에는 할복한 오징어 내장을 모아서 오징어 공장에 연결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회 자금을 모으고 경로회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박수남은 과거에 방파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주의보가 떠서 파도가 높아도 유일하게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정1리였으나 방파제 공사 후에 모래사장의 폭과 길이가 줄어들면서 피서객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방파제 공사 이전 피서철에는 마을 앞길에 차가 막혀서 청년회 회원들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해수욕장의 샤워시설 이용, 그늘 천막 사용, 물놀이

튜브 대여 등은 과거에 마을 주민 입찰을 실시하여 운영하였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것과 과도한 경쟁 발생 등을 우려해서 현재는 입찰을 하지 않고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관리로 생긴 이익은 해수욕장 관리를 맡고 있는 이수정의 월급과 피서객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전기세, 수도세 등으로 지출되고 그 외에 남는 수입은 청년회 자금이 되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비누 등의 생활용품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소비된다. 2008년 해수욕장 운영 수입은 여름철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해변 포장마차 두 곳의 시설 정비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청년회는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을 위한 봉사는 청년회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는 해나가기가 힘든 일로 마을의 발전과 봉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청년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 청년회 회원의 평균연령 증가, 회원 수의 부족과 감소 현상을 경정1리 청년회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다 회장이고 다 총무고 그렇지.”라는 박수남 청년회장의 말은 회원 수가 부족한 조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수남 회장은 10년이 넘게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현재 청년회 회원들의 연령은 38세에서 54세까지이다.

청년회 회의는 필요시에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2008년에는 2월 19일 저녁 8시 30분에 마을회관 2층에서 청년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회장을 비롯한 9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월대보름 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내용은 정월대보름 대동회 옷놀이 대회 설명과 대동회 행사시에 있을 이장 선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새마을지도자가 영덕대계리그축구대회에 대하여 설명한 후 9시 25분에 끝났다.



해수욕장 관리를 맡고 있는 이수정



## 계 조직

대표적인 마을의 계 조직으로 경우회가 있다. 경우회는 계의 목적이 변한 경우인데 어버이날 행사를 하거나 12월~1월에 집안 어른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계 조직이지만, 세월이 흘러 현재는 1년에 한 번 관광을 다니는 계로 변화하였다.

경정1리 주민들의 계 조직은 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친목 또는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계모임으로 주로 친분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끼리 맺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경정1리 주민들의 다수가 이러한 목적의 계를 선호하는데, 가족의 상·장례나 자제들의 결혼 등 목돈이 들어갈 만한 일들을 이미 치른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종류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계모임으로 친목 또는 놀이를 위한 계모임과는 상반되게 과거에 비해 현재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친목 또는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계모임이 활성화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중요성이 점차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상호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의 계모임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 친목·놀이계



친목·놀이계는 계원들끼리 국내 및 해외여행이나 온천여행 등을 다녀오고 식사나 음주를 즐기는 모임이다. 과거 친목·놀이계는 계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먹거나 가까운 곳으로 하루 동안 관광을 다녀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요즘에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먹거나 주변 지역의 온천을 다녀오는 등 과거의 모



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까지 다녀올 정도로 여행을 다니는 모임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요즘에는 여행 다니는 계박에 없지.”라고 말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친목이나 놀이계의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행을 다녀오는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경정1리 친목·놀이계는 경우회, 이웃계, 고향계, 부부여행계, 이웃마을 동갑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제보자들은 고향 친구계, 여행계, 부부계 등 비슷한 종류의 계모임을 소개해주었으나, 계의 이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종류가 유사하지만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모두 비슷한 종류의 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마을의 계 조직으로 경우회가 있다. 경우회는 계의 목적이 변한 경우인데 어버이날 행사를 하거나 12월~1월에 집안 어른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계 조직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재는 1년에 한 번 관광을 다니는 계로 변화하였다. 현재 마을 주민 중에서 3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 달에 3만원씩 갯돈을 걷고 있다. 경우회는 20여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관광계로 변화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회장은 계원이 돌아가면서 맡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웃계라고 하여 반별로 계를 모아 소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목욕을 다녀오는 등의 계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마을 내에서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록(여)은 이웃계를 해오다가 계원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약 10년 전에 자신이 속한 이웃계가 없어졌다고 한다. 반면 김순자는 지금까지 이웃계를 해오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네 가정이 모여서 계를 해오다가 현재는 세 가정만이 계를 모으고 있다. 처음 계를 시작할 때는 모여서 밥을 해먹거나 온천여행을 다녀오는 형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적금을 모으는 계로 바뀌었다고 하며 한 달에 5만원씩 갯돈으로 모으고 있다.

고향계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의 친구 또는 이웃 간의 모임이다. 김창자는 2008년 4월 28일부터 3박 4일간 경정2리 차유마을에 위치한 태흥모텔에서 고향계 모임을 가졌는데, 경정1리 주민 3명을 포함하여 창포리와 경정3리에서 각각 2명, 서울 3명 등 총 10명의 계원이 모였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5월과 12월에 고향계를 갖고 있는데, 회장은 서울에 사는 김봉순이며 총무는 김창자가 맡고 있다. 이번 계 모임에 든 돈은 약 100만원으로 갯돈을 정기적으로 걷지 않고 한 번에 일정액씩을 몇 번 걷어두었다가 쓰는 것인데,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다 썼기 때문에 다시 걷을 예정이다. 남편과 같이 계를 하였으나 요즘은 몸이 불편해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정록(남)은 이웃마을 동갑계를 하고 있는데 경정 1, 2, 3리 동갑들이 모여서 만든 계모임이다. 처음 시작은 여러 명이 모였으나 고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일부가 계에서 탈퇴하면서 현재는 각 마을별로 한 명씩 총 세 명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친분이 있는 이웃마을 주민들과 계를 조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영춘

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끼리 계모임을 갖고 있으며 김순자는 어민후계자 부인 모임을 갖고 있다. 생활안전협의회는 생활안전협의회에 소속되었던 경정1, 2, 3리와 축산리의 회원들 중 친분이 있는 회원들끼리 만든 모임으로 한 달에 2만원씩 깃돈을 걷어서 모으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마을별로 유사가 돌아오면 식사와 음주 비용을 각 마을에 속해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내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김순자가 속해 있는 어민후계자 모임은 매년 3, 6, 9, 12월 20일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모임 때마다 깃돈을 걷어서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김순자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총무는 각 계원에게 전화연락을 하며 깃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상호부조를 위한 계

○ ●

상호부조를 위한 계는 보다 활발했으며 그 수도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반계, 국수계, 소주계, 상포계, 쌀계, 반지계, 결혼계, 형제계 등이 있는데 현재 국수계, 소주계, 상포계, 쌀계, 반지계 등은 없어졌으며 계의 목적이 상호부조가 아닌 놀이나 친목을 위한 것으로 변화한 경우도 있다.

연반계는 1반부터 12반까지 두 반씩 모여서 총 여섯 개의 연반계가 있었는데, 주로 계원의 가정에 상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상이 나면 한 가구에 한 사람씩 행상(상여)을 매거나 음식 준비 등을 도왔는데, 반드시 가구당 한 명 이상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내야 했으며 만약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도움을 주어야 했다. 현재는 연반계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국수계와 소주계는 깃돈을 모아서 혼인이 있는 가족에게 국수 또는 소주를 몇 상자씩 부조하는 것이었으며 결혼계라고 하여 돈으로 부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상포계는 계원 집안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 없어졌거나 상조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부어 각자 부담하는 형태 등으로 바뀌었으며, 반지계는 돈을 모아서 계원들에게 차례대로 금반지나 금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해주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각자 구입하기 때문에 사라진 상태이다. 이순란은 쌀계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부엌 한켠에 주머니를 달아놓고 밥을 할 때 쌀이나 보리를 한 바가지 퍼면 두 숟가락씩 다시 털어내어 모은 후 그 쌀을 판 돈으로 적금을 했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상호부조를 위한 계로 유영춘, 김순자 부부는 칠송회와 형제계, 어민후계자 협의회장 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친구계와 형제계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든 계모

임이며 어민후계자 협의회장 모임은 과거 어민후계자 협의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먼저 칠송회는 경정2리, 경정3리, 영덕읍 등 주변 마을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만든 계모임으로 원래 일곱 가족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칠송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는 한 가족이 탈퇴하고 유영춘 가족을 포함하여 세 가족이 더 가입하여 아홉 가족이 모임을 갖고 있다. 갯돈은 두 달에 10만 원씩 내며 모인 갯돈으로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도움을 준다고 한다. 2008년 11월 2일 유영춘, 김순자 부부의 집에서는 계모임이 있었다.<sup>12</sup> 유영춘이 어업을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항상 회가 포함되며 그 외에 육개장, 떡, 과일, 야채, 쌀밥, 밀반찬, 맥주, 소주 등을 준비하였다.

형제계 역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계모임으로 형제처럼 친한 사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형제계는 한 달에 2만원씩 모아서 가정에 상이 났을 때 쌀 10가마니 가격의 부조금을 주는 것으로 총 두 번의 갯돈을 탈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계원의 부모가 상이 났을 때 받을 수 있는데, 급한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서 쓸 수도 있다고 한다. 대개의 경우 남편의 부모 한 번, 아내의 부모 한 번으로 총 두 번을 받고 있다. 현재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였으며 2008년 여름에는 제주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어민후계자 협의회장 모임은 한 달에 5만원씩 모아서 경조사가 있을 때 50만원씩 부조를 해주는 형태의 계모임이다. 김순자는 계를 하지 않으면 돈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모아지지 않는다고도 도시 사람들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계모임이며 목돈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sup>12</sup> 유영춘, 김순자 부부는 모임을 갖는 것을 계추라고 하였는데 계추의 어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로 경상도에서 쓰이는 말로 보인다.



## 기타 조직

경정1리 주민들 중에서 청년회 회원은 거의 모두 애향동지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만 45세 이상이 되면 OB회원으로 분류된다.

### 애향동지회

애향동지회는 영덕 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 일제강점기에 영해장터에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이다. 과거에 영덕군 북부 4개면인 영해면, 축산면, 병곡면, 창수면에 최근 지품면이 추가되어 북부 5개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애향동지회가 창단될 때 회원 수는 약 120여 명이었으며 회원자격은 혼인을 한 30세 이상 35세 이하의 주민으로 전체 멤버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였다. 현재 각 면에는 지회가 설치되어 있다.

경정1리 주민들 중에서 청년회 회원은 거의 모두 애향동지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만 45세 이상이 되면 OB(Old Boys)회원으로 분류된다. 1년에 한 번 3월 1일을 전후하여 영해 3.1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는 1984년 시작된 것으로

애향동지회 주최 영해 3.1 문화제 행사





2008년 24회를 맞았다. 2008년에는 2월 29일과 3월 1일 양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의 목적은 3.1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과 3.18영해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것으로, 영해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 영해장터를 중심으로 벌여졌으며 8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 196명이 재판을 받아 185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비교적 큰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경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기미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이 영덕군 영해면이었다. 주요 행사로는 29일에 줄다리기, 윷놀이, 투호, 풍물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신돌석 장군 의병 출정식 재현행사, 연예인의 축하공연, 지역특산물 시식, 햇불 채화 및 시가행진 등이 있었다. 3월 1일 본 행사로는 영해로터리에 있는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만세운동 재현 및 행진, 영해 3.1의거탑 헌화 및 분향 등이 있었다. 주최는 애항동지회이며 후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경주보훈지청, 영덕교육청, 영덕경찰서, 특우회, 경북매일, 전북매일이 하였다. 매년 행사에 쓰이는 지출금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이다.

## 조기회

조기회는 청년회가 새로 만들어지던 10여 년 전에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매주 조기축구로 친목을 도모하던 단체였으나 2008년 여름 해체되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경정 1, 2, 3리의 회원들이 모여 운영되었지만 마을별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몇 년 전부터 1리만 운영하다가 회원 부족 등의 문제로 회원 회의를 통해 해체된 것이다. 명칭은 경정조기회로 축산향 체육회 산하 조기회로 가입하였다가 현재는 탈퇴만 하지 않았을뿐 조기회가 해체된 상황이다. 현재 경정1리에서 축산향 체육회 산하 조기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김창중 등 두세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회원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조기회의 마지막 활동은 2008년 4월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에 있는 축구장에서 열린 대계리그축구대회 참가이다. 대계리그축구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축구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마을이나 직장, 친목단체 등에서 팀을 만들어서 시합하는 아마축구대회로 경정조기회는 4월 1일 시합에 참가하였다.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장에 있는 축산면 조기회실



# 5 | 의식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 의생활

경정1리 주민들의 생업 복장은 크게 밭농사 복장과 오징어 건조작업 복장, 어업 복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밭농사 복장은 일상복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해서 입는 경우가 많다.

의생활은 개인의 취향이 크게 반영될뿐더러 성별, 연령, 용도, 계절 등에 따라 변화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한 이유로 의생활은 주로 사례별로 작성을 하되, 예를 들어 '중학생은 모두 축산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평일 교복을 착용한다.'와 같이 특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성을 드러내었다.

의생활은 일상복과 밭일복장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간단한 설명으로 구분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상복과 밭일 복장은 구분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밭일을 할 때는 한여름에도 반드시 긴 바지와 긴팔을 입고 챙이 큰 모자를 쓰며 신발을 구분하여 신기도 한다.'는 식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긴팔을 입는 봄·가을에도 밭일을 갈 때에는 작업용 잠바를 입는다든지 작업용 바지를 갈아입는 등 일상복과 밭일 복장은 작은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오히려 오징어 건조작업을 할 때와 밭일의 복장 구분이 거의 없지만 오징어 건조작업을 할 때에는 팔에 토시를 깐다거나 고무신을 신는 등의 복의 변화가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의생활이다. 의생활의 구분은 연령층에 따라 유아·아동·청소년층과 성인층으로 분류하고 용도별로 소분류를 하였다. 계절과 취향에 따른 분류는 소분류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내용상으로부터 드러내었다. 그 외 화장과 치장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유아들의 의생활은 부모들의 역할이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 경정1리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내, 시장과도 거리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차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을에서 유아를 기르고 있는 비교적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일상복을 구매하고 있다.

박지영은 고향이 부산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몇 년 전 경정1리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아들 안성준과 딸 안예원의 옷을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쇼핑은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초등학생인 안성준과 갓 돌이 지난 안예원의 교육 및 육아 문제 때문에 집을 비우기가 힘들어 집 안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으로 대부분의 옷을 구매하고 있다.

여기 와서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디 살 데도 없고, 인터넷이 싸고, 뭐 하나만 사도 인터넷이 싸고, 오늘도 뭐 하나 올긴데. (박지영)

이주희는 중학생인 아들 한재윤과 초등학생인 딸 한송이의 옷을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인터넷으로는 자녀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을 절충할 수 있다. 사춘기인 자녀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이 입을 옷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려다보니 부모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은 옷을 같이 고르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끔씩 이웃 주민들과 포항 등의 대도시로 쇼핑 및 여가 생활을 즐기러 다녀오기도 하지만 일 년에



초등학교 운동회 참석(박지영과 딸 안예원)



축산형초등학교 경정분교 학생들

1. 유치원생 한윤진의 일상복
2. 유치원생 한윤진의 일상복
3. 유치원생 한윤진의 실내복
4. 김영대의 손자, 손녀 추석 복장
5. 축산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들
6. 하교 후 집에서 자습 중인 중학생 한재운
7. 하교 중인 초등학생 안성준, 임동규
- 8,9. 등교를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축산 중학생들



서너 번 정도 밖에 시간이 나질 않아 자주 다녀오지는 못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다른 부모들은 영덕군 읍내의 아동복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기도 한다.

한편, 김봉금이 50~60여 년 전 자녀들을 키울 때의 기억은 유아들의 의생활 중 한 부분인 기저귀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현재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슈퍼나 마트에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판매용 기저귀가 없어서 헌 옷을 사와서 기저귀처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후 가제를 사서 속옷과 귀저기로 사용하였다.

기저귀가 있다. 그 때는 귀저귀가 없어서 마카 군인들 옷 누벼놓은 그런 게를 헌옷을 사와서 꿰어가고 귀저기처럼 만들어 입히고 그랬지. (김봉금)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상복과 학교생활의 복장에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을 착용하므로 평일과 주말의 복장이 달라진다. 중학교 1학년생인 한재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지습을 할 때와 잠을 잘 때를 제외하면 하루 종일 교복을 입는다. 마찬가지로 여느 중·고등학생은 모두 주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교복을 착용하고 생활한다. 토요일은 격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등교를 하는 토요일에만 교복을 입고, 일주일 중 일상복으로 교복이 아닌 자신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 옷을 입는 날은 일요일뿐이다.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 이상복

의생활의 변화는 의복을 만드는 기술과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70~80대 이상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옷을 만들어 입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옷의 재료로 베, 미영(무명), 광목, 옥양목을 썼다. 여름철에는 삼베옷을 만들어 입고 무명실로 짠 천인 광목과 옥양목은 치마, 저고리, 속옷, 겨울철 옷 등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 천은 시장에서 사와서 짜 입었던 것으로 길쌈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나일론이 나와서 나일론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옷을 만들어 입기 보다는 사 입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인 것으로 보인다.

미영이고 광목이고 그랬지. 공장에서 마카 짜가지고 나왔다고. 집에서는 짜내나. 여름에는 베 받아가지고 짜 입고, 동사면은(겨울이면) 미영 받아가지고 어른들은 짜가지고 마카 치마고 저고리고 그런 게 해 입고, 광목 그런 게 가지고 속옷도 입고 저고리도 하고 치매도 하고, 하얗게. 그런 게를 해 입어노니께 늙어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들 알긋지도 안하고. 그러다가 요새 새 옷이 나이께네 마카 찾아 입고.....길쌈이나 베를 짰다거나 그런 거는 촌에는 그런 거 하지. 물테는 그런 거 없지. 농촌에는 그런 거 하지. 여기는 배질하는 사람 고기 갖다 팔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할 새가 어디 있노. 옛날에도 그런 거 없었지. 배우지도 안하고. 농촌 촌에는 있지만서. (김봉금)

국민학교 다닐 때 만들어 입었지. 손으로 다 만들었지. 그 때 사 입는다는 건 없었지. 천은 장에가 사고, 손으로 만들었지. 천은 뭐 검정 물 들어놓은 것도 입고, 여름에는 베 안 있나. 베로 만들어 입고. 그 때는 털도 없었다. 겨울에는 군대에서 칠칠공이라고 왜 숨 놓아진 게. 그거 사다 와가지고 물 나가지고, 검정 물 들어야 군복이 아닌 줄 하잖아. 옷도 모자랐지. 요새사 옷이 개략이다(많다). 우리 젊었을 적에는 여름에 벼옷입고, 겨울 길으면 옷도 풀하는 옷 안 있었나. 쌀 갈아가지고 풀 쫄아지고 옷에다 맥인 거. 그런 거를 이런데(가랑이 사이) 싣켜 가지고 뺏뺏해가지고 걸음도.(웃음) 요새사 임금이다. (이균태)

신발은 고무신이 나오기 전까지 짚신과 왜나막신인 게다를 주로 신었다. 고무신은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처음 신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무신이 처음 나왔을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여전히 짚신과 게다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처음 1학년 다닐 때는 첫째 신발이 없었다. 옛날 짚신 삶아가지고 주면 짚신. 우리는 짚신이 없었는데 게다 나무 뚫어가지고 게다 줄 만들어가지고 신고 다니다 줄 떨어지면 맨발로. (웃음) 고무신 처음 나와 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둥. 그 때 감장고무신 있재. 흰 테두리 있



는 거 그거 나오대. 머리말에 나 씻거 놓고 머리말에 놓고 잤다. (웃음) 거가 찰고무라. 늘어지  
는 착착착. (이균태)

신은 요새 이거 많이 신지. 옛날 우리 시집올 때는 짚신 많이 신고 왔다고. 딸딸이 끌고 계다  
신고. 각시고 뭐고 없지 뭐. 우리는 짚신 안 신고 오고 고무신 신고 왔는데, 없는 사람들이가  
고무신 못 사가 짚신 신고 오고. (김봉금)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옷을 영해시장에서 사 입거나 자녀들이 사서 보내주는 옷  
을 입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마을에 들어오는 옷 장사차에서 구입을 하기도 한다. 남  
성의 경우 여름철에는 반바지나 얇은 면바지, 나일론 바지에 반팔 티셔츠, 반팔 남  
방을 즐겨 입고, 봄·가을에는 면바지, 나일론 바지에 긴팔 티셔츠와 긴팔 남방을  
주로 입는다. 겨울에는 봄·가을 복장에 두꺼운 잠바를 입거나 털실 옷, 코르텐폴  
텐 바지 등을 주로 입는다. 여성은 여름철에는 반바지, 얇은 치마에 반팔 티셔츠나  
반팔 블라우스를 많이 입고 봄·가을에는 긴 바지 또는 긴 치마에 긴팔 티셔츠나 긴  
팔 블라우스를 자주 입는다. 11월 중순부터는 버선을 신기 시작하였는데, 이듬해 봄  
이 올 때까지 신는다고 한다. 여성은 계절에 상관없이 몸빼 바지를 즐겨 입고, 남녀  
공통적으로 트레이닝 옷을 일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들의 경우 여름철  
에는 배옷을 입기도 한다. 의생활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  
되므로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2,3. 10월 6일, 마을에 들어오는 옷 장사차  
에서 옷을 구입하는 마을 주민  
4. 9월 12일, 아침 식사 전 마을 슈퍼 앞에 앉  
아있는 남자 노인들



1. 9월 12일 이정록의 복장 - 운동화, 트레이닝복 바지, 반팔 티셔츠, 모자
2. 11월 19일 이정록, 박정자 부부의 일상복
3. 10월 3일 경로회관 거실에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박옥례
4. 10월 21일 유은종의 일상복

#### ● 〈사례 1〉 2008년 9월 12일 이정록

이정록은 평상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주로 트레이닝복 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는다. 트레이닝복 바지는 편하기 때문에 입는 것이며, 마을에 나갈 때에는 집에 있을 때의 복장을 입기도 하고 트레이닝복 바지 대신에 등산복 바지를 즐겨 입기도 한다. 일상복은 대개의 경우 영해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가끔씩 포항에 외출을 나가서 사 입기도 한다. 2008년 9월 12일 아침식사 전에 마을에 나온 이정록의 복장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모자를 썼다. 11월 19일 집에서 만난 이정록은 긴팔 니트에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었다.



#### ● 〈사례 2〉 2008년 10월 3일 박옥례

경로회관 거실에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박옥례를 만났다. 박옥례는 트레이닝 바지와 브이넥 반팔 티셔츠, 보라색 긴팔 남방을 입고 망사 덧버선을 신었다. 파마는 영해에서 20,000원을 주고 한 것이며, 시계는 남편의 것인데 박옥례가 끼고 다닌다고 한다. 화장은 거의 매일 하는데, 화장품은 딸이 사서 보내준 것을 쓰고 있다. 반지와 목걸이, 팔찌는 칠순 때 딸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해준 것이며, 반지는 결혼 때 맞춘 세 돈짜리를 갯돈을 타서 세 돈을 더 보내어 새로 맞춘 것이다.

#### ● 〈사례 3〉 2008년 10월 21일 유은종

면바지나 양복바지, 나일론 소재의 바지를 즐겨 입으며 주로 편한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 상의는 반팔 티셔츠나 긴팔 남방을 즐겨 입고 봄과 가을에는 얇은 잠바를 자주 입는다. 유은종의 경우 오토바이를 타는 날과 타지 않는 날 복장이 달라지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날에는 주로 주변 마을이나 마을 바깥 가까운 곳으로 일을 보러 나가며 이때에는 선글라스를 끼기도 한다.

#### ● 〈사례 4〉 2008년 9월 8일 유복태

면바지에 벨트를 하고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가을이 오면 긴팔 남방을 즐겨 입는데, 바지는 봄, 여름, 가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옷은 부인이 시장에서 사오는 것



을 입거나 자녀들이 사서 보내주는 것을 입는다. 일상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입으며 운동화도 부인이 사오는 것을 신는다.

● 〈사례 5〉 2008년 10월 6일 천돌남

상의는 긴팔 블라우스에 조끼를 끼입고 하의는 몸빼 바지를 입었다. 옷은 모두 영해 시장에서 70대 때 본인이 직접 구입하였으며 가격은 확실치 않으나 각 5,000원 내외를 주고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양말에 망사 덧버선을 신었는데, 날씨가 약간 쌀쌀해진 데다가 흰 양말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사 덧버선을 신은 것이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버선을 신는다. 늦봄과 여름, 초가을에 즐겨 신는 슬리퍼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게 되면 신지 않는다. 머리에는 수건을 썼는데, 흰머리를 가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과거에는 논일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하던 것이 습관이 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머리에 먼지가 묻는 것을 막고 햇빛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는 모자 역할을 했던 것이 머리 수건이었다. 유모차(똥똥이)는 집 밖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며 지팡이의 역할도 하지만 짐을 싣고 나르는 손수레의 용도로 쓰기도 한다.

● 〈사례 6〉 2008년 10월 16일 김영대

옷은 주로 직접 구입한다. 영해에서 10,000원을 주고 직접 구입한 운동화와 마찬가지로 영해에서 구입한 양복바지를 입었다. 양복은 상의 포함 45,000원에 구입한 것이다. 상의는 영해에서 10,000원에 구입한 반팔 티셔츠와 포항에서 30,000원을 주고 구입한 봄가를 잠바를 입었다. 김영대는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참전유공자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모으는 것이 취미는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는 모자의 수가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한다. 구입한 것은 거의 없으며 대개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받아서 모아둔 것이라고 한다.

● 〈사례 7〉 2008년 10월 24일 경로회관 남자 노인방

**유재인** 상의는 목 티셔츠에 긴팔 트레이닝복을 입었고, 바지는 체크무늬 나일론 소재의 바지를 입었다. 액세서리는 없으며 양말도 신지 않았다. 주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이 날도 슬리퍼를 신었다.

**노병천** 상의는 체크 긴팔 남방에 등산용 조끼를 입었고 등산용 트레이닝복을 끼입었다. 하의는 검은색 양복바지를 입었는데 입기에 편하기 때문에 오래된 경우 버리지 않고 일상복으로 입는다고 한다. 모자를 썼으며 손목시계도 찾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시계가 액세서리의 용도가 큰 반면 남성은 액세서리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손에는 반지를 끼고 평소 구두 또는 운동화를 즐겨 신는데 이날은 구두를 신었다.

**유복태** 상의는 반팔 면 티셔츠에 하의는 나일론 소재의 체크 바지를 입었다. 손



1



2



3

1. 9월 8일 취지 뉘시줄을 고치는 유복태
2. 10월 6일 마을 강측도로변에 바람을 쐬러 나온 천돌남
3. 10월 16일 마을 앞 공동화장실 근처 공터에 바람을 쐬러 나온 김영대



목시계를 하였으며 반지를 끼고 양말은 신지 않았다. 집이 경로회관에서 가깝기 때문에 경로회관에 갈 때에나 집 근처에 다닐 때에는 주로 슬리퍼를 신으며 이날도 슬리퍼를 신었다.

● 〈사례 8〉 2008년 10월 24일 김순재 집 여자 노인

**최삼녀** 상의는 긴팔 블라우스에 검은색 조끼를 입었으며, 하의는 몸빼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었다.

**김정란** 반팔 먼 티셔츠에 나일론 소재의 긴팔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고 양말을 신었다. 머리는 파마머리를 하였다.

**김순재** 상의는 긴팔 티셔츠에 하의는 나일론 소재의 바지를 입고 버선을 신었다. 머리는 파마머리이고 귀걸이를 하였다.

**김달순** 상의는 긴팔 먼 티셔츠만 입었고, 하의는 꽃무늬가 그려진 먼 소재 긴바지를 입었으며 양말을 신었다. 손목에 시계를 차고 액세서리로 팔찌, 귀걸이를 하였다. 파마머리에 화장을 하였고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였다.

**김춘자** 상의는 긴팔 티셔츠에 조끼를 입었으며, 하의는 긴치마를 입고 양말을 신었다. 생머리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했고 액세서리로 귀걸이와 반지를 졌다.

**천돌악** 긴팔 가디건에 조끼를 끼입고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었다. 양말을 신었으며 머리는 파마머리를 하였다.

1. 10월 24일 김순재의 일상복
2. 10월 24일 김순재의 집에서 고스톱을 즐기고 있는 여자 노인들
3. 10월 24일 최삼녀의 일상복
4. 10월 24일 김정란의 일상복



1



2



3



4



● 〈사례 9〉 2008년 9월 4일 / 12월 6일 김봉금

2008년 9월 4일 마을 앞에 바람을 쐬러 나온 김봉금은 꽃무늬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었으며 슬리퍼를 신었다.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여 유모차(뜰뜰이)를 항상 끌고 다니며, 나이가 들면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 머리는 파마머리를 하였다.

2008년 12월 6일에는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꽤 추워져 내복을 입었고 그 위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으며 두꺼운 몸빼 바지를 덧입었다. 상의는 긴팔 티셔츠에 가디건을 입고 잠바를 입었다. 머리는 파마머리를 하였고, 양말과 덧버선을 신었다. 김봉금은 예전에 앓던 하의가 허리가 굽으면서 발에 밟혀 입지 못하는 옷이 많다고 하였다.

● 〈사례 10〉 2008년 10월 30일 권복련

자주 신는 고무신을 신었고 몸빼 바지를 입었다. 상의는 긴팔 티셔츠에 조끼를 껴입었다. 머리는 파마머리이고 8년 전에 둘째 딸이 해준 귀걸이를 하였으며 목걸이와 팔찌를 썼다. 목걸이와 팔찌는 환갑 때 아들이 해준 것이다. 액세서리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IMF 당시 금모으기를 할 때 다 팔아버리거나 며느리와 딸에게 거의 다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생업복**

정정1리 뱃불마을 주민들의 생업 복장은 크게 발농사 복장과 오징어 건조작업 복장, 어업 복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발농사 복장은 일상복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해서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약을 쳐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상복이 아닌 발농사를 할 때에 입는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또한 챙이 큰 모자를 쓰고, 발농사를 할 때에만 신는 신발로 갈아 신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반바지에 반팔을 입다가 밭에 갈 때에는 긴팔과 긴바지로 갈아입으며, 값이 싸고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 〈사례 1〉 이균태의 밭일 복장

밭일 복장으로 챙이 큰 모자와 고무 재질의 슬리퍼, 긴팔 남방, 면 재질의 바지를 입었다. 모자는 장사해수용장에서 작년에 5,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며 고무재질의 슬리퍼 역시 작년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상인에게서 7,000원을 주고 산 것인데 앞은 막혀 있고 뒷꿈치 부분은 뚫려있어 시원하면서도 발이 보호된다. 긴팔 남방은 이균태의 부인이 영해시장에서 몇 천원을 주고 산 것이며, 바지 역시 영해시장에서 4년 전에 몇 천원을 주고 산 것이다. 밭일 복장은 최대한 간편해야하며 값이 싼 옷을

1. 마을 앞 강측도로변에 바람을 쐬러 나온 김봉금
2. 김봉금의 집 마루에 앉아있는 김봉금
3. 마을 주민들과의 술자리에서 권복련
4. 이균태의 밭일 복장



1



2



3



4



밭일복장(최옥량)

입어야 심적으로도 편하다고 한다. 이날 이균태는 오징어 작업을 잠시 한 후 밭일을 하러 간 것인데, 오징어 작업을 할 때에는 쓰지 않기도 하는 챙이 큰 모자를 썼으며 밭일을 할 때 입는 긴팔 남방과 긴 바지를 입었다.

### ● <사례 2> 최옥량의 밭일 복장(9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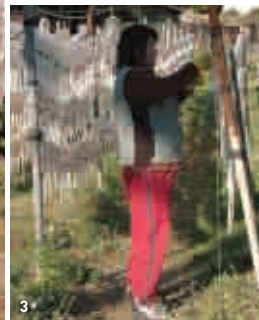
이균태의 부인 최옥량도 밭일 복장으로 챙이 큰 모자를 쓰고 고무 재질의 슬리퍼를 신었으며 긴팔 남방과 긴 바지를 입었다. 밭일 중간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목에는 수건을 둘렀다. 슬리퍼는 이균태와 동일한 것이며, 농약을 쳐야하기 때문에 밭일을 할 때에만 입는 긴팔 남방과 긴 바지를 입은 것이다.

오징어 건조작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외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햇볕을 최대한 가릴 수 있도록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챙이 큰 모자를 쓴다. 목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목에 두르기도 한다. 오징어가 마르면 묶기 전에 몸통과 귀 부분을 펴줘야 하는데, 이때에는 고무 재질의 신을 신는다. 고무 재질의 신은 마찰력이 좋고 바닥이 납작해서 오징어를 늘리거나 밟을 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손으로 늘릴 때에는 고무장갑이나 목장갑을 끼야 쉽고 편하게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개인에 따라서 오징어 할복을 할 때나 물기가 있는 오징어를 널 때에는 갑마 하의를 입고 팔토시를 끼거나 상의와 하의 모두 갑마를 입는 경우도 있다.

### ● <사례 3> 박동희의 오징어 작업 복장(10월 3일)

신은 고무신을 주로 신는데, 작업을 할 때 편하고 오징어를 밟을 때 고무신 바닥

1. 오징어 작업 중인 마을 주민들
2. 오징어 작업 복장(유영자)
3. 오징어 작업 복장(한미영)



이 납작하고 마찰력도 좋아서 잘 밟히기 때문이다. 여름과 가을에는 평소 슬리퍼를 주로 신고 다닌다. 모자는 챙이 큰 것을 쓰고 목에는 손수건을 둘렀는데 손수건은 목이 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징어 작업을 할 때는 트레이닝 바지를 주로 입고 윗옷은 꽃무늬 망사옷을 입었다. 아직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옷을 두껍지 않게 입은 것이다. 오징어를 늘릴 때는 대개의 경우 목장갑을 끼지만 이날은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였다.

어업 복장은 장화를 신고 갑바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갑바는 약 만 원 정도로 주로 축산항 어업용품 상점에서 구입한다. 갑바 하의는 땀뺀 끝을 어깨에 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의를 그 위에 겹쳐 입을 수 있다. 갑바 하의만 입을 경우에는 팔에 갑바 토시를 끼기도 한다.

우트가사리 채취 어업을 할 경우에도 파도가 센 잠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갑바를 입지만, 그 외에 잠수로 채취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복을 갖추어 입는다. 잠수복은 과거부터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고무 소재의 옷은 약 20여 년 전에 처음 입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스펀지 소재의 잠수복을 주로 입는다.

젊을 때부터 잠수를 해왔던 최영순은 고무로 만든 옷을 입기 전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맨다리로 잠수를 하다가 고무 옷이 나오면서 스타킹을 신고 고무 옷을 입었다고 한다. 현재 입는 고무 옷은 1년에 한 번 정도 맞추어 입는데, 바다에 자주 나가지 않고 일을 오랜 시간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자주 바꾸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김정식B에 따르면 예전 잠수복은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천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머리에 둥글게 신주철로 만들어 어깨와 가슴까지 연결되는 갑부를 썼으며 옷 앞뒤로 납덩어리인 노도를 달고 신발도 쇠로 만들어 굉장히 무거웠다. 발에 쇠를 다는 이유는 상체가 갑부 때문에 무거워서 거꾸로 뜨기 때문에 머리와 발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에 옷 안에는 공기를 넣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전 잠수복을 입고는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다가 현재 고무 옷이 나오면서 해엄을 치며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산소는 배에서 공급시켜 갑부 뒤로 들어가게 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옷에 주입하는 공기는 상반신에 들어가게 했는데, 하반신에 공기가 들어갈 경우 거꾸로 뜨기 때문이다. 앞뒤로 찬 노도 하나는 다섯 관으로 20kg이었다. 이렇게 갖추어 입었던 예전의 잠수복은 사고의 위험성이 많았다. 무게가 무거워서 공기가 끊길 경우 위로 올라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식B은 약 7~8년 전부터 고무 재질의 옷을 맞추어 입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입던 잠수복은 골동품 상인에게 팔았다고 한다. 잠수복은 울산에서 몸에 맞추어 구입을 하는데, 한 벌에 37만 원 정도 하며, 1년에 한 번 맞추어 입는다.

윤금열은 대개 조업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채취어업도 하고 있다. 잠수복은 전문 판매점에서 맞추는 것으로 매년 한 벌씩 구입하는데, 여름에는 두께 4.5mm, 겨울에는 6mm를 입는다. 보통 겨울철에 옷을 구입하여 입다가 날으면 여름철에는



1. 오징어 크기별 분류 작업중(박동희)

2. 오징어 작업 중에 신는 고무신(박동희)

장화를 신고 갑바 하의를 입었으며 갑바 토시를 끼고 조업 중인 이우용







김정식B의 아들이 만든 과거 잠수부 모형  
앞, 뒤

물이 따뜻해서 낚아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다가 이듬해 겨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다. 울산 잠수부 전문 상점에서 한 벌에 23만원을 주고 스펀지 소재의 잠수복을 맞추어 입는다. 과거에는 낚을 가슴과 등에 달았던 것과 달리 요즘에는 허리에 낚을 차는데, 잠수복이 스펀지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물에서는 몸이 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낚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인데, 낚을 차지 않고 잠수복만 입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리발을 끼고 헤엄을 쳐도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과거에는 박을 부표로 썼는데 그것을 고지바가치라고 불렀다. 지금은 부표에 그물을 연결한 것을 쓰는데 두루박이라고 한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문어나 군소를 잡을 때 돌 사이에 있는 것을 꼬집어내기 위한 도구인 꼬갱이와 전복을 딸 때 쓰는 비창을 들고 들어간다.

#### ● <사례 4> 유복태의 쥐치 어업 복장(9월 9일)

쥐치 작업을 할 때에는 면바지와 긴팔 티셔츠에 어깨 매향 끈이 달린 하의 갑바와 상의 갑바까지 입는다. 또한 날이 흐린 날에도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장화는 항상 신으며 면장갑을 낀다.

#### ● <사례 5> 이상호의 고동 작업 복장(9월 6일)

하의 갑바를 입고 장화를 신었다. 상의는 면 소재의 긴팔 티셔츠를 입었고 갑바와 같은 재질의 팔 토시를 하였으며 면장갑을 낀다.

1. 쥐치 어업 복장을 입은 유복태
2. 고동 작업 중인 이상호



1



2



● 〈사례 6〉 우뚝가사리 채취 어업 복장(8월 24일 / 8월 25일)

하의는 갑바를 입고 장화를 신었다. 상의는 파도의 세기와 개인에 따라 평상복을 입기도 하고 갑바를 입기도 하였다. 상·하의 모두 갑바를 입지 않고 일상복장으로 채취를 하는 마을 주민도 있었다.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다 보니 챙이 크고 얼굴과 목을 가려주는 천이 달려있는 모자를 쓰거나 머리 수건을 쓰고 작업을 하였다. 바위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도록 모두 고무재질의 신을 신었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 맨손으로 채취를 하거나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였다.



1. 우뚝가사리 채취 어업종인 유춘자
2. 우뚝가사리 채취 어업종인 김란
3. 일상복을 입고 우뚝가사리 채취 어업종인 마을 주민
4.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우뚝가사리 채취 어업종인 마을 주민들

● 〈사례 7〉 윤금열의 잠수 복장(10월 16일)

윤금열은 잠수를 하러갈 때 주로 슬리퍼를 신고 가서 맨발로 잠수를 하며 맞춤 잠수복을 입는다. 앞에서 설명한 잠수복을 갖추어 입었으며 잠수를 하고 나와서 머리에는 수건을 썼다. 어깨에는 잠수 도구와 부표를 담은 두루박을 걸쳤다.

잠수를 다녀오는 윤금열



## 외출복

경정1리 주민들이 자주 외출을 하는 곳은 축산리와 영해면, 영덕읍내 등 영덕군 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인에 따라서 외출복과 일상복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외출복은 외출의 목적이나 행선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시장이나 인근 마을에 다녀올 때에는 외출복과 일상복이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업무를 보러 나가거나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다녀올 때, 야유회나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 등을 다녀올 때의 복장은 일상복에 비해 깨끗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을 입는다. 여성의 경우에는 액세서리를 하고 평소에 하지 않는 화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은 평소에 즐겨 입는 몸빼 바지 대신에 면바지나 깔끔한 긴바지를 입고, 남녀 모두 외출할 때는 슬리퍼보다는 구두나 깨끗한 운동화를 신는다. 외출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손가방, 손수레 등을 들고 나가기도 한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외출할 때에만 입는 복장과 일상복을 구분하거나 일상복에 외출할 때 입는 옷을 꺼입는 등의 변화를 줌으로써 외출복과 일상복을 구분하고 있다.

보건소 다녀온 김란



### ● 〈사례 1〉 김란의 외출복장(10월 6일)

10월 6일 오후 김란은 병곡 보건소에 혈압약을 타러 다녀왔다. 평소에 슬리퍼에 긴 원피스를 자주 입는데, 이 날은 하의로 하늘색 긴 바지를 입고 상의로 꽃무늬 긴 팔 블라우스와 가을 조끼를 입었다. 바지는 서울에 사는 딸이 구입하여 보내준 것으로 외출할 때만 입는 옷이고, 가을 조끼는 영해장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신발은 평소에 신는 슬리퍼가 아닌 구두를 신었는데, 영해장에서 올해 13,000원을 주고 직접 구입한 것이다. 안경은 올해 설 연휴에 부산에 있는 큰 아들을 만나러 가서 큰 아들이 150,000원을 주고 선물해준 것이며, 시계는 영해 매화당이라는 금은방에서 남편 유복태가 선물로 사준 것인데 700,000원을 줬다고 한다. 외출할 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은 3년 전에 큰 딸이 사서 보내준 것이며, 귀걸이와 목걸이는 몇 년 전 큰 아들이 사준 것이라고 한다. 평소에 하지 않는 화장도 이날은 했는데, 외출을 할 때나 미역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갈 때는 화장을 한다. 파미는 올해 9월 부산에 큰 아들을 만나러 가서 하고 온 것으로 20,000원을 주었다. 김란은 이날 외출을 다녀오자마자 일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신들석 장군 생가 앞에서 김순자



### ● 〈사례 2〉 김순자의 외출복장(9월 10일)

김순자는 〈사례 1〉의 김란과는 다르게 매일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다. 이 날은 추석 제수를 장만하기 위해 영해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으며 외출 복장은 평상복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마을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었으며 평상시 입는 편한 바지와 반팔 티셔츠에 조끼를 걸쳤다. 일상복과 한 가지 다른 점은 외출 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들었다는 것이다.

● 〈사례 3〉 주숙자의 외출복장(9월 18일)

주숙자도 김순자와 마찬가지로 평상복과 일상복의 큰 차이가 없다. 이날 주숙자는 영해시장에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긴 바지를 입고 평소 즐겨 신는 슬리퍼 대신에 단화를 신었다. 상의는 반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입는 옷이며, 장을 본 물건을 신기 위한 손수레를 가지고 다녀왔다. 손수레에는 오전에 가지고 나간 양산도 함께 실었다.



● 〈사례 4〉 김영대의 외출복장(10월 21일)

김영대는 영덕 노인대학에 가는 날 옷을 말끔하게 차려 입는다. 10월 21일에도 영덕 노인대학에 가기 위해 외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하의는 흰색 양복바지에 흰색 구두를 신었고, 상의도 색을 맞추어 흰색 반팔 티셔츠에 회색 마의를 덧입었다. 모자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김영대는 이날 상하의 복장의 색에 맞추어 모자 역시 흰색을 썼다.



1. 영해시장에 장을 보러 다녀오는 주숙자  
2. 영덕 노인대학에 가는 길(김영대)

● 〈사례 5〉 경로회원 야유회복장(7월 28일)

2008년 7월 28일에는 경로회 회원들이 복날을 맞아 복날 음식을 먹기 위해 창수면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남녀 모두 일상복과는 다른 깔끔한 복장을 입었는데, 남성의 경우 하의는 거의 대부분 양복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었으며 상의는 반팔 티셔츠, 반팔 셔츠, 반팔 베웃을 입었다. 모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쓴 주민도 있고, 쓰지 않은 주민도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의로 반팔 블라우스나 반팔 티셔츠, 반팔 베웃을 입었고, 하의는 긴 바지나 긴 치마를 입었다. 남녀 모두 구두를 주로 신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도 간혹 있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구두 대신 단화를 신기도 하였다. 남성의 경우 평소에 쓰지 않는 선글라스를 쓰거나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여성은 양산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다. 남녀 모두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이나 크지 않은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가 많았다. 양말은 남성의 경우 면양말을 주로 신은 반면 여성은 발목 스타킹을 신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이날 화장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보다 많은 액세서리를 착용한 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1. 야유회에서 식사 중인 남자 경로회원들  
2,3,4. 깔끔한 복장의 여자 경로회원

의례복은 의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또한 의례의 당사자와 하객의 복장도 차이가 나게 된다.

2008년 7월 26일에는 마을 경로회관에서 이상호의 아들 이준희의 돌잔치가 있었다. 이상호와 동생 이상진은 양복을 입었고, 돌잔치의 주인공 이준희는 돌복과 새 신발을 신었다. 돌복과 신발은 모두 영해시장에서 돌을 기념하여 새로 산 것이다. 이상호의 부인은 국제결혼으로 만난 필리핀 여성으로 이날 일상복보다는 주로 외출복으로 입고 다니는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다. 이준희의 조부모인 이대우와 유복례도 평상시 입는 복장에 비해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이대우는 양복바지에 구두를 신고 와이셔츠와 봄가를 잠바를 입었으며 유복례는 긴 치마에 꽃무늬 반팔 상의를 입었다. 반면 하객들은 일상복이나 깨끗한 외출복을 입었다. 마을 내에서 돌잔치를 치르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평상복 보다 깨끗하고 보관 상태가 좋은 옷으로 골라 입고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1



2



3



4



5

1. 이준희와 마을주민들
2. 돌잔치 장소인 경로회관으로 가는 길
3. 기념촬영을 하는 이준희, 그의 조부모, 부모
4. 돌복을 입은 이준희
5. 기념촬영을 하는 이준희와 그의 부모

10월 10일 박수남의 아들 박현태의 결혼 전날,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의 복장도 일상적으로 입는 복장보다 외출복에 가까운 복장을 입었다. 비록 마을 내에 있는 박수남의 식당에 자리를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의 복장은 일상복 보다는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편 주인공인 박현태와 아버지 박수남은 양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았으며,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을 해야 하는 박현태의 어머니 김애경과 신부는 일상복을 입었다.

한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당일 마을 주민들의 복장은 보다 깔끔한 정장으로 갖추어 입는다. 2008년 4월 13일 권봉도의 딸 권은순의 결혼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남녀 모두 정장 차림을 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전혀 화장을 하





1. 박수남, 김애경 부부와 아들 박현태, 아들 박원우, 신부, 딸
2. 박현태의 결혼을 축하하러 오는 마을주민들
3. 권은순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마을주민들
4. 하객을 맞는 신부의 부모 권봉도, 유영자 부부
5. 신랑 최호열
6. 하객들과 사진 촬영 중인 신부 권은순



지 않던 주민들까지 화장을 하였다. 액세서리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많이 하였다. 결혼식을 올린 신랑 최호열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 권은순은 드레스를 입었으며, 신부의 아버지 권봉도는 양복을 입고 어머니 유영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다.

명절 복장은 돌이나 결혼과 같은 축수의례에 비해 예의를 갖추어 옷을 입으며 액세서리를 하는 등의 멋을 부리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한복 또는 깨끗한 일상복을 입으며, 성인 남녀 모두 정장이나 한복을 주로 입으나 명절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옷을 보다 예의에 맞게 갖추어 입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남성들만 차례를 올리는 특성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은 음식 준비 등으로 정장이나 예의를 갖춘 옷을 입을 경우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복을 입되 그 중에서 깨끗한 옷을 골라 입는 사람들이 많다.

1. 추석 차례 복장(이대우)

한복은 5-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설, 정월대보름, 추석에만 입는다.

3. 추석 차례 복장(김영대)

몇 년 전 영덕 복사꽃 축제에서 구입한 정자관을 쓰고 한복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4. 추석 복장(김영대)

2. 추석 복장(김순택)

5.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인사를 나누는 마을 주민들



1



2



3



4



5

외모 중에서 개인의 개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화장과 치장이다. 경정1리 뱃불마을 주민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모를 꾸미기 위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외출을 나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화장을 한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실외에서 작업을 할 때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을 함으로써 하루 종일 실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용성을 위해 화장을 하기도 한다.

화장과 더불어서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머리 손질을 들 수 있다. 현재 경정1리에는 김천권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미용실은 가장 가까운 곳이 축산리이다. 하지만 마을의 여성들은 축산리의 미용실보다 영해면에 있는 미용실을 보다 선호하는 편이다.

여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머리모양은 파마머리이다. 마을 주민 중에서 중년층 여성 몇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현재 파마머리를 하고 있거나 파마머리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파마를 하러 나가기 힘들거나 굳이 파마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머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파마는 개인에 따라서 3~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김순자는 결혼 전 생활하던 부산을 떠나 26년 전 결혼을 하면서 경정1리에 들어와서 처음 머리 손질을 했을 때의 기억을 들려주었다. 당시 마을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생기지 않았을 때, 도곡리에서부터 마을까지 비포장도로였는데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하고 다불재를 넘어가서 영해로 가야했다. 결혼을 한 1982년도 부산의 파마가격이 25,000~30,000원이었는데 당시 영해에서는 파마의 가격이 3,000원이었다고 한다.

김봉금은 어린 시절 긴 머리에서부터 결혼 후에 파마머리를 하기까지의 머리 관

1. 파마를 하고 온 최옥량
2. 파마머리를 한 김숙자





리에 대해서 조사자에게 들려주었다. 김봉금은 고향이 영덕군 하저리로 집안의 어른들이 머리를 못 자르게 하여 9살부터 길리서 13, 14세에는 영덩이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왔다고 한다. 관리는 매일 감고 땀았는데, 보리쌀 씻은 물이나 동박지름(동백기름)을 탄 물로 감았다고 한다. 17세 정도에 머리를 한 번 끊었고, 처음 파마를 한 것은 30대로 약 40년에서 50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어린 시절 김봉금이 머리를 잘 관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의 할아버지 도움이 컸다. 김봉금의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매일 물을 데워 줘서 빗겨서 땀아주는 일도 할 아버지의 몫이었다. 파마는 영해에서 했는데, 새벽에 출발하여 저녁에 들어왔다고 하고, 파마를 하기 전에는 머리를 감아 올려서 비녀를 찔러 다녔다. 김봉금의 이전 세대에는 머리를 올려서 이마 위에 얹어서 다녔다고도 하는데 김봉금은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파마 그런게나 있나 비녀 질러가지고, 머리 그 전에는 머리 앞에 넓적하이 얹어가 땀기고, 요 새는 마카 파마나 하고, 앞에는 머리를 얹는다대. 양쪽 갈라가지고, 머리를 따듬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카 비녀 찌르고 인자는 파마하고... 캄캄할 때 가서 거기 가면 해 뜨고 파마하고 여기 넘어오면 다시 캄캄한 밤이고, 그래 땀겼다. (김봉금)

여성들은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다듬을 때 축산리 또는 영해면의 미용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업이 바빠지 않은 여름철 미용실에 다녀오거나, 생업으로 가장 바쁜 오징어 건조 작업을 하는 시기가 되면 오징어가 잡히지 않은 날에 단체로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김천권이 운영하는 마을 이발소를 이용한다. 김천권은 26세에 이발업을 시작하였는데, 군대에 다녀온 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상경하여 일을 찾아다니다가 7촌 어른을 만나 그분이 운영하던 이발소에서 이발 기술을 배웠다. 그 후 다른 지역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까지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발소가 지금보다 마을 안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발소 내부의 모습은 몇 십 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가스레인을 들여놓기 전에는 갈탄과 화목 등을 썼는데, 갈탄은 현재 영덕아산병원 가는 길목에서 채광한 것을 썼다. 불과 10~20년 전까지는 그곳에서 갈탄을 채광했는데, 현재는 소비가 없다보니 채광이 중지된 상태이다. 김천권의 기억에 의하면 20대에 처음 이발업을 시작할 당시 이발 가격은 몇 백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7,000원을 받고 있다.

오징어 건조 작업을 하는 시기가 되면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김천권도 생업으로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매우 바빠기 때문에 이발소 영업을 하는 날이 많지 않다. 조사자가 10월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 불과 두 번 내지 세 번 이발소 문을 연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여름철 매일 문을 여는 시기와는 달리 가을과 겨울에는 가끔씩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발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마을 주민들로 이발소 내부가 붐빈다.

## 세탁



경정1리는 뱃불마을 과거에 남쪽과 북쪽 두 군데에 도랑물이 흘렀다. 하나는 현재 윗당 부근에서부터 승리슈퍼 앞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에서부터 경로회관 앞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현재는 두 개 모두 복개되어 있어 길 아래로만 물이 흐른다고 하나, 과거에는 도랑에서 주민들이 모여 빨래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펌프가 있는 집에서는 지하수로 빨래를 하기도 했다.

손빨래는 세탁도 힘든 일이었지만 탈수 역시 힘든 일이었는데, 탈수기가 나오면서 손으로 빨래를 짜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다. 탈수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 가격은 약 5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세탁통과 탈수통이 나누어져 있던 반자동세탁기가 나왔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세탁통과 탈수통이 합쳐진 세탁기가 등장을 하였다.

빨래의 건조는 가옥의 형태나 방의 쓰임 등과 관련이 깊다. 슬라브 지붕의 가옥인 경우 집 옥상에 빨래줄을 걸어 빨래를 건조시키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옥상이 없는 집의 경우에는 마당이나 집 안 빈방에서 빨래를 건조시킨다.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빈 방이 많아서 옷의 보관이나 빨래의 건조를 빈방에서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 식생활

유순애는 술을 식사 대신으로 먹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 미역일을 할 때에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침을 먹으러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을 대신하여 동동주에 들깨를 갈아 넣어 뽀뽀하게 해서 먹었다고 한다.

경정1리 뱃불마을의 식생활은 지리적 특징 및 생업과 관련이 크다. 특히 식생활에서는 어촌의 특성이 드러나는 음식이 많은데, 연중 생업이 일정한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재료나 식사 시간 등은 연중 변화가 많다. 또한 조리도구의 변화는 식생활 변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생활에 대해서는 우선 식생활의 주된 변화를 알아보고 현재의 식생활을 각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 식생활의 변화



식생활은 무엇보다도 식재료와 관계가 깊다. 과거 경정1리의 생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에 비해 컸다고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구 감소, 특히 젊은층의 인구 감소와 주 생업 형태의 변화, 어종 및 어획량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게 되는데, 경정1리에서 태어나서 자란 젊은층의 대다수가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어업에는 종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어업을 하던 마을 주민 중에서도 현재는 어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른 형태의 생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징어 건조 작업이 있는데, 직접 오징어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를 축산항에서 입찰을 받아 사온 후에 건조 과정

을 거쳐 판매를 한다든지 오징어 건조만을 의뢰받아서 각 가정에서 건조작업만을 하는 등 세대가 내려감에 따라서 생업 형태의 변화가 최근 10~20년 사이에 크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채취어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채취어업 중 해녀나 머구리 등 전문적인 채취는 그 방식이 계승되지 않아 불과 10여년 이후에 현재 남아있는 해녀들이 더 이상 채취어업을 할 수 없을 시기가 오면 사라질 것으로 주민들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생업 형태의 변화는 해산물 특히 생선을 주된 식재료로 쓰던 마을 주민들의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종 및 어획량의 감소는 해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 온 경정1리 주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는 생선이 매 끼니마다 밥상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현재는 비록 어촌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밥상에서 고기(생선) 반찬을 먹는 경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그만큼 생선이 흔해서 생선을 ‘얻어먹는 것’<sup>01</sup>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마을 내에서 생선을 파는 것은 ‘옥먹을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식재료의 많은 부분 중 해산물 특히 생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촌 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집에서도 흔한 것이 생선이었던 과거에 비해서는 해산물의 비중이 작아진 것이 현재 식생활 변화의 한 모습이다. 이것은 밥상 위에 생선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비록 과거 상차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상 위에 고기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나물이나 다른 반찬이 조금씩 대신한다’는 주민들의 설명에서 과거에는 해산물 특히 생선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생선을 그만큼 얻기 힘들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입찰항의 위치 변화와도 상관이 있다. 현재 경정1리의 항구는 경정2리와 경정3리의 항구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2리와 경정3리의 항구는 군지정항으로 되어 있으나 경정1리는 도지정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정1리 어선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배들까지 대부분 경정1리에서 입찰을 보았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주변 마을 배들이 모두 축산항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서 경정1리 항구에서 입찰을 보던 당시에 비해 생선을 얻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이나 반찬의 재료로 사용된 생선을 포함한 기타 어획물뿐만 아니라 밥의 재료도 변화를 겪었다. 생선의 경우 양의 변화가 컸다고 한다면 밥의 경우에는 양의 변화와 더불어 주된 곡식의 종류가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록 논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들의 수가 과거에 훨씬 많았다고는 하지만 쌀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정부미가 보급되면서부터이며 1980년대 이후부터 쌀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보리(보리쌀, 보쌀)와 남떡보리쌀<sup>02</sup>, 조, 고구마 등이 밥의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이 중 두세 가지를 섞어서 밥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01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자신이나 가족 중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업 후에 마을로 들어오는 어선의 어획물 중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항구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한 마을 주인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고 어쩌면 당연하게 생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배가 들어오는 아침에 바다에 나가면 생선을 얻어가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친분관계 있는 주민이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

02 남떡보리쌀은 남작한 보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제과정에서 기계에 눌러 납작해진 것을 말한다.

**김춘자** 밥은 보리쌀 있죠?

**조사자** 보리요?

**김춘자** 예. 보리. 보리랑 좁쌀있죠? 그것을 1:1정도 비율로 섞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납짝보리쌀은 보리인데 눌러 놓은 것처럼 납짝한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조밥만 먹는 경우도 있었고 조밥에 보리쌀을 섞어서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정부미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쌀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부미도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납짝보리쌀이 조금 섞여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를 먹는 것보다는 정부미가 훨씬 맛이 나았죠. 지금은 조를 더해서 밥을 해놓으면 맛있지만, 그것만 먹을 때는 입에서 곁돌기만 하고. (김춘자)

고구마는 간식거리이기도 했지만 밥의 주된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구마가 밥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벧짚으로 높이가 높고 폭이 넓은 항아리 모양의 바구니인 뒤주에 두고 보관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보관하는 고구마를 겨울철에 꺼내서 삶아 먹거나 기름찍 구워먹기도 하였다. 또한 밥을 할 때에는 술에 잘라 넣어 찐 후에 밥과 함께 으깨 먹었다고 한다. 고구마는 오늘날 간식이거나 영양식으로 먹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비상식량이자 주식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밭이 있는데 고구마를 심어가고, 심는 것도 비가 안 오니까 토랑에 가서 물 퍼가고 들고 이고, 우리 엄마 그래가고 골병든 것 같애. 이고 와가 물 일일이 다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걸 퍼가고 쪽쪽 부워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캐면 뒤주라고 거기에 보관을 한다고... 보릿고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겨울철에 고구마는 주식이면서 비상식량이었죠. (이장학)

과거 경정1리는 인접 마을인 경정2리와 경정3리에 비해 ‘잘사는 동네’였다고 주민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였다.

최수룡은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속껍질을 그대로 먹거나 떡을 찢어서 먹었다고 기억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워낙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다보니 산이 흰색이거나 붉은색을 띠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산야제한이 있기 전에는 피임약이 없어서 자식이 많다보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먹는 문제였고,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설, 추석, 제사, 초상 때뿐이었다’고 한다. 과거에 상가에서는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긴 줄이 형성되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떡을 두 개 주었기 때문에 등에 아이를 업은 척 이불 등을 감고 떡을 받으러 가기도 했다. 또한 밥에 맛을 더하기 위해 사카린을 뿌려 먹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눈을



과자처럼 먹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억들은 하나같이 반찬보다는 밥의 부족을 말해주는 것으로, 반찬은 생선이나 그 외 해산물로 마련하기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인 것이다.

식생활의 변화는 식재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리도구 또는 부엌의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 특히 조리도구와 부엌의 변화는 조리방법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생선의 조리방법에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현재 마을 주민들이 생선을 먹는 방식에는 회, 찜, 구이, 조림, 볶음, 탕, 찌개 등이 있는데, 과거 나무로 아궁이를 때던 시절에 생선을 먹는 방식에는 회, 찜, 구이가 전부였다.회는 별다른 조리과정 없이 필요하지 않았고, 큰 솥에 밥을 할 때 작은 냄비를 넣어서 그 안에 생선이 자연스럽게 익으면 먹는 방식이 찜이었으며, 불에 직접 구워서 먹는 구이가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중반에 곤로<sup>03</sup>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생활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곤로가 등장하면서 볶음반찬과 생선조림, 생선탕, 생선찌개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곤로는 밥을 할 때 쓰는 화기가 아니라 그 외의 조리가 가능한 별도의 화기였다. 따라서 큰 솥에 넣어둔 작은 냄비와는 달리 뚜껑을 열고 닫거나 뚜껑을 열어둔 채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볶음이나 조림, 탕, 찌개 등의 음식 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마을에서 멸치를 많이 잡았는데 멸치는 볶음으로 먹는 대표적인 어류였고, 말린 생선의 경우에는 주로 조림을 해서 먹었다.

곤로가 쓰이게 될 시기 즈음에 프라이팬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볶음이나 구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조리도구였다. 프라이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밀가루와 호박으로 반죽한 부침개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시기를 같이하여 라면이 등장하여 끓여서 먹기 시작하였는데 라면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를 끓여 몇 사람이 둘러앉아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연탄을 쓰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곤로를 사용하는 집이 많았으며 1990년대를 전후로 곤로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가스레인지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어류에 비해 육류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제사 때가 되면 탕국에 들어가는 소고기를 먹는 것이 육류를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였는데, 그 외에는 산에서 직접 잡아서 먹기도 하였다. 이장학은 산에 올라가미를 놓아서 노루나 토끼를 잡아와서 먹곤 했다고 한다. 올라가미는 올무 또는 목로라고도 부르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 산에서 동물을 잡아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sup>03</sup> 곤로는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말로로는 화로이다. 마을 주민들은 곤로를 밀로치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오늘날 경정1리의 식생활은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데다가 개인 또는 각 가정의 취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식사시간, 식재료 준비, 반찬의 종류 등이 가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식사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며 각 가정에 따라서 몇 시간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특히 조업 후 당일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업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는 1일 2식만을 하는 마을 주민들도 있으며, 조업이 길어지거나 조업 중에 식사시간이 끼게 될 경우에는 배 위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식재료의 준비나 반찬의 종류에 있어서는 생업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민들은 자신이 조업한 생선으로 여러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서 먹기가 쉬운 반면 조업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반찬을 준비한다. 생선이나 해산물 외의 식재료는 자신이 일군 밭에서 수확한 작물, 직접 채취한 나물, 시장이나 식료품 판매 트럭에서 구입한 반찬 등이 있다. 오늘날의 식생활을 몇 개의 사례별로 일상식, 반찬, 별식, 저장식품, 기호식품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 일상식

#### ● 〈사례 1〉 이정록 · 박정자 부부의 식사

아침에는 주로 회를 먹는데 이정록은 직접 조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촌계장이다 보니 아침에 항에 나가면 새벽에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얻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회가 없을 때는 국을 끓이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밑반찬 몇 개를 꺼내어 같이 먹는데, 국은 미역국이나 호박국 등을 자주 먹는다. 이 지역 미역국의 특징은 된장을 넣어 끓인다는 것이다. 호박국은 밭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호박만을 넣고 끓인 국에 깨소금을 넣어 먹는다. 호박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맛이 달다. 이정록은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한다. 점심과 저녁에는 오전에 얻어온 생선을 구워서 먹는 경우가 많다.

김치는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도 있지만, 밭에서 키운 배추에 마늘과 고추를 사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무쳐서 먹기도 한다. 이정록 · 박정자 부부는 구 마을공동창고 아래 위치한 밭을 가꾸어 식재료를 마련한다. 생선을 마을에서 얻어 먹기 때문에 사서 먹는 음식이나 반찬은 적다.

2008년 4월 15일 점심식사

식사시간: 오후 12시경

식사장소: 부엌 식탁

밥: 참나물 무침과 멸치볶음, 고추장을 넣어서 비빔밥을 해먹었다.

참나물 무침: 장에서 사온 참나물에 된장, 마늘, 참기름을 넣고 버무렸다.

가자미조림: 말린 가자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을 넣고 조림을 하였다. 말린 생선은 주로 조려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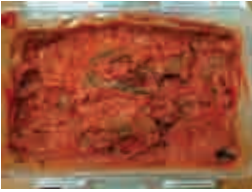
창란젓: 사다가 냉동시켜 놓은 창란젓을 해동하여 쪽파와 참기름을 넣고 버무렸다.

시래기 조림: 시래기를 콩가루와 된장을 넣고 국물이 약간 있도록 조렸다.

멸치볶음

김치





## 2008년 9월 25일 저녁식사

**식사시간:** 오후 5시 45분

**식사장소:** 부엌 식탁

**밥:** 쌀, 보리, 고구마 자른 것을 섞어서 지었다.

**호박국**

**장아찌:** 단무지, 오이, 마늘, 양파, 마늘쫑을 간장과 식초에 넣어 만들었다.

**생선:** 곰치 새끼를 말려서 엿기름을 넣어서 조린 후 깨를 뿌렸다.

**쌈장:**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만들었다.

**밥식해:** 대개 가지미로 만들어 먹는데, 박정자는 멸치에 밥, 엿기름, 마늘, 생강, 설탕을 넣고 여름에 만들었다.

**미역줄기무침:** 간장을 끓여서 고추장과 설탕, 미역을 넣어서 통깨를 뿌려 봄에 만든 것이다.

**청어전:** 추석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남은 것이다.

**배춧잎 삶은 것**

**콩나물 무침**

**김치**

## 2008년 11월 18일 저녁식사

**식사시간:** 오후 5시 20분

**식사장소:** 부엌 식탁

**쌀밥**

**미역국:** 마른 미역 데워서 된장, 간장, 들기름, 소고기 넣고 끓였다.

**고등어구이:** 11월 17일 개풍호가 잡아온 고등어를 얻어온 것을 프라이팬에 구웠다.

**김:** 해남으로 영덕군 여촌계장 여행을 가서 그 마을 여촌계장이 선물해준 것이다.

**김치:** 7월에 담근 김치이다. 2007년 12월에 담근 김장김치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김장김치 안에는 갈치를 비스듬하고 폭이 좁게 잘라 넣었다. 김장김치에는 멸치나 고등어 등도 넣지만, 갈치가 보다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다.

**밥식해**

### ● <사례 2> 이상진의 저녁식사

2008년 9월 5일 저녁 이상진의 아버지 이대우의 집에서 이상진과 조사자가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상진은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업으로 바쁜 날이 아니면 부모님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쌀밥에 미역 빼다리(줄기) 무침, 톳 무침, 쥐치 조림, 김치, 삶은 문어를 반찬으로 먹었다. 빼다리라 부르는 부분은 미역 줄기를 일컫는 것으로 미역 귀와 잎 사이의 한 뼨 정도



되는 부분이다. 잎과 귀는 팔고 나머지 한 뼉 정도의 미역 줄기를 잘게 잘라서 무치는데, 예전에는 방망이로 두드려서 자르던 것을 요즘은 빻과 비슷한 모양의 도구로 자른다고 한다. 과거에 하나씩 찢던 것을 이제는 한 번에 네 등분으로 자르게 되어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것을 된장에 무쳐서 먹는데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더없이 좋은 반찬이라고 한다.

톳 무침 역시 입맛을 돋우는 데 좋은 반찬인데, 초봄에 채취한 톳 중에서 좋은 것은 팔고 질긴 것은 늦봄에 무쳐서 먹는다.

이상진은 비가 오고 난 뒤 사흘 정도는 생선을 잘 먹지 않는다. 비가 오면 육지에서 바다로 민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민물 안에 균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도 균이 있지만 비온 뒤 민물에는 훨씬 많은 양의 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도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 2008년 9월 5일 저녁식사

식사시간: 오후 7시경

식사장소: 부엌

쌀밥

콩나물국

**미역 빠다리 무침:** 미역줄기를 잘게 잘라 된장에 다른 양념 없이 무쳐서 두세 달 정도 삭힌 것이다.

**취치 조림:** 이상진의 아버지인 이대우가 직접 잡은 취치를 야채와 고춧가루 등을 넣고 조렸다.

톳 무침

총각김치

삶은 문어

#### ● 〈사례 3〉 유복태 · 김란 부부의 식사

유복태 · 김란 부부는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편이다. 특히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시간이 유동적인데, 유복태가 취치 잡이를 하러 바다에 나가는 날에는 아침식사 시간이 새벽 5시경이 되지만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오전 7시 반 정도에 아침식사를 하게 된다. 취치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오후까지 조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오전에 끝내기 때문에 점심식사 시간도 두세 시간 차이가 난다. 취치 잡이를 나가지 않는 날 점심식사는 정오를 전후로 하며 저녁식사는 평균적으로 오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한다. 취치 잡이를 나가는 날에는 간식을 챙겨 가는데 주로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다.

유복태는 취치 잡이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배에서 조업을 돕는다. 이 때문에 반찬으로는 생선을 많이 먹으며 발농사는 하지 않아서 발작물은 시장에서 구입을 한다. 감장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겨울이 되면 큰 아들

유복태 · 김란 부부의 집 부엌 벽에 걸어둔 상



이 몇 년 전 사온 김치냉장고에 김장김치를 보관해서 꺼내어 먹는다. 식사는 마루에 상을 깔고 먹는데, 상은 부엌의 한쪽 벽에 걸어서 보관하고 있다. 상을 걸어두는 이유는 부엌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유복태, 김란 부부의 집 외에도 마을 주민들 중 상을 벽에 걸어서 보관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08년 10월 22일 아침은 쌀밥, 송늬, 김치, 김, 연어찜으로 식사를 하였다. 밥은 전날에 해서 먹고 남은 것이었으며, 국 대신에 송늬를 먹었는데 국을 만들 재료가 없을 때는 송늬를 국 대신 먹는 날이 많다고 한다. 연어는 유복태가 당일 아침에 조업을 나가서 잡은 것 중 입찰을 하고 남겨 온 것이다.

점심식사는 라면을 넣은 국수와 김치, 그리고 아침에 먹은 연어찜을 반찬으로 먹었다. 김란은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유복태가 즐겨 먹기 때문에 국수에 라면을 넣은 것이다. 점심식사는 대개 정오에 하지만 이날은 유복태로부터 경로회관으로 고스톱을 치러 오라는 전화가 여러 차례 와서 11시경 점심식사를 하였다. 면으로 식사를 하는 날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을 하지 않았다.

2008년 10월 30일 저녁식사는 오후 5시 20분경에 거실에서 하였다. 흰쌀과 흑미, 조, 콩을 섞은 밥을 짓고 호박국을 끓였다. 그 외에도 쥐치류의 학까치(꺅주리)와 돛새끼를 넣고 끓인 매운탕과 도루묵 조림, 장아찌, 더덕무침, 김을 반찬으로 먹었다.

1. 유복태·김란 부부가 아침식사 반찬으로 먹은 연어찜
2. 유복태·김란 부부가 아침식사에 먹은 송늬



#### 2008년 10월 30일 저녁식사

식사시간: 오후 5시 20분 ~ 5시 30분

식사장소: 거실

밥: 쌀, 흑미, 조, 콩을 섞어서 밥을 지었다.

국: 호박을 채 썰어 넣어 호박국을 끓였다.

매운탕: 하개라고도 부르는 쥐치류 학까치와 아까다이라고 부르는 돛새끼를 넣고 매운탕을 끓였다.

도루묵 조림: 도루묵에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을 넣고 조림을 하였다.

장아찌: 고추와 마늘을 간장에 담가서 만들었다.

더덕무침

김

● 〈사례 4〉 한명진 · 윤금열 부부의 식사

한명진 · 윤금열 부부는 주 생업이 대게잡이다. 대게잡이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4~5월 정도까지 하는데, 대게잡이 기간에는 아침식사시간에 변화가 온다. 대게잡이는 평균적으로 새벽 2시 반경에 나가서 오전 9시~10시 정도에 들어온다. 새벽에 일찍 대게잡이를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아침에 조업을 끝내고 늦은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 배 위에서 선상 식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도시락을 싸가거나 빵이나 우유를 사가지고 가서 먹기도 한다. 또는 버너로 라면을 끓여 대게를 넣은 대게라면을 별식으로 먹기도 한다. 대게잡이 철이 지나면 아침식사 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이다. 유치원생 딸인 김윤진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22일 저녁에는 남편 한명진이 시내에 다니오는 길에 곱창전골을 사왔다. 곱창전골은 축산항 근처 식당에서 사온 것으로 평소에는 집에 있는 밀반찬으로 식사를 하지만 가끔 한명진이 시내에 다니오는 날에는 식육점에서 육류를 사오거나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사오기도 한다. 이날은 이웃 주민과의 술자리로 이어져서 식사시간이 세 시간 정도 되었다. 윤금렬은 대게잡이뿐만 아니라 채취어업도 하기 때문에 전복 등 어패류를 잡아서 반찬으로 먹기도 한다.

2008년 10월 22일 저녁식사

식사시간: 오후 5시 ~ 8시경

식사장소: 거실

## 후미답

곱창전골

물김치

미역줄기 무침

**갯잎 무침:** 이웃집에서 얻은 갯잎을 무쳤다.

**파래 무침:** 윤금렬이 직접 채취한 파래를 무쳤다.

**전복:** 윤금렬이 잠수를 하여 채취한 것이다.

군소: 한명진과 윤금렬이 배일을 나가서 잡은 것이다.

소주



● <사례 5> 김정식 · 이영순 부부의 점심식사

2008년 11월 8일 김정식·이영순 부부는 9월 말부터 시작한 오징어 건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조사자가 집을 방문한 시간인 오후 12시 10분에는 오전 오징어 건조 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는 오후 12시 30분에 하였으며, 조업을 하는 마을 주민에게서 얻는 생선을 넣고 끓인 생선국과 밀반찬으로 식사를 하였다. 약 10분 정도 식사를 마친 후 후식으로 커피와 대

추를 먹었다. 커피의 경우는 생각이 날 때마다 자주 마신다고 한다.

식사시간: 오후 12시 30분

식사장소: 거실

흑미밥

방어새끼를 넣은 생선국

된장에 무친 콩잎

오징어젓

무말랭이

미역줄기무침

시장에서 산 멸치볶음

김

후식: 커피, 대추

#### ● 〈사례 6〉 유영춘 · 김순자 부부의 식사

유영춘 · 김순자 부부는 아침식사로 회나 물회를 먹는 날이 많다. 유영춘이 삼각 망 어장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남은 생선을 가지고 와서 회를 한 후 반찬으로 먹거나, 여러 채소와 초장, 깨를 넣어 물회를 만들어 먹는다. 유영춘이 축산항에서 입찰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아침 6시경이다. 씻고 나서 7시경에 아침식사를 하는데, 겨울철에는 식사시간이 약 30분 정도 늦어지기도 한다. 새벽에 조업을 한다고 해서 아침식사를 많이 먹지는 않으나 점심식사는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유영춘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는 편인데, 부인 김순자는 유영춘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국을 끓이고 생선을 찌는 등, 반찬을 평소보다 조금 더 준비한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아침으로 물회를 준비하는데, 물회는 이 지역에서 해장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 술을 늦게까지 마시

유영춘 · 김순자 부부 10월 13일 점심식사상차림





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나면 다음날 아침 밥상에는 해장용으로 어김없이 물회가 올라왔다고 한다.

#### ● 〈사례 7〉 안병군 오징어 공장

안병군의 오징어 공장에서는 건조 작업을 하는 1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각자의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식사는 공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 오징어 공장일이 새벽 5시경 시작하여 8시경에 새벽 작업을 마친다. 이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 오전 작업을 한다. 점심식사는 정오를 전후하여 공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는데 대개 축산항 주변 음식점에서 찌개류를 시켜서 먹는다. 저녁식사는 오후 작업이 7시에서 8시경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그 전에 공장에서 제공하는 차와 참을 먹기도 한다. 2008년 11월 3일 공장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는 김치찌개였고, 차로 커피와 유자차를 마셨으며, 오후 5시 50분에 참으로 족발, 순대, 어묵, 소주를 먹었다.



오징어 공장 작업 중 참 먹는 모습

#### ● 〈사례 8〉 이장학의 식사

식사시간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가정마다 다르다. 이장학의 경우에는 겨울철 해가 짧아지면 저녁식사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편이다. 과거에는 매 끼마다 생선을 먹었으나 현재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족이 없어 생선을 자주 먹지는 않는다. 과거에 아침에는 거의 회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물회는 해장국을 대신하여 이 지역에서 해장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밥상에는 어김없이 물회가 올라왔다고 한다.

반찬은 10~20년 사이에 생선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면서 과거에 비해 나물 반찬을 많이 먹게 되었다. 마을에는 아침과 저녁에 야채와 과일 등을 실은 장사차가 들어오는데, 주로 콩나물이나 시금치, 고사리 등을 사서 나물을 무쳐 먹고 계란을 사서 프라이를 해먹기도 한다. 김치는 겨울철 김장을 담근 것을 이듬해까지 먹기도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김치를 조금씩 담가서 먹는다. 국으로는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을 많이 먹고 생선을 얻으면 생선을 넣은 찌개나 매운탕을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 또한 국 대신으로 송늬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주 끓여먹는 미역국에는 된장을 풀고 고래치를 넣는데 고래치는 노래미과 생선이다. 요즘에는 고래치 대신 소고기를 넣는 집도 많다고 한다.

#### 식재료 마련과 반찬 만들기

식재료는 지리 및 생업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 경정1리는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해있으며 마을 뒤편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

예전부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해산물 및 나물 등을 식재료로 많이 사용해왔다.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주 식재료가 생선이었음은 물론, 어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주민들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주로 생선을 식재료로 사용해왔다. 그에 반해 어패류는 잡수를 하지 않는 주민들의 경우 식재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역이 있다. 미역은 경정1리 주민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로서, 미역을 사용한 반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미역줄기 부분을 잘게 잘라 무친 미역줄기 무침이 있다. 미역줄기 무침을 개인에 따라서는 미역빼다리 무침, 미역빼다리 장아찌 등으로 부르고 있다. 주민들은 미역을 길러 3월부터 시장에서 팔거나 주문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역의 잎 부분을 팔고 남은 줄기부분을 버리지 않고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미역은 영양가도 높는데다가 맛이 변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연중 밑반찬으로 먹고 있다. 미역은 이렇게 무쳐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튀김이나 조림 등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기도 한다. 미역 외에도 봄에는 바다 식물 중 톳나물이나 세실을 채취하여 살짝 데워서 반찬으로 먹기도 한다. 톳나물은 꼭 삶아야 하고 세실은 살짝 데쳐서 오돌오돌한 맛으로 먹는다고 한다.

밥식해도 이 지역의 대표적인 반찬 중 하나이다. 밥식해는 생선을 토막 내어 밥, 고춧가루, 엿기름, 설탕 등과 함께 발효시키면서 만든 것이다. 밥식해를 만드는 생선의 종류는 개인이나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다. 주로 쓰는 생선은 메가리, 횡태기, 물가잠, 멸치 등으로 담근다. 밥이 삭으면서 생선에서 나온 육수가 섞여 생선의 쫄깃하고 짭조름한 맛이 어울려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경정1리 주민들 중에는 마을 내에 텃밭을 가꾸어 식재료가 될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고추, 호박, 배추, 콩, 팥 등을 자신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만 가꾸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밭을 일구는 주민은 없었다. 예를 들어 이균태의 경우 마을 안가쓰골에서 재배하는 고추와 배추를 수확하여 11월 말에 김장을 담근다. 고추는 약 100평정도 크기의 밭에서 재배하여 30근 정도 수확하며, 배추는 약 150포기를 재배한다. 호박은 잎을 데쳐서 찜을 싸먹거나 호박을 끓여내어 호박죽, 호박전 등을 해먹고, 콩과 팥은 각각 메주와 팥죽의 재료로 쓴다.

마을을 둘러싼 산 어귀나 중턱에서 채취하는 나물도 좋은 식재료가 된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 주민은 과거에 나물을 채취하지 않아서 식탁에 나물반찬이 전혀 없었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찬으로 쓸 나물을 캐러 자주 산에 다녔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가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 마을에서 나물이 일반적인 식재료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봉금은 과거에 고사리, 쑥, 가사초, 개똥가리, 비비초 등 웬만한 나물은 뜯어서 무쳐먹거나 찜을 싸서 먹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반면 이장학은 약 30여 년 전 자신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식탁 위에는 나물 반찬이 거의 없었고, 생선과 그 외 해산물이 주된 반찬이

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가족들이 더 이상 어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생선반찬이 고사리나 콩나물 등 나물반찬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을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식재료나 반찬을 실은 판매 트럭이 들어온다. 오전에는 8시경 채소, 과일, 계란 등을 실은 식재료 판매 트럭이 들어오고, 오후 5시 경에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밑반찬을 판매하는 트럭이 들어온다. 그 외에 과일 판매 트럭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을에 찾아온다. 반찬을 만들기 위해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 판매 트럭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마을 밖에서 식재료나 반찬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장날 시장을 찾는 것이다. 경정1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은 영해면 영해시장으로, 마을에서부터 직선 거리는 약 7km, 도로거리는 약 11.5km 정도이다. 영해시장은 상설시장이면서 매월 5, 10, 15, 20, 25, 30일에는 5일장도 열고 있다. 주민들은 5일장이 열리는 날 시장을 자주 찾는데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두 명이 운영하는 트럭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트럭은 개인트럭으로 영해로 가는 시내버스가 오전에 세 번, 오후에 두 번 밖에 다니지 않아 배차간격이 넓고 이용이 불편한 점을 보완해주는 교통편이다. 트럭의 운행 요금은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과 같아서 장날 많은 주민들이 이 트럭을 이용하고 있다.

#### ● <사례 1> 최태련의 미역줄기 무침

2008년 3월 23일 최태련이 미역줄기 무침을 하였다. 먼저 물미역을 줄기채로 마당에서 3~4일 정도 자연건조를 한다. 미역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기 전과 후의 크기와 모양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말린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잘라 다듬어서 손질을 끝낸다. 건조한 미역의 손질이 끝나자, 미역에

12. 자연 건조한 미역 다듬기  
34. 양념장 끓이기  
56. 완성된 미역줄기 무침



부어 버무릴 양념장을 만들었다. 양념장은 진간장에 물과 물엿, 흑설탕을 넣고 약한 불 위에서 저으면서 몽근하게 하였다. 물을 넣는 것은 미역 본래의 짠맛에 간장이 들어가서 간이 짜지는 것을 줄이고 양념장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단맛을 내는 물엿과 설탕을 함께 쓰는 이유는 물엿만을 사용했을 때 음식에 윤이 나서 미관상으로는 좋지만 조리 후 식은 다음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양념장이 어느 정도 졸여지자 불을 끄고 식혔다. 이때 고추장과 된장을 조금씩 더 추가하여 양념장의 농도를 진하게 하고 통깨를 뿌려 마무리했다. 이후 식은 양념장에 다듬어 놓은 미역과 함께 잘 버무린다. 건조되어 있던 미역은 양념장을 붓자 그 즉시 물기를 흡수해 장과 금방 어우러져서 미역줄기 무침이 완성되었고,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미역줄기 무침은 담근 즉시 먹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을 보관해도 맛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달면서도 짭조름한 맛은 입맛이 없는 여름철 더 없이 좋은 밑반찬이 되어 식사 때마다 상에 오르는 단골 반찬이다.

#### ● <사례 2> 박정자의 돌나물 물김치

봄이 오면 산 어귀와 중턱에 여러 나물들이 나는데, 4월에 돌아나는 돌나물도 하나의 식재료가 된다. 2008년 4월 15일 박정자와 김춘자 등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정

1. 열무와 배추 씻어 건지기
2. 담글 준비를 마친 재료들
3. 싸여놓은 전분풀 재료에 붓기
4. 골고루 섞이도록 뒤척이기
5. 완성된 돌나물 물김치





록, 박정자 부부의 밭 옆 공터에서 돌나물을 뜯었다. 이 돌나물은 씻어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박정자는 물김치를 담글 때 이 돌나물을 다듬어서 넣었다. 박정자는 먼저 영해시장에서 한 단에 2,500원을 주고 사온 열무와 한 포기 1,000원을 준 열갈이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다듬어 물에 씻어 채에 건져 놓았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대야에 넣고 굵은 소금으로 절였다. 열무와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는 김치에 들어갈 다른 재료들의 준비한다. 뜯어온 돌나물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씻어 건져 물을 뺀 후 여기에 색의 조화를 위해 홍고추와 채썬 당은, 양파를 함께 넣는다.

풀을 쑈는데 박정자는 전분을 사용한다.<sup>04</sup> 전분을 물에 적당량 풀어 끓인 후 식힌다. 전분을 쓰면 김치가 익은 후 색이 푸르게 살아서 입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양파, 생강, 마늘은 함께 믹서에 갈아 두었다가 양념으로 사용한다. 소금에 절인 열무와 열갈이배추는 다시 한 번 물에 씻어 건진다. 씻어 놓은 주재료들(열무, 열갈이배추, 돌나물, 홍고추, 양파, 당근)의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이들을 함께 섞는다. 여기에 식혀 놓았던 전분풀을 붓고 잘 섞으면서 간을 본다. 이때 재료들을 너무 세게 섞으면 채소의 풋내가 나고, 약한 잎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

간이 맞으면 보관할 통에 옮겨 담아 실온에서 하루 정도를 익혀두면 먹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돌나물이 들어간 물김치는 조금씩 담가서 빨리 먹어야 한다. 배추나 열무에 비해 돌나물이 어려서 금세 힘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는 물김치를 따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마치 국처럼 여기에 밥을 말아 먹기도 한다. 주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먹는 먹거리는 제철음식이기 때문에 영양도 좋고, 철맛을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 〈사례 3〉 밥식해

밥식해는 만드는 계절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주로 봄철에 만들어서 한 해 동안 냉장고에 두고 먹는다. 김순자는 남편인 유영춘이 어업을 하기 때문에 유영춘이 잡아온 생선으로 밥식해를 담그는데, 주로 메가리를 사용한다. 우선, 생선의 머리를 잘라 버리고 새끼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다듬어서 소금에 간을 한다. 그 사이 밥을 오들오들하게 하여 밥이 식으면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린다. 밥에 고춧가루가 버무려져서 붉은색을 띠게 되면 메가리를 넣고, 생강, 마늘, 갈분가루도 넣는다. 갈분가루는 생선의 뼈가 잘 삭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이다. 그 후 무를 채 썰어서 넣고 잘 버무린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무를 넣지 않지만 김순자는 고향인 부산에 살 때 가지미 식해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 채를 넣는 것을 보고 그 방식대로 하고 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밥식해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 해보았는데, 맛이 좋아 그 방식대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밥식해는 며칠이 지나 밥이 삭고 무에서 물이 약간씩 배어나오면서 새콤달콤해진다. 이 때 간을 보고 설탕을 조금 넣기도 한다. 간이 맞다 싶으면



박정자의 밥식해

<sup>04</sup> 물김치에 들어가는 물품을 쑈는데 집에 따라 넣는 재료에 차이가 보인다. 김옥출은 쌀을 씻은 쌀뜨물을 끓여 사용한다고 했고, 김순자는 밀가루를 물에 풀어 끓인 후 식혀 김치에 붓는다고 했다.

열흘 정도 더 기다렸다가 먹는데, 더 이상 삭거나 맛의 변화가 없으며 비린내도 나지 않아서 한 해 동안 밑반찬으로 먹고 있다.

최속이는 밥식해에 넣는 생선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메가리, 횡대기 등을 쓰는데 계절에 따라 잡히는 생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생선은 손질을 한 후에 소금에 약간 간을 해 두었다가 밥과 양념에 섞어 무친다. 양념은 마늘, 생강, 엿기름 분말, 고춧가루, 설탕 등을 사용한다. 과거에 쌀을 먹기 힘들 때에는 조밥을 넣어서 밥식해를 해먹기도 했다고 한다.

## 별식

경정1리 마을주민들이 별식으로 먹는 것에는 바다에서 나온 식재료를 이용한 것이 많다. 생선죽이나 오징어 내장을 끓인 국 등이 그것인데, 과거부터 별미로 만들어 먹은 음식들이다. 영해 시장이나 영덕 시내에 나가는 길에 자주 찾는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별식을 먹는 한 형태이다. 시절식과 의례식은 각각의 세시풍속과 통과의례에서 기술하고 이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먹는 식사를 중심으로 조사자가 조사한 것을 사례별로 기술한다.

### ● 생선죽

생선을 넣고 끓인 죽은 마을 주민들이 가끔씩 먹는 대표적인 별식이다.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 살을 골라 찐과 수제비, 고춧가루 등을 넣고 끓인 고등어죽을 많이 먹는다. 2008년 10월 23일 한천란은 고등어의 내장을 빼내고 삶은 후에 뼈를 골라내고 찐, 수제비, 미역, 묵은지, 고춧가루, 된장, 기는 소금을 넣어서 고등어죽을 끓여 먹었다. 김춘자도 같은 방식으로 고등어죽을 가끔 먹는데 추어탕과 비슷한 맛이라고 한다. 박정지는 2008년 4월 20일 고등어 대신에 내장을 뺀 멸치와 찐, 수제비, 김치, 고춧가루를 넣은 생선죽을 끓여서 먹었다.



전북자의 아까이리국



전북자의 아귀탕

### ● 홍합죽

한천란은 고등어죽 외에도 홍합을 넣어 만든 죽을 만들어서 가끔 별미로 먹는다고 한다. 홍합죽은 고등어죽과 조리과정이 비슷한데, 어장줄에 걸려있는 홍합을 따서 껍데기를 벗겨낸 후 홍합살을 삶아서 찐과 수제비,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든다. 한천란은 그 외에도 오징어를 넣은 부추전, 물가자미 튀김 등도 별식으로 가끔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 ● 아까이리국

아까이리국은 오징어 건조작업을 하는 시기에 오징어 알복을 하고 난 내장을 넣고 만든 국으로 우리말로는 오징어 내장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자는 2008년 11월

5일 오후 오징어 할복 작업을 한 후에 오징어 내장으로 이끼이리국을 끓였다. 물에 오징어 내장을 넣고 양념으로 마늘, 고춧가루, 된장, 고추, 미원 약간, 무, 김치를 넣어서 만들었다. 전복자가 이끼이리국 외에도 생선을 넣어 가끔씩 먹는 국으로 물곰국과 아귀탕 등이 있다. 만드는 과정은 같은데, 물곰과 아귀는 어장배나 대게배에 가끔씩 걸리는 생선이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않는다.

#### ● 배달음식

현재 경정1리 마을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횃집 두 군데로, 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반면 축산항 주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점들이 있는데, 가끔씩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008년 3월 22일은 음력 2월 보름으로 경로당에 모인 여자 상노인들은 이날이 마지막 명절이기 때문에 특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음력 2월 보름이 지나면 농사일이 바빠지고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식으로 칼국수를 축산의 한 분식점에서 시켜 먹었다.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를 시켜서 먹는 주민들이 많고, 과거에는 복날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닭을 삶아 먹곤 했는데, 요즘에는 시켜서 먹는 경우가 더 많다. 2008년 11월 6일 오후 6시 30분경에는 유진수, 박동희 등 마을주민 다섯 명이 모여서 뼈다귀 해장국을 시켜먹었다. 오징어 건조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저녁식사를 하지 못해 시켜먹은 것으로, 일부는 소주와 막걸리로 반주를 하였다.

#### ● 외식

마을주민들이 주로 외식을 하는 날은 장날 오전에 시장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오는 날이다. 영해시장이 비교적 거리도 멀고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서 점심식사를 시장 근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는 외식을 하는데 주로 중국음식, 돼지갈비 등 평소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을 별식으로 먹는다.

#### 저장식품

저장식품인 장과 김장 등은 겨울철에 담가먹는데, 주로 음력 10월에 시작하여 음력 2월 전에 담그게 된다. 음력 2월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인데, 음력 2월에는 영등 할매가 내려오는 달이기 때문에 된장, 간장 등의 색깔 있는 음식을 하는 것을 부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음력 2월은 내월달(남의달)이라고 하여 장 담그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말일에 장을 담그면 맛의 변동이 없다고 하여 말일을 맞추어 장을 담그기도 한다. 고추장은 10월에서 11월에 고추를 수확하여 12월 이전에 담그는 경우

1. 콩 밟기
- 2,3. 콩 삶기
- 4,5,6. 콩 뒤차기
7. 소금과 보리가루 넣기
- 8,9. 메주 만들기
10. 처마 밑에 넣어놓은 메주





가 일반적이며, 메주로 담그는 된장과 막장은 정월 보름을 전후로 하여 만든다.

김장김치는 모든 가정에서 양력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한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수협에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2008년에는 10월 보름인 11월 12일에 경로회관 앞에서 판매하였다. 시장이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소금을 구매하여 김장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다. 이 마을의 김장김치 특징은 김치를 담글 때 손질한 생선을 넣는 것이다. 이 생선은 밥식해와 마찬가지로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김치와 같이 삭혀서 먹는 것이다. 조사자가 관찰하고 인터뷰한 각 가정의 저장식품을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 ● 〈사례 1〉 권복련의 메주 만들기

2008년 11월 2일 권복련이 메주를 만들었다. 먼저 콩을 준비하는데, 마을에서 콩을 재배하는 주민에게서 한 되에 7,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콩의 양이 많아 두 번에 나누어서 콩을 삶았는데, 첫 솥은 네 시 반에 삶기 시작하여 세 시간 정도 삶았다. 콩을 삶는 중간에는 솥 아래에 깔려있는 콩과 위에 있는 콩을 뒤집어주는데, 뒤집을 때 소금과 보리가루를 넣어준다. 소금을 넣는 것은 메주로 만든 후에 말릴 때 벌레가 일지 않도록 약간 짭조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보리 가루는 맛을 더 고소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을 많이 넣어서 콩을 삶는 도중에 물이 끓어 넘치면 솥뚜껑을 잠시 열었다 다시 덮기를 반복한다.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삶은 콩을 꺼내어 밭아 으깨었다. 과거에는 쌀자루에 넣어서 밭았는데 콩이 눌리면서 자루 안쪽에 붙어버려 떼어내는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야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밭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콩을 밭기 전에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였다. 평소 아침식사 시간은 9시에서 9시 반경인데 이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을 뿐더러 콩을 밭은 후에 곧바로 메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아침식사를 한 것이다.

두 번째 콩은 첫 번째 콩을 건져낸 후 8시 10분경 넣어서 삶았다. 삶는 동안 처음 건져낸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는데, 적당한 양의 콩을 뭉쳐 바닥에 두드리며 네모반듯하게 만들었고 짚으로 원새끼를 꼬아 달아둘 수 있게 묶었다. 이렇게 만든 메주는 집 처마 밑 양지바른 곳에 말리다가 양력 1월이 되면 방에 들여놓고 정월 보름 정도까지 방 옥매트에 30일 정도 둔다. 과거에는 열기가 있는 구들방에 두었지만, 현재는 방 안 옥매트에 두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30일 정도 둔 메주는 속이 까맣게 되는데, 이후 메주에 물을 붓고 4~5일 정도 지나서 누렇게 되면 맛이 변하지 않게 소금을 조금 넣어준다. 이렇게 완성되는 된장은 주로 권복련이 자주 해먹는 된장찌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두 번째 콩은 삶은 지 두 시간 후인 10시 15분에 솥의 아래에 있던 콩과 위에 있던 콩을 뒤집어주었고, 첫 번째 콩을 삶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금과 보리가루를 넣어주었다. 11시 반경 권복련의 언니인 권련이가 찾아와 소주 몇 잔에 복어를 넣어 만든

1. 간장에 들어갈 미리 준비된 메주
2. 간장과 된장에 넣을 소금물 만들기
3. 간장이 될 메주를 넣은 통에 소금물 붓기



매운탕 국물과 가지무침, 홍시를 안주로 먹는 것으로 점심을 대신하였다. 권복련은 아침식사를 늦게 하기 때문에 평소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녁은 5시경에 먹는다고 한다.

콩을 다 삶고 나서 삶은 물은 버리는데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에는 콩을 찢은 물에 보리가루를 넣고 소다를 약간 섞어서 떡을 썰어 먹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새벽 4시 반경에 시작된 메주 만들기는 오후 한 시경 모두 끝이 났다.

#### ● 〈사례 2〉 김창자의 간장 담그기

2008년 3월 7일 김창자의 집에서 간장을 담갔다. 조사자가 도착하기 전 간장을 담글 독에 미리 소금물을 타두었는데,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인 다음 물을 더 부어서 만들어놓았다. 소금은 여섯 되를 사용하였다. 10시에 간장을 담을 플라스틱 통에 메주를 넣은 후 소금물을 부었다. 과거에는 고추나 숯을 넣기도 하였으나 이날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넣지 않았다. 이렇게 담근 간장은 한 달 후에 떠서 끓이는데, 팔팔 잘 끓여 놓으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나 덜 끓이면 곰팡이가 생긴다고 한다.

김장철을 맞아 수협에서 김장용 소금 판매



한 달 후에 간장을 뜨고 남은 메주에는 간장을 만들지 않은 메주를 섞어서 된장을 만든다.

#### ● 〈사례 3〉 박정자의 고추장 담그기

술에 찹쌀 죽을 쑤서 메주 가루와 밀가루, 콩된 물을 넣는다. 물이 부족하면 물 대신에 소주나 메실주, 청주 등을 넣기도 한다. 이렇게 만든 물에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고추장 독에 보관한다.

#### ● 〈사례 4〉 유순애의 김치 담그기

2008년 11월 5일 유순애가 집 마당에서 김치를 담갔다. 배추와 무를 씻어서 소금에 절인 후에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멸치를 끓인 물을 넣고 젓갈로는 오징어 내장 젓갈을 사용하였다. 오징어 내장 젓갈은 9월말부터 시작한 오징어 건조 작업을 할 때 만들어둔 것으로 오징어 내장에 소금을 넣어 몇 달 동안 삭힌 것이다. 평소 김치를 담글 때에는 멸치나 메가리 젓갈을 넣기도 하고 새우 젓갈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멸치가 마을에서 흔히 잡히는 어종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김치를 담글 때 멸치 젓갈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멸치가 잡히지 않아 현재 마을에서 많이 잡는 어종 중 하나인 메가리를 사용하는 집들이 있다. 김장을 할 때에는 청각을 넣기도 하는데, 청각 향이 김치에 맛을 더한다.

#### ● 〈사례 5〉 각 가정의 김장김치 담그기 비교

##### 권복련의 김장김치 담그기

배추 한 포기(1,500원)를 주고 20포기를 구입하였으며, 고추는 열 근을 썼다. 아침에 큰 대야에 배추 소금간을 하고 오후 한 시경 배추를 뒤집어 주었다. 저녁 6시~7시경 배추를 씻어서 다음날 아침에 생강, 마늘, 다시마 다신 물, 양파, 계피,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을 버무린다. 무 채썬 것과 쪽파도 넣어주었다. 젓갈은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젓을 썼는데 새우젓, 까나리젓은 예전부터 사서 썼고 멸치젓은 과거 마을에서 멸치를 잡을 때는 살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는 멸치가 잡히지 않는 어종이기 때문에 멸치젓도 시장에서 사왔다. 과거 멸치를 마을에서 잡을 때에는 멸치에 소금을 재어서 3개월쯤 후에 젓갈로 썼다. 생선은 멸치와 메가리를 넣었는데, '한 저까치' 짬 정도 의 크기로 길게 썰어 넣었다. 김장을 마친 후에는 독에 넣어서 집 마당 텃밭에 묻어서 보관한다.

##### 최옥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150포기를 새벽에 소금을 절여서 오후 3시까지 둔 후에 물에 씻는다. 다음날 직접 재배한 고추를 갈아둔 고춧가루에 찹쌀 죽을 쑰 것을 섞어주고 마늘, 생강, 통깨, 미나리, 파를 넣었다. 젓갈은 콩치정과 새우젓을 썼으며 생선은 소고두리(고등어 새끼)를 넣었다. 이렇게 넣어준 생선은 설이 지나서 삭으면 먹는다.

#### 정원조의 김장김치 담그기

배추 40포기에 고춧가루 20근을 썼다. 저녁에 소금에 절여서 밤새 약 13~14시간 동안 절여두었다가 아침에 간진 후 물에 씻어주고 다음날 무쳤다. 양념에는 생강, 마늘, 멸치 육수, 설탕, 고춧가루를 넣었고 시원한 맛이 날 수 있도록 배를 약간 채 썰어서 넣었다. 정원조는 남편 김순택이 생선을 좋아하나 다른 가족들은 잘 먹지 않아서 생선을 넣지 않았다. 젓갈은 새우젓과 메加里젓을 사서 사용하였다.

#### 김순자의 김장김치 담그기

배추를 총 36포기 사서 그 날 소금에 절인 후 다음날 씻어내고 양념을 하였다. 우선 찹쌀 죽을 썬서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린 후 마늘, 생강, 설탕, 볶을 깨를 넣고 멸치, 다시마, 무를 넣어서 다 신물을 섞었다. 마지막에 메가리를 넣어주었는데 생선을 최옥랑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설이지나 삭으면 겨울철에 꺼내어 먹고 고기 맛이 배어있는 김치를 봄철에 먹는다고 한다. 김장에 넣는 생선으로는 메加里 외에도 고등어, 깍뚜구(우럭) 등을 넣기도 한다. 젓갈로는 멸치젓과 새우육젓을 썼으며, 김장을 한 날 먹을 김치에는 꿀을 20,000원어치 사서 넣어 먹었다.

#### 기호식품

어촌마을인 경정1리 뱃불마을에서 술은 대표적인 기호식품이자 일상적인 음료이다. 조업을 하는 어민이나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오징어 작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노동의 고됨을 잊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권런이, 권복련, 박동희 등이 마을 앞 공터에서 오징어 작업을 하던 중 소주를 마시기에 조사자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매일 무야 되지. 안 먹으면 힘들어서 일을 못해.”라며 힘든 노동을 함에 있어서 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술자리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어업 및 생업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문화는 이 마을의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병균은 조사자와 처음 가진 술자리에서 “이게 우리 문화지. 만 게 있는교.”라며 음주문화가 마을의 중요한 문화임을 일러주었다.

술의 종류는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민들이 고루 즐겨먹는 것은 소주, 막걸리, 맥주이다. 연령에 따라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로 소주와 막걸리를 즐기고 중장년층은 소주와 맥주를 즐기고 있다. 술과 더불어 안주 역시 음주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안주로는 배달 음식이나 밑반찬 등 다양하지만 조업을 하는 경우 매운탕이나 회, 고동, 전복 등의 싱싱한 해산물을 안주로 먹는 경우가 많다.

술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유영춘은 30여 년 전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술과 닭을 서리해서 먹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당시에는 술을 집 마당에 두고 한 주전



자씩 집 안에 들고 들어와서 먹곤 했기 때문에 마당에 술통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한 말씩 훑치고 닭을 서리하여 안주로 삶아 먹으면 돈 없이도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유순애는 술을 식사 대신으로 먹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 미역일을 할 때에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침을 먹으러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을 대신하여 동동주에 들깨를 갈아 넣어 뽀뽀하게 해서 먹었다고 한다.

커피는 마을 주민들이 즐겨 마시는 또 하나의 음료이다. 커피를 즐겨 마시기 시작한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김정식A의 경우에는 식사 후, 오징어 작업 중간에 한 잔씩 마시면서 하루에 10잔 정도를 마시기도 한다. 다음은 김정식이 처음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의 기억을 조사자에게 들려준 내용이다.

커피는 열 잔이고 좋다. 밥 먹고 나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먹는다. 나는 하마 옛날부터 먹었지. 커피는 하마 뭐 여기서 커피 구경한 거는 해방 이후에 구경했다. 해방 이후에 미국서 480원조 양곡하고 커피, 우유. 우유도 생거 아니고 분유. 그게 막 들어왔다고. 그거 공짜로 막 줬다고. 커피도 가루 커피 그거를 막 준다고. 그래 보관 잘못해가지고 한테 땡땡 엉켜가지고 그랬어. 그 때부터 커피 들어왔어. 해방이후에. 그 때 먹을 줄 몰라가지고 막 그랬지마는(웃음) 그래가지고 석기 타뿌면(타면) 땡땡해지뿌거든(굳거든). 그자? 요즘 커피도 안글나(안그렇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뜨신 물 타놓고 노카(녹여) 가지고 먹으이 뭐 시다란 게 그래. 설탕도 공짜로 배급 나오거든. 미국원조. 설탕도 들어가 있었고 분유도 들어가 있었고 커피도 들어있었고... 6.25 전이지. 해방이후에 그랬으니까. 해방되고 미군들이 480 양곡 지원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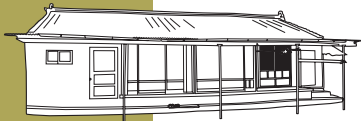
담배는 커피나 술에 비해서 즐기는 주민들의 수가 적지만, 술과는 달리 혼자 즐기기 때문에 무료한 일상에서 담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상호는 고동 조업을 할 때 잠시 쉬거나 앉아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담배를 한 대씩 폈다. 담배는 단순한 일을 반복할 때 오는 지겨움을 달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김영대는 부인을 사별하고 할 일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담배를 피야 시간이 잘 간다고 하였고, 박홍균의 경우에는 컴퓨터 바둑을 둘 때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한 수만 생각이 나다가도 담배를 물면 두 수, 세 수가 생각나기도 한다며 담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은종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나는 경우에 담배 연기를 한 번 빨아 마시면 편안해지고 차분해진다고 한다.

한편, 담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인에 따라 존재하는데, 장년층인 한경섭은 마을 내에서 담배를 피면서 다니지 않으며, 담배를 피다가 노인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담배를 끄는 등의 담배 예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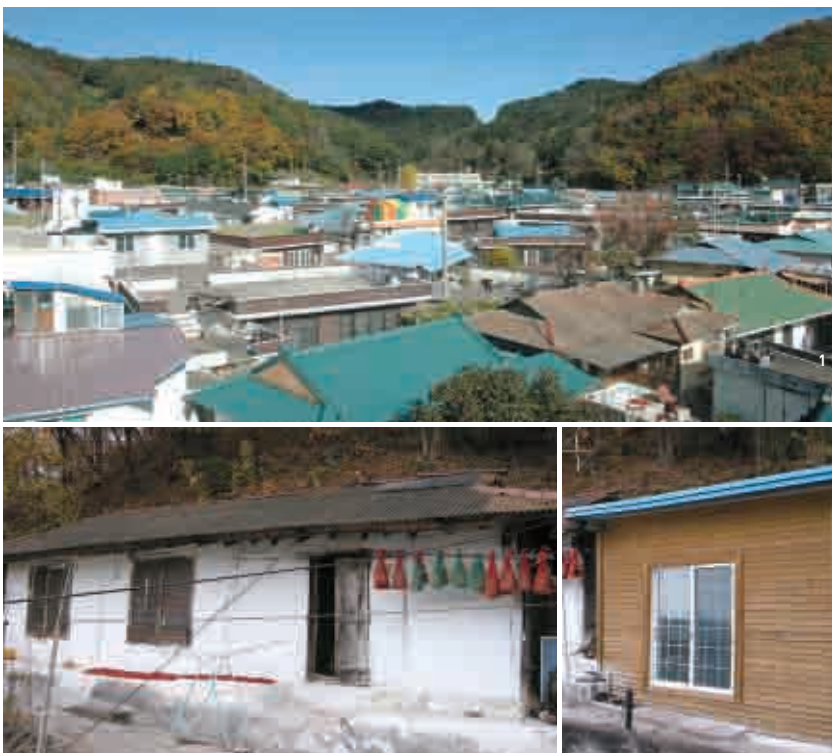
현재 이군태의 집은 방 다섯 칸에 부엌 한 칸, 실내와 실외에 각각 한 개의 화장실, 오징어굴이 있다. ‘ㄱ’ 자형 집인데 남쪽의 방 두 칸은 여름철 민박업을 하는 데 쓰고 다른 계절에는 창고로 사용한다. 1998년경에 현재의 오징어굴을 짓기 전에는 그 두 방을 각각 오징어굴과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현재 정정1리 뱃불마을에는 슬라브 지붕, 슬레이트 지붕, 함석 지붕, 우레탄 지붕, 현대식 가옥, 조립식 가옥 등 여러 형태의 가옥이 섞여 있으나, 1970년대 초 · 중반부터 새마을운동<sup>05</sup>으로 지붕개량을 하기 전에는 대다수의 집이 흙벽으로 된 초가집이었으며 기와집 몇 채와 가옥 개조 및 신축을 한 가구 몇 채가 있었다. 내륙과는 달리 기와집이 매우 드물어서 마을에 300여 가구가 있을 때에도 기와집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마을을 지나는 강축도로가 나기 전 마을의 동쪽 바닷가는 모두 모래사장이었다. 때문에 마을의 가장 바깥쪽 모래사장과 맞닿아 있던 집의 경우에는 파도가 세게 치는 날 집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바닷가에 가까운 강축도로 옆 집 마당 밑으로는 모래가 깔려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집 담은 모두 돌담이었으며 과거에 만들었던 돌담에다가 현재는 시멘트를 발라 과거의 모습을 일부 간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담의 하부만 돌담이고 그 위에는 시멘트 벽돌로 보수를 한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초 · 중반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을 하면서 초가 기둥은 그대로 둔 채 슬레이트를 씌우거나 새로 집을 지으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한 가옥의 형태로 변화해 간다. 슬레이트 지붕에 양철 지붕을 곳곳에 덧씌운 것은 지붕에 물이 새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기와지붕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로 바꾸지 않고 지붕 위에 우레탄을 얹어 비가 새지 않도록 보강한 경우도 있다. 슬라브 지붕은 새마을사업을 전후로 초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에 지어진 것으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집의 외벽은 가로 30~40cm, 세로 20~25cm, 두께 15~20cm 정도의 시멘트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현재 한경섭의 왼쪽 골목 안쪽 집에서 과거에 시멘트를 찍어서 팔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 1970년대

<sup>05</sup> 영덕군 통계에는 새마을운동 통계가 1974부터 나오는데, 지붕개량 통계는 1976년부터 등장하며, 이 통계에 따르면 1976년 한 해 지붕개량을 한 가구가 축산 면에서만 355가구이다.



1. 마을의 가옥 지붕
2. 이필련의 초가에 슬레이트를 얹은 집
3. 이필련의 과거 슬레이트 지붕의 집과 현대식 집

말에서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집 벽을 만들었고, 점차 함석 지붕의 집과 현대식 가옥, 조립식 가옥도 등장을 하였다.

보일러가 등장하기 전 보온 연료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땔감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러 산에 다닐 때에는 소나무 잎도 땔감으로 썼다. 소나무 잎을 소나무 갈비라고도 부르는데, 소나무 잎은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것까지 땔감으로 쓰기 위해 가져가는데다가 새마을운동 당시 산림녹화 사업 등에 따라 군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하여 군 직원의 눈을 피해 땔감을 몰래 가지고와서 쓰기도 하였다. 이후 연탄이 나와서 연탄보일러가 등장했다가 1980년대 초반에 기름보일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나무 땔감은 1990년대에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기름값의 인상으로 가정의 보일러를 기름보일러에서 화목보일러로 교체하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쓰지 않던 나무 땔감들을 다시 사용하는 가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나무를 구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도곡 등지에서 나무 장수들이 나무를 팔러 마을로 넘어오곤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무가 흔해서 군에서 봄철 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그것을 주워다 겨울에 쓸 화목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다. 현재는 각 집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집 마당에 없애지 않은 아궁이를 가끔 쓰는 가정에서는 화목을 구해서 쓰고 있다.

현재 강축도로와 인접해 있는 집들은 여름철 대개 민박업을 하고 있다. 민박은 마을 북쪽도로가 생기고 방과제가 생기면서 해수욕장이 쇠퇴하기 전까지 크게 성

화목보일러



행했으나 이후 점차 쇠퇴하여 지금은 피서철에도 민박을 하는 피서객들을 찾기가 힘들다. 해수욕장의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피서객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찾아온 피서객들도 잠시 머물렀다 당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앞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민박업도 성행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입택기념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풍습이 마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택 선물로는 수건이나 재떨이 등이 많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는 벽걸이 거울 등 조금 더 값비싼 선물을 해주었다고 한다. 유영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으면서 입택 날짜가 적힌 재떨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하였고, 이 재떨이는 아직도 여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몇몇 가옥의 역사와 구조를 통해 경정1리 주생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보고자 한다. 먼저 김정식의 집은 처음 초가집을 사서 이사를 해온 후 슬라브 지붕의 집과 슬레이트 지붕의 집, 조립식 집을 거쳐 현재 살고 있는 슬라브 지붕의 집으로 개축을 하기까지의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생업의 변화에 따른 가옥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 이균태는 처음 집을 구매할 당시의 기억을 비교적 생생하게 가지고 있으며, 초가집의 기둥을 그대로 둔 채 몇 번의 개조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가지게 되기 까지 집의 역사와 방의 사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었다. 권복련의 집은 마을에서 드물었던 기와집이었던 것을 집의 기둥은 그대로 둔 채 지붕에 우레탄을 씌워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마당에는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마을 주민들에게서 현대식 가옥과 조립식 가옥 등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 ● 〈사례 1〉 이균태의 가옥 형태와 주생활

이균태의 가옥은 강축도로변 마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균태, 최옥랑 부부는 슬하에 아들 2, 딸 2을 두고 있는데, 첫째와 셋째가 아들이고 둘째와 넷째가 딸이다. 이균태는 이 집이 일제강점기 때 술집이었다고 마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당시 장구를 잘 치던 이규모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술집을 했는데 이균태와는 먼 친척지간이라고 한다. 이규모의 아들은 서울에서 사진관을 차렸는데 노름으로 빚을 져서 그의 6촌 형인 이종록이 약 2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집문서를 맡았다. 이균태와 이종록도 먼 친척지간으로 이종록이 집문서를 맡은 이후 이균태가 이종록에게 165만원을 주고 1979년에 집을 구입하였다. 그 전까지 이균태의 가족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니다가 41세에 집을 구입한 것이다. 1979년 처음 집을 구입했을 때 사촌 간인 이종우가 잠시 살았고 집수리 하고 1980년에 입택을 하였다.

**이균태** 옛날에 기생집. 일본인이 처음 들어와 있을 때, 방을 네 칸 만들어서. 원래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장구를 잘쳐. 한량이라. 이규모라고.



조사자 여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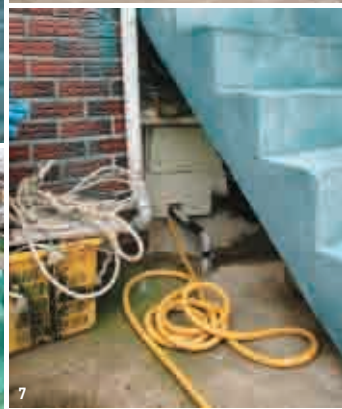
**이균태** 남자라. 먼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이 집이 우에 됐냐면 이 사람 아들이 서울에 사진관 차렸어. 사진관 차려가지고 노름을 잘했어. 아들이. 그래 노름을 잘해가 노름해가 다 빚이 저가지고 돈을 누가 빌려줬냐면 6촌 형이 빌려줬어. 그래 돈을 빌려줬는기라. 그 때 당시 200만 원 정도 됐어. 우리가 7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75년도쯤 안 됐겠나. 그러고는 이 집 집문서를 맡았는기라. 집문서 맡아가 집을 팔러왔어. 79년도에 팔러 내려왔는기라. 점방(경정슈퍼)도 우리하고 육촌간이라. 그래 거 앓아가 집 팔리면 팔리는대로 가져갈 작정이라. 그래 그 때 우리가 살 때 집문서를 주대. 처음 앓아가지고 형님 꼭 받을기면 얼마니까? 그래가 200만원 받을기대, 170만원 달라더라. 그래 내가 형님 내가 165만원 밖에 앓다니까 165만원 달라라대. 그래 165만원 주고 앓다. 집문서를 주대. 형수 앞으로 해났는 거 내 앞으로 했지. 다 해가지고 80년도 초기에 집수리를 했는기라. 앞에 뜯어뿌고 집수리 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9년도 사가지고 이종우가 살다가...



1. 집 수리 전 집 앞에서 오징어 작업 중인 최옥랑
2. 집 수리 전 거실에서 오징어 작업 중인 이균태 · 최옥랑 부부

1980년에 이균태가 집에 들어와서 살 당시 현재 이균태 · 최옥랑 부부가 지내는 큰 방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마루에서 봤을 때 왼쪽 방은 이균태, 최옥랑 부부의 침실이고 오른쪽 방은 큰 딸이 쓰던 방이었다. 현재 부엌이 있는 자리는 당시 둘째아들이 쓰고 있었고, 현재 큰 아들 이창호가 쓰는 방에는 막내딸이 쓰고 있었으며, 잘 안쓰는 이불과 식기류 등을 보관하고 빨래를 건조하는 방에는 과거에 부엌이 있었다. 당시 큰 아들 이창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14년간 살다가 1993년에 다시 한 번 집수리를 하게 된다. 그 때 재래식 부엌이던 곳을 메워서 방으로 만들고 당시 둘째 아들 방에 현재의 입식부엌을 만들게 된다. 부엌 안쪽에는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둘째 아들은 부엌을 메운 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큰이들과 큰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방이 넉넉했으므로 부부가 넓게 쓰기 위해서 가운데 방 두 개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한 방으로 만든 것도 이 때이다. 또한 옥상에는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 마을에서 처음으로 한 것으로 현재에도 우레탄으로 방수 지붕을 한 집은 그리 많지 않다. 처마 끝도 늘려서 거



1. 집 전면
2. 마당
3. 마당에서 본 집채
4. 바닷물 올리는 펌프
5. 우레탄 방수 작업을 한 지붕
6. 지붕 한 칸에 있는 장독대
7. 지하수 펌프
8. 과거 기와지붕에 우레탄 방수 작업을 한 지붕
9. 벽 아래 돌담
10. 마당 화장실
11. 오징어 건조장(오징어 굴)
12. 오징어 손질 장소
13. 민박방1 문
- 14, 15 큰방
16. 빈방(이불 · 식기류 보관, 빨래 건조)
17. 거실
18. 민박방2
19. 큰아들 방
20. 부엌





11



12



13



14



15



16



17



18



20



19



실을 넓혀 현재의 집채 형태를 갖추었다.

현재 이균태의 집은 방 다섯 칸에 부엌 한 칸, 실내와 실외에 각각 한 개의 화장실, 오징어굴이 있다. ‘ㄱ’자형 집인데 남쪽의 방 두 칸은 여름철 민박업을 하는 데 쓰고 다른 계절에는 창고로 사용한다. 1998년경에 현재의 오징어굴을 짓기 전에는 그 두 방을 각각 오징어굴과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약 10년 정도 전부터 피서객들이 정정해수욕장을 찾는 수가 줄어들면서 민박 손님들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2008년에는 민박을 하여 30~50만원 가량 수입이 있었다고 한다. 대문 옆 벽 바깥쪽에 민박 집이라고 붙여 놓은 것은 민박업을 신청하고 축산면에서 붙여준 것으로 마을에서 민박업을 하는 집 대문 옆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이 표시가 붙어있다.

이균태의 집은 총 65평으로 집 부지의 약 7~8평 정도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균태가 이 집을 사기 전 사라호 태풍이 불었을 때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집이 약간 기울어졌다고 하나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되지 않았다.

현재 이균태의 집 마당에 있는 오징어굴은 1998년에 만든 것이다. 이균태가 직접 판넬로 굴을 짓고 이균태의 막내 사위가 굴 안에 오징어를 말리는 기계를 용접하여 만들었는데 총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으로 기억한다. 오징어를 널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조대는 4단으로 하였는데, 당시 오징어 몸통에 대나무를 꽂아 걸어두는 방식 대신에 이균태는 오징어를 반으로 접어 걸어두는 방식을 써서 건조대의 높낮이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

#### 조사자 오징어 굴 만든 게 언제쯤이에요?

**이균태** 굴 만든 적이 98년도인가. 그 만들기 전에는 아래채 방에서 안했나. 굴에 100두름 넘게 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가. 내가 4단계로 만들어가. 높을수록 오징어 더디 마른다. 오징어를 끼우지 않고 얹어서. 안에 선풍기도 돌아가도록 해놔거든. 굴 만드는 데 한 100만원 넘게 주고 판넬로 집 짓고 만드니까 한 200만원 하를라나. 정달이가 20만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우리 막내사위가 용접한다하대. 나는 용접하는 줄 몰랐지. 그래 온대 단대 다니며 혈안데 산다고. 영해 7000원하면 영덕은 5000원하대. 그래 고 100m 씩 끓어가 만드니까네 66000원이대. 그런데 끓어준대서 돈 만원 주고 75000원 주고 다했다. 그래서 용접해서 만들었지. 철사는 만 원친동 이만 원친동. 돌아가는 게 전기로 돌아가고 선풍기로 돌아가는 거. 그냥 세워놓으면 안 돌아가고 오징어 달아놓으면 선풍기로 돌리잖아. 내가 어장 배 다니며 장갯볼 공장 있었거든. 그 다니면서 3계단으로 했는데 옆으니까 공간이 많은기라. 그래서 딴 사람들 3계단으로 맞추는 거 나는 4계단으로 하고. 지금 와야 생각해보니 5계단으로 해도 비에 말리는 거보다 나으니까.

현재 이균태의 가옥의 마당에는 펌프로 간물(바닷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물로 오징어를 할복하고, 민물(지하수)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도 있



어서 오징어 작업이나 밭일 후에 세면 및 세안을 하는 데 이 물을 사용한다. 집 대문은 1993년에 집수리를 할 당시 170만원을 주고 달았다고 한다.

● 〈사례 2〉 김정식의 가옥 형태와 주생활



12. 집 전면  
34. 집 후면 화목보일러

현재 김정식A의 집은 경로회관 앞 김천권의 이발소 왼쪽에 위치해있다. 처음 현재 위치에 있던 집을 살 때에는 12칸짜리 초가집으로 세를 들어 사는 가족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가구가 모여 살았다. 원래 그 집은 연풍수산이라고 하는 정치망 어업을 주로 하던 회사의 건물로 선원들이 먹고 자는 공간이던 것인데, 김정식A의 선배를 통해 8만 몇 천원에 정종 세 병을 주고 샀다고 한다. 12칸짜리 초가집이다 보니 세를 들어 살던 집이 네 집이나 되었는데 방세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집을 사서 처음 들어와 큰 딸을 낳았기 때문에 집을 산지 42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정식A** 처음 살 때 12칸짜리 초가집. 세가 넷 집이 살았거든. 초가집으로서는 컸다. 다섯 집이 살았지. 방세를 받았나? 받긴 뭘 받아. 집도 험하고 뭐. 그 때가 년도 수는 모르는데, 42년 됐지. 성자가 42살 아이가. 성자가 여 사가이고 낳단 말이야. 여 산 해에 낳으니까. 성자가 우리 딸들이거든. 원래 이 집이 회사 거거든. 연풍수산이라고 이 앞바다 정치망을 했어. 그때 공지사용허가를 이 회사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원래 이 앞에 집을 지은 사람이 요 뒤에 집을 가있다가 팔았어. 어려워가지고. 그래 집을 축산향으로 옮기면서 이 집을 관리해주고 있었어. 그래 있으면서 요 공지에다가 집을 지었는기라. 쪼맨토록. 단층으로. 고것도 인제 요 임자가 공지 사용권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뜯어야 되지만 현재 공지 소유자가 필요

하면 뜯는다는 조건으로 이 집을 지었지. 지어놓고 이 집을 내가 샀지. 사이까 공지 요 소유도 위임해주대. 그래 이제 살면서 내가 후회되는 게 내가 저 집(김정식 마당과 붙어 있는 바닷가 쪽 집)을 2층을 올리는 걸 못하러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웃집 안에 살며 동네사람 하니께네 그걸 우에하나 말이야.(웃음) 저 위에 꺼 아니거든. 그래 핑계가 뭐냐면 비가 샌다. 비를 맞는다 하고 올라가 저랬거든. 그 때 모하도록 해야 되느니라. 그 때 모하도록 하면 할 수 있었거든. 그래 지금은 살다보면 우에노. 얘기할 수도 없고. 저 집은 앞에 할매 살고 있잖아. 공지인데 건물은 저게 인정을 받았다고.

**조사자** 처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김정식A** 처음 살 때 8만 몇 천원, 백으로 산거 한가지지. 이 동네 사람들이 살라고 많이 갔어. 회사 소장한테. 그래도 못 샀느니라. 못 사고 내가 축산에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일터도 축산에 있고 이라다 보니 우리 친구하고 선배가 그 소장하고 친했기라. 그래 그 선배가 교섭이 돼가지고 내한테 낙찰이 됐는데 8만 얼마 흥정이 됐는데. 늦까 가니까 안된다. 정종 몇 병 사라.(웃음) 그래 정종을 세 병인가 그래 또 더 샀어.(웃음) 정종은 2천원 정도. 그 때 제일 좋은 술.

이렇게 힘들게 집을 구입할 당시 나이가 28세였다. 김정식A은 초가집을 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마당에 방 두 개, 부엌 하나, 가게 한 칸짜리 슬라브집을 손수 지었는데 오징어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낚시줄과 도구를 판매하기 위한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잡히지 않던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여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오징어를 잡으러 내려오다 보니 오징어 도구의 판매가 호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렇게 슬라브집을 지어 상점을 할 때에도 처음 샀던 초가집은 남아있었고 세를 들어온 가구들이 살고 있었으나 김정식A의 가족은 새로 지은 슬라브집에서 생활하였다. 약 10년 정도 슬라브집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 사이 둘째와 셋째를 낳았다. 김정식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와 셋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다.

**김정식A** 그때 초가집을 놔두고 요 앞에 이 마당에다가 슬라브집을 지었거든. 손수로 문을 짜는 사람은 짜고 우리 처남들하고 이래가 했는데. 세면을 비바 언저났더니 물이 쪼로로 다 빠져가 세면이 힘이 없는기라. 오래 안가고 세면이 똑똑 떨어지고. 그래 요 쪼맨토록 방 두 개 부엌하나 점포 하나 요래가지고 가게를 했다고. 구멍가게로. 그때 왜 구멍가게가 됐냐하면 그 때 강원도 사람들이 오징어도 잡으러 오고. 여 오징어 안 나다가 나기 시작했어. 그래 이제 가게를 지어놓고 오징어 낚시고 줄 같은 거 그런 거 장사를 했지. 그래 그 때는 물건이 귀해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못해. 포항가지고 상회가지고 띠오는데 그도 순번보고 차례로 자기 맘대로 못 가오는기라. 100만원치 가오고 싶으면 20만원 30만원 밖에 못 가오는기라. 없어. 그래 이제 배급 타가지고 오후에 포항 나가면 배급타서 새벽에 들어오거든.

**김정식A** 운전은 무슨 그 때 버스로. 그래 낚시 같은 거 판데이. 그러면 그 다음날 오징어 잡 아오면 내가 뗏마 타고 배 가가지고 외상값대로 오징어 받지. 받아가 밀려가지고 우리가 팔 고. 그 때는 오징어가 전부 수출돼서 말리면 돈 되는기라. 무조건 남는기라. 그 때가 처음 어 기 와서 10년쯤 지날 때까지. 만이는 초가집에서 낳았고 둘째 셋째는 앞에 가게할 때 낳았고. 그 때 초가집에도 사람 계속 살았고.

그렇게 상점을 10년 정도 하다가 사서 들어왔던 초가집을 헐고 슬레이트 집으로 집을 지었다. 벽은 시멘트 벽돌로 올렸고 지붕을 슬레이트로 했는데, 당시 새마을운 동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을 하던 시기여서 지붕을 고치는 겸 새로 집을 지은 것이다. 이 때 김정식A는 새마을 총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개량 당시의 상황을 비교 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초가집은 모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거나 새로 지었 는데,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지붕개량 정책을 쓰다 보니 주민들은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지붕을 고쳤던 것이다.

그렇게 가게를 10년 정도 하다가 초가집 뿌아뿌고 슬레이트 집으로 지었다아이가. 그 때 세 멘 블록 가지고 슬레이트 집으로 지었지. 위에 슬라브 안하고. 지붕개량 하기 전에는 거의 전 부 초가집이었지. 그 때 정부에서도 지원도 못해줘. 웬자고 뭐 그런 게도 없단 말이야. 전부 자력으로 했던 말이야. 무조건 관청에서는 밀어붙이고. 그래 돈이 있어야 하제. 그래서 동네 에서 이장,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총무 그렇게 다른 데서 빌려왔다. 그래가지고 자 제를 구매해가지고 공동으로 그래 지붕개량을 안 시켰나. 그 때 총무를 맡아했거든. 그래가 하는데 다 하고 다음에 돈 받아서 갚고 그랬지. 그때는 새마을사업이라고 정부 지원도 없고 강압으로 막 미는기라. 무조건 마. 금년에 몇 동 몇 동 하면 해야 되는기라. 그 때 마을 집들이 초가에서 다 슬레이트로 바뀌었다고. 기와집은 기존 있는 집들은 몇 채 있었지. 많이는 없고. 지붕개량을 기와로 하는 집은 없었고. 그러다가 이후에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슬라브집이 들 어오기 시작했지.

김정식A는 그렇게 슬레이트 지붕의 집에서 살다가 1990년을 전후하여 2층 조립 식 지붕을 지었다. 당시 새로 집을 짓던 사람들은 대개 슬라브 지붕의 집을 지은 것 에 반해 김정식A는 조립식 집을 지었는데, 그 즈음 여름 피서철뿐만 아니라 겨울에 도 많은 피서객 및 여행객들이 마을에 놀러와서 민박업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 식A의 집 앞에 현재 시멘트로 복개되어있는 곳도 당시에는 모래사장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간이해수욕장까지 꽤 넓은 해수욕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였다. 그래 지은 조 립식 집은 1층과 2층에 각 네 칸씩의 방이 있었고, 이후 2000년 전후에 슬라브 지붕 의 집을 짓기 전까지 약 10년 간 조립식 집에서 생활하였다.

**김정식A** 이 집은 초가집에서 슬레이트로 바꿨다가 슬레이트집을 다 뿌아뿌고 2층집 조립식 집을 지었다. 그라고 있다가 이 집을 다시 지었다. (조립식 집이라 하면) 판넬 가지고, 회관 옥상에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집을 총 네 번 지었다. 조립식으로 바꾼 거는, 이 앞에 원래 군 사도로거든.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포장이 되기 시작했는기라. 그 때 민박이 잘 되는기라. 길이 요까지만 나가지고 다불재 절로 넘어갔거든. 그래 민박한다고. 항구도 안 만들었으니 이 앞에 다 백사장 아니가. 그래 그 때는 민박이 되고 말고지. 2층에만 방이 네 칸이고 밑에 네 칸하고, 2층에도 거실 큰 거 있고. 한겨울에도 우리 집에 사람이 부쩍부쩍하고. 그 당시에는 오징어도 설 하루에만 해도 300만원씩 판다.

**조사자** 그렇게 민박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김정식A** 민박이 한 10년 했을라나. 도로변에 민박집 좋은 거 생기뿌제. 저쪽으로(북쪽으로) 도로가 생기뿌제. 항구 만들면서 해수욕장도 없어지뿌제. 마 이쪽으로 민박이 안 되대. 그래 치아뿌고 이 집 지었지. 이 집 지은지는 한 8년인가.

현재 김정식A의 집은 약 8년 전에 새로 지은 슬라브 지붕의 집으로 김정식A 부부가 쓰는 방 두 칸과 입식부엌 한 칸, 실내 화장실 한 개가 있고 여름철 민박을 하는 방 두 칸이 더 있다. 이 두 칸의 방에는 각 한 개씩의 화장실이 있다. 마당에도 실외 화장실이 한 개 있어서 김정식A의 집에는 총 네 개의 화장실이 있다. 방 한 칸은 침실이고 다른 한 칸은 거의 쓰지 않으며 보관용 옷이나 짐들을 두었다.

김정식A 부부는 방에서 지는 날 보다는 마루에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겨울철에는 방이 있는 집 뒤쪽 벽에서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루에 전기장판을 깔고 지는 경우가 많다. 마루에는 가족들의 사진을 사방으로 걸어 두었고 대회에서 입상한 만팔의 시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김정식A의 두 딸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경주에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마당에는 찻길 가에 평상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여름철 마을의 남자 노인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고 장기를 두는 놀이 공간이기도 하다. 집채의 남쪽으로는 오징어굴이 있는데, 오징어굴은 현재의 슬라브집을 지을 때 같이 지었다.

김정식A은 마을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TV를 일찍 구입하였는데 부인 이영순은 당시의 재미있는 상황을 조사자에게 들려주었다. TV는 직업상 일본을 자주 왕래하던 지인에게 부탁하여 샀는데 가격이 10만 5천원이었다. 이 당시 논 한 평은 1000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마을에서 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TV를 장만한 이유는 남편인 김정식A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김정식A은 마을 이장을 하였고, 당시 마을의 세대 수는 약 200세 정도 되었다.



이영순에 의하면 약 35년 전에 마을 주민 중에서 처음으로 TV를 샀는데 셋째 딸을 낳았던 당시 드라마 ‘여로’를 방영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정식A의 집으로 모여 TV를 시청하였다. 마을 노인들이 집 안에 모여 TV 시청을 하면서 담배를 피워대면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이영순은 셋째 딸의 눈이 나쁜 이유가 당시 마을 노인들이 집에서 피워대던 담배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축구나 복싱 등 당시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가 방송되는 날에는 아예 TV를 마당에 내놓았다고 한다.

내가 아 낳아가지고 있는데도 할배들이 텔레비 보러 왔다니까. 복싱같이 축구같이 하면 텔레비 마당에 내놓아 되고, 그거 잊아뿌찌도 안한다. 아가 38살 먹었이께네. 우리가 그래한 1년, 1~2년 있다가 학교 텔레비가 들어오고 개인도 동춘이집 하고 저 양조장집 하고 두 집 있제? 우리 놓고 나아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대, 우리 요서 이래 구멍가게를 했거든. 슈퍼마켓 같이. 할배들이 우리 집에 오면 담배 연기하고, 아이고, 아 그래가 눈이 나쁘다.

현재 김정식A는 부인 이영순과 함께 오징어 건조 작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부인 이영순이 수협에 중매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건조하는 양 10마뚜리 정도에 수협 중매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위탁을 받아서 100마뚜리 정도를 더 산다. 위탁을 하는 사람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고 넘겨준다. 오징어 할복과 건조의 전 과정을 김정식A 부부가 하는데 할복은 마당에서 하고 자연건조는 집 앞 공터에서 하며 오징어굴에서 완전 건조를 시켜서 축을 잡아 판매를 한다.

### ● 〈사례 3〉 권복련의 가옥 형태와 주생활

권복련의 집은 처음 지을 당시의 집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지붕을 수리하고 마루를 넓히는 등의 개축을 한 형태의 가옥이다. 집은 지은 지 올해로 51년이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현재 52세로 둘째 아들이 나던 해에 집을 지었다고 한



집채 전면

1. 돌담
2. 안마루
3. 골방, 보일러실 앞 바깥마루
4. 화장실
5. 부엌
6. 바깥마루에서 메주를 만드는 권복련
7. 몇 번의 수리를 거친 지붕
8. 집채 뒤 창고 지붕
9. 장독대



다. 그 전에 살던 집은 현재 집에서 북쪽 편에 위치해 있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는 작았는데,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관계로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의 집을 지은 것이다. 처음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온 1957년 당시 가족은 권복련 부부와 딸 넷, 아들 둘로 총 여덟 명이였다. 막내딸은 집을 옮긴 후 10년 뒤에 낳았다.

현재 방은 두 칸이지만 큰 방은 과거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방을 합친 것이다. 지금의 큰 방의 가운데에 벽이 있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을 때 왼쪽 방은 큰방이라고 불렀고 권복련 부부의 방으로 썼으며, 오른쪽 방은 작은방이라고 불렀고 딸들이 사용하였다. 큰 방과 작은 방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크기의 차이는 없었다. 큰 방과 작은 방은 25년 전쯤에 벽을 허물고 한 방으로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결혼하여 식구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 식구들이 모여서 한 방에 둘러앉기가 어려운 이유 때문이었다. 아들들이 쓰는 방은 ‘끝에방’이라고 부른다. 현재 권복련은 큰 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혼자 살고 있으며 ‘끝에방’에는 창고의 용도로 쓰는데 그 곳에는 자녀들이 모이면 한 번씩 피게 되는 큰 상과 전기장판, 여름에 방바닥에 까는 돗자리, 두루마리 휴지 등의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다.

권복련 집은 처음 지을 때 기와집이었다. 기와집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비가 세서 220만원을 들여 20년 전에 우레탄을 발랐다. 하지만 우레탄 지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벗겨져서 몇 년 뒤에 60만원을 주고 페인트칠을 하였다. 요즘에는 함석 기와를 올리면 뒤통이 안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기와지붕이어서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가옥의 벽은 흙벽으로 지붕에 우레탄을 바랐던 20년 전에 페인트칠을 하였다. 현재 샤워장으로 쓰고 있는 부엌 옆의 작은 공간은 예전에 창고로 쓰던 것인데, 여름철 자녀들과 손자들이 놀러오면 해수욕을 하고 씻을 곳이 없어 샤워장으로 고친 것이다.

화장실은 집 마당의 한 쪽 끝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있던 화장실로 겨울에 화장실 다니기가 불편할 것으로 생각한 아들들이 집 안에 화장실을 지어주려고 했으나 권복련은 불편함이 없다며 마다했다고 한다.

부엌은 집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자리는 과거에도 부엌이 있던 자리로 마루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려면 계단 몇 칸을 내려가야 할 정도로 방과 마루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었다. 아궁이는 두 개가 있었는데 보통 큰 솥과 작은 솥을 하나씩 두었다. 그러다가 가스레인지가 나올 때 즈음에 권복련의 다리가 아파 부엌을 드나들기가 힘들어지자 아들들이 돈을 모아 예전 부엌을 묻고 현재의 입식 부엌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부엌 바닥의 높이가 방과 마루의 높이와 같아졌다.

아궁이 있고 큰 솥 걸어놓고 작은 솥 걸어 놓고 솥 두나씩 놓고, 방 안에 불도 아궁이 때서, 방이 좁으면 저녁에 또 군불이라고 더 넣어가지고 방이 더 따뜻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자고, 밥 해놓고 우에 떤다고 군불.

권복련의 집은 처음 지을 당시 100평이 넘었으나 뒷집에서 집 짓는데 땅을 조금 팔라고 해서 일부 땅을 팔고 현재 70~80평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채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비해 마당의 크기가 더 넓은데 마당의 화장실 앞에는 작은 텃밭

이 있다. 이곳에 권복련은 고추와 들깨를 심어두었다. 고추는 자녀들이 추석에 왔을 때 풋고추를 따먹고 가져가기도 한다. 햇빛이 앞집에 가려서 텃밭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들깨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들깨 잎을 뜯어서 삶은 후에 간장과 마늘, 미원 약간, 참기름, 통깨를 넣어서 무쳐서 먹는다고 한다. 들깨 잎은 자녀들도 좋아해서 따면 자녀들에게 보내주기도 한다.

앞 먹는다고 송아났지 응달이라가지고 알타구는 먹을 것도 없어. 시퍼런거 저런거 뽑아놔는데. 서울에도 보내주고 포항이고 부산이고 다 보내줘요. 도시에는 이런 거 먹도 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시골에 자라가고 보내주면 잘 먹어요.

1. 한명진·윤금열 부부의 개조한 집 거실
2. 안병군의 집 전면과 오징어 건조대



마당의 다른 한쪽에는 장독대와 수도꼭지, 아궁이가 있다. 아궁이는 현재에도 메주를 만들기 위한 콩을 삶거나 큰 솥에 음식을 할 경우에 쓰고 있다. 장독대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장류와 오징어 내장 젓갈이 있으며, 빈 장독대는 겨울에 새로 장을 담그면 넣어두려는 것이다. 이번 겨울에는 김장을 해서 빈 장독대에 넣어 집 마당의 텃밭에 묻어서 보관해두었다.

이렇게 조사자가 사례로 선정한 세 가옥 외에도 경정1리 뱃불마을의 가옥은 개축 또는 신축의 과정을 거치오면서 나름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3. 이정달 집 전면
4. 경로회관 전면





한명진, 윤금열 부부는 울산에서 살다가 경정1리에 들어온 지 올해로 6년째 되었다. 처음 경정1리에 들어왔을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옆에 세를 들어서 살다가 올해 6월 현재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여 살고 있다. 처음 살 때에는 방 세 칸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던 집을 개조하여 뒷마당이 있던 곳에 방을 만들고 앞마당에 지붕을 씌워 거실로 만들었다. 거실은 대게나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을 맞는 곳으로 쓰고 있기도 하다. 마당에는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만들어 민박 손님을 받기도 하며 원래 부엌이었던 곳에는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거실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아래층은 새롭게 만든 공간이고 윗층은 원래 있던 집의 고구마 뒤주였는데 메운 것이다. 현재 부엌은 집 옆쪽으로 지붕을 내어 새로운 공간을 내어 만들었다.

윗당 아래쪽에 위치한 안병군의 집은 누나 안미영의 집과 한 지붕을 이루고 있으나 두 집 사이에는 벽을 만들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 경로회관 2층에 위치한 정보화센터 건물과 같은 재질의 조립식 집으로 안병군이 직접 지었다고 한다. 안병군은 조립식 집 건축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이상진의 집도 이상진의 형 이상호와 함께 수리 및 개조를 하였다. 집을 짓는 데에는 약 2,000만원의 자재비가 들었다고 하고, 땅 값으로는 1억 8천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안병군의 집의 서쪽 편에는 안병군이 운영하는 오징어 공장 건물과 건조대가 있는데, 오징어 공장은 2008년 여름에 수리를 하여 2008년 가을부터 사용하고 있다. 오징어 건조대의 땅은 총 326평으로 땅값으로는 4,500만원이 들었다.

이정달의 3층 민박집은 2000년에 지은 것으로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건물 중의 하나이다. 처음에 집을 지을 당시에는 민박 보다는 자녀들이 편하게 쓰게 하려고 높게 지은 것인데, 현재는 자녀들 중 중학생인 이해경을 제외하면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에만 각자의 방을 쓰고 그 외에는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의 경로회관도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건물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로회관이 있던 자리에 나무집이 있었는데, 이후 젓갈공장으로 바뀌었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 경로회관 밑에는 젓갈을 담아두던 드럼통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후 1970년대 말에는 당구장이 있었는데 김춘자는 당시 당구장 ‘깡돌이’를 했기 때문에 당구장을 할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다. 당구장은 약 20~3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 6 세시풍속

설  
정월 대보름  
영등  
사월초파일  
단오  
추석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 설

경정1리 뱃불마을 대부분의 집에서 차례는 큰집부터 시작하여 점차 작은집으로 옮기면서 지낸다. 서열대로 지내기 때문에 차례가 늦게 끝나면 오후가 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에서는 조용하게 한 해를 시작한다. 설보다는 정월 대보름을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풍습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듯 설은 조출하고 소박하게 지나간다.

설이 다가오면 마을에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단체로 목욕을 하러 간다. 그동안 경정1리 주민들은 평해온천(백암온천)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마을 어른들의 단체 목욕 역시 평해온천으로 간다. 주위에 다른 온천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경로회원이 107명(남자 44명, 여자 63명)에 달하는 고령화 마을이기 때문에 단체로 온천을 갈 때에는 관광버스 2대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마을 노인들의 목욕 이외에 마을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설 행사는 없다. “설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박수남의 말처럼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안끼리 모여 차례를 지낸 후 세배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영해로 시장을 보러 다니는데 영해 장날은 매달 5, 10, 15, 20, 25, 30일로 2008년 설 대목장은 1월 30일과 2월 5일이었다. 설에는 떡, 탕, 국, 여러 종류의 전과 생선 등을 올려 차례를 지내는데, 이 마을에서는 떡국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차례 상에는 밥을 올리며,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거나 떡국용 떡을 사오는 풍경은 볼 수가 없다. 도곡이나 상원까지는 떡국제사를 보나 뱃불마을을 비롯한 근처 바닷가 마을들은 떡국을 올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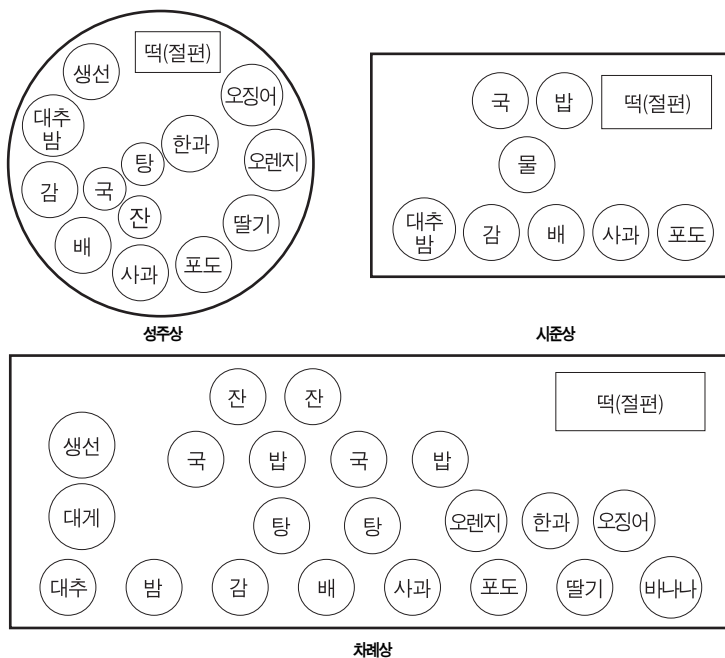
영해 장날인 2월 5일에는 설 제수장을 보기 위해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영해장으로 갔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나, 아침 8시 무렵부터 운영되는 마을 내 트럭으로 오가기도 한다. 이 날은 대목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미역을 팔기 위해 나가는 경정1리 주민들도 꽤 많았다. 영해시장



은 설 무렵에 공사 중이었으나 대목장답게 많은 상인과 장보는 사람들이 이른 시간 부터 모여 들었다. 영해장에서는 문어와 게를 비롯한 각종 어물류를 비교적 많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다른 장날에 비해 과일이나 채소류를 파는 상인들도 많이 나와 있었다. 뱃불마을에서 장을 보러 나온 김정례와 이복란은 껍지, 고등어, 조기, 가오리 등의 말린 생선과, 멸치, 포, 대과 등을 구입하였다. 말린 생선이나 포 등은 설 차례 상에 놓기 위한 것이고, 멸치는 국을 끓일 때 국물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을 다 본 시간은 9시 45분이었으며 기다리던 트럭을 타고 마을로 돌아갔다.

경정1리 뱃불마을 대부분의 집에서 차례는 큰집부터 시작하여 점차 작은집으로 옮겨가면서 지낸다. 서열대로 지내기 때문에 차례가 늦게 끝나면 오후가 되기도 한다. 유성종과 최태련의 집에서 2008년 설 차례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 유성종은 영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해 14년간 군 생활을 한 후 35살에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마을에서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중대장을 역임하였다. 부인 최태련과는 군대에 있을 때 결혼하였으며 부인은 창포가 친정이다. 이 부부는 1남 3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과 딸 1명이 포항에 거주하고 있다. 딸들은 설에 집에 오지 않고 아들만 내려오는데 설 전날인 2월 6일 오후 3시 30분 무렵에 아들이 부인과 1남 2녀(민지, 가영, 호상)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였다.

설날인 2월 7일 아침 8시 무렵에 유성종의 집에서는 최태련과 며느리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그 외 다른 가족들인 남자들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다. 8시 40분에는 차례 지낼 상을 진설 중이었다. 이 댁에서는 차례상으로 총 3개의 상을 차리는데, 거실에 성주상을 차리고 안방에 조상들께 드리는 차례상 그리고 그 왼편으로 시준(삼신)상을 차렸다. 과거에는 성주와 시준을 조그마한 독에 모시



고 햇곡식을 넣어두었다고 하나 현재는 둘 다 모시지 않는다.

떡은 흰색 절편을 올렸다. 뱃불마을에서 제상과 차례상에 올리는 국은 3색 나물로 끓인 국으로 나물 대용이다. 유성종의 집에서는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로 국을 끓여 올렸다. 생선이 주된 제물로 고등어, 조기, 아지, 가자미, 명태 같은 각종 생선을 썰어 올렸다. 성주상과 시준상에는 과일을 하나씩만 올렸으나 차례상에는 3개씩 올라갔다. 또한 삼신상에는 탕을 올리지 않고 물만 올렸다.

진설을 하는 도중에 유씨 종가의 종손인 유영철과 부인 그리고 딸들(수민, 수연)이 유성종의 집에 도착하였다. 유영철의 집이 종가이기 때문에 본래 그 집부터 차례를 지내야 하나, 종가에 자손이 없어 유영철의 할아버지인 유성종의 작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연유가 있어 유성종의 집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다고 한다.

설 차례는 9시 10분에 시작되었다. 먼저 성주상에 헌작을 하고 차례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유성종과 아들 그리고 종손인 유영철만 방 안에서 절을 올리고 손자와 손녀들은 거실에서 차례를 지냈다. 손녀들 외에 최태련과 며느리들은 차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참신재배** 성주상, 삼신상, 본상을 다 진설한 후에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② **분향** 향 2개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는다.
- ③ **강신** 인방의 삼신상과 본상을 중심으로 각 신위전에 올린 잔을 향상에 올려놓는다. 강신을 행하기 위해 먼저 첫째 잔에 술을 따르고, 그 술잔의 술을 다음의 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잔까지 따르고 나서 모사기에 붓는다. 이어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④ **계반상시** 상 가운데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동쪽에서 술을 따라 각각 신위전에 술잔을 올리는데, 술잔을 향해 한번 사른다. 이어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는데, 밥마다 2기의 숟가락을 꽂는다. 즉 부부 두 분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각각 밥을 올려야 하나, 현재는 밥 하나에 2기의 숟가락을 놓는다고 한다. 젓가락은 어적이나 떡 위에 올려놓는다.
- ⑤ **독축** 독축을 한다. 축문 없이 제주가 나와 직접 축의 내용을 고한다. 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조님께 떡과 과일 등의 모든 음식을 바치오니 흠향하시어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 ⑥ **헌작 후 재배** 이어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⑦ **첨작** 주전자로 각각의 술잔을 채운다. 이 때 제주가 신위전에서 잔을 올리는 것처럼 한다. 이어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⑧ **헌다** 나물로 만든 국을 내리고 물을 올린다. 밥을 떠서 물에 만 다음에 수저는 걸쳐 놓는다. 술잔을 내려 퇴주그릇에 붓고 다시 술을 따라 잔을 올린다. 이어 밥뚜껑을 덮고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⑨ **사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리고 퇴주를 하며 다시 술을 따라 잔을 올린다. 국궁을 하고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⑩ **음복, 철상**

9시 23분에 차례를 마치고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한 후, 9시 47분에 세배를 드렸다. 이후 가족끼리 한담을 나누다가 종가에서 차례를 올리기 위해 11시에 유씨 종가로 자리를 옮겼다.

유씨 종가에서는 부(1명), 조(1명), 증조비(2명), 고조비(2명), 5대조비(2명)의 차례를 지낸다. 대개 4대봉사를 하는데, 이 댁에서는 차례 참여자의 고조까지 포함해서 5대까지 모신다. 지역, 또는 혈연적인 고려를 감안해서 입향조까지 차례 대상으로 모신 것으로 보인다.

종가의 차례상에는 본상과 삼신상을 놓았는데, 동편에 삼신상을 놓고, 이어 서쪽으로 본상을 놓았다. 그리고 동편으로부터 5대조 및 고조의 술잔이, 서편에 부의 술잔이 놓인다. 종가의 차례는 앞과 대동소이하나 삼헌을 하는 것이 다르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차례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식구들과 보낸다.

- ① **진설** 진설을 한다.
- ② **분향 및 참신** 분향을 하고서 제주 이하 재배를 한다.
- ③ **강신** 강신을 한다. 제주만 재배를 한다.
- ④ **초헌** 초헌례를 종손인 유영철이 행한다. 헌작을 하는데 큰 잔 5개에는 막걸리를, 작은 잔 6개에는 청주를 따라 올린다. 젓가락을 생선적 위에 올려놓는다. 축문 없이 직접 축문을 고한다. 재배를 한다. 퇴주를 한다.
- ⑤ **아헌** 아헌례를 유영춘이 행한다. 헌작을 하는데, 큰 잔 5개에만 막걸리를 따라 올린다. 재배를 한다. 퇴주를 한다.
- ⑥ **종헌** 유진수가 종헌례를 행한다. 헌작을 하는데, 큰 잔 5개에만 막걸리를 따라 올린다. 재배를 한다.
- ⑦ **유식 및 합문**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국그릇의 물기에 적신 후에 밥에 꽃고, 젓가락을 탕그릇 위에 올려놓는다. 제주 이하 모두 부복을 한다.
- ⑧ **헌다** 국을 내리고 물을 올린다. 그리고 밥을 떠서 물에 말고 숟가락을 걸쳐 놓는다. 그리고 밥뚜껑을 그릇 위에 걸쳐 놓고, 젓가락은 떡 위에 올려놓는다. 이어 부복을 한다.
- ⑨ **합반개, 하시저** 잠시 후에 밥뚜껑을 덮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국그릇에 내려놓는다.
- ⑩ **사신** 사신재배를 한다.
- ⑪ **음복**

- 1,2. 진설
3. 분향 및 참신
4. 초헌
5. 아헌
6. 종헌
- 7,8. 참잔
9. 음복









## 정월대보름

뱃불마을에서도 정월대보름에는 동네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 및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올린다. 정월 대보름, 단오, 음력 10월 보름에 올리는 3번의 마을 제사 중 정월대보름에 올리는 이 마을제사가 가장 크고 성대하며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뱃불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을 반농반어의 마을이라 소개하곤 하지만, 사실 현재 뱃불마을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불재 너머에 있는 염장의 논에서 몇몇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고비를 주고 농사의 전 과정을 맡기는 형태로 논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에서 논농사를 짓는 가구는 1가구로 박흥균이 유일하며, 그 외 다른 논들은 휴경지가 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이다. 염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사를 짓기보다는 자신이 먹거나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식량을 생산하는 규모이다.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수가 많으나 역시 소규모 농업이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로 고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데, 밭농사로 소일을 하던 노인들이 점차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서 많은 밭들이 역시 휴경지가 되고 있다.

농업이 어업보다 상위의 것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비교하자면 이러한 현상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농반어가 행해지던 시기의 이 마을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양반이라 여겨졌으며 배타는 사람들은 상놈이라 여겼다. 또한 뱃불의 계당이 윗당과 아랫당으로 나뉘게 된 계기도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의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즉, 뱃불은 과거 농업과 어업의 비중이 비등했으나 사회적인 통념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상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농업을 중시했던 이러한 뱃불마을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정월 대보름의 옛 행사들을 통해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풍습이지만 예전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여러 놀이와 행위를 정월 대보름 무렵에 행하곤 하였다. 그래서 여전히 뱃불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농사짓는 날’이라고 지칭을 하곤 한다.

정월대보름은 일 년 동안의 각종 명절 중에서 공동체적 성격이 가장 부각되는 명

절이다. 뱃불마을에서도 정월대보름에는 동네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 및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올린다. 정월대보름, 단오, 음력 10월 보름에 올리는 3번의 마을제사 중 정월대보름에 올리는 마을제사가 가장 크고 성대하며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마을제사가 끝난 후에는 동회가 열려 지난해를 결산하고 당해의 여러 마을 사업과 현안을 의논하기도 한다. 즉, 뱃불마을의 정월대보름 마을제사는 어느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1년이 정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 마을제사는 정확히 정월 열나흘날 밤에 지낸다. 과거에는 정월 열나흘날에서 보름으로 넘어가는 자정을 기해 제를 올렸다고 하나 현재는 정월 열나흘날 밤에 제가 행해지고 있다. 뱃불마을에는 입춘시조를 모시고 있는 윗당과 아랫당이 존재하며 두 당에서 제가 끝나면 바닷가에서 용왕뎡이기를 한 후, 재실인 경흥당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터제를 올린다.

정월대보름 아침에는 대추찰밥을 지어 조상에게 올리기도 한다. 뱃불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초파일, 단오, 동지 등의 명절에 상을 간단히 차려 조상에게 올리고 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이중 정월대보름에 가장 많은 집에서 상을 올려 안녕을 기원한다. 박종예의 경우 아침 일찍 7시 무렵에 찰밥, 콩나물국, 나물, 생선조림, 술 등으로 상을 차려놨다가 10분 정도 후에 거두어버린다.



조상상(박종예)

2008년 정월대보름인 2월 21일, 이른 아침부터 이장은 경흥당으로 음복을 하러 오라고 방송을 하였다. 방송 시설이 없는 과거에는 마을 일을 도와주던 소미(소사)가 제사를 지낸 다음날 아침에 “음복하러 오소, 동사 오소.”라고 외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배고픈 시절이라 동사에 사람들이 꼭 찰 정도로 모여들어 음복을 하였으나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정월 동제 후에는 마을 대동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단오나 10월의 제사 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8시 무렵부터 제관들과 노인회장을 비롯한 몇몇 어른들이 경흥당에 모여 지난해

1. 정월대보름 동제 결산을 하는 이장, 제관, 마을주민
2. 마을 남자 노인들 음복
3. 음복을 하러 경흥당에 모이는 마을 남자 노인들



1



2



3

에 올렸던 동제를 결산하였다. 뱃불마을의 동제는 어촌계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었다. 1년에 3번 지내는 동제의 예산으로 매년 200만원 씩을 어촌계에서 지원받는데, 동제를 지낼 때마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찬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 지원금을 다 쓰지는 않는다. 남은 지원금은 모아두었다가 제당을 수리하는 일 등에 이용한다. 2008년에도 어촌계 지원금 이외에 마을 사람들이나 선주들이 찬조금을 기부하였으며, 돈 이외에도 김정식, 이대우가 문어 1마리씩을 기증하였으며 우진호, 수진호, 유영중이 대게 5마리씩을 기증하였다. 동제의 결산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08년 정월 대보름 동제 결산

2007년 잔액		444,410원	
2008년 수입(어촌계)		2,000,000원	
<b>합계</b>		<b>2,444,410원</b>	
수입(찬조금)		지출	
개풍호	50,000원	명태 · 양미리(음복용)	25,000원
김외삼	30,000원	명태 · 가잠 · 고등어(제수용)	72,000원
석동 유풍호	50,000원	간장 · 맛소금 · 콩나물	2,700원
성광호	30,000원	무 · 참기름 · 깨소금	10,000원
안병군	30,000원	쇠고기	10,000원
유영춘	30,000원	은박지 · 양초 · 향 · 대종이	15,800원
이우현	50,000원	밤 · 대추 · 꽃감 · 건어	49,000원
일성호	30,000원	소주 · 탁주 · 전구	32,500원
차유 대준호	30,000원	떡 · 고기(짜기)	35,000원
차유 해림호	50,000원	목욕 · 점심	36,000원
최영주	50,000원	찹쌀 1되	12,000원
해경호(박홍균)	50,000원	왕복차비	20,000원
		제관인건비	510,000원
합계	480,000원	합계	830,000원
<b>총 수입</b>		<b>2,924,410원</b>	
<b>총 지출</b>		<b>830,000원</b>	
<b>잔액</b>		<b>4,410원</b>	

동제 결산이 끝난 후에 남은 제사 음식으로 음복을 하며 대동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과거에는 경흥당에 사람들이 꼭 찰 정도로 모이고도 자리가 부족하여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서서 대동회에 참여를 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회에 참여하여 경흥당을 가득 채웠다.

대동회가 시작되자 음복상이 치워지고 진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시 9분에 대동회가 이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이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2006년과 2007년의 추진사업을 보고하였다. 2006년 추진사업으로는 1) 경로당 증축공사(4천 2백만원), 2) 소공원 조성공사(1천만원), 3) 버스승강장 설치공사(1천 1백만원), 4) 음식물 분리 수거통 설치 사업을 보고하였다. 2007년 사업으로는 1) 해수욕장 샤워



장공사(1억 1천만원), 2) 급수대 설치공사(5백만원), 3) 해수욕장 관리실공사(1천만원), 4) 큰골 농로 포장공사(1천 1백만원), 5) 정보센터 및 회관 보수공사(3천만원), 6) 마을 앞 공동화장실 공사(5천만원 확보), 7) 정보센터 새 기기 구입(1천만원 확보)을 보고하였다. 이어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공고하여 숙지를 하도록 하였다. 뱃불은 이미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마을이기 때문에 기초 노령연금 지급이나 노인 교통수당 지급 폐지 같은 노인들과 관련된 제도가 주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 마을 경비를 결산하였는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2007년 마을경비 결산

수입		지출	
전년 이월	2,791,243원	전년도 적십자회비 미납	60,000원
해수욕장	2,074,040원	큰골 장비 식참대	40,000원
예금이자	2,181원	대청소 3회	164,850원
		소공원 도색 작업	141,000원
		상여집 창유리	20,000원
		제초제 작업	20,000원
		수도세	97,100원
		세제구입	1,440,000원
		컴프레사	600,000원
		적십자회비	340,000원
		불우이웃 성금	100,000원
		향군회비	13,000원
합계	4,867,464원	합계	3,035,950원
잔액		1,831,514원	

대동회



마을경비 중 2007년 수입의 대부분은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한 것이었다. 결정에서는 장갓불에 있는 간이해수욕장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해수욕장은 과거에는 입찰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를 두고 마을에서 다툼이 일어 현재는 이장이 주관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표 3] 2007년 해수욕장 결산

수입		지출	
담물식당	1,200,000원	그늘막 파이프	230,000원
장갓불식당	1,150,000원	로프 · 부이	73,900원
고사수입	195,000원	봉투 및 비누	198,750원
운영수입	3,420,000원	튜브 · 보트	141,500원
		현수막	175,000원
		고사 준비물	144,300원
		그늘막 8개	200,000원
		점사용료 외	141,960원
		상여집 이전(트럭, 고사)	60,000원
		작업 식참대	154,000원
		관리 인건비	1,200,000원
		관리인 식대	120,000원
		판공비	400,000원
		수도세	556,550원
		접대음료	73,000원
		잡화	22,000원
합계	5,965,000원	합계	3,690,960원
잔액		2,074,040원	

마을사업에 대한 결산이 끝나자 2007년 작년 한 해 동안 정월대보름과 어버이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교육발전 기금 등 각종 행사에 찬조를 한 사람들의 목록을 알렸다. 이어 기타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와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마을에 보건소나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마을 복지에 대한 건의와 마을의 미관이나 환경을 해치고 있는 창고나 그물 터는 곳의 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설치를 요구하는 보건소나 목욕탕 등은 관련 조건을 설명해주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절충해서 이장이 면에 건의하기로 곧 결정이 났지만, 개인의 행동의 마을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고 있는 창고나 그물 터는 곳의 문제 등은 꽤 오랫동안 격렬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2008년 대동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장 선출이었다. 현 이장의 2년 임기가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장을 선출할 것인지 현 이장을 유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했다. 어촌계장이 중심이 되어 임시 운영진을 꾸민 다음에 이장 문제를

논의하였다. 경로회장이 현 이장의 유임을 건의하자 다른 사람들도 이에 찬성하여 간단히 이장 선출은 유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대동회는 10시에 종료되었다.

대동회를 마친 후에 10시 45분부터 마을 앞 바닷가에서 옷놀이 대회를 열었다. 정월대보름에 마을 차원에서 노는 옷놀이 대회는 얼마 전부터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마을 12개 반이 참여하여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된다. 옷놀이 대회는 마을에서 줄다리가 중단된 다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만 하였을 뿐이다.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2월 19일 이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영해에 나가 상품을 준비해왔다. 주로 세제나 화장지, 샴푸 등을 상품으로 준비하였으며 그 외 선수로 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선물도 골고루 준비하였다. 또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받은 상품으로 행운권 추첨도 만들어 함께 진행하였다. 옷놀이 대회장 주변에는 부녀회원들이 떡과 회 같은 음식을 마련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어우러져 놀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옷놀이 대회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2008년 우승은 8반이 하였다.



1,3,4,6. 옷놀이 대회  
2.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  
5. 옷놀이 대회 상품  
7. 옷놀이 대회 후 행운권 추첨



제사 드는 날인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는 수숫대로 콩나락, 벼, 조, 보리, 방아, 지게 등 농사와 관련된 것들의 모형을 만들어 거름에 꽂아두었다. 이 수수 모형들은 동네 제사 지내기를 기다렸다가 느티나무 가지로 만든 타작대로 두드려 버렸다. 이때는 동네를 마쪽과 새쪽으로 나누어 경쟁하듯이 타작을 하였다. 마을을 나누는 새쪽과 마쪽은 동네 복판 길을 기준으로 한다. 제보자에 따라 구학교가 있던 길이 기준이 된다고도 하며(이장수 제보) 현재 남시슈퍼가 위치한 골목이 기준이 된다고도 (박수남 제보) 한다. 대체적으로 마을의 중간 길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보면 된다. 새쪽과 마쪽은 아랫모탱이와 윗모탱이로도 불리며, 새쪽과 마쪽이란 이름은 바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듯하다. 뱃불에서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샛바람이라 부르고, 서남쪽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을 맞바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새쪽은 마을 경로당 쪽에 위치한 마을이 해당되는데 이쪽의 방위가 북동이며, 그 위에 위치한 마쪽의 방위는 서남이다.

새쪽과 마쪽 편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함께 몰려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가 끝나면 서로의 것들을 타작하기 위해 달려갔다고 한다. 서로 많이 두드려 버릴수록 좋다고 하여 경쟁적으로 두들겼으며, 타작을 하다가 맞닥뜨리면 싸움이 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기 위해 수시로 제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타작을 하러 다니면서 부엌문을 타작대로 두드리면서 “제사 지냈고 밥하소.” 하고 외치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 제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다.

타작을 할 때는 “뽕뽕 타작아 이 보리 누(누구) 보리노 ○○ 보리세” 같은 소리를 하면서 하였다. 특히 “아제네 보리는 잘 되고 우리 보리는 못되고”, “뽕뽕 타작이여 아제네 보리는 잘 되고 천석 만석” 하는 식으로 자신의 농사보다 다른 사람의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면서 타작놀이를 했다는 것을 박종에는 재미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다.

동제를 지내고 난 다음날인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지신밟기와 줄다리기의 놀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줄다리기도 또한 새쪽과 마쪽으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새쪽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마쪽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쪽이 이기면 어업이 풍년이 들고 마쪽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줄다리기에 사용하던 줄은 외줄이었으며 짚을 꼬아 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장에서 사용하던 로프로 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향만이 건설되기 전 넓었던 백사장에서 줄다리를 진행하였는데 복판에서 징으로 시작을 알려 줄다리를 시작하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다리를 할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 여자나 어린아이들도 모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이기기 위해 정박되어 있는 배의 말뚝에 줄을 묶어놓기도 하여 상대편을 감시하면서 싸움이 나기도 하였다.

줄다리가 끝난 후에는 풍물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지신밟기를 하였다.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놀아주고 쌀을 받아왔다. 그 쌀은 지신밟기를



노는 사람들이 술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였고 남은 것은 동네기금으로도 썼다. 줄다리기와 지신밟기가 중단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당시 마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오랫동안 해오던 정월 대보름 줄다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박말출은 보름날이면 바가지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찰밥을 얻으러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달밤에 이렇게 밥을 얻어와 아침이 되면 검은 개를 불러 개와 함께 그 밥을 먹었다. 개에게 한 숟가락 밥을 주고 자신이 한 숟가락 먹고 그랬는데, 꼭 까만 개를 불러야 했으며 하얀 개는 부르지 않았다.

또한 김창자는 보름날 찰밥을 먹고 난 후 밭에 가서 콩을 뿌렸다고 한다. 옛날에는 밭에 굴뚝이가 많아 굴뚝이를 쫓기 위해, 밭에 콩을 뿌려놓고 다시 그 콩을 주워담으며 “굴뚝이 쫓자, 굴뚝이 쫓자.”라고 하였다고 한다. 반면 권련이는 굴뚝이 쫓기를 정월 달 중에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뿌렸다 다시 담은 콩을 집에 가져와 볶아 먹었다고 한다.

보름에 소나 개에게는 달을 본 후에야 밥을 주는데, 특히 소에게 밥을 줄 때는 ‘밥 따치 국 따치 이래 놓고’ 소가 밥을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 하여 점을 쳤다고 한다.



## 영등

이월 영등날은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할머니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월 초하룻날을 말하고, '내려오는 이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영등할머니가 다시 올라가는 날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 지역에서는 이월 보름에 영등할머니가 올라간다고 여기고 이 날을 '올라가는 이월'이라고 한다.

정월대보름이 경정1리의 농사짓던 과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명절이라면, 이월 영등은 어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경정1리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이월 영등날은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할머니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월 초하룻날을 말하고 '내려오는 이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영등할머니가 다시 올라가는 날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 지역에서는 이월 보름에 영등할머니가 올라간다고 여겨 이 날을 '올라가는 이월'이라고 한다. 어업을 주로 해왔던 지역답게 경정1리에서는 이월 영등을 큰 명절로 여겨 영등할머니가 내려와 있는 동안 어떠한 부정도 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비교적 철저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지금도 경정1리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장을 말날에 맞춰 담기보다는 영등할머니가 내려오기 전에 장을 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이월 보름이 지나면 이 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떠느리들이 '올라가는 이월'이 되면 '올타리를 잡고 운다'라는 말이 있다.

박종예에 의하면 “영등에는 고기가 생기면 무조건 영등에 바쳐야 했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부엌에 소나무로 만든 갈쿠리(갈고리)를 걸어두고 거기에 잡아온 고기를 모두 끼워두었다고 하며 이 고기는 영등할머니에게 바친 것으로 인식한다. 만약 이 고기를 함부로 훔쳐 먹으면 입이 붙어버리는 등 큰일이 나는데 미리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를 낸 후에 훔쳐 먹으면 괜찮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영등할머니를 부엌에서 모셨기 때문인지 경정1리에서는 조왕신과 영등할머니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김옥출에 의하면 “조왕은 영등 갈꾸지로 모셨으며 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신 것.”이라고 한다.

‘내려오는 이월’인 이월 초하루에는 떡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영등할머니를 모신다. 영등할머니를 모실 때의 주요한 제물은 떡인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떡들을 사흘에 걸쳐서 장만하여 모셨다고 한다. 하루는 떡쌀을 장만하여 바수고 이튿날을 떡을 해서 그 다음날인 이월 초하루에 영등을 모신다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떡은 ‘긱떡’이라는 이름의 떡인데 일반적인 반달 모양의 송편이다. 경정1리에서는 반달 모양의 긱떡을 이월 초하루에 만들어 먹고 추석에는 동그란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긱떡 이외에 수수떡이나 잡곡떡 등도 만들어 영등할머니를 모셨다.

아직까지 많은 가구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만큼 영등할머니를 모시는 집들이 많은데 2008년에는 김순자 집의 이월 초하루 풍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순자의 집은 삼각망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역양식을 마을에서 꽤 크게 하고 있는 집이다. 바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생활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영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월 초하루 전날인 3월 7일 오후 4시 20분부터 긱떡을 만들 준비를 하였다. 본래 이월에 올리는 긱떡이라 하는 송편은 속을 넣지 않고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요즘은 몇 개의 떡에만 속을 넣지 않고 나머지는 깨와 설탕으로 소를 만들어 넣는다. 떡쌀은 1되가 조금 안 되는 분량으로 준비하였으며 흰떡만을 준비하였다. 4시 30분에 떡가루를 고무합지에 붓고 익반죽으로 떡반죽을 하였다. 이때 물을 팔팔 끓여서 익반죽을 하여야 떡이 곱게 된다고 한다. 송편을 빚을 때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빚는데 긱떡 모양으로도 만들고 추석 때 만들어 먹는다 하는 동그란 모양의 송편으로도 빚는다. 한 시루 분량의 송편이 만들어지자 찌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찌던 송편 위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새로 만든 송편을 얹어 계속해서 찌냈다. 5시 50분 송편이다 찌지자 6시 15분 송편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내일 아침 상에 올릴 송편에는 콩가루를 뿌려두었다. 이 콩가루는 예전에는 앙꼬(소)를 넣지 않기 때문에 뿌리는 것으로 이월에만 뿌리는 것이다.

영등날인 3월 8일 아침 7시 정도에 김순자는 전날 만든 떡, 밥, 뭇국, 망상어조림, 막걸리를 차려서 상을 올렸다. 김순자는 영등할머니에게 상을 올린다기보다는 조상에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밥은 큰 그릇에 떠서 숟가락 6개를 꽂아 올리고 망상어조림에도 젓가락 6벌을 걸쳐 놓았다. 이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상을 차린 후 절을 하면서 간단히 말로 일년동안 잘 보살펴 줄 것을 빌었다. 상은 차려두었다가 10분도 안 되어 금방 거두는 것이 보통이다. 상을 거둔 후에 막걸리 한 잔을 집 계단에다 부어 헌식하였다. 이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김순자는 바닷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미역을 말렸다.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것은 15일이라고 하나 10일이 넘으면 미리 당겨서 영등할머니를 올려보낼 수가 있다. 보름 사이에 혹시라도 부정이 들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최태런은 유독 2월에 제사가 많기 때문에 2월 영등을 철저히 깨끗하게 지내고

1. 방앗간에서 뿔이온 쌀가루 반죽하기
- 2,3,4,5. 송편 만들기
- 6,7. 송편 찌기
8. 완성된 송편







1. 아월고사(김순자)  
2. 아월고사 상차림

있었다. 최태련에 의하면 오히려 정월보다 2월에 더욱 많은 것을 가리며 짐승도 잡지 않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는다고 한다. 영등할머니가 올라가기 전에 제사가 들면 밥, 국, 과일 등 제물을 먼저 영등할머니의 갈퀴리 밑에다 놓고 제를 올린 후 제사를 올렸는데, 성주나 조상보다도 먼저 제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은 부엌에 갈퀴리를 걸어놓지는 않지만 여전히 식당의 식탁에다 영등상을 차리고 있다.

2008년 2월 초하룻날에는 떡, 밥, 콩나물과 무를 넣은 국, 온마리 고기(명태, 고등어), 술을 놓아 영등상을 차렸었다. 음력 2월 10일 되자 바로 영등을 올려 보냈는데, 이때에도 밥, 국, 찌개, 고기 온마리, 술을 올리고 난 후 소지를 올렸다고 한다. 소지는 “일년 내내 유씨 대주 무사하라.”고 올리며, 아들들도 소지를 올려주나 딸들은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소지를 올릴 때 잘 올라가면 일년이 좋다고 여기나 잘 올라가지 않고 빙빙 돌면 그 한해가 좋지 않다고 하여 조심을 한다고 한다.



## 사월초파일

마을에서는 유보살 유순애의 집에서 사월초파일 행사를 하였다. 유순애는 약 10년 전부터 부처님을 모시기 시작하여 사월초파일에는 단골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월초파일은 석가탄신일로 불교와 관련된 날이지만, 경정1리 주민들에게는 불교적 행사일이라는 종교적인 의미에 덧붙여서 무(巫)의 행사일이기도 하며, 또한 과거에는 경정3리와 석리 사이에 위치한 용바위를 보러가는 날이기도 했다. 현재는 용바위를 보러 가는 풍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자들은 절을 찾아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절에 연등을 달며, 단골들은 무당을 찾아 신당에 기도를 드린 후 역시 신당에 연등을 단다. 사월초파일이라는 불교적 행사일에 무의 기도공간인 신당에서도 절과 비슷한 형태의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종교, 특히 무와 불교 간 습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용바위 보러가기



마을주민들은 과거 초파일이 되면 용바위를 보러 갔었다고 회상한다. 용바위란 용이 올라간 자국이 남아있는 바위를 지칭하는데, 그 바위에는 용이 지나갔다고 전해지는 길이 남아 있다. 이 바위는 경정3리와 석리 사이에 위치하는데 지금도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바위에 올라가 볼 수 있다. 이 바위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용이 지나간 자리’라는 이야기만이 전해지고 있다.

유순애는 어린 시절 사월초파일에 배를 타고 용바위에 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용바위를 보러 가는 주민들을 실은 배가 떠나버리면 경정3리로 걸어서라도 용바위를 꼭 보고 왔다고 한다. 왜 사월초파일에 용바위를 보러 갔었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사월초파일은 용바위를 보러가는 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용바위를 보러 가서는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왔는데, 경정1리 주민뿐만 아니라 경정3리와 석리 주민들까지 모여들었기 때문에 장날 시장에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북적했다고 한다. 이균태와 이장수 등도 사월초파일에는 용바위 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상호, 이상진은 사월초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용바위에 배를 타고 놀러갔었다고 한다.

## 등 올리기



현재 뱃불 사람들은 초파일에 영명사나 경정3리에 있는 효심사 또는 마을에 있는 경정 유보살 댁에 가서 등을 올린다. 영명사나 효심사 모두 규모가 크지 않은 사찰이나 마을 사람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곳의 절에 자주 다닌다. 효심사가 창건된 지 8년 정도 지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절이지만 마을주민들 중의 몇 명이 효심사를 찾고 있으며 영명사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부터 경정1리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신앙장소가 되던 곳이다.

2008년 5월 12일 사월초파일을 맞아 영명사에는 경정1리 주민 20여 명을 포함하여 약 7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기도를 드렸다. 한쪽 가슴에는 절에서 나누어 준 조화 연꽃을 달았으며 기도는 10시 30분경 시작하여 11시 40분경까지 약 70분간 진행되었다. 기도가 끝나고 난 후 불자들은 요사채에 모여 식사를 하였고, 등을 올리고 자 하는 사람들은 일 년 동안 한 등에 5만원씩 불전을 내고 가족들의 이름으로 등을 올렸다. 기도 올린 공양물로 식사를 한 후에 대다수의 불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약 20여명의 불자들이 남아 저녁 7시부터 연등행사를 시작하였다.

연등행사는 등을 들고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대웅전 앞 탑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 주변과 절 입구 차도를 돌고 난 후 다시 절의 탑을 한 바퀴 돌면서 약 30분 만에 끝이 났다. 일부 마을주민들은 과거에 영명사에서 오전에 기도가 끝난 뒤 불자들끼리 어울려 춤추고 놀면서 오후를 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다불재를 넘어 마을에 들어와서 불을 켜 등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난 뒤에 등을 차에 실어서 영명사로 보냈다고 한다. 그들은 등불 행렬을 할 때의 풍경이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엄숙하지 않고 춤추고 노는 작은 축제와 같은 모



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등불 행렬이 비교적 경건하게 영명사 주변의 짧은 거리를 도는 것으로 간단하게 행사를 끝내고 있다.

마을에서는 보살 유순애의 집에서 사월초파일 행사를 하였다. 유순애는 약 10년 전부터 부처님을 모시기 시작하여 사월초파일에는 단골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2008년에도 유순애는 사월초파일 전부터 단골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먼저 4월 초하루부터 연등을 달아 두었으며, 본격적인 준비는 초파일 하루 전인 5월 1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오후부터 기도를 드리러 올 단골들에게 대접할 비빔밥을 만들 나물들을 삶아 준비해 놓았다. 나물은 장날인 5월 10일에 영해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저녁 무렵에는 미리 신청을 받은 단골들의 등을 마당에 내다 걸었다. 이 연등을 타고 부처님이 내려온다 하여 사월초파일 전날 또는 당일 아침 일찍 등을 걸어두는





5, 6. 연등행사  
7. 기도 후 요사채에서 식사 중인 불자들  
8, 9, 10. 유순애의 집등



것이라고 한다. 등은 포항에서 사왔는데, 등을 올릴 때 그 크기에 따라 단골들에게 10만원, 5만원, 3만원씩 받았다. 2008년에는 사월초파일에는 총 27개의 등이 걸렸다. 이 중 11개가 경정1리 주민이 단 등이고 16개는 영덕을 비롯하여 서울, 울산, 포항 등 외지에서 부탁하여 올린 등이다.

사월초파일 당일인 5월 12일에는 아침부터 단골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을에 있는 유순애의 친척들도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고 기도를 올렸다. 단골들이 신당으로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천수 바꾸기를 하였다. 불단에 놓인 7개 잔의 물을 새로 갈아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따라져 있던 물을 주전자에 지우고 밖으로 나와 버린 후 새 물을 길어 잔에 채워놓는 것이다. 천수를 바꿔놓은 후에는 향을 피우고 돈을 불단에 바친 후 절을 하였다. 절은 보통 7번을 하나 많이 하면 할 수

록 좋다고 하여 축원을 드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까지 많이 한다고 한다. 법당에서 기원을 마친 후 단골들은 비빔밥, 나물, 복실이떡<sup>01</sup>, 참외, 식혜 등으로 차려진 상을 받았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집에 돌아가거나 용왕당으로 축원을 하러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었다.

10시 50분에 유순애는 법의로 옷을 갈아입고 축원을 할 준비를 하였다. 공양밥을 지어 올리고 용단지 물을 갈아 놓은 후에, 목탁과 징을 두드리면서 단골들을 위한 축원을 올렸다. 단골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골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축원을 해주었다. 유순애 자신도 예전에 초파일이면 영명사로 연등을 올리러 다녔다고 한다. 영명사나 효심사를 비롯한 다른 절에 갔다 온 불자들도 마을로 돌아온 후 다시 치성을 드리기 위해 유보살 집에 들르기도 하였다.

오후 6시 20분 무렵에 유순애와 박종예가 용왕당으로 치성을 드리러 갔다. 용왕당은 예전부터 있던 샘물을 유순애가 당으로 만든 곳으로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 뒤편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 우물은 하얀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 놓았고 그 주위에 조그맣게 시멘트로 담을 둘러놓았다. 이곳에서 유순애는 종종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사월초파일과 동지에는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골들이 각자 자신의 등을 들고 용왕당까지 올라가서 등을 걸어놓은 후 함께 치성을 하였다고 하나, 마을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용왕당까지 따라가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용왕당에 도착하자 과일을 위주로 간단히 챙겨온 제물을 차려놓고 초에 불을 붙인 후 향을 쫓았다. 이후 우물을 덮어 놓았던 뚜껑을 열어놓고 나서 유순애는 가지고 온 하얀 칠성복으로 갈아입고 징을 두드리며 치성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치성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6시 30분부터 40분가량 지속되었다. 치성이 끝나자 쌀제비를 뽑아 박종예와 조사자에게 준 후, 제물로 올렸던 과일들을 조각내어 용왕당 옆에 헌식하였다. 용왕당에서 치성을 드리는 동안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고 화재를 예방하자는 방송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하였다. 초파일이라 여기저기서 연등을 켜고 치성을 드리면서 초를 켜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용왕당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자 몇몇 친척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간 상태였으며, 밖에 걸려있던 연등들도 모두 법당 안에 걸려 정리가 되어 있었다.

<sup>01</sup> 마을 주민들은 이 떡을 쌀가루에 콩을 넣어 복실복실하게 만들었다 하여 복실이떡이라 하였다.



1, 2, 3, 4, 5. 천수바꾸기(권련이)  
6. 공양올리기(유순애)  
7, 8. 축원  
9. 용왕당 차성







## 단오

경정 지역에서는 단오 아침이 되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궁궐이(궁궁이)를 머리에 꽂는 풍습이 있다. 현재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은 단절되었지만 단옷날에 궁궐이를 꽂고 다니는 여성들은 지금도 꽤 볼 수가 있다.

뱃불마을에서는 5월 단오를 ‘마지막 가는 명절’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이 농사를 많이 짓던 예전 시절에는 단오를 기점으로 하여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이 많아지므로, 단오가 마지막으로 실컷 놀 수 있었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왔던 것이다. 단오는 출지도 덤지도 않은 때라 놀기도 좋았거니와 이때가 지나면 추수 무렵까지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단오 때 아주 크게 놀았고 회상을 한다. 이처럼 과거 경정에서는 단오를 설과 추석에 버금가는 큰 명절로 여겨왔다. 현재는 예전처럼 큰 명절로 단오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정 사람들은 단오에 마을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 상을 올린다.

### 조상에게 상 올리기



5월 단오에 각 가정에서 아침을 먹기 전에 조상에게 상을 올리기도 한다. 이 날 조상에 상을 올릴 때는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지는 않고 밥, 콩나물과 무로 끓인 국, 생선, 나물, 술 등만을 올린다. 나물은 주로 미나리를 올리는데 조상에 상을 올리지 않는 가정에서도 단오가 되면 미나리를 꼭 장만하여 먹는다. 단오 때 먹는 미나리는 몸에 좋다고 하여 약미나리라고 하며, 주로 데친 미나리를 무쳐서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박종예는 단오인 6월 8일 아침 6시 30분 무렵부터 상을 준비하였다. 미나리는 구입을 하지 못하여 밭에서 딴 올롱도나물과 고춧잎나물을 장만하여 상을 차렸다. 생선은 히라스를 써서 올렸으며 김치도 함께 상에 올렸다. 이 외에 밥과 국을 올렸는데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와 남편까지 하여 총 7명의 조상에게 상을 올렸다. 증조모부터 부모까지는 큰 그릇에 밥과 국을 담았으며 숟가락 2개씩을 밥그릇에 꽂아두었으며, 남편은 혼자라 하여 좀더 작은 그릇을 사용하였다. 7시 무렵에 안방에 상을 차렸으며 술을 올린 후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상을 물렸다. 소지나 절 등은 하지 않는다. 상을 물리면서 숟가락으로 술 한 잔을 떠서 벽에 뿌리며 “할배 할매 오늘 단옷날이니 많이 잠수시소.”라고 하며 간단히 비손을 하였다. 그 후 마당에 술을 뿌려 헌식을 하고 차린 음식으로 아침을 먹었다.

유성종과 최태련은 8시 15분 무렵에 상을 놓았다. 박종예보다는 상을 간단하게 차려 밥, 국, 생선, 나물, 물, 술을 올렸다. 조상 전부에게 상을 올리는 것이라 하여 밥은 한 그릇만 올리는 것도 박종예와는 다른 점이다. 이 날 이댁 역시 미나리를 준비하지 못하여 배추와 콩나물을 섞어 나물을 마련했는데, 보통은 미나리 콩나물로 나물을 장만한다고 한다. 또한 생선은 통째로 올려야 하나 이 날은 2토막 정도만 올렸다. 8시 25분에 상을 물렸으며 역시 소지나 절은 하지 않고 바로 음복을 하였다.

1. 상차리기(박종예)
- 2,3. 조상상(박종예 집)
4. 조상상(유성종 집)
5. 조상상 물리기(유성종)



## 궁쟁이 꽃기

○ ● ○

경정 지역에서는 단오 아침이 되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궁쟁이(궁궁이)를 머리에 꽂는 풍습이 있다. 현재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은 단절되었지만 단옷날에 궁쟁이를 꽂고 다니는 여성들은 지금도 꽤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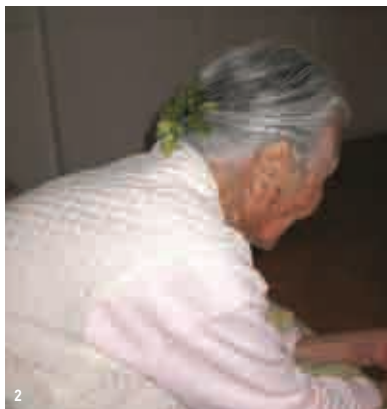
뱃불마을 여성들은 단오 무렵이 되면 온 산에 다니면서 쟁피(창포), 쭉, 칠기, 땃잎, 범부채, 수양버들, 궁쟁이, 인당굴 등 온갖 식물들을 뜯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단오 전날에 약 오르라고 마당에 널어 이슬을 맞힌 후, 단옷날에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이렇게 약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반들반들해지고 좋은 향이 났다고 하며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도 좋아졌다고 한다. 쟁피를 달여 머리를 감은 후에는 궁쟁이를 꽂았다. 궁쟁이는 산이나 들에서 뜯어오기도 하지만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하여 집 안에서도 많이들 키웠으며, 지금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집 안에서 궁쟁이를 키우는 집들이 있다. 2008년 단오에도 경로당에 모인 여자 노인들은 모두 머리에 궁쟁이를 꽂고 있었다. 이 궁쟁이는 각자가 뜯어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져와 모두 꽂았다고 한다. 할머니들 외 중년층에서도 단오 하루 동안 궁쟁이를 꽂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몇몇 볼 수 있었다.

궁쟁이는 머리에 꽂기도 하지만 방향제로도 이용한다. 궁쟁이를 뜯어 방안에 두면 일 년 내내 씩사름한 향이 지속되고 마를수록 냄새가 강해진다고 하여 이를 방향제로 이용하는 집들도 많다.

1. 궁쟁이  
23. 궁쟁이를 꽂은 마을 주민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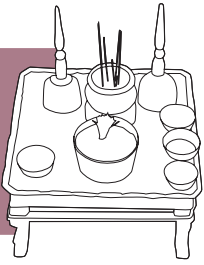
단오 무렵이 되면 쭈에 약이 올라 좋다고 하여 뱃불마을에서는 쭈이나 익모초를 베어 말려둔다. 이 무렵 쭈은 몸에 좋다고 하여 약쭈이라 하며 단오 전날이나 단옷날에 쭈을 베어 온다. 이 쭈은 단옷날 이슬을 맞혀 말리기도 하고 엮거리로 엮어 응달에서 바짝 말리기도 한다. 말린 쭈은 먼지가 오르지 않도록 종이에 꼭꼭 싸서 보관을 하거나 엮거리 채로 걸어두기도 한다.

이 말린 약쭈은 겨울이 되면 ‘쭈곰한다’라고 하여 대추를 넣어 고아 먹는다. 쭈곰은 특히 여성들에게 좋다고 하며 대추 이외에 호박이나 감초를 넣어 삶아 먹기도 한다. 이때 대추는 꼭 들어가야 하며 만약 대추를 넣지 않고 쭈만 고아 먹었을 경우에는 눈이 어두워진다고 한다.

김옥출은 약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코피가 날 때도 약쭈을 이용하여 코를 막고 생리통도 약쭈을 달여 먹어 치유를 한다고 한다. 또한 좋지 않은 꿈을 꾸거나 꺼림칙한 일이 일어나면 약쭈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 때는 먼저 소금을 밑에 놓고 고춧가루를 놓는다. 그리고 쭈땀을 할 때처럼 쭈을 비벼 덩어리를 만들어 그 위에 놓고 불을 붙인다. 김옥출의 사돈이 경정 옆 석리에서 석산에서 돌을 채취하는데, 여기서 큰 기계를 안칠 때에도 이렇게 양밥을 하였다고 한다. 기계를 설치하는 자리가 원래 묘터여서 오만 것들이 다 있다 하여 쭈, 소금, 고춧가루를 가져가 사방에 놓고 “허물없이 탈없이 하여주십사.” 하면서 빌었다고 한다.

약쭈





## 추석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찾은 출향민들의 자가용으로 마을 공터와 골목의 빈 자리가 조금씩 채워졌다. 이들은 갖가지 선물을 들고 고향을 방문하여 반갑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세시풍속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모습에서 크게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지만, 한편으로는 옛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삼는 추석은 중추절(仲秋節), 가배(嘉俳), 가위, 한가위 등으로 불리며, 신라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가배의 풍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경정1리의 추석 풍경은 여느 농어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조용하고 간소하게 보이지만, 과거 추석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기억은 현재의 명절 풍경과 비교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차례 상차림은 어촌의 특징을 일부분 나타내 주기도 한다. 추석 조사는 2008년 8월 26일(화), 2008년 9월 10일(수)과 2008년 9월 13일부터 2008년 9월 15일(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관찰과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추석 전에는 별초와 추석 장보기, 음식준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석날에는 마을의 대표 성씨의 종가(宗家)를 방문하여 차례 풍습과 가족 구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대우 가정의 차례와 김영대 가정의 차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경정1리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벌초를 일 년에 한 번, 추석에 하게 되는데 추석 전 시간을 내어서 하거나 추석날 차례 이후에 하게 된다. 벌초를 하는 날짜는 각 집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대우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음력 8월 초사흘날에, 김영대의 경우에는 음력 8월 초이렛날에 벌초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러나 세대가 내려갈수록 벌초를 중시하는 풍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벌초에 참석하는 가족인원이 줄어들고 벌초를 가는 날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우 집안의 경우 과거 벌초를 가는 날이 음력 8월 초사흘날로 정해져 있었으며, 날씨가 나쁘지 않는 이상 이 날 벌초를 다녀왔다고 한다. 또한 이대우의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다수가 이날에 벌초를 갔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마을 주민들 중 자녀들이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력 8월 초사흘날이 아니라 벌초를 가기에 좋은 날에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이대우 집안은 이번 추석 전 초사흘날과 추석 일주일 전 두 번에 걸쳐서 이대우의 아들 이상호와 이상진이 벌초 대행인과 함께 다녀왔다.

총 네 군데. 보름 전에 마을 종친 벌초, 일주일 전에 내 윗대 조상들 벌초가고. 그러가고 네 군데 가요. 장소가 다 다른데. 고조 위로는 안하고. 증조부, 조부까지 하는데, 증조부와 증조모는 마을 공동묘지 안에 있고, 석산 타고 가면. 조부, 조모는 석산 가기 전에 화이트하우스 거기 위에 산. 마을 종친 묘들은 석리에 두 군데 있고 창포에 한 군데 있고. 그러가지고 네 군데. (이상진)

현재 이대우 집안 벌초는 아들 이상호와 이상진이 모두 맡아서 하는데, 이대우는 연로하여 약 5년 전부터 벌초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대우 집안 조상의 묘는 증조 부모의 묘가 석산 공동묘지에, 조부모의 묘가 석산 화이트하우스 펜션 뒤에, 문중 묘가 창포에 한 군데, 석리에 한 군데가 있다. 결국 벌초를 가는 묘는 총 네 군데가 된다. 벌초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낮으로 했으나 작년부터는 제초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재작년까지는 낮으로 했어요. 부친께서 하신 말씀이 조상님이 주무시는데 기계소리 웅 나면 시끄럽다고 하지말라고 했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기계 쓰기 시작했어요. (이상진)

벌초가 끝나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다. 벌초를 한 후에 제사를 지내는 것



1. 고조묘 묘 별초(유영춘, 유영중)

2, 3. 고조묘 묘 별초 후 성묘(유영춘, 유영중)

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그 의미가 확대되어 10월 시제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대우의 집안에서는 10월 초이렛날에는 선산에 시제를 지내러 갔는데, 최근에는 음력 8월에 별초를 가면서 포와 삼실과를 두고 10월 시제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고 오는 것이다. 마을의 대부분의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대우 집안의 경우에도 이번 별초 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10월 시제는 지내러 가지 않는다고 한다.

김영대의 집안에서는 예전부터 별초는 음력 8월 초이렛날에 다녀왔다고 한다. 과거에는 별초를 가서 제사는 지내지 않고 10월에 시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대우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별초를 하고 그 자리에서 10월 시제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년에도 김영대의 집안은 추석 전에 어묵과 떡, 술을 사가지고 별초를 지내러 가서 별초를 끝낸 후에 제사를 지냈으며 10월 시제는 지내지 않았다. 별초는 집안 가족 몇 명이 모여서 다녀왔는데, 예초기 세 대를 사용했다.

요즘은 자손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 8월 초이렛날이면 추석보다 한 주 정도 이르다보니 별초를 하기 위해 고향을 찾기가 힘든 이유로 사람을 사서 하기도 하는데, 군에서 묘 하나당 7만원을 받고 별초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김영대의 의견에 의하면 경정1리에서는 아직 화장을 하는 경우가 도시에 비해 드문 편이라고 하는데, 화장을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장례 풍습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마을의 모습이다.

추석 의례는 본격적인 시작은 장보기와 음식준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추석은 양력 9월 14일이지만, 영해 5일장이 9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주민 중 많은 수가 9월 10일에 영해시장을 찾아 필요한 차례 음식 재료의 일부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9월 13일까지 주로 영해시장에서 필요한 음식 재료를 구입하였다.

유영춘, 김순자 부부는 9월 10일 영해장에서 필요한 과일과 탕국 재료로 쓸 쇠고기, 어묵 등을 구입하였다. 과일은 재래상인에게서 사과와 감을 구입하였고 쇠고기는 영해시장 맞은편 정육점에서 약간을 구입하였으며 어묵은 영해시장 내 상설상점에서 두 개를 구입하였다. 유영춘의 가족은 종가인 유영철의 집에서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간소하게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9월 10일에 구입을 못한 음식재료는 추석 전에 다시 구입을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장보기를 마쳤다.

9월 10일 영해시장은 발 디딜 틈이 부족할 정도로 추석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평소 주차공간으로 쓰던 공간도 이날만큼은 과일을 팔러 나온 재래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해 재래시장은 5일장으로 매달 5일, 10일에 장이 서지만 추석 전이기 때문에 9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매일 장이 선다고 하였다. 조사자는 유영춘, 김순자 부부를 따라 영해장을 찾았다가 정원조, 김창중 모자 등 추석 장을 보러 온 경정1리 주민을 여러 명 만났다.

추석 전날인 9월 13일 이대우의 아내 유복례는 아침부터 음식준비를 하였다. 밥을 제외한 모든 음식준비를 이날 마쳤는데, 아침 8시부터 유복례는 큰 솥에 생선을 넣고 찌고, 그동안 마루에서는 방앗간에서 갈아온 쌀가루로 유복례의 며느리와 손녀가 송편을 빚었다. 생선의 종류는 방어, 청어, 고등어이고, 떡으로는 절편과 송편을 했는데 송편은 집에서 만들지만 절편은 방앗간에서 찌운 것이었다. 송편 만들기가 끝난 후 마루에서는 전을 구웠다. 전은 명태전, 가자미전, 오징어전을 하였는데, 명태와 가자미는 장에서 사온 것이며 오징어는 마을에서 얻은 것이다. 오전 10시 40

1. 9월 10일 영해시장 모습  
2. 추석 차례 음식장보기(김순자)



분경 전을 굽는 일을 마지막으로 오전 음식 준비를 마쳤다. 오후에는 국을 끓이고 그 외에 차례 상차림에 맞는 음식재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아들 이상호, 이상진 형제가 별초를 다녀오면서 밤을 따왔는데 상에 올릴 것은 아니고, 상에 올릴 과일들은 모두 장에서 사온 것이다. 이대우의 집안이 대대로 어업을 주로 하였는데, 과거에는 생선을 많이 잡으면 말려서 모아 두었다가 제사 때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비해 차례상에 올리는 생선의 양과 종류가 훨씬 적어진 것이다. 지금은 생선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게 되는데, 많이 준비해봤자 다 먹지도 않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대우는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대로’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에 맞는 차례상 차림이라고 하였다.

김영대의 집안에서는 예전부터 차례상 생선으로 청어를 많이 올렸다고 한다. 올해 차례에는 방어와 고등어를 올렸으며 명태는 포를 올렸다. 이대우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생선의 수와 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식구수의 머느리들이 나누어서 준비하여 추석날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상을 차려왔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상차림이 간소화된 이유 중의 다른 하나는 새마을운동 당시 제사상 간소화 운동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장남의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음식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장남의 집에서 지게 되므로 과거에 김영대의 집안에서는 문중의 논을 장남이 관리하게 하였으며 차자(次子)들이 장남의 집에 돈을 모아서 주기도 했다고 한다.

1. 추석 전날 음식 장만(이대우)  
2. 생선찌기(이대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찾은 출향민들의 자가용으로 마을 공터와 골목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졌다. 이들은 갖가지 선물을 들고 고향을 방문하여 반갑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차례는 상차림, 순서, 방식 등이 가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추석날 오전 각 가정의 차례 지내는 모습을 관찰한 바를 기술하여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 이대우 가정의 차례

추석날 이대우의 집에서는 오전 7시를 전후하여 진설을 시작하고 일가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대우는 설, 정월대보름, 추석에 입는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이 옷은 5~6년 전 구입한 것으로, 경정1리 주민들은 최근 10~20년 사이에 명절 복장이 양복으로 서서히 변해왔다고 한다. 병풍은 이대우의 첫째 아들 이상호가 시장에서 약 1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조상함과 삼신단지가 모셔져 있는 곳에 병풍을 세워두었다. 제기는 평소 식사를 할 때 쓰는 그릇을 대신 썼다. 제사 때만 쓰는 나무 제기가 있는데, 꺼내어 닦고 쓴 후 다시 보관하는 것이 귀찮아서 쓰지 않은 것이다.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낫쇠로 된 제기가 있었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면서 낫쇠 제기를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낫쇠로 된 것은 낫대야만 남아 있다. 이대우가 결혼할 때 낫그릇 한 죽을 장만한 것으로 쌀 한 말이 들어간다. 주로 쌀을 보관하거나 담아두는 용도로 썼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서 행사나 놀이를 할 때에는 징을 대신해서 치고 놀기도 했던 것이다. 낫그릇을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꿀 때 낫대야만은 아까워서

1. 차례 올리기(이대우 가정)  
2. 추석 차례 복장(이대우)



1



2

바꾸지 않고 아직 보관하고 있다.

이대우의 집안의 차례는 오전 7시 33분에 시작하였는데, 진설과 분향강신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다. 차례 순서는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다르다.

#### ● 이대우 가정의 추석 차례 순서

- ① **진설, 분향강신** 조상함과 산신단지가 모셔져 있는 곳에 병풍을 놓고 음식을 차리며 병풍은 조상함과 산신단지가 모셔져 있는 벽면에 둔다. 이대우의 아내 유복례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맏아들 이상호와 막내아들 이상진이 상에 올렸다. 이대우는 항을 피우고 잔에 술을 따른 후 퇴주그릇에 버린다. 이대우는 “편안하게 많이 잡수시고 복 많이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원다. 이 때 나머지 가족, 친지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히 앉아 있었다. 이후 차례를 지내겠다는 것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리면서 모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경건하게 차례상 앞에 선다. 제주인 이대우와 집사인 이상호, 이상진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거실에서 차례를 올렸다.
- ② **참신** 전원 두 번 재배를 한다.
- ③ **초헌** 제주인 이대우가 첫 잔을 올리고 이대우 혼자 재배한다. 이 때 국에 숟가락을 두고 어적에 젓가락을 둔다.
- ④ **헌다** 국을 물로 바꾸고 밥을 물에 세 번 나누어 만다.
- ⑤ **침작** 술을 세 번에 나누어 침작을 하고, 전원 절을 한 번 한다.
- ⑥ **사신** 숟가락을 모두 물리고 잔에 있던 술을 퇴주그릇에 버린 후 전원 재배를 한다.
- ⑦ **철상**
- ⑧ **음복**

#### ● 이대우 가정의 과거 명절 차례 순서

- ① **진설**
- ② **분향강신**
- ③ **참신** 전원 두 번 재배한다.
- ④ **초헌** 이대우가 첫 잔을 올리고 혼자 재배한다.
- ⑤ **아헌** 국에 두었던 숟가락을 밥에 두고 친척 중에 이대우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두 번째 잔을 올린 후 혼자서 재배한다.
- ⑥ **종헌** 사위가 오면 세 번째 잔을 사위가 올린다. 사위가 없을 경우에는 아헌을 올린 사람 다음으로 이대우와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세 번째 잔을 올린 후 혼자 재배한다.
- ⑦ **헌다** 국을 물로 바꾸고 밥을 물에 세 번 나누어 만다.
- ⑧ **침작** 술을 세 번에 나누어 침작을 하고, 전원 절을 한 번 한다.
- ⑨ **사신** 숟가락을 모두 물리고 잔에 있던 술을 퇴주그릇에 버린 후 전원 재배를 한다.
- ⑩ **철상**
- ⑪ **음복**

2008년 추석 차례에서는 과거 차례 순서에 비해 간략하게 진행되었는데, 시간을 당기기 위해 침작을 초헌 다음에 바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가인 이대우의 집에서 차례를 지낸 후에 친척들이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차례를 지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 종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차례를 지낼 때는 아침을 먹지도 못하고 오후까지 기다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대우가 결혼한 후에 종가에서 차례를 먼저 지내는 것이 순서상 맞는다고 주장하였고 집 안 친척들이 모두 동의하여 현재까지 이대우 집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있다.

### 김영대 가정의 차례

김영대는 김해김씨 안경공파 47대손으로 경정1리에서 나서 자랐다. 형제는 김영대를 포함하여 두 명뿐인데, 김영대의 동생 김영학은 경정교회 집사로 있어 명절 차례와 집안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이번

김영대 집안 차례 지내기



추석날에서는 13년 전 환갑 때 마련한 한복을 입었으며 차례를 지낼 때 쓴 정자관은 몇 년 전 영덕 복사꽃 축제 때 1만 5천원을 주고 산 것이다. 이 정자관은 총 8개를 구입하여 그 해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가족들이 8개 모두 나누어 쓰고 제사를 지낸 적도 있다고 하였다.

차례 음식은 족보를 보관하고 있는 방에 차렸으며 병풍은 족보를 둔 벽 쪽으로 두었다. 이 병풍은 약 30년 전 전라도에서 온 상인에게서 8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병풍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제기는 목기이며 역시 약 30년 전에 산 것이다.

과거에 집안의 가족이 많을 당시에도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어른들은 방에서 지내고 그 외의 성인들은 마루에서 지냈으며 더 어린 경우 마당에서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가족들 중 일부가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다 보니 제사나 명절에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과거에 비해 가족의 수가 줄어들어 방에서는 김영대와 집사가 지내고 나머지는 모두 마루에서 지내고 있다.

김영대의 집에서는 차례상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과거에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기제사는 상을 두고 음식을 놓지만 명절 차례는 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들어왔고 집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기제사를 지낼 때는 상에 초를 켜지만 명절 제사에는 초를 켜지 않는다고 한다.

술은 막걸리와 경주 법주를 썼는데, 초헌과 아헌은 막걸리를 쓰고 경주 법주는 종헌을 할 때만 올렸다. 이번 추석 차례에는 소주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소주나 청주를 쓰기도 한다.

#### ● 김영대 가정의 추석 차례 순서

##### ① 진설

② **분향강신** 제주인 김영대가 분향하고 술을 따랐다가 퇴주그릇에 비운 후 전원 재배한다.

③ **초헌** 제주 김영대가 술을 받아서 올린 후 혼자 재배를 한다.

##### ④ 계반삼시

⑤ **아헌** 김영대의 사촌 동생이 술을 받아서 올린 후 혼자 재배를 한다.

⑥ **종헌** 그 날 모인 사람 중 김영대와 사촌 동생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술을 받아서 올린다. 이번에는 김영대의 육촌 동생이 올렸다. 초헌과 아헌에는 막걸리를 올리지만 종헌에는 경주 법주나 청주, 소주 등을 올린다. 이번 추석에는 경주 법주를 올렸다.

⑦ **국궁** 모두가 선 상태에서 잠시 동안 머리를 굽힌다.

⑧ **헌다** 국을 물로 갈고 밥을 퍼서 물에 세 번 만다.

⑨ **침작** 젓가락을 건어에 놓고 침작한다. 제주 김영대가 침작 후 전원 재배를 한다.

##### ⑩ 철상

##### ⑪ 음복



## 유영철 가정의 차례

### ● 유영철 가정의 추석 차례 순서

#### ① 진설

② **분향강신** 분향하고 술을 따랐다 뒤주그릇에 비운 후 전원 재배한다.

③ **초헌** 종손인 유영철이 술을 올리고 혼자 재배를 한다.

④ **아헌** 유영춘이 두 번째 술을 올리면서 두 손을 깎지를 꺼서 집사가 술잔을 올리는 동안 바깥쪽에서부터 몸 쪽으로 한 번 둥글게 팔을 만다. 이것은 차려 놓은 음식을 많이 드시라는 의미라고 한다.

⑤ **중헌** 유복태가 세 번째 술을 올리면서 두 손을 곱게 모아 유영춘과 같은 의미의 행동을 한다.

⑥ **계반삼시** 메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꽃았으며 젓가락은 탕에 올렸다. 이후 전원 한 번 절을 하였다.

⑦ **헌다, 첨작** 나물을 빼고 국을 물로 비꾼 후에 물에 밥을 세 번 말았다. 숟가락은 빼서 물에 두 고 메 뚜껑을 반쯤 닫는다. 곧바로 첨작을 했는데, 종손인 유영철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모은 채 안으로 둥글게 마는 행동을 하는 동안 집사가 첨작을 하였다.

⑧ **철시복반** 수저를 빼고 메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 전원 재배한다.

#### ⑨ 철상

#### ⑩ 음복

## 각 가정의 차례 상차림 비교

### • 이대우 가정

신위를 따로 두지 않았고, 병풍을 조상함과 산신단지를 모신 벽면에 두어 그 방향으로 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열에는 어적, 어전, 떡, 포를 두었고, 2열에는 메와 탕, 물, 술잔을 두었다. 3열에는 과일을 두었는데 우측에서부터 대추, 밤, 감, 사과, 배, 포도, 수박을 두었다. 상 위에 초를 한 개 켜 두었고, 상 앞에는 향합과 뒤주그릇을 놓았다. 좌측에는 삼신상을 차렸는데, 1열에 메, 국, 물, 술잔을 두고 2열에 우측에서부터 대추와 밤, 감, 사과, 배를 두었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 • 김영대 가정

신위를 따로 두지 않았고, 병풍을 족보가 있는 벽면에 두어 그 방향으로 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족보와 함께 삼신단지를 보관하였다. 1열에는 좌측에 어적, 어전을 두었고 우측에 송편, 어포를 두었으며 가운데 메와 탕, 물, 술잔을 두었다. 2열과 3열에는 과일을 두었는데, 메의 수에 맞추어 대추와 밤, 감, 사과, 배를



1. 차례상(이대우 가정)
2. 차례상(김영대 가정)
3. 차례상(박홍균 가정)
4. 차례상(김천권 가정)
5. 차례상(이인균 가정)
6. 차례상(유영철 가정)

세 개씩 놓았고, 그 외에 바나나, 오렌지, 키위, 포도, 한과를 두었다. 가장 앞쪽에는 향합과 퇴주그릇을 놓았다. 술은 초헌과 아헌에는 막걸리를 쓰고 종헌과 첨작에는 경주 법주를 썼다. 삼신상은 따로 차리지 않았다.

#### • 박홍균 가정

신위를 두지 않고 족보를 보관하고 있는 방에서 족보 방향으로 절을 올렸다. 1열에는 떡, 어적, 오징어포, 메, 탕(물로 갈고 난 후 2열로 옮김), 물, 술잔을 두었고, 2열에는 어전, 숙채, 삶은 달걀을 두었으며, 3열에는 좌측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 사과, 바나나, 포도를 두었다. 상을 두 개 붙여서 두 상의 상차림을 같도록 하였다. 상의 가장 우측에는 초를 하나 켜 두었다. 상 앞 쪽에는 향합과 퇴주그릇을 두었고, 술은 막걸리를 올렸다. 삼신상은 차리지 않았다.

#### • 김천권 가정

신위를 두지 않고 안방에서 차례를 지냈다. 1열에는 어적과 떡, 메, 탕, 물을 두었

고, 2열에 어전, 어포, 술잔을 두었다. 3열에는 우측에서부터 대추, 밤, 감, 사과, 배, 포도, 꼬치를 두었다. 상 앞에는 향을 피우고 퇴주그릇을 두었으며 상 우측에 삼신상을 따로 차렸다. 삼신상에는 메, 나물국, 떡, 포도, 술, 대추, 밤, 감, 사과, 배를 올렸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 • 이인균 가정

신위를 두지 않고 족보를 보관하고 있는 방에서 차례를 지냈다. 1열에는 좌측에 어적, 우측에 떡을 두고 가운데에 메, 당, 물, 술잔을 두었고, 2열에는 어전과 어포를 두었다. 3열에는 우측에서부터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굴, 키위, 참외, 포도, 옥수수, 수박을 올렸다. 상 앞 쪽으로 향합, 퇴주그릇, 초 두 개를 두었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하였으며 삼신상은 따로 차리지 않았다.

#### • 유영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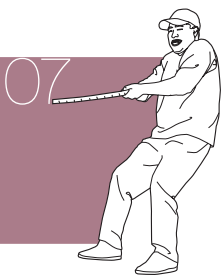
신위를 두지 않고 안방에서 차례를 지냈다. 1열에는 어적과 떡을 놓았고, 2열에는 메, 당, 물, 바나나, 오징어포, 문어를 두었다. 그 앞에 막걸리 잔과 청주 잔을 각각 한 개씩 놓았으며 어전, 수박을 두었다. 마지막 열에는 좌측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 사과, 포도, 참외, 굴을 한 쌍으로 두 번 놓았다. 상 앞에는 향합과 모사기를 두었고, 상 우측에는 삼신상을 차렸는데 메, 물, 오징어포, 대추, 밤, 감, 배, 사과를 올렸다.

## 마을 풍경



추석이 가까워오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들이 마을 앞 강축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었다. 추석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진 승용차의 수가 추석날에는 마을 앞 공터를 빼곡히 메울 정도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고향을 찾는 출향민들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기름 값의 인상이 고향 방문에 대한 부담을 높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았다.

추석 연휴 방파제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어울려 곳곳에 술자리가 펼쳐졌다. 저녁이 되자 폭죽을 터트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이상진의 경우처럼 동창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에서 자라 같이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명절이 되어야 고향을 찾기 때문에 동창회를 명절을 맞아 하는 것이다.



##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폐회식의 한 부분이었던 만세삼창 중 마지막 '경정분교 만세'라는 부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번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의 가을운동회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운동회였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 가을운동회가 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농어촌 마을에서 학교 운동회는 학교와 학생만의 잔치를 넘어서는 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학교가 아닌 마을이라는 보다 큰 단위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특히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학교 운동회가 아닌 마을 운동회 또는 마을 잔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경정인의 체육한마당'이라는 운동회 표어에서도 그러한 면이 드러난다. 과거에 이 학교의 학생수가 100여 명 이상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마을 가을운동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수도 줄었을 뿐더러 9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징어 건조 작업으로 한창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느끼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와 20여명의 마을 노인들이 참석하여 마을 축제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초등학교들의 운동회가 재롱잔치를 보는듯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에 더해 상품으로 얻는 생활용품은 가게에도 보탬이 돼 운동회 참석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운동회는 개회식과 본 프로그램,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 40분 경 끝났다. 개회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대회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준비체조, 선수 퇴장 순이었으며, 폐회식은 선수 입장, 정리체조, 성적 발표, 대회장 강평, 교가 제창, 만세 삼창,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종목과 시간은 표와 같다.

이번 운동회는 초등학교생 1~6학년 총 14명과 병설유치원생 5명을 더해 총 19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학부모와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운동회의 프로그





1



2



3



4



5



6



7



8



9



10



11

1. 가을운동회 전경
2. 가을운동회에 참석한 마을 노인들
3. 가을운동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
- 4, 6. 운동회에 참가한 마을 노인들
5. 운동회에 참가한 학부모들
7. 학생들
8. 마을주민 상품
9. 학생 상품
10. 운동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 주민들

[표 1]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 가을운동회 프로그램

순서	경기명	진행 시간	학년	장소	구분	지도교사
1	내가 제일 빠르죠?	10:30 ~ 10:37	전교생	트랙	개인	이종윤
2	탱탱공을 잡아라~	10:38 ~ 10:44	전교생	필드	단체	최은정
3	장애물 달리기	10:45 ~ 10:51	전교생	트랙	개인	이종윤
4	우리 동네 갈증해소	10:52 ~ 11:03	전교생	필드	단체	김수배
5	노인경기(투호놀이)	11:05 ~ 11:09	노인	필드	단체	김수배
6	손님찾기	11:10 ~ 11:17	전교생학부모	트랙	개인	김은혜
7	학부모 개인 달리기	11:18 ~ 11:28	학부모	트랙	개인	이종윤
8	호떡 뒤집기	11:30 ~ 11:34	전교생	필드	단체	김은혜
9	줄넘기 공연	11:35 ~ 11:44	3~6학년	필드	단체	이종윤
10	줄다리기	11:45 ~ 11:54	전교생학부모	필드	개인	이종윤
11	박터트리기	11:55 ~ 12:00	전교생	필드	단체	최은정
12	점심식사 (12:00 ~ 13:00)					
13	헤이 마키!(무용공연)	13:05 ~ 13:16	유치부, 1~2학년	필드	단체	최은정
14	학부모 놀이마당 (웃놀이, 제기차기, 훌라후프)	13:18 ~ 13:34	학부모	필드	단체	전교직원
15	투호놀이	13:35 ~ 13:44	전교생	필드	단체	이종윤
16	짝 줄넘기 대회	13:45 ~ 13:51	전교생학부모	필드	단체	이종윤
17	지역주민 이어달리기	13:52 ~ 13:59	학부모	트랙	단체	김수배
18	출발 OX 퀴즈	14:00 ~ 14:09	전교생학부모	필드	단체	김수배
19	학생이어달리기	14:10 ~ 14:21	전교생	트랙	단체	이종윤

램 중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기 있어 참석자들도 같이 어울리는 운동회가 되었다. 운동회 경기에 참가한 학부모와 주민들에게는 식용유, 세제, 비누, 치약, 부침가루 등을 상품으로 나누어주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게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운동회는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였다. 축산향초등학교 교장 손병률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영택 축산향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최영식 군의회 의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준비체조<sup>02</sup> 등으로 개회식을 진행하였다. 교장의 시총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오전에만 11개의 경기를 펼쳤다. 그 중에서 네 경기는 학부모와 마을 주민이 참가하는 경기였다. 운동장 앞쪽 천막에는 두 개의 천막이 있어 그늘을 피할 수 있었는데, 남쪽 천막에는 교사와 군내 단체장 및 위원이 앉았고 북쪽 천막에는 마을주민과 학부모들이 앉아서 음식과 술, 음료 등을 먹고 마시며 운동회를 즐겼다.

12시 정각부터 오후 1시까지지는 점심시간이었다. 마을주민과 교사들은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부모들이 준비해온 음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총 7개의 경기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7개의 경기 중 4개의 경기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기였으며, 이후 정리체조, 만세삼창, 폐회사를 끝으로

<sup>02</sup> 준비체조는 새천년건강체조로 군국주의 유산인 군대식 체조 및 정형적인 동원형 체조를 탈피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999년 11월 전통음악과 춤, 무예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국민체조 대신에 이 새천년건강체조를 체육시간 준비체조로 사용하고 있다.

운동회의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그 중에서도 만세삼창은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되었는데, 한경섭 경정1리 이장의 선창으로 모든 학생들이 “대한민국 만세, 경상북도 만세, 경정분교 만세!”를 외쳤다. 폐회식 이후 학생들은 학교 전에 영덕 예주로타리클럽에서 준비한 전자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고, 학교 건물 뒤편에서는 학부모들 중 일부가 모여 뒤풀이를 한 후 헤어졌다.

폐회식의 한 부분이었던 만세삼창 중 마지막 ‘경정분교 만세’라는 부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번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의 가을운동회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운동회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회이자 마을운동회로서 역할을 유지하던 가을운동회가 다음해부터는 축산면에 위치한 본교에서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지 않은 마을 주민의 경우에는 참석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오던 학교와 학교운동회는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7 | 일생의례

백일과 돌  
혼례  
상례  
제례





## 백일과 돌

과거와는 달리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돌잔치를 치르는 경우는 드물고 식당을 빌려서 하거나 집에서 하더라도 출장뷔페를 불러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일과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는 날과 첫 생일이 되는 날 지내는 육아의례의 하나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백일잔치와 돌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경정1리에서도 최근 들어 백일 잔치와 돌잔치를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는데, 특히 100일 잔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잔치 때에는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불러 치르거나 백일 잔치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가까운 친지 몇 명이 모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최대한 간단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2008년 5월 27일 박수남의 손녀 박수빈이 백일을 맞았다. 낮에는 음식을 차려 마을 주민 중에 박수남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고 저녁에는 평소에 박수남과 친하게 지내는 중장년층의 마을 주민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였다. 준비한 음식은 쌀밥, 미역국, 불고기, 잡채, 튀김, 밀반찬, 과일, 떡 등이었다. 과일은 포도, 참외, 사과, 귤, 키위였고 떡은 백설기와 보리떡을 준비하였다. 백설기는 정결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과거부터 백일잔치 음식으로 먹었던 것이다.

돌잔치는 음식 준비나 초대 손님의 수, 잔치 풍경 등을 볼 때 백일잔치보다 크게 치러진다. 각 사례별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돌잔치의 풍경을 알 수 있었다.

## 안예원 돌잔치

2008년 5월 4일에 안병군의 집 앞 마당에서 안병군, 박지영 부부의 딸 안예원의 돌잔치가 있었다. 안병군은 2004년부터 경정1리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고향은 부산이다.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의 누나인 안미영의 남편 정영택이 경정1리에 오징어건조공장을 하러 들어온 후, 안병군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이다. 가족은 부인 박지영과 아들 안성준, 딸 안예원이 있다. 아들은 경정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잔치를 한 안예원과 7살 차이가 난다. 안예원의 태몽은 고모인 안미영이 꾸었는데 복숭아를 본 꿈이라고 한다.

돌잔치는 마을분들과 친지들을 불러 집 앞 공터에 음식과 돌상을 차려 치렀으며, 음식은 포항에서 뷔페를 불렀다.<sup>01</sup> 사진은 4월에 포항 사진관에 가서 미리 찍었으며,<sup>02</sup> 이 때 찍은 사진의 일부를 앨범으로 만들어 돌잔치 장소에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다. 과거와는 달리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돌잔치를 치르는 경우는 드물고 식당을 빌려서 하거나 집에서 하더라도 출장뷔페를 불러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예원은 이날 흰색 원피스로 돌복을 입었고, 아버지인 안병군은 양복을, 어머니인 박지영은 흰 바지에 붉은색과 흰색 등의 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었다.



1. 돌잔치기념 현수막과 돌상  
2. 미리 찍어둔 사진집

하객들을 위한 식사는 12시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뷔페식으로 마련된 식사는 집안에 준비가 되었다. 식사 장소인 집 앞 공터에는 천막을 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했다. 공터에 마련한 자리가 부족하자 집과 이어져있는 오징어 냉동 창고 앞에 자리를 깔고 테이블을 놓아 여분의 좌석을 만들었다. 축하객들을 위한 테이블 앞쪽에 음식을 주문한 업체에서 간단한 돌상을<sup>03</sup> 만들었고, 그 뒤로는 '안예원 첫돌잔치'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걸었다. 식사장소로 들어오는 한쪽 코너에는 앨범과 함께 돌 사진 중 몇 장을 골라 엽서로 만들고, 하객들에게 방명록 대신 덕담을 한마디씩 적어 주기를 부탁하여 평생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하객들이 가져온 축하선물은 현금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옷과 돌반지 등이었다.

<sup>01</sup> 음식은 1인분에 16,000원에 주문을 했으며, 100인분을 시켰다. 돌상차림 비용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sup>02</sup> 돌 사진은 4월 16일 가족이 모두 함께 포항에 나가 촬영을 하였으며, 앨범 이외에 엽서, 액자 사진 등 다양한 종류로 만들었다. 안예원의 부모가 마을에서는 비교적 젊은 세대이고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신 문화에 익숙한 편이다. 가족사진 촬영은 예원 엄마가 가슴에 하트가 그려진 반소매 셔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가족이 모두 입고 찍었다.

<sup>03</sup> 돌 상에는 수박,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케익 등이 차려졌으며, 백설기 대신 무지개떡과 목숨수(壽司)가 두 개씩 들어가서 수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의 수수떡이 함께 올려졌다. 앞열에는 꽃 장식을 하였으며, 그 뒷열에는 모형으로 된 대추와 밤, 과자고임을 놓아서 간소화된 돌상의 형식을 갖추었다.



1. 축하객들의 식사



2

2. 돌잡이에서 공책을 접은 안예원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안예원의 아버지인 안병군이 하객들에게 간단한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sup>04</sup> 이어서 ‘돌잡이’가 이어졌다. 식사를 주문받은 업체에서 돌잡이 물건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급히 집에 있는 것들로 상을 차렸다. 상 위에는 마우스, 돈, 볼펜, 실, 공책, 연필, 카세트테이프가 올려졌다.<sup>05</sup> 안예원은 돌잡이 상위에 앉자마자 공책을 잡았다. 그러자 안병군은 내심 공책을 잡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흐뭇해하면서, “아입니다. 제가 공책 잡는 거 연습시킨 적 없고예. 지 오빠 공부하는 책이랑 이런 거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더… 절대로 지가 시킨 거 아닙니다.”라고 하객들에게 말하였다. 공책을 잡은 안예원에게 돈을 건네줘 보았지만 잠시 들고 쳐다보다 다시 공책을 잡아 공책이 확실하게 원하는 물건임을 보여주었다. 하객들 중에서는 돌잡이가 시작하려는 순간 상위에 술병을 올려, 다른 하객들이 한참 동안 웃기도 하였다. 돌잡이가 끝나자 앞에 차려진 돌상에 케이크를 올리고 촛불을 켜 후 가족사진을 찍는 순서가 이어졌는데, 먼저 안병군, 박지영, 안예원 셋이서 촬영을 하고 다음으로 안예원 오빠인 안성준까지 함께 전 가족이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예원이 독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불안했는지 계속 엄마를 찾아서 다독여가며 촬영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04 ‘비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예원이 이쁘고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많이 하시고, 입구에 준비된 업서에 덕담들 한 마디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05 돌잡이의 의미는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상 위에 올려지는 물건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으며, 안예원의 돌잡이 상에서도 변화되는 돌풍습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마우스는 정보화시대인 만큼 컴퓨터 전문가나 공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 것이며, 카세트테이프는 가수나 연예인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에게 인기를 얻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집에 따라서는 돈 대신에 신용카드를 놓기도 하고 카세트테이프 대신 마이크를 올리기도 한다. 돌잡이의 본래 의미가 아이가 잡는 물건으로 장래를 점쳐보는 것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돌잡이 물건들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돌상은 치워졌고, 안예원의 부모인 안병군, 박지영 부부는 식사를 하고 있는 하객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하객들은 안예원에게 ‘예쁘게 잘 자라라’는 덕담을 해주었다.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서는 지방에 있는 안병군의 가족들이 도착하면서 점심식사를 거의 마친 마을 주민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하고 친지들의 잔치로 이어졌다.

돌아가는 하객들에게는 선물로 준비한 화분을 기념으로 주었는데, 이 또한 새로운 답례문화라고 볼 수 있겠다. 마을 주민, 가족, 친지들 외에 안병군의 예전 직장 동료들도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었고, 오후 3시가 넘어서 식사자리가 정리되면서 돌잔치는 마무리되었다.



## 이준희 돌잔치

**이준희 돌잔치** 2008년 7월 26일은 이상호의 아들 이준희의 돌이 마을 경로회관에서 있었다. 10시 30분경 마을 강축도로에서 이준희와 이준희의 할머니 유복례를 만났다. 유복례의 집에서부터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집에서 경로회관까지의 거리가 약 300~400m 정도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이준희에게는 걸어가기에 꽤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손을 잡고 경로당까지 걸어갔다. 이준희는 돌복으로 한복과 새 신을 신었다. 유복례는 이준희가 돌이 다가오는데도 걷지 못해 우려를 했으나 다행히 돌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걷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하객들은 11시경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11시 30분경부터 식사를 시작하  
였는데, 돌잔치 음식 준비는 포항 신세계출장뷔페에서 하였다. 돌잔치 상과 돌잡  
이 때 필요한 돌잡이 물건도 뷔페에서 준비하였는데, 돌잔치 상은 음식 준비와는  
별도로 20만원이 들었다. 일부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경로회관 앞마당에는  
하객 중 일부가 모여서 인사를 나누었다. 이준희의 어머니가 베트남인이기 때문  
에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 10여 명도 축하를 위해 찾아왔다. 마을  
회관 가운데 방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남자 노인 방에는 돌잔치 상이 준비  
되어 있었으며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였다. 여자 상노인 방인 가운데 방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 상노인들은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여자 중  
노인은 여자 중노인 방인 왼쪽 방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자리가 없는 경우  
남자가 여자 방에서 여자가 남자 방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오후 1시경 가장 많은 수의 하객들이 모였고, 1시 30분에 돌잡이를 시작하였다. 출장뷔페 직원 두 명 중 한 명의 사회로 돌잡이가 진행되었으며, 이상호의 소감으로 돌잡이를 시작하였다. 이상호는 “준희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준희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이준희의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이다보니 한국어가 서툴러서 소감을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축하 노래를 하객과 다같이 불렀다. 이윽고 사회자가 돌잡이 시작을 알리면서 돌잡이가 시작되었는데, 사회자가 “부모님들은 준희가 무슨 물건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보자 아버지는 ‘연필’이라고 대답하고 어머니는 ‘money’라고 대답하였다. 돌잡이는 돌잔치 상 앞에서 보자기를 깔고 진행하였고, 이준희가 앉는 쪽 보자기의 모서리는 접어서 이준희가 하객들 쪽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객 중 안병군이 웃음을 주기위해 소주병도 갖다 놓았다가 다시 뺐고, 다른 하객이 ‘마우스는 없냐’고 물어보자 사회자가 ‘마우스도 있으면 놓을 텐데 없어서 못 놓았다’고 대답하였다. 돌잡이 물건 중 돈은 사회자가 이준희의 할머니인 유복례에게 받아서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돌잡이 물건은 돌잡이를 시작할 때 이준희를 기준으로 가운데 먼 쪽에 공책이 있고 그보다 가까운 곳에 연필이 있었으며 왼쪽에는 실타래, 오른쪽에는 돈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군가가 돈과 연필의 위치를 바꾸어 돈이 이준희의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다. 하객들은 “돈 잡아라.”, “연필 잡아라.” 등 준희에게 한 마디씩 하였다. 하지만 이준희가 가만히 서서 물건을 집지 않자 하객 중 한 명이 “아를 앞에 앉혀라.”라고 조언하였고 이준희를 돌잡이 물건들 앞에 앉게 하였다.

이준희가 처음에는 돈을 잡았다가 금방 놓고 일어서자 다시 앉혔고, 다시 돈을 잡아들자 하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였다. 직원이 “준희가 돈을 잡았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돌잡이가 끝이 나고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진 촬영은 이준희와 이준희의 부모가 가장 먼저 찍고 다음으로 조부모가 함께 찍었으며, 이준희의 삼촌인 이상진과 친구들, 이준희의 누나 이민희와 부모 순서로 찍었다. 돌잡이가 끝나고 3시가 넘어서도 하객들이 계속하여 찾아왔고 오후 4시 30분경 돌잔치가 마무리되었다.

## 이상명 · 이수영 돌

2008년 9월 17일은 이철우 · 이우순 부부

의 이란성 쌍둥이 자녀 이상명 · 이수영의 돌이었다. 백일과 돌을 간소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추석 3일 이후이다 보니 음식 차림이 더욱 간단했는데, 미역국 외에는 특별히 음식 장만을 하지 않았고 과일은 추석에 사두었던 것을 썼다.

이철우의 집 안방에는 한쪽 벽에 선반을 설치해놓고 족보와 이철우의 아버지,

조부모, 증조부모의 사진을 두었는데, 그 밑에 상을 놓고 밥과 미역국, 과일만을 차려서 쌍둥이 자녀의 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제사를 올렸다. 그 후에는 이철우·이우순 부부와 이철우의 어머니, 돌을 맞은 쌍둥이 남매가 아침식사를 한 후 케이크를 잘라 먹었다.

오후에는 아침에 식사를 했던 가족과 이철우의 친구들, 이철우의 동생 부부, 이철우의 누나가 모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조용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쌍둥이 자녀의 돌이라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았으며, 돌잡이도 하지 않고 저녁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원주에 있는 사진관에서 돌 사진을 찍었다. 이철우가 과거에 원주에서 물리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쌍둥이 자녀의 첫 사진을 찍었던 곳이 원주의 한 사진관이었고, 그러한 연유로 이번 돌 사진도 원주에서 찍었다고 한다. 이상명과 이수영 쌍둥이 남매의 돌은 이상호의 아들 이준희의 돌과는 대비되게 극히 간소하게 치렀는데 돌잔치를 치르는 최근의 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신부의 집에서 하던 전통혼례의 풍습은 약 40여 년 전부터 결혼식장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현대식으로 하고 있다. 경정1리에서는 특징적으로 일종의 피로연의 의미로 결혼식을 하기 전날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은 이날 축하를 하는 전통이 남아 있다.

## 전통혼례

● ○

경정1리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대례를 전통혼례의 형식에 맞게 치른 혼례가 있었으나, 전통혼례의 전 과정에 맞추어 결혼을 한 경우는 적어도 30년 이상 전의 일이었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결혼 당시 대다수가 신랑은 경정1리 주민이고 신부는 경정1리 또는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중매 또는 짧은 연애키간을 거쳐서 결혼을 하였다. 많지는 않지만 다른 군이나 도에서 시집을 온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중매를 해서 만난 경우이다. 한 마을에서 자라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에는 짧은 연애키간을 가진 경우도 있으나 중매로 만났거나 집안의 어른들끼리 혼인 서약을 한 경우에는 결혼 전에 서로의 얼굴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짧게 만난 경우도 더러 있다. 유순애에 의하면 경정1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주민들의 수가 많고 어촌마을 중에서 비교적 큰 마을에 속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끼리 혼인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전통혼례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서 기억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의혼 - 납채 - 납폐 - 대례 - 신행 및 폐백의 순서로 혼례를 치렀다. 전통혼례의 절차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다르고 설명이 자세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전통혼례를 치르는 당사자들은 부모들에 비해 혼인 절차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의혼은 결혼을 할 나이가 된 자녀를 둔 부모가 혼사를 의논하고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혼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을 마



을 주민들은 ‘초편지’라고 불렀다. 이것을 받은 신부 집에서는 허혼 편지를 신랑 집으로 보내게 된다. 궁합은 양가에서 각각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중매를 선 사람이 궁합을 보고 양가에 알려주기도 하였다.

신랑의 사주를 신부에게 보냄으로써 본격적인 혼인 준비를 하는데 이를 납채라고 한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먼저 사주를 보내는데, 사주를 받으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여장지라고 하여 서로의 이름과 혼인 서약 등을 참종이 적은 것을 혼인 후에 농 밑에 넣어두는데, 이것은 두 장이 있어서 부부 중 한 명이 죽으면 여장지 한 장을 옷 안에 넣어준다. 이것은 저승에 가서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위한 표시인 것이다. 여장지와 함께 좁쌀과 색실, 고추 세 개를 같이 넣어두기도 했다고 한다.

예물은 신랑 집보다 신부 집에서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개 신랑 집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에 입을 옷과 혼구만을 준비해가는 반면,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으로 신랑의 옷뿐만 아니라 신랑 가족의 옷까지 모두 준비해갔기 때문이다.

혼인은 신부의 집에서 하는데, 결혼식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열흘 정도 걸리기도 하였다. 열흘 전부터 술은 막걸리로 몇 말씩 빚고 감주 굽고 떡 하는 등 음식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안 사정이 좋은 신부 집에서는 돼지와 송아지를 잡기도 했다고 한다.

함은 이웃이나 친구가 메고 가는데, 대개 하루 전에 신랑과 함께 신부집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약 40여 전 부터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되 전통형식을 따르는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함이 신부집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1. 전통 혼례 사진(김영대)

2. 전통 혼례 사진(박홍균 · 주숙자 부부)

식을 올릴 때 입는 혼례복장과 신부가 시집으로 갈 때 타는 가마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을 빌려서 쓰거나 대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에서 빌려서 썼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개인에 따라서 짧으면 하루, 길면 열흘 이상 신부집에서 신부의 가족과 친지, 친구,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놀다가 신랑집으로 갔다. 신혼 첫날밤에는 신방 엿보기의 풍습이 이 마을에서도 있었는데, 가족이나 마을 주민들이 방문에 구멍을 내고 보거나 심지어 방 안에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끼여 누워서 방해를 하기도 하였다.

시집으로 갈 때에는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걸어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는데, 유순애의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시집을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해에서 택시를 불러 택시를 타고 시집으로 갔다고 한다. 가마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산을 굽이 넘어 걸어갔기 때문에 가마 안에 있어도 들쭉거리려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사방으로 넘어지곤 했다고 한다. 이렇게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들어갈 때 신부 집에서는 예물떡이라고 하여 찰떡을 해서 갔는데, 이것은 신랑 부모와 친척들에게 폐백을 올릴 때 놓는 떡이었다.

## 오늘날의 혼례

○ ●

신부의 집에서 하던 전통혼례의 풍습은 약 40여 년 전부터 결혼식장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현대식으로 하고 있다. 경정1리에서는 특징적으로 일종의 피로연의 의미로 결혼식을 하기 전날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은 이날 축하를 하는 전통이 남아 있다.

2008년 4월 13일에는 권봉도의 딸 권은순의 결혼식이 있어 전날인 4월 12일에 마을 경로회관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병곡면 칠보산 뷔페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10시 30분경에 도착하였고 경로회관 가운데 방에 음식을 차렸다. 손님들이 오기 전 신부 어머니인 유영자는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 담고 국수 한 그릇을 담아 골맥이상을 마련하였다. 골맥이상을 차린 후 신부의 외할머니인 이필련이 술을 두 잔 따라 올리고 비손을 하였다. 이것은 골맥이 할아버지들에게 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골목 할아버지 손녀딸이 결혼하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가십시오.”라고 비손을 하였다.

비손을 마친 후에는 그릇에 음식들을 조금씩 옮겨 담아서 경로당 담 밑에 뿌려 헌식을 하였고, 남은 음식은 이필련이 음복하였다.

손님들은 도착하면서 축하의 말을 건네고 혼주는 이방 저방 손님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였다. 오후 2시경에 신랑 최호열과 신부 권은순이 도착하여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늦은 오후까지 마을 주민들과 손님들이 찾아와 결혼식을 축하하고 축의금을 전달하였다.

2008년 10월 11일은 박수남의 장남 박현태의 결혼식이었다. 권은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식 전날인 10월 10일에 음식을 차려 마을 주민들과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박수남이 마을에서 횃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경로회관을 빌리지 않고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음식은 병곡면 칠보산 뷔페 음식을 주문하였고, 주숙자, 김미숙 등 마을 분들이 음식 준비를 도왔다.

박수남과 새신랑 박현태는 정장 차림이었고, 신랑의 어머니와 신부는 평상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박수남에 의하면 약 40~50년 전부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가 없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예식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날 집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은 미리 축의금을 내는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즘에는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갈 버스가 결혼식 당일 아침에 마을에 오기도 하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전날 축하를 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비교적 많아졌다고 한다. 이날 찾아온 손님은 주로 마을 주민들이었으며, 한 마을에서 축하를 해주러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복장을 일상복보다 깔끔한 옷으로 입었다.

### 권봉도의 딸 권은순 결혼식

2008년 4월 13일에 권봉도의 딸 권은순의 결혼식이 있었다. 권은순은 남편 최호열과의 사이에 둘이 지나지 않은 딸 최

1. 축의금을 넣는 마을 주민
2. 식사를 하는 하객들
3. 골매이 할아버지에게 비손(이필련)



1



2



3

우영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다. 남편인 최호열은 고향이 경북 영천이며, 지금은 영해읍내에서 부엌가구를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둘은 최호열이 경정1리에 일을 하러 드나들면서 알게 되어 사귀고 결혼까지 성공한 것이다.

결혼식은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칠보산 웨딩홀에서 4월 13일(일) 오전 10시 40분에 거행되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버스가 웨딩홀 측에서 제공된다는 안내가 결혼식 전날 마을방송이 있었다. 마을 경로당 앞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10여 명만을 태우고 오전 10시경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영해읍을 지나 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15분 정도 거리인 병곡면에 위치해 있다.

결혼식장은 당일 권은순의 결혼식을 포함하여 4건의 예식이 예약되어 있었다.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홀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한편에서는 축의금을 받고 점심식사 식권을 나눠주었다. 신랑측 하객들은 주말에 영덕대게축제기간까지 겹쳐 차가 막히는 관계로 식 시작 바로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부대기실에는 먼저 신부를 보고 싶어 하는 친지와 친구들의 방문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방송이 나가고, 식당안의 조명이 어두워 진 다음에 양가 어머니가 앞쪽 단 위에 촛불을 밝히기 위해 먼저 입장하는 순서가 있었다. 촛불 점화가 있은 후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 이어졌다.

신랑 신부 맞절, 성혼선언문 낭독, 주례사가 있었고,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

1. 박현태의 결혼을 축하하러 오는 하객들과 하객을 맞이하는 박수남, 박현태
2. 식사를 하는 하객들
3. 하객을 맞이하는 박수남





님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로 직계 가족의 하객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축하 케이크 커팅이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결혼식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신랑에게 만세 삼창을 시켰으며, 신랑은 이 요청에 따라 씩씩하게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신랑 신부 행진이 이어졌고, 축하하러 온 친구들의 폭죽세례가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직계 가족의 사진 촬영이 있는 다음에 가족사진촬영, 친구사진촬영과 부케 전달 등이 어느 결혼식처럼 진행되었다. 부케는 사촌언니인 유영춘의 큰딸 유현정이 받았다. 가족사진촬영에서는 딸인 이우영도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종일 우영이를 봐준 유영자의 시누이 김순자가 ‘애기팔기’를<sup>06</sup> 하였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하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폐백이 진행되었다. 요즘은 폐백을 신랑측 친지들만 받지 않고 신부측에서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신부 부모님까지 폐백실에 앉아 있었다. 먼저 신랑 어머니께 절을 하고 밤과 대추를 신부의 원삼 자락에 던져 주었고, 신부는 6개의 밤을 받았다.

식사를 마친 하객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날 신부측 하객으로 참석한 인원은 220명이었으며 전날 마을에서 축하를 해준 하객까지 합하면 총 335명의 하객이 결혼식을 축하해주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마친 후에 친구들과 피로연을 하고, 대구에서 하루 밤을 보낸 다음 4월 14일 아침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1. 신랑 신부 맞절
2. 만세 삼창을 하는 신랑
3. 신부 부모에게 절
4. 폐백

<sup>06</sup> 결혼 전 애기를 먼저 얻고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신부측 일가 중 한사람이 식당에서 애기를 봐주다가 넘겨줄 때 애기값을 받는 풍습이다. 사실 ‘애기팔기’는 민간에서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돌 후에 행해지던 풍습이며,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 민간요법의 일환으로 내려오던 것이다. 결혼식에서의 ‘애기팔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키운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다. 이날 김순자는 애기 판값으로 3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물론 이 돈은 신랑이 힘 값을 받아 좋은 곳에 쓰듯이 대부분 애기를 위한 물건을 사주거나 하는 데 운용된다고 했다.



현재는 상여를 메는 일이 거의 없으며 2008년에도 마을에서 상례를 치른 가정에서 상여를 멘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상여를 메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과거와는 달리 마을 근처 산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없으며 마을 뒷산에 있던 화장터도 사라져서 더 이상 상여를 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례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에서부터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며, 일생의례 가운데 가장 슬픈 의례이기도 하다. 과거 경정1리에서는 상이 났을 때 12개의 반이 두 반씩 모여 상을 도왔다. 예를 들어 1반에서 상이 났을 경우에는 1반과 2반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서로 도왔던 것이다. 현재는 연반계(延幡契)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연반계가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이 이처럼 상이 났을 때 서로 돕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이 속한 연반계의 주민 중에서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나머지 집에서 반드시 한 가구당 한 사람씩 행상(상여)을 메거나 음식 준비 등의 일을 도울 사람을 상가에 보내야 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도움을 주거나 반장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부조금을 내서 도와주기도 한다. 지금은 연반계가 중심이 되어 상례와 장례를 돕는 모습은 사라졌다. 상이 났을 때는 각 반에서 몇 명씩 주민을 모아 음식준비를 하고 장례 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모습이 다소 변화하였다.

상에 쓰던 용품은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데, 천막은 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천막을 이용하고 상이나 그릇은 경로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대여한다. 마을 공동으로 쓰던 상여는 현재 쇠로 만든 뼈대만 보관되어 있다. 본래 상여집은 장작불에 있던 컨테이너에 보관하였으나 2007년 마을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불재 정상에 옮겨놓았다. 그곳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던 곳으로 현재는 정치망 그물 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전 상여가 위치해 있던 다불재는 해수욕장 옆이어서 미관상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마을 공동화장실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자리이기도 하였다. 현재는 상여를 메는 일이 거의 없으며 2008년에도 마을에서 상례를 치른 가정에서 상여를 멘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상여를

메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과거와는 달리 마을 인근의 산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없으며 마을 뒤 산에 있던 화장터<sup>07</sup>도 사라져서 더 이상 상여를 뭉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상여를 뭉 때에는 한쪽에 8명씩 총 16명이 상여를 메었고, 소리꾼은 마을에서 상여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거나 다른 마을에서 데려와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경정1리의 대다수 주민들은 과거부터 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가 가끔 있었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는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육지에서 사망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상례를 치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용왕제 또는 혼굿 등을 해왔다고 한다.

몇 년 전 경정2리 주민 중 경정1리 항 근처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예보<sup>08</sup>가 없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강하게 쳐서 배 위에 있던 선원이 바다에 빠진 것인데, 경정1리 항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경정1리 항구 공터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고 한다. 굿의 목적이 시체가 떠내려 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마을에서는 이런 경우에 4-5일까지만 굿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처음 굿을 시작했을 때에는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는데, 굿 마지막 날 시체가 떠내려 와서 시체를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한다.

시체가 나오면 시체를 찾아서 혼굿 있잖아 그런 거 해가 장례 치르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육지로 환생하는 사람은 어찌해도 육지로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어찌 해도 안 나온다. 옛날 할매들이 육지에서 보면 수영선수 저리 가란다. 죽은 사람이 육지로 떠내려오면 수영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잘 들어온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진이 다 빠져서 고기가 입질을 딱 해도 떠버리잖아. 배가 가면 배에 붙는 사람도 있고 그물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바닷가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육지에도 사고 난 데는 계속 나잖아. 그것처럼 바다도 마찬가지라. 귀신이 자기 가 죽은 자리에 사람을 불러 놔야 승천한다고 하잖아. 그러니 죽은 자리에 또 죽고 또 죽고, 혼 굿을 잘 해주가고 혼백을 잘 모셔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일렁뚱뚱하게 해뉘면 해마다 그 자리에 사고가 난다대. (윤금렬)

이렇게 바다에서 재난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촌마을에서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수협에는 수협조합원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 보험의 형식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을 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상례의 방식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상례를 하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집에서 상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이 정해진 형식은 아니며,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자연스럽게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

<sup>07</sup> 현재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터는 포항에 위치한 시립화장장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경정3리와 경정1리에도 화장터가 있었으며, 특히 경정1리 사람들은 고곡리로 나가는 옛길 근처에 있던 화장터를 많이 이용하였다고 하며, 화장터가 있던 지역을 '화장골'이라고도 불렀다. 현재는 고곡리로 가는 옛길이 사라졌으며 화장터도 사용하지 않는다.

<sup>08</sup> 예보는 바람의 속도가 12~16m/s 이상, 파도 높이 4~6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도 병원에서 상례를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마을 주민들 중 상조보험에 가입하여 상례의 전 과정을 보험회사에서 맡아 처리해주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올해 사망한 마을 주민 두 명의 상례를 참여·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 임옥희(1938년 생) 상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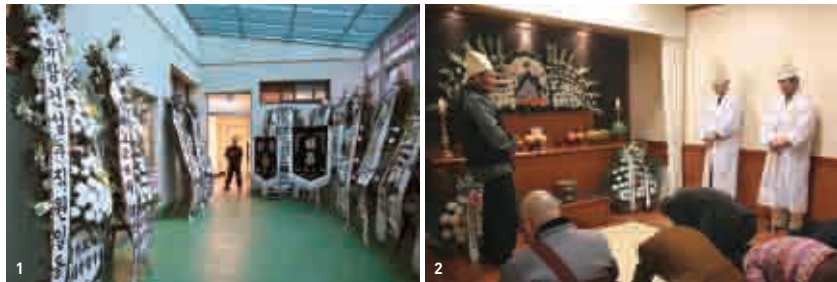
일시 : 2008년 2월 9일(토) ~ 2월 10일(일)

장소 : 영덕아산병원 장례식장/장지

고인 임옥희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통증이 심하여 사망 8일 전에 서울 중앙병원에 올라가 간암관정을 받고 수술을 위해 개복을 하였으나, 암세포가 내장기관 거의 전부에 전이되어 있어 아무런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 2월 8일 낮 2시 40분에 임종을 맞았다.

가족은 남편인 박대로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딸만 출가를 하였다.<sup>09</sup> 고인의 빈소는 영덕아산병원 1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월 10일 오전8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고 장지는 경정1리에 위치한 가산으로 정해졌다.<sup>10</sup>

1. 빈소 앞의 근조화환과 조기들
2. 빈소 안의 사진



2월 9일(토) 오후 5시쯤 찾은 영덕아산병원 영안실은 3개의 빈소가 있었는데, 고인의 빈소는 1호실에 차려졌다. 빈소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20여개의 근조화환과 조기들이 놓여 있었으며, 빈소 안은 많은 문상객들로 차있었다. 빈소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접수대가 있고, 식사를 하는 큰방으로 들어서게 된다. 상주들이 문상객을 맞는 곳은 다시 오른쪽에 이어진 방으로 들어가 마련되어 있고, 식당에는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작은 부엌이 딸려 있었다.

입구 접수대에서는 부의금을 내면 답례품으로 5천원 지폐와 담배 한 갑이 든 흰 봉투를 내주었다. 빈소에는 두 아들이 굴건제복을 하고 문상객들을 맞고 있었

<sup>09</sup> 큰아들 박진균(1965년 생)과 작은아들 박명균(1967년 생)은 마을에 함께 거주하며, 딸 박미희는 남편 김연동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었다.

<sup>10</sup> 가산은 이 마을의 토착성씨 중 하나인 영해박씨의 선산이다.



으며, 축산리에 위치한 영명사의 주지인 지월스님이 와서 독경을 하고 있었다. 영정사진 옆으로는 흰 국화를 둘러 장식을 하고, 앞에는 혼백함을 놓았다. 영정사진 아래에는 대추, 밤, 감, 배, 사과, 바나나, 수박 등의 과일을 앞줄에 놓고, 뒷줄에는 포와 유과로 상을 차렸다. 술잔은 혼백함 앞 중앙에 촛대는 양 끝에 하나씩을, 아래에는 향상을 놓았다. 문상객들은 술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후 상주들과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순서로 조문을 하였다. 조문을 오는 문상객들의 복장은 남자들은 대부분 검정색 계열의 양복이나 일상복을 입은 반면, 여자



1. 식사중인 문상객들  
2. 문상객을 위한 답례품

들은 다양한 일상복 차림이 많았다. 아들 이외의 상주들은 남자들은 인척관계에 따라 검은색 양복에 두건과 완장으로 표시를 했으며, 여자들은 허리에 삼베로 된 요대를 두르는 정도의 모습이었다.

식사 장소에는 가까운 집안의 친지들 중 몇 분이 안내를 맡아<sup>11</sup> 문상을 마친 조문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고인 가족들과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치는 물론이고, 부족한 음식이나 물품이 신속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챙기고 있었다.

식사 장소 옆에는 간단한 주방시설이 부속되어 있는데, 이곳은 음식을 조리하기 보다는 주로 병원측에서 제공된 음식을 보관하거나 데워서 그릇에 담아내는



문상객을 위한 상차림

<sup>11</sup> 이번 장례의 전체적인 진행은 고인 임옥희 남편 박대로의 사촌동생인 박형로(1939년 생)가 맡아서 주관을 하였다.

기능 정도를 하고 있었다. 과일이나 마른안주 같은 것들은 주방 앞의 공간에서 따로 접시에 담아 두었다가 문상객들의 테이블로 배달이 되었다. 제공되는 식사의 내용은 일반 영안실의 식사와 거의 유사했으며,<sup>12</sup> 회무침(전어회, 오징어회)은 집에서 따로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마침 발인 전날이 토요일이라 저녁 7시가 넘어가자 타지에 나가있던 친인척들과 상주의 지인들이 문상을 하기 위해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멀리서 거주하는 친척들은 밤을 이곳에서 보내고 내일 발인까지를 보기 위해 하루 전날 저녁에 일정을 맞춰 찾아오는 것으로 보였다.

2월 10일(일요일)에는 오전에 병원을 출발하여 경정1리에 도착해서 경로당 앞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 바로 장지인 가산으로 향했다. 가산은 마을의 남서쪽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으로 마을 교회 앞을 지나 오징어공장 뒤쪽으로 오르는 길에 있다. 장지에는 선대의 산소 2기가 있으며, 산소를 쓸 수 있는 땅은 거의 정남향으로 좌측으로는 멀리 경정 앞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장지에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굴착기가 주변의 잡목들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정리 작업을 마치고 천광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장지에 도착한 관은 하관을 하기 위해 관을 묶고 있던 끈을 먼저 풀고, 관보를 벗긴 다음 명정은 따로 챙겨두고 관을 들어 옮겼다.<sup>13</sup>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이제 정말 고인과의 이별이 사실적으로 다가 왔다는 마음에 여기저기서 곡을 하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직계 가족들은 고인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관이 들어갈 자리에 돌이나 나무뿌리 같은 것이 없는 지를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는 친지들도 있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자리

1. 장지에 도착
2. 하관을 위해 관을 옮김
3. 하관
4. 관의 좌향을 보는 지관
5. 하관 후 자리를 잡은 관



<sup>12</sup> 상 위에는 기본적으로 음료수(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 생수)가 놓여 있고, 음식은 밥, 쇠고기육개장, 제육, 새우젓, 마늘, 풋고추, 찜장, 콩나물, 떡, 미른안주, 간고등어조림, 과일 등을 제공한다.

<sup>13</sup> 관을 옮기는 일은 마을 청년회원들이 담당했다. 그 이외에 봉분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장지에서의 작업도 청년회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 경정1리 청년회 회장인 박수남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에 상이 나는 등 일이 있을 경우 청년회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일을 도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를 잡는 곳이라는 생각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고자 한다.

관을 얹히는 좌향을 잡는 것은 이번 장례의 전체적인 진행을 주관하고 있는 박항로가 맡았다. 관을 일단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내려앉힌 다음에 패철을 관위에 얹고 관이 놓일 정확한 좌향을 잡았다. 박항로는 그 전에 지관을 본 일은 없지만 고인과 가까운 친척관계이고, 그 동안 개인적으로 한문과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부탁받은 것이다.

하관을 한 후 관의 좌향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몇 번 관을 이동한 다음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 위에 한지를 덮은 후 ‘유인안동임씨지구(儒人安東林氏之柩)’라고 쓰여진 붉은 명정을 올렸다. 명정 위에는 ‘운아(雲亞)’, ‘삼, 현훈(玄纁)’ 등을 올렸다. 지관은 만상주에게 ‘시토’라고 세 번을 외친 후 광중에 흙을 뿌리라고 주문했다. 만상주인 큰아들은 파낸 흙을 두루막 자락에 담아와 주변을 돌면서 관위에 골고루 조금씩 뿌렸다. 다음으로는 딸과 둘째 아들이 흙을 한 줍씩 관위에 뿌리고 바로 포크레인이 투입되어 관이 들어가 있는 광중을 메우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들과 딸은 이제 어머니의 시신이 완전히 땅속으로 사라져 가



1. 시토하는 만상주
2. 광중에 중심 막대 꽂기
3. 평토 후 봉분 만들기
4. 노젓돈 꽂기

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인지 몸을 돌려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오열했다.

글작기는 흙을 구덩이에 채워 가면서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도록 중간 중간 위에서 누르는 작업을 반복했다.

광둥이 어느 정도 흙으로 채워지자 봉분의 가장 높은 중앙이 될 만한 위치에 막대를 꽂았다. 이는 중심이 있어야 봉분의 모양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작업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막대(조릿대)에는 끈 실을 달았는데, 이는 나중에 노잣돈을 쥘 용도로 쓰였다. 성분작업이 글작기로 계속 되는 동안 봉분의 모양을 잡고, 때를 입히는 일등은 마을 청년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가족과 친지들은 수고에 대한 표시로 조릿대에 달린 실타래에 돈을 꽂아 주면서 성의를 표시했다.

중간 중간에 배달되어온 막걸리와 돼지고기가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봉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상석을 놓고 모양을 잡아가는데 각자의 경험에 비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봉분이 만들어지는 동안 집안 어른 두 분이 포와 술만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후토신(산신)께 간단한 제를 올렸다. 나무가 많은 곳에서 조용히 제를 지내고 왔기 때문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봉분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자 한쪽에서는 점심식사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식사인 도시락이<sup>14</sup> 배달되어오자 여자 친지들이 앞장 서 도시락 박스를 풀어 분배했다. 현장에서 따로 조리한 음식은 없었으며, 도시락 이외에 별도로 주문한 돼지고기 수육과 김치가 함께 도착했다. 국은 식지 않도록 큰 그릇에 담겨 배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개인별로 떠서 제공하였다. 도시

락을 받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앉아 식사를 했다. 2월 초순이지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고 또한 해가 잘 드는 곳에 선산이 위치하여 야외에서의 식사가 별 무리 없이 가능했다.

식사가 마무리되자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장례는 집안의 의견에 따라 당일 탈상으로 치루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우체로 모든 절차를 끝냈다. 새로 만들어진 봉분 앞에 흰 종이를 간 다음 혼백함과 영정사진을 가장 먼저 놓고 음식을 진설하기 시작했다.<sup>15</sup> 고인의 남편인 박대로가 집사를 보고 향을 피우고 큰 아들이 먼저 잔을 올리고 모든 참사자가 재배하였다. 초현으로 큰 아들이 다시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후 축을 읽었다. 축은 박항로가 미리 준비해 왔다. 둘째 아들, 사위가 이어서 헌작하고 재배를 한 후 집사인 박대로가 개반 후 삼시정저를 하였다. 모든 참석자들은 부복하고, 다음으로 헌다를 한 다음 다시 첨잔을 하고 재배가 있었다. 이어 집안 분들 중 잔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차례로 헌작을 할 기회를 주었다.

제사가 끝나자 봉분 앞에 놓여 있던 혼백함을 흰 한지로 싸서 무덤의 오른쪽에



도시락으로 점심식사

<sup>14</sup> 도시락은 영해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 미리 주문하였으며, 가격은 1인분에 5,000 원이다. 도시락의 내용은 밥, 낙지볶음, 김치, 젓갈, 간새우 마늘중 볶음, 콩자반, 소시지 게맛살 꼬치, 전, 동그랑땡, 시래기 된장국 등이었다.

<sup>15</sup> 음식은 제일 앞열에 과일밥, 대추, 굴, 감, 사과, 배를 놓고, 다음열에는 술잔과 포, 그 다음에는 메, 국, 탕, 그리고 가장 안쪽에 편과 생선을 올렸다. 제주로는 정종을 사용하였다.



땅을 약간 파고 묻었다. 혼백함을 묻는 동안 박대로가 그 앞에 포를 놓고 술을 부어 함께 올렸다.

마지막으로 탈상에 준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물을 담은 그릇을 흰 수건을 간 상자 위에 올려놓고, 상주들이 손을 물에 담갔다 수건에 닦은 후 착용하고 있던 상주의 복장들을 모두 벗어 한 곳에 모았다. 상복을 입은 사람은 아들들뿐이었고, 나머지 상주들은 두건을 쓰거나 완장을 두르는 등 간단한 차림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은 장례용품이 금방 한 자리에 쌓였다. 이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림으로써 탈상의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다.<sup>16</sup>



1. 참사자들의 재배  
2. 혼백함 묻기  
3. 상복을 벗고 탈상



<sup>16</sup> 박항로의 말에 의하면 고인의 아들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당일 탈상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집안 어른들의 의견 수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 조복만(1935년 생) 상례

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

장소 : 조복만의 집

### ● 임종 전

고인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지 3개월만인 5월 19일 낮 12시에 돌아가셨다.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고인의 어머니 이선녀와 부인 전복자인데, 어머니는 고인이 아프기 시작한 후 영덕 매정에 있는 양로원으로 모셨다. 조복만의 본관은 함안으로 4남 1녀의 맏이이며 슬하에는 2남 2녀를 두었다. 아들들은 포항과 서울에 거주하고 딸들은 대구에서 살고 있다. 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주말을 맞아 포항과 대구에서 내려와 있던 큰아들과 큰딸은 고인의 임종을 볼 수 있었다.

### ● 5월 19일(일)

고인은 영덕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5월 17일 쓰러져 가족들이 집으로 모셨고, 그 이틀 후인 5월 19일 낮 12시에 숨을 거두었다. 발인 전의 상례과정을 집에서 치르기로 하였으며, 과정은 미리 가입해 두었던 상조회사<sup>17</sup>에서 나와 진행하였다.

입관 전 시신이 안치된 중간방의 만상주



<sup>17</sup> 상조회사는 큰딸인 조강금이 가입해 두었으며, 1회 19,500원씩 120회를 내는 것으로 234만원에 계약하였다. 상을 당한 시점에는 17회를 불입한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장례를 치른 후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 프로그램은 15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격의 차이는 관을 짜는 수준, 상복, 장례차량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sup>18</sup> 조복만의 집 구조는 '一'자 집으로 3개의 방(안방·중간방·큰방)이 일렬로 연결되고, 중간방과 큰방 앞으로는 마레, 큰방 옆으로는 부엌이 있다. 부엌 뒤로는 확장하여 화장실을 이어 붙였다. 상청은 그림처럼 중간방에 차렸다.

고인이 숨을 거둔 후 시신을 중간 방에 모시고 앞에 병풍을 쳤다.<sup>18</sup> 미닫이문으로 출입문이 되어 있는 중간방과 안방의 문을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떼어냈다.

병풍 앞에는 상을 놓고, 상 위에 고인의 영정사진, 초, 술잔을 올렸으며,<sup>19</sup> 앞에는 향상을 놓았다. 상청은 두루막을 반만 걸친 만상주가 계속 지키고 있었으며, 옆의 큰방에는 상조회사 직원이 도착하여 염습과 입관에 쓰이는 용품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친지들이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입관전이라 술잔만 올리고 절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을에서 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몇 분의 어른신들은 고인의 임종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집으로 찾아와 고인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부터를 회상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70년 넘게 같은 마을에서 가족처럼 옆에 있어온 친구가 운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 아직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듯 이야기 중에도 한참씩을 아무런 대화 없이 침묵하는 모습들이 보였다.<sup>20</sup>



중간방에 상청을 치린 집 평면도



상조회사 직원의 염습용품 준비

<sup>19</sup> 술잔 옆에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청 어구이를 큰아들의 제안에 따라 같이 올려놓았다.

<sup>20</sup> 오징어 건조를 위해 마당에 설치해 두었던 창고가 이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상을 차려 문상객들을 받을 자리를 만들었다. 고인과 특히 친분이 있어 일찍 문상을 온 어른신들은 입관전이라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문 옆 기둥 위에 사자상을 올려놓았는데, 상에는 고인이 평소 신고 다니던 깨끗한 흰색 신발과 밥 세 그릇을 놓고 밥에 나무젓가락을 꽂아 두었다.

마당과 부엌에서는 친지들과 마을분들이 문상객들을 위한 음식장만을 시작했다. 지금은 장례의 모든 과정이 병원의 영안실에서 이뤄지는 것일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마을에서 상을 당하면 대부분 집에서 장례의 모든 과정을 치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경험치를 살려 일련의 진행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우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영해에 장을 보러가고, 마당에는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치고 부족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장에서 구입해온 재료들이 도착하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상례기간 동안 먹을 배추김치를 담그는 것이었다. 또 마당 한편에 설치되어 있는 한데부엌에 큰 솥을 걸고 쇠고기육개장을 끓였다. 국은 식사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작은 냄비에 덜어가서 집안의 부엌에서 데우면서 먹게끔 하였다.

부엌에서의 음식준비 중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삶은 문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 놓는 것이었다.<sup>21</sup> 그 이외에 꺼내 놓아도 맛이 변하지 않는 마른안주거리를 접시에 미리 담아 두기도 했다. 반찬으로 쓸 생선으로는 고등어를 구입했으며, 시장에서 미리 썬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접시에 담아

1. 상례 기간 동안 먹을 김치 담그기
2. 한데 부엌에서 국 끓이기
3. 반찬으로 쓸 고등어
4. 답례품 봉투 만들기



<sup>21</sup> 이 지역에서 장례나 결혼식처럼 큰일을 치를 때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두 가지 음식이 문어와 군소다. 그래서 집집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일들을 대비하여, 좋은 물건이 나오면 구입해 저장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기 좋을만한 크기로 썰어 두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장례 절차는 차분히 진행되었다. 영해 장에서 사가지고 온 것들을 사용할 용도와 시간에 따라 적절히 정리하고, 부족한 물품은 추가로 구입하거나 마을의 친지 집에서 빌려 오기도 했다.

상조회사 측에서는 음식에 관한 것은 일절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인 날 필요한 도시락도 미리 주문하여야 했다. 축산에 있는 맞춤도시락 업체가 집으로 찾아와 상담을 하고 1인분에 7,000원씩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갔다. 안방에서는 손자들이 둘러 앉아 문상객들에게 나눠줄 답례품을 봉투에 담고 있었다. 답례품의 내용은 이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5,000원 지폐 한 장과 담배 한 갑이었다.

염습과 입관은 보통 오후 시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댁은 장례 절차 진행 시간을 절에서 받아온 터라 여기에 맞춰 일들이 이뤄졌다. 염습과 입관은 임종 당일 저녁 9시에 하기로 되어 있어, 7시가 조금 넘자 상주를 제외한 문상객들, 음식준비 등 일을 도와준 마을분들 그리고 손녀들이 먼저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는 마당에서 끓인 쇠고기육개장, 오후에 버무려 담은 배추김치, 삶은 문어, 돼지고기 삶은 것 등이었다. 한쪽에 장만해 놓은 고등어는 아직 상주들이 식사를 하지 않아 몸통은 손을 대지 않고 머리 부분만 상에 올랐다.

밖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 입구와 대문에 조등을 달았다.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은 것이다. 저녁 9시가 가까워지자 염습을 할 자리를 정리하였다. 상청을 차린 방에 놓여 있던 상과 향안, 그리고 영정사진, 병풍 등을 밖으로 내놓고 시신을 방 가운데로 옮겼다. 염하는 과정을 지켜볼 가족들은 방에 들어서지 않고 마루에 줄지어 섰다.

시신이 베고 있던 베개를 치우고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발 - 다리 - 손 - 팔 - 가슴 - 등의 순서로 몸을 깨끗이 닦아 낸다. 몸을 닦는 동안 시신의 얼굴이 유족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시신의 이동이 적게 조심한다. 얼굴을 제외한 몸을 다 목욕시키고 나면 얼굴에 올렸던 수건을 치우고, 알콜솜을 대신 덮는다. 신의 등과 앞쪽으로 한지를 덮고 종이에 달린 끈으로 가슴 부분을 살짝 묶어준다. 양쪽 다리 아래에 한지를 이어 깔고 발톱을 깎아 오냥에 넣는다. 오냥과 함께 한지로 발부터 무릎 아래까지를 완전히 감싸고, 발에는 버선을 신긴다. 손톱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예전에는 손에 끼우는 악수는 손을 다 감싸는 것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싸는 것으로 손가락을 반듯이 펴서 싸는 것이었다. 이번 절차에서는 팔에서부터 손까지를 한지로 둘러싸고 손 전체에 악수를 끼운 다음 끈을 손등 쪽으로 돌려 마무리했다. 손을 싸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는 고인의 손을 만져 보기를 권한다. 가족들은 방으로 들어와 시신 옆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오열하면서 부인인 전복자는 '좋은 곳에 가세. 좋

1. 발에 악수를 깨운 사신
2. 깎은 손을 오냥에 담기
3. 바지 입히기
4. 윗도리 입히고 여미기
5. 머리를 감기고 빗으로 정리
6. 얼굴을 덮는 망상주
7. 소렴을 마친 상태
8. 마지막 염을 하는 과정
9. 입관된 사신을 보는 상주



은 곳으로 가.’, 자식들은 ‘아버지가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했데이.’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였다.

옷은 아래부터 입히는데, 양쪽 다리를 들어 바지를 입히고 허리에 띠를 맨다. 속바지는 한지로 대신하는 것으로 보였다. 행전을 끼워 바지 아랫단을 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습신을 신긴다. 윗도리는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3겹을 입히는데 옷을 미리 겹쳐 두었다가 한 번에 입힌다. 수의는 일반 옷보다 넉넉하게 만들고 시신을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입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 소매까지 잘 겹친 옷을 발아래에 놓고, 양쪽에서 들면서 옷을 위로 올리고 시신을 약간 썩 좌우로 돌려 양팔을 끼운다. 가슴에 한지를 한 번 더 대고, 안쪽 저고리부터 고름을 여민다. 수의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여며 마무리하고, 습신 위를 대로 묶었다.

수의가 정리되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알코올 솜을 벗기고 얼굴을 세수 씻기고 머리도 감긴다. 직접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에 담가놓았던 솜으로 얼굴과 머리, 코 속, 귀 속 등을 깨끗이 닦아 내었다. 얼굴은 닦은 후에 면도를 하고, 화장까지 하여 마무리를 되었다. 머리도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빗으로 빗겨 가지런히 정리하고 떨어진 머리카락은 주워서 오냥에 담았다. 머리 아래에 흰 천과 한지를 깔고 머리 아래에 베개를 놓는다. 얼굴을 싸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직접 만져볼 기회를 준다. 모든 직계 가족들이 시신을 둘러싸고 곡을 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만상주에게 고인의 얼굴을 덮도록 했다. 한지로 얼굴을 싸 후 명목으로 얼굴을 가리고, 복건을 씌었다. 턱 아래에는 얼굴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공을 했다. 종이를 여러 번 겹쳐 접은 끈으로 어깨, 등, 허리 순으로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 묶는다. 상조회사에서 나온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까지를 소렴<sup>22</sup>이라 했다.

다음은 지금을 깔고 베개를 놓은 후 시신을 올리고 천금을 덮는다. 이불은 바닥에 깔린 었포 자락을 머리부터 내려 싸고, 양쪽을 세 갈래로 자른 배를 등 아래에 넣으면서 묶음 매가 생기게 아래로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도 만상주가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고인의 머리 쪽에 앉아서 묶음매를 만들어가는 중심을 잡아 주었다. 이렇게 었습 과정이 끝나고, 입관을 위해 방을 정리하고 옆방에 있던 관을 옮겨 왔다.

입관은 상조회사 직원들과 큰아들, 큰사위가 시신을 들어 함께 옮겼다. 시신을 넣은 후 관속에서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격을 하고,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관 뚜껑을 덮기 전 부복하고 곡을 했다. 이때 고인 생전에 수의 내용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명주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챙겨와 관안에 함께 넣었다. 관을 닫고 그 위에 관보를 덮었다. 소창으로 관끈을 잘 엮어서 관을 운구할 때 잡기 편안하도록 하고, 관끈은 4군데를 묶었다. 명정을 올리고 관을 제자리에 모시고 병풍을 쳤다. 었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약 1시간 5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sup>22</sup>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소렴의 방법은 시신을 소렴금을 편 다음 지요와 베개를 깔고 시신을 들어 요 위에 옮긴 후 천금이 불로 덮거나 소렴금으로 싸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과 집안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례상조회사들은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고려해서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풍 앞에 다시 상을 차리고, 영정사진과 혼백을 놓고 성복제를 지낼 음식을 진설한다. 상주들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요즘은 전통상복인 굴건제복을 하기 보다는 검은색의 양복이나 한복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댁에서는 상 조회사에서 준비한 상복을 착용했다. 아들과 사위들은 흰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행전을 차고 위에 베 두루마기를 겹쳐 입는다. 머리에는 굴건을 쓰고 수질을 두르고 대나무 상장을 짰었다.

부인과 며느리들은 베 소재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수질을 그리고 허리에는 요질을 둘렀다. 딸들의 상복은 머느리에 비해 간소하게 입었는데, 흰 치마저고리에 삼베 복조끼를 겹쳐 입고, 머리에 수질을, 허리에는 요질을 둘렀다.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의미에서로 생각할 수 있다. 4촌 이내의 친지들은 남자는 흰 두루마기를, 여자는 흰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다. 손자들은 허리에 삼베로 만든 긴 요대를 끈처럼 묶었으며, 촌수가 먼 남자 친척들은 두건을 쓰거나 완장을 찼다.

상주들이 상복으로 다 갈아입고 난 후 성복제를 지냈다. 음식은 앞줄에 대추, 밤, 꽃감, 배, 사과를 올리고, 뒷줄에는 포, 생선, 절편을 놓았다. 잔을 올리고 모두 재배를 한 후(참신)들이 헌작을 한 후 재배(초헌), 다음으로 큰며느리 헌작 후 재배(아헌), 큰 사위 헌작 후 재배(중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큰 아들이 침작을 하고, 유식하는 동안 모두 부복하고 있었다. 큰아들이 기침 세 번으로 계문을 하고 헌다가 있었다. 성복제를 지냈으므로 이제 문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복제까지를 다 마친 시간이 밤 11시 40분이었다. 밤이 많이 늦어 이날은 문상을 오는 사람이 없었고, 마을에 거주하는 일가들만 입관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느라 남아 있었다. 상주들은 이 시간에야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안방에서 식사를 했다. 만상주는 상청이 차려진 중간 방에 따라 독상을 받았다.

1. 상복을 입은 큰아들
2. 상복을 입은 며느리들







1. 성복제
2. 상주들의 저녁식사
3. 독상을 받아 식사를 하는 만상주



#### ● 5월 20일(월)

종일 문상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아침·저녁으로는 상식을 올렸다. 오후 5시가 지나자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의 문상이 이어졌다. 문상객들은 상청이 차려진 중간 방으로 들어가 조문을 한 뒤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4. 조문
5. 조문객과 상주
6. 조문객을 위한 음식
7. 집 대문 앞에 놓인 조화
8. 상식 올리기
9. 마당에서 식사중인 조문객들



● 5월 21일(수)

낮 12시 정도에 운구차에 관을 싣고, 집 앞에서 발인제를 지냈다. 관 앞에 영정 사진, 혼백함을 넣고 제사를 차렸다. 분향을 시작으로 헌작과 재배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고인은 매장을 하지 않고 포항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는 고인이 아파서 돌아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안에 불자들이 많아 화장을 불교식 장례문화로 인식하고 있어서였다. 화장 시간도 염습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영명사에서 받아왔다.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제사를 지내고 탈상을 했다. 전복차에 의하면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상 기간을 줄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맏상주는 가족들이 입었던 상복을 모두 거둬 마을 소각장으로 가져가 태워버렸다. 이를 탈상에 준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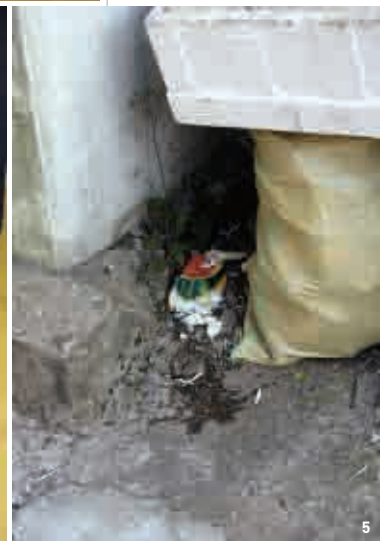
집에서는 새로 메를 짓고 탕을 새로 끓이는 등 제사 준비를 하였고, 평소 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유은종이 지방을 썼다. 간소하게 음식이 진설되고, 강신에 이어 큰아들(조현)-사촌(아현)-사위와 조카(종현)의 순서로 헌작을 하고 재배했다. 국을 물린 후 ‘헌다-재배-국궁-지방 태우기-헌식’으로 제사를 마무리함으로 써 사흘간의 상례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발인제





1. 장지에서 돌아와 영정을 다시 모심
2. 상복을 태우러 가는 망상주
3. 제사상 전설
4. 초헌, 큰아들 제배
5. 한식





## 제례

제례는 살아있는 후손들이 조상을 모시는 의례로서, 크게 나누어볼 때 조상의 기일을 맞아 지내는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제사인 차례, 5대조 이상 조상의 묘를 찾아 지내는 시제로 나눌 수 있다. 명절 차례는 세시풍속에서 기술하고, 이 장에서는 기제와 시제를 조사자가 참여관찰하고 인터뷰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 기제

● ○

제례는 살아있는 후손들이 조상을 모시는 의례로서, 크게 나누어볼 때 조상의 기일을 맞아 지내는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제사인 차례, 5대조 이상 조상의 묘를 찾아 지내는 시제로 나눌 수 있다. 명절 차례는 세시풍속에서 기술하고, 이 장에서는 기제와 시제를 조사자가 참여관찰하고 인터뷰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기제는 죽은 조상의 기일을 맞아 지내는 제사로 돌아가신 전날 자시를 기해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정을 전후로 제사를 지낼 경우 다음날 일을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앞당겨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제사에 참석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수도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변화의 한 모습인데, 고향에 남아서 살고 있는 경우보다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유영춘의 모친 기제사

2008년 5월 15일 유영춘의 어머니 한봉례의 기제사가 있었다. 한봉례는 본관이 청주이며 생년은 1932년으로 올해로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다. 한봉례는 축산면 사진1동 출생으로 경정1리로 시집와서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돌아가시기 10여 년 전부터 병환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특별한 병명을 찾지 못했지만 주변에서는 둘째딸을 출산한 후 약을 잘못 복용하여 아팠다고들 한다. 마지막 7~8년은 바깥출입도 거의 못하시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였다. 상례는 치렀고 3일 탈상을 했다. 내려오는 집안의 가풍에 따라 시  
신은 포항에서 화장을 하여 영덕군 매정면에 뿌렸다.<sup>23</sup> 집안에서 돌아가신 후 산  
소를 쓴 사람은 유영춘의 증조모가 유일하다고 한다.<sup>24</sup>

제사 음식은 어물을 제외한 것들은 대부분 당일애 준비한다. 바닷가라는 특성  
과 유영춘이 어장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물은 제사에 쓸 만한 좋은 것들이  
나면 입찰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손질해 냉동 보관해 둔다. 1년에 명절제사  
를 포함하여 8번의 제사를<sup>25</sup> 지내기 때문에 어물 제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어물 이외의 제수는 오전에 영해장에<sup>26</sup> 가서 구입해 왔다. 떡은 찹쌀 2되와 멥쌀 2  
되씩을 방앗간에 가져가 절편을 했는데 떡고물까지 포함하여 값으로 18,000원을  
지불했다. 찹쌀절편은 노란 빵가루를 입히고, 멥쌀절편은 흰색으로 하였다. 그  
이외에 전거리로 꼬치를 만들기 위해 햄, 게맛살, 단무지, 파, 어묵을 샀고, 동그  
랑뽕을 만들 때 쓸 돼지고기, 당근, 두부, 양파 등을 구입했다. 그 이외에 탕과 국  
거리로 무와 콩나물 등을 조금 샀으며 모두를 합해 이에 들어간 비용이 약 3만 원  
정도이다. 과일은 유영춘의 동생인 유영중의 부인이 구입해 오고, 제주는 제사에  
참석하는 친척들이 사가지고 왔다. 이외에 의정부에 사는 유영춘의 여동생과 포  
항에 거주하는 유영춘의 사촌동생이 제수준비를 직접 돕지 못하는 대신 현금을  
보내왔다.

오전에 장을 봐온 준비물들로 오후에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데 생선을 찌고 전  
을 붙이는 것이 주된 제수준비 과정이다. 음식준비는 경정1리에 거주하는 유영춘  
의 부인 김순자와 유영중의 부인 이순자가 하였다. 전을 부치는 일을 집안에서  
하게 될 경우 집 전체에 기름 냄새가 났다고 하여 마당 한쪽에 위치한 창고에서  
동그랑뽕과 꼬치를 만들었다. 마을에는 유영춘의 여동생 유영자도 거주하기 때  
문에 집안의 제사 준비를 도왔으나 이날은 오징어공장 건조작업일 때문에 제수  
준비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

제사의 내용은 시간이 가면서 많이 변화했는데, 축을 쓰지 않은 것은 약 10여  
년 전이며, 때에 따라서는 영정사진으로 지방을 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 제주는  
막걸리를 사용하였으며, 간혹 소주가 선물로 들어오면 함께 쓰기도 했다. 청주를  
제주로 사용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번 제사과정에서도 청주는 한번 올려놓은  
상태로 두고 새로 잔을 올릴 때에는 막걸리만으로 진행되었다. 할머니의 제사인  
경우 할아버지의 메, 국, 탕, 술까지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사는 저녁 10시에 초장을 먼저 지내고, 본 제사는 11시에 올렸다. 제사에 참  
석한 사람은 유영춘 내외, 유영중 부인 이순자, 유영춘의 작은아버지 유은종 내  
외, 유은종의 아들 유재민 내외와 유영만, 유영춘의 여동생 유영자와 남편 권봉  
도, 유영자 딸 내외와 손녀, 유영춘의 아들 유승엽 등이었다.

초장은 촛불을 켜고 분향한 후 탕을 올리고 ‘강신-재배-헌작-재배’의 순으로  
이어졌다. 초장을 지내기 전 유은종이 지방을<sup>27</sup> 써와서 사진 옆에 붙이고, 탕 이

<sup>23</sup> 유영춘의 아버지도 돌아가신 후 화장을  
하여 유골을 같은 장소에 뿌렸다고 한다.

<sup>24</sup>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터는  
포항에 있지만, 예전에는 경정3리와 경정  
1리에도 화장터가 있었으며, 특히 경정1  
리 사람들은 고곡리로 나가는 옛길 근처  
에 있던 화장터를 많이 이용하였다. 화장  
터가 있던 지역을 ‘화장골’이라 불렀다.  
지금은 경정리에서 영덕이나 영해로 나  
가는 길을 강측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대중교통이 없던 때에는 영덕 읍내에서  
경정으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고곡에서 산길을 넘어 다니는 것이었다.  
그 후 경정1리에서는 경정초교 뒤로 넘어  
염장으로 가는 다불재가 주도로가 되었  
다가 지금은 해안도로를 이용한다.

<sup>25</sup> 명절제사를 제외하고 증조대까지 3대 봉  
사를 하고 있는데 각 기일은 다음과 같  
다. 증조부(음력 8월 24일), 증조모(음력  
11월 13일), 조부(음력 6월 10일), 조모(음  
력 5월 15일), 부(음력 12월 8일), 모(음력  
4월 11일)

<sup>26</sup> 영해장은 5, 10일장으로 제사가 있는 날  
이 마침 장이서는 날이었다.

<sup>27</sup> 지방에는 “顯妣 顯人 淸州韓氏 神位 顯考  
學生府君 神位”라고 썼다.

1. 초장을 지내기 전에 진설된 제상
2. 지방을 붙이는 유은중
3. 초장에서 잔을 올리는 유영춘



외의 음식은 이미 진설을 마친 상태였다.<sup>28</sup> 초장에는 젓가락만 탕 위에 올리고, 잔은 막걸리와 정종을 두 잔씩 올렸다. 초장을 지낸 후 본 제사를 지낼 때까지 퇴주하지 않고 가족들은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떡과 전을 미리 나눠 먹기도 했다. 초장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함을 조상에게 알리는 절차이자 먼 곳에서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친척들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보인다. 초장을 지내고 본 제사로 들어가기에 기다리는 중에 포항에서 거주하는 유은중의 아들내외가 집에 도착했다. 이날 제사에는 둘째 아들인 유영중은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인 이순자만 함께 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무 제기는 10여 년 전에 새로 장만한 것으로 그전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제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10시 45분경 본 제사에 쓸 메를 짓기 시작하였다. 탕과 국은<sup>29</sup> 미리 끓여 놓았지만 메는 제사에 임박해서 짓는 것을 지키고 있다. 오후 11시가 되자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관인 유영춘은 향을 새로 피우고 초장에 올렸던 술잔을 퇴주그릇에 비웠다. 새로 데운 탕과 국이 상에 오르고 메도 자리를 잡았다.

강신의 순서로 막걸리와 청주를 새로 올리고 제관 이하 모두 함께 재배를 하였다. 이때 젓가락은 어물 위에 놓았고, 집사를 보던 유재민까지 모두 함께 재배를

<sup>28</sup> 제사의 음식은 어제문어, 방어, 돌돔, 방성돔, 우럭, 고등어, 송어, 떡, 과일(사과, 바나나, 수박, 귤, 대추와 밤, 키위, 오렌지, 배, 감, 참외), 전(동그랑땡, 고치), 오징어 포를 찌웠으며 촛불을 켜고 제사상 앞에는 향상을 놓고 모사기를 두었다.

<sup>29</sup> 이 지역에서 국은 나물을 대신하기도 한다. 따로 제상에 나물을 올리지 않고, 콩나물과 무채를 다시마육수와 함께 끓여 올리는데 이것을 국이라 한다. 갠은 소금으로 한다. 집에 따라서는 여기에 고사리나 시금치를 첨가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낸 후 식사 때에는 국에 깨소금을 넣어 먹는다.



1. 본 제사
2. 지방을 태우는 동안 부복하고 있는 유영춘
3. 음복
4. 본 제사에 쓸 메를 짓기 시작

했다. 초헌은 제관이 막걸리와 정종을 새로 올리고 재배를 하고, 아헌은 유은종이 막걸리만 새로 올리고 재배를 했다. 종헌은 유영만과 권봉도가 함께 막걸리를 한잔씩 올리고 재배를 하면서 권봉도가 “할매,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소. 널 아침에 어장에 히라스 좀 들게 해주고.”라고 원을 말했다. 개반 후 숟가락을 국에 적서 메에 꼽고, 젓가락은 탕 위로 올린 상태에서 유식이 진행되었다. 국을 내리고 헌다를 위해 물을 담은 그릇이 상위에 올려졌다. 물에 밥을 세 번 나누어 말고, 반개를 한 후 저는 편에 올리고, 막걸리만 첨잔을 한 후 제관 이하 재배를 하였다. 메 뚜껑을 덮은 후 밥을 말은 물그릇을 내리고 제관 이하 모두 재배하였으며, 이때 맏며느리인 김순자도 함께 재배를 올렸다.

집사가 지방을 떼서 불에 사르는 동안 제관인 유영춘은 부복하고 있고, 이후에 유영자 큰딸 내외가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렸다. 제사에 참여했던 친지들이 상에 차려진 음식 중 하나씩을 골라 음복을 하고,<sup>30</sup> 철상과 동시에 저녁식사 준비에 들어갔다. 제사를 모두 마친 시간은 밤 11시 20분경이었다.

식사는 유은종 내외와 남자들이 먼저 하고, 며느리와 딸들은 그 후에 식사를 했다. 제상에 올라갔던 음식 중에 어물은 김순자가 제상 바로 옆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을 내서 식사 상에 올리고, 국은 개인의 그릇에, 탕은<sup>31</sup> 큰 그릇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차렸다. 그 이외에 반찬으로 회, 미역줄기무침, 미역식혜, 젓갈, 김치 등을 차렸다. 식사를 하는 중에 맏며느리인 김순자는 제사에 참석한 친지들이 돌아갈 때 가져갈 음식들을 조금씩 나눠 담았는데, 주로 과일과 어물을 챙겨주었다. 포항에서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온 분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나머지 분들도 12시를 조금 넘어 각자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5월 16일에는 아침에 제사에 참석했던 친지들 중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 남은 제사 음식으로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를 하러 온 친지들은 유은종 내외, 어제 참석을 하지 못한 유영중, 유영중의 부인 이순자, 유은종의 손녀 유예지, 권봉도 내외다. 남자들은 식사 후 먼저 집으로 가고 여자들만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집집마다 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제수를 차리는 내

<sup>30</sup> 헌다 과정에서 나온 물에 말은 밥을 김순자가 권봉도의 손녀딸에게 먹이라 했다. 이 밥을 먹으면 병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sup>31</sup>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낸 후 국물이 있는 탕을 국으로 먹는 것과는 다른 음식문화로 보인다.



용에 있어 바닷가라는 특성이 강하게 보였다. 어물은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는<sup>32</sup> 반면, 육고기는 탕에 들어간 약간의 쇠고기와 동그랑땡을 만들 때 쓰이는 돼지고기가 전부라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또 제주로도 막걸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맑은술로 제주를 하는 예와는 차이가 난다.

### 이정록의 증조부 기제사

2008년 10월 3일 어촌계장 이정록의 증조부 이충일의 기제사가 있었다. 이충일의 족보이름은 이대영으로 음력 9월 5일이 기일이다. 일반적으로 제사 시간은 밤 10시쯤에 지내는데, 이날 제사는 20시에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마을의 항구에 고래배가 출현하여 해양경찰이 마을 항구로 나오라고 전화가 계속되어 19시 30분경에 시작, 19시 45분에 끝났다.

준비한 제사 음식은 대추, 밤, 감, 사과, 배, 한과, 오징어포, 떡, 꼬치, 명태전, 동그랑땡, 어적(방어, 명태, 고등어, 갑오징어), 탕이었고, 술은 상황버섯 발효주를 썼다. 대추는 추석 때 쓰고 남은 것이며 밤은 산에서 주워온 것이다. 감은 2개에 천원을 주고 추석에 구입한 것이며, 사과와 배는 각 3,000원에 구입하였다. 오징어포와 갑오징어는 마을에서 얻은 것이고 떡은 추석 때 빵아둔 쌀가루를 방앗간에 가져가서 찌른 것이다. 꼬치, 명태전, 동그랑땡은 이정록의 부인 박정자가 당일 부쳤다. 어적은 방어 3,000원, 명태 5,000원, 고등어 4,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며, 탕에 들어간 것은 두부, 무, 쇠고기였다.

이정록은 트레이닝 바지에 먼 티셔츠 차림으로 평상복을 입고, 다른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혼자 제사를 올렸다. 지방에는 현증조고학생부군신위(顯曾祖考學生府君神位)라고 적었다. 과거에 해왔던 제사의 순서와 이번에 올린 기제사의 순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sup>32</sup> 제상에 오르는 어물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어장에서 나는 생선 중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경매에 넘기지 않고 우선적으로 제사용으로 저장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귀한 고기를 조상에게 먼저 대접해 조상의 은덕으로 어장에서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라는 비람의 결과로 보인다.



● 이정록 가정 과거 제사 순서

- ① **진설** 제물을 차리고 초를 하나 켜다.
- ② **분향강신** 향을 피우고 술을 부어 모사에 세 번 나누어 붓고 전원 재배를 한다.
- ③ **초헌** 제주가 술을 올리고 혼자 재배를 한다.
- ④ **아헌**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술을 올리고 혼자 재배를 한다.
- ⑤ **종헌**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 술을 올리고 혼자 재배를 한다.
- ⑥ **계반삽시**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에 꽂는다.
- ⑦ **독축** 제주가 술을 올리고 전원 재배 후에 제주가 독축을 한다.
- ⑧ **헌다** 탕 또는 국을 물로 바꾸고 밥을 세 번 나누어 물에 만다.
- ⑨ **첨잔, 국궁** 술을 세 번에 따라 붓고 절은 하지 않으며 조상들이 식사하시는 시간 동안 머리를 굽히고 잠시 동안 기다린다.
- ⑩ **사신** 밥뚜껑을 닫고 술잔과 수저를 물린 후에 전원 재배를 한다.
- ⑪ **철상** 상을 물리고 지방을 태운다.
- ⑫ **음복**

● 2008년 증조부의 기제사 순서

- ① **진설**
- ② **분향강신**
- ③ **초헌** 제주인 이정록이 첫 잔을 올렸다.
- ④ **계반삽시**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에 꽂는다.
- ⑤ **독축** 제주인 이정록이 짧게 독축을 하였다.
- ⑥ **헌다** 탕을 물로 바꾸고 밥을 세 번 나누어 물에 만다.
- ⑦ **첨잔, 국궁** 술을 세 번에 따라 붓고 절은 하지 않으며 조상들이 식사하시는 시간 동안 머리를 굽히고 잠시 동안 기다린다.
- ⑧ **사신** 밥뚜껑을 닫고 술잔과 수저를 물린 후에 전원 재배를 한다.
- ⑨ **철상** 상을 물리고 지방을 태운다.
- ⑩ **음복**

## 시제

○ ●

시제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의 묘에 찾아가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음력 10월의 하루를 잡아서 모인다. 11월 1일(음력 10월 4일)에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위치한 김소(金紹, 1606~1645)의 묘소에서 안동김씨 사직서령공파 영해문중이 모여 시제를 올렸다.

**안동김씨 사직서령공파 영해문중 시제** 김소는 안동 소산마을에서 15세에 영해<sup>33</sup>로 들어왔으며 영해로 들어온 지 400년 가까이 지났다. 김소는 시조로부터 16대손으로 과거 도곡리에 묘가 있었는데, 2003년 4월 19일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산 어귀에는 안동김씨의 증효각이 있고 산의 일부가 안동김씨 영해문중의 땅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재 안동김씨 영해문중의 장손은 김정일(金正一)이며 김소로부터 14대손이다. 시제는 음력 10월 첫째주 토요일로 정해두었으며 이 날에는 영해문중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서 시제를 올린다. 시제의 순서는 <사례 1>과 같다.



1, 2. 안동김씨 사직서령공파 영해문중 시제 참여록

3. 인사를 나누는 시제 참석자들



### ● <사례 1> 안동김씨 사직서령공파 영해문중 시제 순서

- ① **진설(10시 35분~10시 55분)** 제수는 모두 장에서 사왔는데, 어적은 돔, 명태, 사배기, 가자미, 민어를 준비하였고 떡은 영해 방앗간에서 쌀값 26,000원을 포함하여 총 55,000원을 주고 하였다. 그 외 명태포, 삶은 돼지고기를 올렸고 과일로는 대추, 밤, 감, 배, 사과, 포도, 수박을 올렸다.
- ② **분향(11시 05분)** 참석자 중 한 명이 나무 가지와 지푸라기로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을 만들었다. 그 사이 10시경부터 모이기 시작한 영해문중의 후손들은 서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만든 불은 향합에 넣었다.
- ③ **강신(11시 20분)** 모두 신을 벗은 후 재배를 하였다. 집사 세 명은 묘 앞에서 절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그보다 낮은 곳에 일렬로 서서 절을 하였다.

<sup>33</sup> 영덕이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쓰인 지명으로 이전에는 현재 영덕군 일대가 모두 영해로 불렸다고 한다.

- ④ **초헌** 장손인 김정일이 향을 피운 후 술을 퇴주그릇에 지우고 술을 새로 올렸다. 술은 6잔을 올렸고, 이 때 젓가락은 생선에 두었다. 나머지 참석자는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서있었다. 술을 모두 올린 상태에서 전원이 절을 한 번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집안의 어른이신 김우현이 축문을 읊었다. 이때는 여자들도 같이 엎드렸다. 이후 모두 일어서서 다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동안 장손이 재배를 하고 술을 퇴주그릇에 비웠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 ⑤ **아헌** 참석자 중 한 명이 나와서 술을 두 잔 받아서 올리고 나머지 잔은 술통채로 집사가 부었다. 혼자 재배 후 퇴주그릇에 술을 비웠다.
- ⑥ **중헌** 다른 한 명이 나와서 역시 가운데 두 잔만 받아서 올리고 나머지 잔은 집사가 술통채로 부었다. 혼자 재배 후 퇴주그릇에 술을 비웠다.
- ⑦ **첨작** 종손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집사가 첨작을 하고 종손 혼자 재배를 하였다. 이후 생선에 있던 젓가락을 떡으로 옮기고 전원 길게 한 번 절을 하였다.
- ⑧ **국궁** 젓가락을 돼지고기로 옮긴 후 전원 잠시 동안 머리를 굽힌다.
- ⑨ **철시복반, 사신** 젓가락을 모두 내리고 재배를 한 후 끝이 났다.
- ⑩ **음복(11시 30분)** 마지막에 올린 술과 퇴주그릇에 남긴 술로 음복을 하였다.



1. 전설
2. 상차림
3. 향을 피우기 위한 불 만들기
4. 제를 올리는 참석자들
5. 음복
6. 제사가 끝난 후 모두 모여 제수와 술로 음복

제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모두 둘러 앉아 상에 올린 제수와 술로 음복을 하였다. 이 때 술은 제주로 쓴 막걸리뿐만 아니라 준비해온 소주도 마셨다. 약 한 시간 정도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 어르신들은 12시 50분경 안동 김씨 사직서령공파 영해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덕군에 위치한 흠어져 있는 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나눈 후에 이듬해 음력 2월 초사흘날 영해문중 모임을 기약하며 13시 20분경에 헤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성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양복을 입었고, 한 명은 두루마기를 입고 정자관을 썼으며, 여성은 깔끔한 일상복이나 외출복을 입었다.





# 8 종교생활

개인신앙

가정신앙

마을신앙

참고자료(경정2리 별신굿 조사 현장 노트)





# 개인신앙

그녀는 신병(神病)을 앓지 않고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 주변의 권유로 1년 반 동안 교회에도 다닌 적이 있다고 하였다. 마을에 있는 경정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문턱을 넘 어가기만 하면 하품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을 떼어내겠다는 각오로 1년 반을 다녔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 불교

● ○ ○ ○

### 영명사

1. 영명사 창건주 명단비
2. 영명사 전경
3. 영명사 대웅전
4. 영명사 요사채
5. 영명사 삼성각



1



2



3



4



5



영명사는 축산면 축산리 169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법화종 종단의 절로 처음에는 축산항 근처에 위치해 있다가 1958년에 현재의 위치에 새로 지어졌다.<sup>01</sup> 영명사는 과거 축산항에서 어업을 하던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지은 절로 기도나 석가탄신일 행사 등 절의 크고 작은 기도 및 행사가 있을 때 들어오는 시주금으로 운영하는 절이다. 스님은 영명사 불자들이 초청하여 기도를 보고 있으며 스님이 다른 절로 가게 될 경우 다른 스님을 초청하는데 평균적으로 5년 내외에 한 번씩 스님이 바뀌게 된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월(指月) 스님이 절의 주지로 있으며 절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회장 이강길, 총무 김달영, 부회장 신현주가 있다.

영명사에 모이는 불자는 주로 축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데 절을 처음 지을 때 축산리 어민들이 모여서 절을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절이 축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전체 불자 중 축산리 주민이 130~150가구 정도이며, 경정1리 주민 중에서는 약 35가구가 영명사에 다니고 있으나 석가탄신일에만 절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경정2리 주민들 중 약 10가구 정도가 영명사에 다니고 있으며 일부 불자는 대구나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절의 운영은 대부분 시주금으로 운영된다. 일년을 주기로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절을 찾는 시기는 음력으로 1월 5일 정월 신년기도, 음력 2월이나 3월에 방생기도, 석가탄신일, 칠석·백중 기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신기도, 동지 기도 등이다. 그 외에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있다.

방생기도는 영명사 불자들이 다른 지역의 좋은 절을 택하여 찾아가고 그 절이나 근처 바다 등에 방생을 하는 것이다. 방생기도 때에는 불전함의 시주금을 모아서 모두 스님에게 주고 있으며, 동지에는 쌀을 거두어서 스님 양식으로 주고 있다. 그 외 기도에서 시주금이 거두어지면 스님과 불자가 반씩 나누는데, 불자에게 나누어지는 돈은 영명사 불자 조직에서 관리하며 비품 구입, 기도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 절의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절을 찾는 불자들은 대부분 어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생업 등의 이유로 기도 때마다 참석하는 불자는 30~40명 정도에 불과하다. 기도와 행사의 진행은 스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기도는 대개 오전 11시쯤 시작하여 12시경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다. 점심식사는 공양물을 준비하면서 장만한 음식으로 차려지는데 칠석 기도 상차림은 쌀밥, 콩나물국, 김치, 오이 무침, 파무침,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감자튀김이었으며, 식사 후에는 백설기, 수박, 포도, 바나나, 배, 메론을 후식으로 먹었다. 10월 31일 산신기도가 끝나는 날 상차림은 쌀밥, 콩나물 호박국, 물김치, 총각김치, 두부,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고구마튀김, 무생채였으며 백설기와 사과, 배, 감, 포도, 메론, 귤, 바나나를 식사 후에 먹었다. 식사를 할 때는 불자들 간에 안부를 묻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

<sup>01</sup> 영명사는 종단에 가입하지 않다가 1982년 최영산 스님이 주지로 있을 당시 대한불교 법화종에 등록을 하였다.

습이었다. 모든 식사가 끝난 후 불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스님이 불자들에게 2009년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 달력은 2008년 영명사를 찾았거나 시주를 한 불자에게 나누어졌으며 경정1리 주민에게 나누어줄 달력은 약 40여 개였다.

영명사에는 절을 운영하는 조직 외에도 칠성계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 칠성계는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절의 개보수 및 신축에 보탬을 주고자 만든 조직으로 기도나 행사 등 회원들이 절을 찾는 1년에 두세 번 회의를 가지는데 2008년 칠석 날에는 칠성계 회장 선출이 있었다. 회장 선출은 추천과 회원 동의를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전 총무가 추천이 된 후 더 이상 추천자가 없자 바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신임 총무도 회장의 추천으로 새롭게 뽑혔다. 이후 회장단 인수인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칠성계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회장단의 인수인계가 끝난 후, 새 회장이 칠성계의 회비 사용은 절을 신축하고자 할 때 칠성계의 이름으로 기둥이라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자 한 회원이 “지금 절 잘 지어놨는데 뭐하러 신축을 한다 말을 하는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였고, 결국 예산과 관련하여 그 쓰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회의가 끝났다.

경정1리 주민들 중에서 강축도로가 생기기 전 영명사를 찾았던 사람들은 다불재를 넘어 걸어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절을 찾고 있다. 절에는 필요시에 쓰는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불자들이 기도 후 집으로 가는 시간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스님이 데려다 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이순란은 영명사 지역대표로서 경정1리 대표를 맡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 중 절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석가탄신일로 약 40~50명의 경정1리 주민들이 영명사를 찾고 있으며 칠석 기도나 10월 산신기도 때에는 약 3~4명의 주민들만 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칠석을 맞아 절에 모인 불자는 총 35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경정1리 주민은 3명이었다.

1. 영명사 칠석기도 상차림  
2. 음력 10월 산신기도







1. 효심사 전경  
2. 효심사 대웅전

영명사와 함께 마을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정1리 주민들이 찾아가는 절로 효심사가 있다. 효심사는 경정3리 오매마을 666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주지인 담연(湛然)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2000년도에 경정3리로 들어왔다고 한다. 효심사는 조계종단의 관음기도도량으로 담연스님이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마을 주민으로부터 뒷산이 불신산(佛身山)이므로 절이 들어설 자리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불자는 주변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지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불자들이 찾아와서 절이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절이 지어진 자리에는 슬레이트 지붕의 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스님이 지니고 다니던 호신불만을 모시고 있다가 2001년 1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절을 짓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자가 마을 주민 다섯 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전국에서 불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기적인 법회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와 생업 등의 이유로 기도 법회에 참가하는 주민의 수는 많지 않다.

담연 스님이 소개하는 영명사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스님의 꿈에서 용이 두 마리가 승천하고 난 후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큰 쟁반에 밥을 하나 담아서 스님에게 주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시간은 새벽 두 시 반이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삼배를 하고 꿈을 메모에 적어두었다가 아침공양 후 공양보살에게 꿈을 말했다니 관세음보살을 모셔야겠다고 하여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관음도량이 되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음도량이 바다와 접해있는 것과 유사하게 효심사도 바닷가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꿈과 관련하여 2006년에 백일기도를 할 때 백일기도가 끝나기 일주일 전쯤 꿈에서 부처님을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지인의 도움을 얻어 2006년 8월부터 절 지붕 위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영명사에 비하면 효심사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효심사에 다니는 경정1리 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

경정1리 마을주민 중에서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단 사람은 김종태, 김정란, 김희상, 권봉도·유영자 부부, 김차성·김영희 부부였다. 효심사에의 요사채에는 싱크대 옆에 조왕신을 모시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스님이 직접 그려서 모셔놓고 있는 것인데, 절에는 으레 산신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종교적 특징인 종교 간 융화와 습합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효심사 요사채에 모셔진 조왕신



경상북도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약 100여 년 전쯤으로 경정1리에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들어왔다. 당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씨 집안의 사람들뿐이었다고 한다. 1929년에는 이만익이 예배당을 설립하였으나 얼마 후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5명의 마을 주민들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7년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서황이 부임하여 가정집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았고, 약 1년 정도 이런 형식의 예배가 계속되었으나 김서황이 전근을 가면서 예배가 끊기게 되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나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현재 경정교회의 집사를 하고 있는 김영학은 21살에 군대를 갔다 온 후 3년 후부터 축산항에 위치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함께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권일랑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권일랑이 병에 걸리게 되면서 권일랑도 김영학의 인도를 받아 철야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기도를 다니면서 권일랑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자 1960년경에 염장에 있는 논을 판 돈 20만 원을 가지고 김영학에게 교회 짓는 일을 문의하였고 그 돈 중 17만원으로 교회 터 50평을 샀다.

김영학은 20대 초에 조성호 기관장으로서 어업을 하었는데, 태풍이 이는 날 늦은 시간에 바다를 나갔다가 기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바다에서 표류하였다고 한다. 배가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모두 김영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구룡포 어선이 발견하여 이를 만에 구조되었다. 당시 김영학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날 살려주시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내 시체가 엄마 눈에 보이도록 해주십시오.”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배를 타지 않고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교회를 지을 당시에는 돈이 부족하여 작게 짓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터를 넓게 잡아놓으라는 축산 교회 목사들의 충고를 들어 50평의 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막상 교회를 지으려고 하자 공사할 때 시끄럽다는 이유로 교회 터 옆집에 살고 있던 주민이 반대하였고, 대신 자신의 밭을 준다고 하여 그곳에 짓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장이 그 자리에 집 짓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말려서 알아보니 당시 마을에서 무당을 하고 있던 주민이 교회가 들어서면 마을신이 노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처음 산 땅에 짓기로 결정을 하였고, 김영학과 권일랑이 백사장에서 벽돌을 찍어내어 나르는 동시에 축산 교회 집사와 목사를 비롯하여 마을 청년들 몇 명도 도와주어 1975년부터 짓기 시작하게 된다. 김영학은 교회를 짓는 도중에 모친상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상복을 입고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학과 권일랑 등은 전문 건축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여 21평의 비교적 작은 건물을

1976년 7월 12일 완성하였고, 1977년 9월 23일 입당식을 하였다. 목사는 없는 상황이었고 세례교인이 30명을 넘어야 장로를 둘 수 있었지만 교인 수가 부족하여 당시에는 집사와 전도사만으로 교회를 꾸리게 되었다.

그렇게 지은 구 교회는 건물이 작고 불안하였던 반면 교인의 수가 비교적 많고

1. 구 교회 건축
2. 구 경정교회 앞에서 당시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
3. 현재 구 경정교회



현금도 잘 들어왔기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 당시 조인수 목사를 중심으로 새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고 1997년 11월 18일 신축교회 기공식을 거쳐 1999년 6월 25일 입당식을 하게 된다. 새 교회를 지을 당시 이종택 장로가 받을 기증하였으며, 건물 건축비는 1억 정도 모아진 현금으로 충당하였다. 새 교회를 지을 때 현재 교회가 위치한 자리에 지을 것인지 제당 옆 오징어 건조대 자리에 지을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다가 오징어 건조대에 짓기로 결정하였는데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반대하여 지금의 자리에 짓게 되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의 반대는 오징어 건조대 터가 제당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서면 마을의 수호신이 맥을 못 추게 되어 동네가 망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구 교회가 있을 때는 동제가 있을 때 교회 새벽종을 치지 말 것을 부탁한 적도 있었다. 제사를 앞두고 3~4일 전부터 제사가 끝날 때까지 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었으나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경정교회는 처음 들어설 당시부터 마을 주민이나



민간신앙 및 마을신앙과의 마찰을 계속 빚어내 왔으나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현재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상태이다.

경정교회 목사는 조인수 목사가 1999년 4월 15일 목사안수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목사가 있게 되었으며 조인수 목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현재 목사를 하고 있는 안동욱 목사가 2002년 10월 20일 마을에 들어와 교회를 맡게 되었다. 현재 자치회인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인의 대부분은 경정1리 주민으로 간혹 경정2, 3리 교인들도 찾는다고 한다. 현재 경정교회는 경정1리 217번지에 위치해 있다.



1. 경정교회 전경
2. 경정교회 주일 예배
3. 경정교회 헌당식

#### 교회내역

1926년 미국 선교사 선교 시작

1929년 이만익이 예배당을 설립. 예배당은 이후 없어지고 밭으로 사용함

1957년 김서항 교사 집에서 예배 시작함

1960년 권일량이 대지 50평을 사서 김영학에게 교회 신축 문의

1976년 7월 12일 구 교회 완성

1977년 9월 23일 교회 입당식

1977년 12월 18일 김성임 전도사 부임

1997년 11월 18일 신축교회 기공식

1999년 6월 25일 입당식

#### 역대 교역자

김성임 1977.12.28 ~ 1979.02.23

이재식 1979.04.28 ~ 1979.09.07

김상천 1979.09.28 ~ 1980.03.15

황청자 1980.06.30 ~ 1983.07.01

조영만 1983.09.01 ~ 1984.06.30

김명곤 1984.08.03 ~ 1986.07.15

이상대 1986.10.13 ~ 1888.10.30

김영규 1989.01.02 ~ 1989.05.22

김용대 1989.07.14 ~ 1991.05.02

조인수 1991.06.20 ~ 2002.09.24

안동욱 2002.10.20 ~ 2008.현재

무는 하나의 종교로서 무당, 신령, 단골이 굿이라는 의례과정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경정1리에는 유보살이라고 불리는 무당 유순애가 있다. 유순애는 경정1리가 고향으로 21살에 고 김정식과 결혼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유순애의 무병 과정에서부터 내림굿을 받고 현재까지 살아온 이야기와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유보살(유순애)

### 무병과 성무

유순애의 시어머니는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였으며, 집 안 신당에 신령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고 있었다. 유순애가 시집을 온 2년 뒤인 23살에 그녀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3년 정도 후에 갑자기 병을 앓았다. 유순애는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그것이 신병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신을 떼어내기 위해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떼어내지 못하고 태백산의 한 무당에게서 그녀의 나이 39살에 내림굿을 받게 된다. 그렇게 신병을 앓은 기간이 13년이나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시어머니를 칠성으로 모시면서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다음은 조사자와 유순애의 대화 내용 일부를 옮긴 것이다.

**조사자** 모시는 신이 누구십니까?

**유순애**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시집오니까 받아 가이고 모셔놓고, 손님 받아들이고 이러지는 안하고 모셔뵈더라고. 그래 가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받아 가이고 모셔 뵈더라고. 모셔뵈는데, 내가 시집와가이고 2년 돼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못해먹었는 거를 내인데 돌려주겠다고 그래 내인데 온다하대. 그래 우리 시어머니를 받아들였거든. 내가 13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조사자** 어느 날 갑자기 아팠습니까?

**유순애** 갑자기 아팠는데 처음에는 온몸을 추워서 떠는 것 맨트로 달달달 떨대. 처음에는 병인 줄 알고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여기서로 포항가가이고 입원시켜 놓으면 3일만 눕혀놓고 검사 받으면 100만원이 넘기가 쉬워. 병원에 가면은 아무 병이 없대. 나는 아파죽겠는데, 병원 탕기다 탕기다 병이 없다 해가이고, 병원에도 가가이고 병이 없다하면 병원에서도 무속인

찾아가라 그래요... 처음에는 떼려 다녔지. 그래도 안 떨어지는 신은 안 떨어져요. 밥도 못해 먹고 외숙모(박동희)가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살았더니까. 나는 밥도 못해먹고 살림도 안하고 아파 가이고 누워있었다니까네. 아파 내 죽는다고 방에 매일 구르면, 온 몸에 바늘 가지고 찌르는 것 같애. 그렇게 30분이고 40분이고 있다가 괜찮고 이래가. 우리 집애가 처음 오는 사람은 저만큼 아픈 사람을 왜 병원에 안 데려가노 이라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 신으로서 주는 병이. 아들이가 쪼매냈거든. 그래 내가 안 받아 모시려고 자꾸 신을 떼려 다녔다고. 그제 신이 떨어질 신은 떨어진다던데 안 돼. 하고 나면은 한 두어 달은 안 아프다가 또 아프고 아프고 돈만 다 버렸지. 가가 굿을 하고 내버리려고. 좋다는 데는 울산이고 어디고 태백산이고 안 가본 데가 없고. 굿도 많이 했니더. 우리 굿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굿 하고 나면 한두 달은 안 아파. 한두 달 안 아프고는 또 몸에 와가지고 아프고 아프고 그러면 한두 달 안 아픈 그 재미로 그렇게 많이 했거든. 해도 결국엔 안 돼가이고 39살 먹고는 도저히 안 돼가이고 밥 무려 집에 있다가도 화장실 가는 척 하고 나와 가이고는 산에 가 앉아있어 학교 뒤에 산에 가가 앉아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 아저씨가 내 화장실에 있나 찾아 나오면 없으면 학교로 찾아 나온다고. 오면 인제 부르면 산에서 자꾸 대답하고 대답하고 이러끼네 도저히 안 돼놔더니 어디가야 우리 아저씨가 또 점을 보러 갔던 모양이라. 무속인을 찾아갔던 모양이라. 가니까 이제 나뻘면은 미쳐가지고 집을 나간다 하더라. 그래 집을 나간다 하이께네 우리 아저씨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길로 도저히 받아가이고 모시자 그래가이고 나는 안모시겠다. 첫째 아들이가 쪼매 나니까 남인데, ‘아이고 너거 엄마가 무속인이다. 누구집에 일하러 댕기더라.’ 이런 놀림받 받는다고 나는 안할라 하고 우리 아저씨는 죽으나 사나 하자하고 그래 우리 아저씨가 니가 죽기보다 안 낫나. 차라리 니가 마 무속인 말따네 집 나가 가지고 정신이 미쳐가지고 나가뻘다 니께네 니 어디 댕기다가 죽어뻘면 우째나 하며 그라께네 아들 놀림받 받아도 죽는 것 보단 안 낫나 해가이고 우리가 저 태백산 가가이고 받았거든. 저 태백산 가가이고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뭐 너무 내가 오래 아프고 이래놔서 그렇던지 그만큼 13년 동안 신에 시달리고 그래 그렇던지 태백산 가가이고 딱 받고 와가지고 그날부터 뭐 손님 받아들였으께네.

그녀가 겪은 신병의 형태는 몸이 덜덜 떨리고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듯한 증상이었다. 유순애는 13년 동안 무병을 앓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 신내림은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설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고통으로 결국 떼어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신령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무당이었던 시어머니를 따라 무당이 된 세습무의 형태이다. 그녀는 신병을 앓지 않고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 주변의 권유로 1년 반 동안 교회에도 다닌 적이 있다고 하였다. 마을에 있는 정경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가기만 하면 하품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을 떼어내겠다는 각오로 1년 반을 다녔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 신령

유순애는 그녀가 모시는 신령인 시어머니를 할배라고 부르고 칠성신으로 모시고 있다. 신상은 한지로 고깔모양으로 접은 형태이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전부터는 부처님을 모시기 시작하였으며 5년 전부터는 장군신장도 모시게 되었다. 그 외에도 천지신명, 마을의 수호신인 이골서낭당상할배와 심부름을 하는 선녀와 동자, 글문도사, 대감 할배 등도 모시고 있는데 탕화와 비슷한 형태의 무신도에 그려진 신들을 모두 받는 것이라고 한다.

**조사자** 그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겁니까?

**유순애** 예.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 시어머니를 모셔도 시어머니만 들어오는거 아이고 천지신명님도 들어와야 하고. 이골서낭당상할배네가 이골을 지키고 있으니께네 이골서낭당상할배네도 들어와야 하고. 박씨터전에 김씨골매이러거든. 그러니께네 인제 그 할배도 들어오셔야 되고 동자도 들어와야 되고 선녀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선녀 동자가 심부름을 하제. 손님을 받아들이면은 선녀동자가 인제 그 집에 가야 어떡다는 거를 보고 와가이고 다 일러주고 심부름을 하고 이러니께 선녀동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 선녀는 우리 친정 동생이가 쪼매난 때 옛날에는 흥역하다가 많이 죽었잖아. 그러가지고 선녀로 들어오고. 동자는 산신동자가 들어오고 그러가지고 모시고. 시어머니라 해가이고 딱 시어머니만 들어오는 거 아이거든. 그래 뭐 글문도사도 들어와야 되고 다 그렇거든. 대감 할배도 들어와야 되고... 이래 받아 해먹는 사람들도 저 보는 사람은 숨는 것 같애도 힘들어요. 산신기도 많이 다녀야 되고. 저 태백산이고 안가본데 없거든. 그만큼 내가 공을 들여야 돼요. 윗대에서 하마 내려오면 그래도 태화(탕화) 불 같은 것도 영해 절에나 우리 가정집에나 모시는 것은 장군신장이고 칠성이고 다 탕화불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모시는 거고. 있다 보니까 꿈에 선물도 주고 자꾸 이러니께 누가 부처님 모시라.

**조사자** 꿈에 뭐가 보이세요?



1. 칠성
2. 부처와 장군상
3. 선녀와 동자의 옷
4. 선녀와 동자의 신



**유순애** 꿈에 할아버지들이 보이고 장군신. 내 옆에 어떤 남자가 아래 앉아가지고 내가 장군신장이라 하고 내가 누구냐고 꿈에 묻거든. 물으면 내가 장군신장이라 하고 꿈에 자꾸 선몽 주고 그래가지고 장군 신장도 모시고.

유순애의 신당은 가운데에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 각각 칠성과 장군신장을 모시고 있다. 부처님은 석고, 장군신장은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칠성은 한지로 접은 것이다. 칠성과 장군신장의 좌우에는 지화가 만들어져 있으며 신상의 한 단 아래에는 제물이 차려져 있다. 술잔은 세 개로 각각 부처님, 칠성, 장군신장에게 바치는 것이고 천수는 7개를 올린다. 신상의 뒤에는 탕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무신도가 그려져 있다. 한쪽 벽에는 선녀와 동자의 옷이 걸려있는데, 선녀와 동자는 샘이 많기 때문에 옷은 항상 똑같이 해줘야 한다.

## 활동

유순애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신이 모시는 신령에게 기도를 드리고,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밥을 새로 지어 정성스럽게 제단을 차려 마짓밥을 올린다고 한다. 유순애는 이것을 ‘보양 올린다’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점복을 행하고 부적을 처방하기도 하며 뱃고사, 차고사를 주관하거나 굿을 행하고 사월초파일과 동지에는 단골들이 모여 함께 행사를 치르기도 한다. 현재 유순애는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지역으로 굿을 다니지는 않고 그 외의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

**조사자** 굿하러 다른 지역에 다니기도 하세요?

**유순애** 손님받고 뭐 일하러 다니고 계속 그래다가 내 몸이 안 좋아가이고 요즘엔 암께도 못다니거든. 그래 다니지는 안하고 집에서 인제 기도만 드리고 행사 때 행사나 치르고 이러지. 옛날에는 일하러 많이 다녔거든. 뭐 안동 같은데 이런데 많이 다니고 이랬는데 인제 다니지는 못하고 집에 오는 손님이야 저거 하고. 아플 때는 아프다하지만은 받아 모셔가 하는 거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들어가야 되지. 초하루, 보름 되면 꼭 밥해가이고 보양 올려야지. 잔거리 다 해가이고 보양 올려야지. 이거 받아모시가고 하는 사람들도 이래 보는 사람들은 수위보여도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래 이거 모셔놓고 나면 산기도 같은 것도 많이 다녀야 하고. 산기도 같은 것도 저 높은 산이라고 하면 태백산이고 어디고 전에는 많이 다녔어. 많이 다니고 그만큼 공을 닦아야지. 모셔났다고 해서 가만 앉아가지고 해 먹는 것 아니고 순 공을 닦아야 내가 그만큼 나대고 공을 닦아야지.

**조사자** 삼재풀이도 많이 했어요?

**유순애** 삼재풀이는 많이 했어... 삼재든 사람들 속옷, 속 팬티 하나 하고 부적 석 장 가져 가 가지고 삼실과일 사고 뭐 밥 하고 이래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원해주고. 삼재 풀이는 그리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정집인 텃밭에 오는 신도들은 안 많아. 한 50명 될 것 같 아요. 50명이라도 한 뭉치 오는 것이 아니라 떠들떠들 오지.

**조사자** 이 동네에서 풍어제나 배고사 지낼 때 해주시고 했습니까?

**유순애** 풍어제는 영해에 국보급이 오고, 배고사나 차고사는 많이 다녔지. 집에 일 년에 한 번씩 안락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다녔지. 인제는 배고사도 많이 안하고, 옛날에는 배고사도 일 년에 한 번씩 꼭꼭 하거든요. 옛날에는 일 년에 한 번씩 두드려야 집안이 잘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차고사도 예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가 했는데 인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신당 외에도 유순애가 마을 내에서 치성을 드리는 곳으로 축산향초등학교 경 정분교 뒤에 위치한 용왕당이라고 하는 작은 샘이 있다. 유순애의 집에서는 도보 로 불과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용왕당도 신당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제물을 차려 기도를 올리는데, 신당처럼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하루와 보름 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사월초파일 행사와 동지 행사 때에도 다녀온다. 그 외에도 유순애가 가고 싶은 날이나 백일기도 등을 드릴 때에 찾는다고 한다. 유순애는 샘물이 투명하지 않고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암물이라고 한다. 유순애가 울산에 서 굿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집 마당으로 용왕당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무당이 자신의 신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 서 용왕당을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유순애에게 알려줘서 그 이후로 치성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조사자** 학교 뒤에 어디에도 치성을 드리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순애** 예. 용왕당 모셔놨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샘 웅덩이라고요. 샘 웅덩이가 여름에 밭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거 물로 다 퍼다마시고. 거는 암만 날이 가물어도 물이가 평평평평 많이 나대요. 그런데 안 말강고 부헌. 부헌 물은 우리가 암물이라 그러거든. 이제 남자 같은데 솟물 이고. 부해. 우리 쌀뜨물 맨드로 그런 색깔이 나가고. 그래 가이고 그다가 우리 옛날에 우리 큰집에가, 요즘엔 아무도 그래 안하는데 옛날에는 일 년에 한 번씩 가을 농사 지으면은 집집 마든 다 무숙인 들어빌잖아. 일 년에 한 번씩 무사하게 농사고 뭐고 잘되게 무사하게 집안편 안하게 해달라고. 농사 가을농사 지었다고 벼(벼)같은 거 베가고. 햇곡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아가면서 잡귀 없애라고 떡은 인제 시루떡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했는데, 인제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때 인제 내가 제일 처음에 울산가가고 굿할 적에 그 서로 그 물이가 우물 물이가 우리 그 때만해도 이집에 살았는데, 이집 앞에 다 내 눈에 다 보

이테요. 울산서 그 무속인들 하고 일로 하는데... 그라고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보살들이가 밤에 지면은 그 샘물이가 자꾸 꿈에 선목준다대. 보인다대. 그래 가이고 거기다 용왕당을 모셔라 해가이고. 옛날에 우리 큰집이가 산에가 큰 소나무 밑에 가가이고 요래 음식을 해가이고 만날 보살 데리고 가야 빌고 했거든. 그래 가이고 거다 용왕당을 모셔라 그래 가이고 고거 우리가 용왕당을 모셔놨거든.

현재 유순애의 집 마당에는 신간(神竿, 신대)을 세워두었는데, 신간은 대나무에 오색기를 달아둔 형태이다. 신대는 도곡 대나무밭에서 사와서 세워두고 오색기는 영해 불교 상회에서 사온 것이라고 한다. 신령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는 회색의 법의를 입고,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드리러 갈 때에는 하얀색의 칠성복을 입는다. 이 때 목에는 긴 염주를 걸고 무구로는 쟁과리, 신칼, 북, 대감부채를 사용한다.

오늘날 사라진 풍경 중의 하나는 마을 주민들의 부탁으로 유순애가 주관했던 것으로 추수가 끝날 때 각 가정에서 햇곡식을 조상들에게 바치는 기도가 있다. 과거 마을 주민들 중에서는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햇곡식을 조상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집집마다 드렸던 것이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데다가 따로 조상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라진 것이다. 과거 10월 추수가 끝날 무렵에는 하루에 두세 집을 다니면서 조상들에게 햇곡식을 바치고 감사하는 의미의 기도를 해주었다고 한다.





1



2



3

1. 용왕당
- 2, 3. 석가탄신일에 용왕당에서 차성을 드리는 유보살

뗏목가 아닌 어장배와 대게 배의 선장실에는 성주를 모시는 경우가 있다. 배에서 모시는 성주 역시 집에서 모시는 성주와 마찬가지로 창호지를 접고 실타래를 묶어 매달아 놓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배 성주는 대개 새 배를 들여오면 모시게 된다. 이때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 이후에 고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횃수 등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배를 처음 사왔을 때 성주를 모신다면 1년을 주기로 하여 뱃고사를 해오고 있다. 주로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지내는데, 과거에 비해 의미가 축소되고 과정도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다. 고사를 지내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어장배인 용성호의 경우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경우에 고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고사를 지내는 날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장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유독 자신의 어장에만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을 때 지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면 고기가 어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만큼 고사를 정성들여 지내지는 않고 있다. 과거에는 배에 관한 일이 굉장히 까다로워 그물을 교체할 때에도 술을 뿌리면서 고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다른 어장배인 영덕호도 처음 배를 샀을 때 영해에서 윤보살이라는 무당을 불러서 고사를 지냈으며, 최근에도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에 고사를 올리고 있다. 그 외에도 설을 원 후 일 년 신수를 보러가서 양밥을 하라고 권하면 하라는 방식 그대로 한다. 2008년에는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바닷가에 나가 막걸리를 뿌리고 봉지밥을 어장에 던져 넣어 간단히 양밥을 하였다.

1. 개풍호의 배성주  
2. 용성호의 배성주



잠수배인 경진호 역시 1년에 한 번 정도 고사를 올린다. 역시 날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월달 또는 음력 10월에 많이 한다. 경진호 고 김정식의 부인 유순애가 무당이기 때문에 경진호의 고사는 유순애가 담당하고 있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낱을 받아서 고사를 올리기도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는 정월 대보름에 삼재풀이를 할 때 해왔다고 한다.

대게배인 우진호는 매년 음력 1월 보름이 지나고 나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 칠보산 마고할매당의 무당을 불러와서 하는데, 한 번 제를 올리는 데에 평균적으로 백만 원 정도가 든다. 무사고로 작업할 수 있도록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사고로 조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왕제를 계속 지낼 예정이다.

이러한 형태로 아직도 뱃고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뱃고사를 지내는 횟수나 음식 차림, 중요성에 대한 인지 등이 차츰 떨어지고 있음은 어민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어장배와 대게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어업이나 채취어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고사는 하지 않는다. 양식어업과 채취어업은 어장배와 대게배에 비해 자연의 영향을 적게 보면서 투자비용과 어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가정신앙

김옥출은 시준단지를 없앴다가 다시 모시는 경우이다. 그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준단지를 없앴으나, 아들이 장가를 가서 딸만 둘을 낳은 후 삼신을 위하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경정1리 뱃불마을에서는 과거부터 전해오던 가정신앙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몇몇 집에서만 가정신앙의 모습을 겨우 엿볼 수 있는데, 그 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세대에서 사라졌거나 최근 들어 신체(神體)를 없애면서 가정신앙을 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사이에 가옥을 개조하거나 신축하면서 없애버린 경우가 많으며, 노인들 중 부인과 사별한 남편들은 가정신앙을 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가정신앙이 주로 부녀자 중심으로 믿어져 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경정1리에서 찾아볼 수 있거나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가정신앙으로는 조상신앙, 삼신신앙, 성주신앙, 조왕신앙 등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조상신앙과 삼신신앙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상신앙의 대표적인 신체 형태인 신주단지를 모시는 방식은 조상신앙으로 보이나 제보자가 그 의미를 삼신신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조사자는 신체 형태나 모시는 방식과 관계없이 제보자가 신앙심을 가지고 신체를 모시는 그 의미와 내용을 우선으로 삼아 삼신신앙으로 구분하였다.<sup>02</sup>

조상신앙과 삼신신앙의 단지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쌀을 담아두고 있다. 쌀을 담아두는 것은 주로 농촌 가정신앙에서 보이는 것으로, 경정1리는 현재 어촌마을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마을에 농사를 짓는 가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경작했던 논에서 수확한 햅곡식이나 햅쌀을 갈아 넣었던 제보자의 경험에서도 그러한 점을 볼 수 있다.

<sup>02</sup> 신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제보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글에서는 제보자의 용어를 그대로 따랐으며, 제보자가 신앙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김옥출의 경우에는 시준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의미가 삼신신앙과 같으므로 삼신신앙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하지만 김옥출은 그 단지를 삼신단지가 아닌 시준단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제보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시준단지로 기록한다. 또한 최태원은 시준단지를 조상신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신앙에 기록하고 제보자의 용어대로 시준단지로 기록하였다.



조상신앙은 조상이 사후에 신이 되어 가문과 자손들을 돌보고 지켜준다고 믿는 가정신앙의 하나이다. 경정1리에서 보이는 조상신앙은 신체의 유형이 주로 단지와 함, 바구니인데 함이나 바구니는 삼이나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개인에 따라서 단지는 시준단지, 신주단지라고 부르고 함이나 바구니 형태는 조상함, 조상바구니, 조상당시기, 조상당식, 조상호리, 조상고리등으로 부르고 있다.

시준단지는 주로 안방에 모셨으며 단지에 쌀을 넣고 단지의 상단을 실이나 종이로 묶어 모시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최태련은 시준단지 쌀로 밥을 해먹었을 때 1년 동안 묵은 쌀이라 맛이 없었으며, 단지가 클 경우 2되 가량의 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밥을 한 번에 다 먹기까지가 힘들었다고 회상을 하기도 하였다. 김영대는 신주단지를 모친이 살아계실 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모친이 돌아가실 때 같이 없었고 현재는 신주단지를 모시던 자리에 족보를 보관하고 있다.

단지가 아닌 함이나 바구니의 형태로 신체를 모신 경우도 있다. 이대우는 안방에 작은 다락을 만들어 조상함을 모시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조상함을 모시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보를 이어받듯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한다. 함 안에는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는 글을 적어두었는데, 조상을 합칠 때에는 함을 꺼내어 종이에 이름을 적지는 않고 축을 하는데 그것을 ‘신축한다’고 말한다. 결혼을 하여 며느리로 들어온 여성의 경우에도 신으로 같이 모셔진다고 한다. 이대우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조상함이 있는 안방에서 조상함이 위치한 다락 방향으로 제사를 올리고 있다.



집 조상함과 삼신단지(이대우)

이대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조상함 또는 조상바구니 등을 더 이상 모시고 있지 않다. 권련이는 조상당시기 안에 혼백과 같은 것을 넣어두었는데 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버렸다고 하며, 최태련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적어둔 종이를 넣어두었는데 집을 신축하면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박종예도 세 개의 조상고리를 안방 선반에 모시고 있었으나 집을 신축하면서 태워버렸다. 박종예는 조상고리 선반 앞에 밥을 놓아두고 벌어오는 돈을 조상고리 안에 두기도 하였으며, 봄에는 진달래를 꺾어 그 앞에 꽂아놓곤 하였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상신앙은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지만, 세 시별로 조상에 상을 올리는 형태로 잔존하기도 한다. 주로 설이나 추석을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사월초파일, 단오, 동지에 상을 올리는 형태이다.

상을 올리는 형식은 유교적인 절차의 차례와는 달리 간단하게 밥과 반찬 등을 차려서 올렸다가 곧 거두어들인다. 가정에 따라서는 비손을 하거나 소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침식사 전에 간단히 음식을 차려 올렸다가 그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형식이다.

## 삼신신앙

○ ● ○ ○ ○

삼신신앙은 경정1리 마을주민들이 믿고 있는 가정신앙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신체는 단지 모양이고 삼신단지, 신주단지, 시준단지라고 부른다. 신주단지 또는 시준단지는 본래 조상신앙을 모시는 신체를 부르는 명칭이지만, 경정1리의 주민들 중 몇 명은 삼신단지를 신주단지 또는 시준단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것은 신주단지, 시준단지라고 하는 신체를 모시는 배경과 이유가 주로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대우는 조상함을 모신 공간에 삼신단지를 같이 모시고 있다. 단지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정확히 언제부터 모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단지에는 쌀을 담아 두었고 단지 상단을 백지로 들렀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마을에서 산신단지나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집안이 거의 없는데, 이대우에 의하면 대부분 집수리 또는 이사를 하면서 없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대우는 자신이 7대 독자이기 때문에 다산을 위한 신앙으로 아직까지 산신단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대우가 어릴 때에는 형제가 몇 명 있었지만 군대에서 죽거나 다른 이유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한다. 현재 이대우의 자녀는 아들 세 명과 딸 한 명이 있으며,

1. 삼신단지(현들남)  
2. 삼신단지(하옥녀)



모두 결혼을 하여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대우는 앞으로 자손이 꾸준히 번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이다 보니 걱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증조, 고조부 때부터 독신이라. 조부도 독신이고, 아버지도 독신이고, 나도 독신이고, 자손들이 많이 없다고. 독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손이가 많이 없다고. 내 밑에 애들이가 남자 서이, 딸애 하나. 고뿐이라. 가들이도 자손이 차나야 한 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 우리가 삼신을 계속 모신다고. (이대우)

천돌남의 경우에도 삼신단지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안방에 나무로 된 선반을 만들어 벽에 고정시켜 두고 그 위에 올려두었다. 이대우와 마찬가지로 쌀을 담아두고 있으며, 매년 햅쌀이 나오면 시장에서 쌀을 사와서 묵은 쌀을 버리고 새 쌀로 갈아준다고 한다. 단지는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직접 경작한 논 of 햅쌀을 매년 10월경 추수를 끝낸 후에 갈아주었다. 쌀을 갈아주는 날은 손 없는 날인 음력 29일이다.

하옥녀도 아직까지 시준단지를 모시고 있다. 집을 수리하면서 안방에 따로 벽감을 만들어 그 안에다 시준단지를 모셔두고 있는데, 흰 형짚으로 뚜껑을 덮은 후 실로 묶어서 막아 둔 형태이다.

김옥출은 시준단지를 없앴다가 다시 모시는 경우이다. 그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준단지를 없앴으나, 아들이 장가를 가서 딸만 둘을 낳은 후 삼신을 위하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김옥출은 시준단지를 장롱 한쪽 구석에 두고 있다. 그녀는 과거에 딸을 낳은 후 부정을 타서 삼신에게 빌었던 경험에 있다. 아이를 낳은 후 삼칠일 동안은 이 옷에서도 조심해줘야 하는데, 딸을 낳은 후 이튿날에 옆집에서 풀을 췌는 바람에 아이 머리에 딱지 같은 것이 크게 앉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떠와 부정을 친 후, 세 개의 개울이 합쳐진 곳의 계곡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스스로 덮어 쓰고 삼신에게 절하고 빌어서 겨우 딸이 좋아졌다고 한다.

김옥출은 명절 때마다 조상 상을 차린 다음에 시준상을 차리는데 물, 밥, 국, 삼실과판 놓는다고 한다. 고기와 술은 놓지 않으며 삼신할머니와 딸이 함께 다닌다고 생각하여 숟가락은 2개를 꽂아놓는다고 한다.

박종예도 삼신단지를 없앴다가 다시 모시고 있는 경우이다. 박종예는 과거에 기와집을 크게 새로 지으면서 삼신단지를 비롯하여 성주와 조상호리 등을 다 버렸는데, 그 후 집안에 우환이 계속 되었다고 한다. 결국 집을 지은 지 6년 만에 집을 팔고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알아보았더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삼신을 계속 모시라고 한다하여 없었던



시준단지(김옥출)



삼신단지(박종예)

삼신단지를 다시 모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박종예는 안방 장롱 구석에 삼신단지를 모셔놓고 있다. 삼신단지 안에는 쌀을 넣어두었는데 이 쌀은 음력 10월이나 햇곡식이 난 후 손 없는 날을 받아 갈아주고, 묵은 쌀로는 밥을 지어 먹었다. 박종예에 의하면 이 밥은 특별한 반찬 없이 콩나물과 무만 넣어 끓인 국에만 먹어야 했는데, 고기나 김치 등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특히 다른 식구들과는 함께 먹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신단지 안의 쌀로 한 밥을 다른 반찬에다 먹기도 하나 집안 식구들끼리만 먹는 것은 여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 성주신앙

○ ○ ● ○ ○

경정1리에서는 성주를 조상신앙이나 삼신신앙에 비해서 많이 모시지는 않는다. 주로 어업을 하는 집안에서 많이 모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몇몇 집에서는 성주를 모시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손 없는 날을 골라 술을 놓고 성주에 빌기도 한다.

하옥너는 마루에 성주를 모시고 있는데 참종이를 실로 묶은 신체를 벽에 걸어두고 모시고 있다. 종이로 된 신체 외에도 나락이나 보리를 넣은 단지를 신체로 모시기도 하였다고 한다. 성주로 모시는 단지는 일반적으로 시준단지보다 컸으며, 속에 든 나락은 특별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식량이 떨어지면 쪼어서 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 조왕신앙

○ ○ ○ ● ○

조왕신앙은 과거에 많이 모셔졌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신체는 개인에 따라서 달랐는데, 권련이는 신체를 따로 두지 않았고, 최태련과 박종예는 단지 모양의 신체를 두고 나락을 넣었는데 이를 ‘조왕쇠’라고 하였다.



박종예는 조왕신앙을 모신 단지 또한 시준단지로 지칭하였다. 그는 단지에다 도정을 하지 않은 벼를 넣어 부뚜막 한쪽 물동이 근처에 놓아두었다고 한다.

추석이 지나서 추수한 벼를 넣었다가 쌀이 떨어지는 봄에 나락을 꺼내어서 찢어 먹었는데, 그렇게 단지의 쌀을 꺼내어 먹고 나면 그 해 가을 추석 때까지는 단지를 비워두었다가 다시 채웠다고 한다.

## 기타 가정신앙

○ ○ ○ ○ ●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가정신앙으로 부적을 들 수 있다. 부적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집에서 볼 수 있는데, 부적을 붙여놓는 장소는 거실, 현관문, 부엌, 안방 등 다양하다. 마을의 무당이나 절의 스님으로부터 받아와서 붙여놓는데, 가정의 화목과 건강 등을 비는 의미이다.

특이하게 유복태의 집에는 지붕 밑에 음나무 가지를 걸어두고 있었다. 음나무 가지에는 가시가 나있는데, 가시에 찔려서 잡귀신이 물러가라는 의미라고 한다. 과거에는 처마 끝에 달아놓았던 음나무 가지를 현재는 지붕 밑 전기선 위에 올려놓았다. 유복태의 집에서는 과거부터 가정신을 모시지 않았는데, 특히 어촌에는 음나무 가지를 달아놓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20여 년 전 아들이 크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달아놓았다고 한다.



지붕 아래 음나무 가지(유복태)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음복을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음복을 하는 주민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재실에서 음복을 마치고 남은 음식은 모두 경로당으로 옮겨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이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음력 10월 보름 동제는 모두 끝이 났다.

경정1리의 마을신앙은 크게 풍어제와 동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풍어제는 2002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송동숙에 의해 별신굿이 치러진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반면 동제는 매년 정월 대보름, 단오, 음력 10월 15일에 유교식으로 치러진다. 뱃불마을의 동제는 마을 어촌계가 지원하고 노인회에서 주관하여 제관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경건하게 이루어지며, 마을의 시조인 김씨와 박씨 그리고 용왕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동제



### 제당

경정1리에는 2개의 제당이 존재하고 있다. 각각 윗당과 아랫당으로 불리는데, 두 제당은 그 크기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우선 마을 안쪽에 위치한 윗당의 형태를 살펴보면, '신명각(神命閣)'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제당 주위는 약 150cm 높이의 돌담이 둘러져 있다. 윗당 옆에는 군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약 360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당 안에는 '김씨동신지위(金氏洞神之位)'와 '박씨기신지위(朴氏基神之位)'라고 쓰인 위패 두 개가 모셔져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박씨터전에 김씨골매'라고 말하듯 입촌조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위패 양옆에는 지화가 자리하고 있다. 《경흥당기(景興堂

記》의 내용 중 “박씨가 존기(尊基)의 신으로, 김씨가 동주(洞主)의 신으로 양단을 설치하고…….”라는 기록에서도 입촌조가 박씨와 김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윗당이 마을의 안쪽 깊숙한 자리에 위치해있는 반면, 아랫당은 바다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경정횃집과 주택 사이의 골목을 약 20m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데, 골목과 주변공간이 협소하다. 윗당과 크기 및 형태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현판과 위패, 지화 장식까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본래 경정1리에는 윗당만 존재하다가 이후 아랫당이 생겼는데, 그것은 생업에 따라 계층의 차이를 두고자 했던 주민들에 의해 제당이 분리되어 운용된 것이다. 소위 농사짓는 농민은 양반이고, 고기잡는 어민은 상놈이라는 구분이 있어 농민이 제를 올리는 당에 어민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 배타는 사람들이 당에 치성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조상을 괴롭히는 일이라 하여 허락도 잘 되지 않았다. 이에 김태상의 조부가 아랫당을 만들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릴 수 있게 하였는데, 본래는 큰 나무가 하나 있어 거기에 금색을



1. 아랫당  
2. 윗당 내부  
3. 윗당



두르고 제를 지내왔다. 그 후 고기가 잘 잡히자 아예 나무를 베어내고 당집을 만들어 모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윗당과 아랫당이 분리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가 힘들나 19세기였던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본래 윗당도 신목에 제를 지내는 형태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신목이 소실된 후 제당을 지어 모시고 있다.

윗당만 있고 아랫당에는 없었던 말이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없었고. 왜 없었나 하면은, 윗당만 차려놓고 있는데, 윗당에는 농사짓는 사람들 집에 들어앉는 사람들 이래 그래 하고. 또 해촌에는 물... 있으니까 배질해 먹어야 되는데 치성을 드려야 하니께 저거 좀 당을 좀 빌려주면 할배네한테 고사를 올리라 하니께 안 된다. 느그 배타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조부가 안 되가지고 아랫당에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에다가 금색을 하고 그걸 거기서 작업이 잘 안되면 거기 가서 고사를 올리고 인제 이래 그래 올리면 작업이 잘된다 말이예요. 결국에는 동네에서 당을 지었다고요. 나무를 베 불고 인제 동네에서 당을 지어가지고... 동네에서 배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어가지고 작업이 안 되면은 뭐 할배네 있는 데 가야 술 한 잔 놓고 인제 치성을 올리면은 또 물에 나가면 작업이 잘 되고 이러니까나... (김태상)

아랫당을 만들고 난 후 바닷가와 관련된 기원은 전적으로 아랫당에서 하게 되었으며, 아랫당과 윗당은 한동안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그러나 농사일과 뱃일에 구분을 두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일의 귀천에 대한 관념도 사라지자 아랫당과 윗당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동제도 제관이 윗당과 아랫당에 모두 제를 올리며 제관을 맡는 사람도 경로회 회원이 나이순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생업에 따른 구분이 사라진 것이다.

아랫당과 윗당을 모시고 있는 주체의 구분이 사라진 현재, 모시고 있는 신도 마을 입촌조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로회를 이끌고 있는 60대 후반에서 70대의 일부 남자노인들은 ‘같은 신을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제사 지낼 필요는 없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윗당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을 조상신을 모시고 아랫당에서는 용왕을 모시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윗당과 아랫당 이외에 윗당에서 약 30여 미터 떨어진 곳 마을의 남쪽 산 아래에는 경흥당이라는 재실이 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에 따라 동사 또는 회관으로도 불리는데, 과거에 이곳이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경흥당은 부엌 한 칸과 방 세 칸으로 된 기와집으로 동제가 있을 때 제관과 식모가 제물을 장만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다. 과거에는 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던 경흥당이 이제는 재실로 사용되면서 동제가 없을 때는 문이 잠겨 있으며 열리는 경로당에 보관한다. 동제가 있을 때에는 금색을 하고 난 후 문을 열어 두고 제관들이 금기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제사를 지낸 다음날 아침에 되면





경흥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물로 음복을 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일을 논의하는 대동회가 열리기도 한다.

### 동제의 준비

동제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관의 선정이다. 과거 동제의 제관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는데, 제관이 되는 사람은 집안에 병자나 유고가 없어야 하며, 가족 중에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제관을 담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경정1리에서는 박씨, 김씨, 유씨, 이씨 등의 성씨가 각 성씨별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만 유고가 나도 여러 명이 제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가친척이 마을에 많지 않은 방씨와 남씨 등의 성씨들이 한동안 계속하여 제관을 맡아왔으나, 연속하여 제관을 맡기자 점차 제관하기를 꺼려하였다. 결국 10여 년 전부터 제관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제관을 맡은 사람에게는 15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 제관을 엄격하게 가려 뽑을 때에는 축관을 포함하여 5명의 제관을 선출하여 제를 지냈으나, 수고비를 지급하면서부터 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제관을 한 명씩 줄여나가다가 두 명의 제관이 동제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회의를 하여 제관 선정 문제를 정리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점차 제관하기를 꺼려하고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1934년 갑술생 이하 경로회원이 생년월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제관을 맡기로 한 것이다. 만약 사정이 있어 자신이 맡을 차례에 제관을 못하게 되면 다음 차례의 사람이나 제관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관을 먼저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제관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이후 제관 선정을 위한 회의는 없으며, 제관의 차례가 되면 경로회장과 의논 하

에 제관을 준비하게 된다.

2008년 정월대보름 동제는 본래 김정식과 유복태가 제관을 할 차례였으나, 김정식은 노병천에게 제관을 대신할 것을 부탁하였고 유복태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하여 김영대가 대신하기로 하였다. 단오 동제 역시 본래 김병철과 방상도가 제관을 맡았어야 했으나, 김병철은 단오 무렵 서울로 병원을 다녀와야 했으며 방상도는 일이 바쁘다고 하여, 이장수와 최수룡이 대신 제관을 맡게 되었다. 음력 10월 보름 제사는 이장수가 단오 동제에 이어 연속으로 하고 단오 제관을 보지 못한 김병철이 함께 제관을 맡았다.

제관 외에도 동제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식모가 있다. 식모는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으나 재실에 머물면서 제관이 제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제기와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이다. 식모는 제관과 달리 매 제사 시에 새롭게 선정되지는 않는데, 현재 식모를 맡고 있는 박동년은 정월대보름 동제를 맡은 노병천의 부인으로 2007년부터 식모를 맡아왔으며, 그 전의 식모는 이필련으로 오랫동안 식모를 맡아왔으나 나이가 많아지고 일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 그만 두었다고 한다. 식모도 제관과 마찬가지로 수고비로 15만 원씩을 받는다.

제당과 재실을 청소하는 것도 동제 준비의 한 과정이다. 2008년 2월 18일 오전 9시에는 정월대보름 동제를 준비하기 위한 재실 및 제당 대청소가 있었다. 이장이 경로당에서 안내방송을 하여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당에 모여 청소할 것을 알렸다. 경흥당에는 정월대보름 동제의 제관으로 뽑힌 김영대와 노병천 외에도 몇 명의 노인들이 나와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였다. 경로회장은 윗당과 아랫당을 오가면서 청소정리 작업을 감독하고 지시하였고, 이장은 윗당과 경흥당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도왔다. 제관인 김영대는 경흥당 열쇠를 경로당에서 가져와 문을 열고 전기를 연결하였다. 부엌의 아궁이에는 불을 피웠는데, 아궁이와 굴뚝 사이에는 불이 빨리 붙을 수 있도록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청소가 끝나면 금줄을 만들고 황토를 구해놓는다. 금줄은 원새끼를 꼬아 창호지를 끼워서 만드는데, 금줄을 만들 짚은 특별히 가려서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추수 때 논에서 가져다 둔 것을 사용한다. 이전에 쓰던 짚이나 금줄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황토도 방위를 보거나 자리를 가리는 등의 기준이 없이 마을 내 산에서 가져다 사용한다. 제사 이틀 전날 아침에 제당과 재실, 제관, 식모의 집에 금색을 하기 때문에 제사 사흘 전에 금줄을 꼬고 황토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2008년 정월 제사와 음력 10월 제사에는 각각 정월 열사흘날인 2월 19일과 음력 10월 열사흘날인 11월 10일 아침에, 단오 제사 때에는 음력 5월 초사흘날인 6월 6일 아침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금색을 하였다. 금줄과 황토는 2명의 제관집과 식모집, 윗당과 아랫당, 경흥당에 친다. 과거 당집이 없어 나무에 제사 지내던 때에는 옛 마을입구인 윗당 위쪽 길과 우물, 그리고 애기당에도 금



1. 경흥당 내에 보관하고 있는 제기
2.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금줄을 만드는 2008년 정월대보름 제관 노병천
3. 제기를 씻는 박동년

줄을 쳤었다. 애기당은 신목 형태의 당으로 경흥당에서 동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지금도 별신제 때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당이다.

황토와 금줄을 치면서 제관과 식모는 금기에 들어간다. 금기에 들어가면 몸조심을 하고 흥한 곳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제관과 식모는 주로 경흥당에 머물며 금기를 지킨다. 과거에 제관들은 금색을 하면서부터 사흘간 경흥당에서 먹고 자면서 금기를 지켜야 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경흥당 근처에 일췌거리지도 않았다. 제관들이 밖에 나가거나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면 혹시 못 볼 것을 보게 될까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한다. 제관들은 동제를 지낸 후에도 일 년 동안 초상집이나 굿은일을 피하고 조심해야 했다. 이는 제관 스스로를 위

1.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 윗당
2.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 아랫당
3.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 식모 박동년의 집
4. 애기당



한 것이기도 하였으며, 근신을 빨리 풀면 동네에도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동네 사람들 보기 미안해서라도 제관들이 흥한 곳에 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를 때문에 사람들이 제관을 기피하게 되었고 현재 제관들이 지켜야 할 금기는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2007년부터는 제사 지내기 2일 전 그리고 제사 후 다음 날까지만 제관으로서 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이것도 귀찮을 경우 제사 지낼 때까지만 근신할 것을 요구하나, 여전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어 스스로 근신을 하고 삼가게 된다고 한다. 요즘에 제관들은 밥이나 잠자리는 각자의 집에서 해결하며 밭일 같은 일을 금기 기간에 하기도 한다. 다만 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며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는 경흥당에서 금기를 지키며 지낸다. 이장도 방송을 통하여 제당 등에 금색을 했음을 마을에 알리고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조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 동제에 대한 금기가 많이 약화되었으며 이제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 같지 않아 금기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제에 대한 경건함만은 간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008년에는 정월 대보름과 단오 전에 마을에 초상이 났었는데 문상을 다녀온 사람들은 스스로 동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동제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경로회 총무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는 가더라도 문상은 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부정을 타지 않게 노력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금줄이 쳐진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제관들이 근신하고 있는 경흥당 앞은 댈 수 있으면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 제의를 위해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동제 시에는 어촌계에서 경로회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외에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나 선주들이 찬조금을 낸다. 제사 비용은 사실상 이렇게 들어온 찬조금으로 거의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에 남은 어촌계 지원금은 모아 두었다가 제당을 수리할 때에 이용한다. 2008년 정월대보름 제사 때에는 어촌계 지원금 200만 원과 함께 59만 원의 찬조금 수입과 대계와 문어 등이 기증되었으며, 이 돈에서 제수와 제관들 수고비 그리고 기타 경비로 총 83만 원이 지출되었다. 단오 제사 때에는 정월 대보름 제사 때보다는 적은 금액인 19만 원의 찬조금이 들어왔으며 방어가 기증되었다. 단오 제사 때는 제관 수고료 포함 70만 원 정도가 소비되었다. 보통 정월 대보름 제사 때가 찬조금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지출도 가장 많다.

마을 제사에 쓸 제수들은 동제가 있기 하루 전날 영해장에서 사온다. 제사에 사용될 물품들을 정리한 목록이 표와 같이 전해지고 있어 제관들은 이 목록을 토대로 하여 제물을 구입한다. 약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제물을 직접 마을에서 장만했다고 하나, 현재 제사에 쓸 제물들은 거의 다 시장에서 구입한다. 가장 중요한 제물인 생선도 시장 내의 방앗간에 맡겨 써서 마을로 가져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특별히 장만을 해야 할 제수는 거의 없다.

2008년 정월대보름 동제 때에는 정월 열나흘날인 2월 20일에 영해장에서 제수



적요	수량	단가(정월대보름)
쌀(백점)	1되 반	20,000원
찹쌀	1되 반	9,000원
대조	반 되	
밤	30개	
근시(꽃감)	2고치	30,000원
소지	1권	
대지	10장	6,500원
명태, 고등어, 가잠	각 6마리	78,000원
어포	3마리	
탕고기(쇠고기)		5,000원
콩나물, 무, 두부		
참기름, 깨소금, 미원		9,700원
たく	1상자	14,000원
양미리	5두름	15,000원
제관 목욕		12,000원
오료		20,000원
채(왕복 대절)		15,000원
은박지		3,000원
향, 양초		1,000원

장을 보았다. 2월 20일 오전 9시 무렵에 경로당에 제관인 노병천, 김영대, 박동년과 전 경로회 총무인 이종오가 모여 영해장으로 출발하였다. 현 경로회장인 박흥균과 현 경로회 총무인 유은중도 함께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점검하였으나 동행하지는 않았다. 경로회장은 정초에 마을에 초상이 있어 문상을 갔다 왔기 때문에 부정을 염려해 장에 따라가지 않았으며,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경로회장은 장을 보러 나가는 일행에게 말을 많이 하거나 물건 값을 깎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타고 나가는 트럭에도 제관 일행 외에 다른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영해장에서 제수로 명태 2마리, 가자미 6마리, 고등어 3손, 쇠고기 반근과 기타 양념들을 장만하였다. 그리고 음복용으로 양미리와 명태를 구입하였다. 제물로 쓰일 명태, 가자미, 고등어는 방앗간에 맡겨 찌도록 한 후, 제관과 식모는 목욕을 하러 갔다. 목욕을 한 후에 과일을 구입하고 미리 맡겨둔 떡과 고

1,2. 제수 물품 구입  
3. 제수 물품을 적어둔 종이



기를 찾아서 마을로 돌아왔다.

단오 제사 때 역시 단오 전날인 6월 7일 오전 9시 20분 무렵에 마을 트럭을 이용하여 제관 2명과 식모 그리고 경로회 총무인 김정식이 영해시장에 다녀왔다. 구입한 물품은 정월제사 때와 유사하나 단오 때는 정월에 비해 음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복용 생선들은 사지 않고, 명태, 가자미, 고등어를 올리는데 동사, 윗당, 아랫당에 각 1마리씩 하여 총 3마리씩을 구입하였다. 이후 목욕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 1시경에 마을에 돌아왔다. 음력 10월 보름 동제 때 역시 전날인 11월 11일 오전, 제관인 김병철과 이장수, 박동년이 영해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항목과 양은 단오 제사 때와 같았다.

### 동제의 진행

동제는 본래 자정을 기해 치러졌다. 단오와 음력 10월 보름 제사의 제관이었던 이장수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자정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관들은 그 시간까지 재실에서 자고 있다가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오면 세수하고 머리에 물을 발라 깨끗하게 씻은 후 밝은 정신으로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 한두 시간 전에 지내기 때문에 각 동제는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시작을 한다.

#### ● 정월대보름 동제

2008년 정월 대보름 동제는 음력 정월 14일 밤 11시에 시작되었다. 그 날 저녁부터 제관들과 식모는 재실에서 제물을 장만하면서 제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마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제사 당일 오전에 영해장에서 준비해 온 제수는 재실 안의 상에 가지런히 차려놓고 참종이로 덮어 두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제관들은 9시 20분 무렵 집으로 가서 옷을 갖춰 입었다. 제복으로 따로 마련된 옷은 없으며 제관들에 따라 한복을 입기도 하고 양복을 입기도 한다. 정월대보름 제사의 제관인 김영대는 칠순 때 입었던 한복에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고 정자관을 썼으며, 노병천은 깨끗한 일상 평복을 입고 정자관을 썼다. 9시 50분이 되자 식모는 차려 놓았던 제물 중 윗당, 아랫당, 용앙벉이기에 사용될 제물들은 고무대야 3개에 나누어 담았으며 제관은 이를 깨끗한 한지로 덮어 놓았다.

10시 09분 무렵 제관들은 리어카에 제물을 담은 대야를 싣고 제를 지내러 갈 준비를 하였다. 윗당에 도착한 제관들은 제물을 진설하는데 두 개의 위패 앞에 메 두 그릇, 탕 두 그릇, 떡, 포, 꽃감, 대추, 밤, 나물, 생선 등을 올린다. 제물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생선으로 장에서 구입한 명태, 가자미, 고등어 외에도 마을에서 잡은 대게와 문어를 함께 올린다. 육고기는 따로 올리지 않으나 쇠고기로 탕을 끓

여 올린다. 제의는 분향, 강신, 헌작, 배례, 독축, 소지 순으로 진행되고 제의가 끝나면 당집 둘레에 헌식을 한다. 윗당에서의 제의는 10시 33분에 끝났으며 제관들은 아랫당으로 가서 윗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아랫당의 제의는 11시 정도에 마쳤다. 윗당과 아랫당의 독축에 사용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 〈정월대보름 동제 축원문〉

지극정성 감응백배, 2008年 무자 태세 음력 1月 15日 보름날 축원 올립니다.

사바세계 해동동양 대한민국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박 씨 터전 김 씨 골목 할아버지님께 연정을 받아서 이 명당 이 터전에 고사정성 드리오니, 금일 지성 축원문에 감응감동 하시어서 소구 계득 성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자세존 열위전에서는 만복을 점수하여 주시옵고, 가중팔신 열위 전기택 안녕 발원하온 굽어 살펴 도우시고, 천거신명 명령 단하에 이 터전 경정에서 살아가는 대주 동민과 함께 태평만사 혈통신수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고, 금년 태세 무자년에 춘하·추동 사시절에 년년새새히 돌아가도 억선만복을 내려주소. 관재 구설, 삼재 팔난, 재앙, 질병, 횡액, 열액, 우면득병구설 재액을 영업 소멸시켜 주시옵고, 연등백세로 돈우어 주시옵소서. 박 씨 터전 김 씨 골목 할아버지님께 축원 기도합니다.

아랫당까지 제의를 마친 제관들은 바닷가로 이동하여 용왕멧이기를 한다. 이 제의는 용왕에게 지내는 제사로, 밑의 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의를 지내는 주체가 마을의 대표자인 제관이 아니라 어촌계가 된다. 그러나 제의는 역시 두 명의 제관이 진행하며 제의 절차 역시 윗당이나 아랫당과 같다.

#### 〈정월대보름 동제 용왕멧이기 축원문〉

금아금차 지주정성 청정 도랑 허공발운 제가 사바세계 남성 부주 해동동양 대한민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애동 제자 어촌계 일동입니다. 금일 지극 정성 용왕님 전에 소소한 정성을 태산 같이 바쳐놓고 비웁니다. 속차 강림하시어서 흐린 정신 돌려내고 맑은 정신 불어넣어 온갖 조화 신토령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재수소망 용왕님 앞에 사고 방지, 안전제일, 영덕대계, 정치망 가는고기 오는고기 손을 쳐서, 미역양식, 물가자미, 문어, 도다리 등등 기본 좋은 경정 항구 어촌계 되도록 용왕님께 빌고 비나이다.

용왕멧이기까지 마친 제관들은 다시 재실인 경흥당으로 이동해 간다. 경흥당에서 다시 한 번 제의를 올리면서 동제가 끝나는데 11시 30분 정도에 모든 제의가 마쳐졌다. 이후 제관들은 음복을 하는데 제관 음복까지 마친 시각이 12시 05분이었다.

다음날 음복을 위해 경흥당으로 모이라는 이장의 마을방송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경흥당으로 모였다. 특히 정월대보름 동제 다음날에는 동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였다. 아침 8시 무렵 제관들과 경로회장을 비롯한 몇몇 마을 노인들이 경흥당에 모여 간밤에 올린 동제를 결산하고, 제사 음식으로 음복을 하면서 대동회가 되기를 기다렸다.

## ● 단오 동제

단오 때의 제사는 정월대보름과 비슷하면서도 제관이 바뀌면서 작은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다. 단오 동제 제관들은 모두 한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제를 올렸으며, 제물은 윗당과 아랫당에서 지낼 양반 마련을 하고 용왕멕이기 제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제관들은 오후 내내 경흥당에 머무르며 금기를 하였으며 마련한 제물은 제기에 담아 경흥당 안에 진설해 둔다. 제관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 8시 무렵에 윗당과 아랫당으로 가서 전깃불을 밝히고 돌아왔으며 경흥당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담소를 하다가 10시 20분 무렵부터 제물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제물은 빨간 고무 대야에 윗당과 아랫당 제물을 각기 나누어 가지고 간다. 메, 탕, 국, 생선, 떡, 꽃감, 대추, 밤을 제물로 올리며 제주는 막걸리를 사용한다. 이 제물은 리어카에 싣고 운반을 하며 이장수는 제당에 부정을 칠 양동이와 바가지로 채웠다. 10시 32분에 제를 지내기 위해 경흥당을 출발하였는데, 제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관인 이장수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서 제당 주변을 돌면서 부정을 쳤다. 이후 윗당 안으로 들어가 신주가 모셔진 제단 앞에 참종이를 깔고 진설을 하였다. 출주를 한 후 제를 모시는데, 제의는 분향, 강신, 재배, 헌작, 재배, 삼시정저, 재배, 첨잔, 국궁, 잔물림, 재배, 소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헌식과 음복을 하고 납주를 한 후 제물을 챙겨 아랫당으로 이동한다. 총 제의 시간은 약 7분 정도가 소요된다. 정월대보름 제의와 비교했을 때 독축이 생략되었는데, 이장수에 의하면 과거 제관들이 많았을 때에는 잔을 세 번까지 올렸다고 한다. 10시 49분 아랫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아랫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마을 이장이 와서 함께 참여하였다. 이장이 김병철이 준비한 제문을 가지고 왔으나 아랫당에서도 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아랫당도 윗당과 같은 절차로 제가 진행되었다. 이장수가 부정을 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제를 시작하였으며 아랫당에는 이장까지 하여 3명의 제관이 참여하였다.

11시 10분 무렵에 아랫당 제가 끝나자 이장수 혼자 조용히 용왕멕이기 제물을 들고 바닷가로 갔다. 용왕멕이기는 윗당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뜯어 참종이에 담

1. 제물을 담을 대야
2. 제물 담기
3. 윗당으로 이동





아놓은 것으로 올렸다. 정월대보름 때는 두 제관이 모두 가서 윗당이나 아랫당과 같은 절차로 제를 올렸으나, 이번에는 이장수 혼자 참종이에 쓴 제물을 들고 가서 소지를 올리고 제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간단히 제를 끝마쳤다.

용왕뱃이기까지 끝난 후 제관 일행은 경흥당으로 다시 돌아와 제물을 정리하고 터제를 준비하였다. 터제의 제물이나 절차 또한 동일하였으며 다만 수저를 1벌만 올렸다. 터제는 11시 28분부터 11시 32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간단히 생선과 막걸리만으로 상을 차려 음복을 하였다. 이로서 단오 마을 제사가 모두 끝났으며 남은 제물은 일부만 남겨 놓은 후에 제관들이 경로당으로 가져다 두었다.

단오날인 6월 8일 아침이 되자 이장이 경흥당에서 음복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흥당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경로당에 가져다 둔 음식으로 마을 할머니들이 점심을 하였다. 현재 경정에서는 마을 제사를 지내고 난 후 정월대보름에만 동회를 하고 있다. 이 동회에서는 마을 전반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정월대보름 음복 시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단오나 10월 제사 때는 동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복을 하러 나오는



1. 윗당, 부정차기  
2. 윗당, 진설  
3. 윗당, 진설 후 제상



4. 윗당, 출주
5. 윗당, 분향강신
6. 윗당, 헌작
7. 윗당, 제배
8. 윗당, 헌다
9. 윗당, 국궁
10. 윗당, 소지
11. 윗당, 납주
12. 아랫당으로 이동
13. 용왕액이기
14. 경흥당 터제
15. 음복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람들이 거의 없다. 과거에는 정월대보름뿐만 아니라 단오와 음력 10월 보름 동제 이후에도 동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단오 때의 동회에서는 농사일에 관한 것을 의논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농사 품삯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며 모를 심는 데에 남자의 품삯과 여자의 품삯, 타작을 하는 데에 남자의 품삯과 여자의 품삯 등 품 값을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런 결정은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권위가 있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품삯이 결정되었다. 이때 품삯이 정해지기 전에 모내기를 하여 품을 팔았을 경우에도 단오까지 기다려 품삯이 정해지면 품값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는 단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단위의 놀이는 벌어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단오가 되면 윗당 옆의 느티나무에 그네를 매어 비누 등의 상품을 걸고 그네 뛰기 시합을 했으며, 바닷가 등지에 모여서 윷놀이 등의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 ● 음력 10월 보름 동제

음력 10월 보름 동제 전 오후 6시에 조사자가 재실에 들렀을 때 제관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식모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모인 박동년은 집이 근처여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집에 갔다오기도 했다.

본 제사는 밤 9시 50분에 재실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제관인 김병철은 양복에 구두를 신었고, 다른 제관인 이장수는 정장에 운동화를 신었다. 이동은 김병철의 자가용을 이용하였으며 트렁크에 제물을 실었다. 윗당에 도착하자 당 실내에 불을 켜고 메 두 그릇, 탕 두 그릇, 떡, 포, 밤, 대추, 감, 생선을 올렸다. 제의는 분향, 참신, 초헌, 재배, 아헌, 독축, 계반삼시, 침잔, 묵념, 재배, 소지, 음복의 순이었다. 독축은 김병철이 하고 그 동안 이장수는 옆드려 있었다. 소지를 할 때에 김병철은 “마을 농사 잘되게 해주시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마을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마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었다. 아랫당에서도 같은 제물과 제사 순서로 제의를 진행하였고, 독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음력 10월 보름 동제 축원문〉

어느덧 해가 바뀌어 시월 보름이 되어 후손 김병철은 박씨가신 김씨성황님과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음 써주신 많은 조상님께 삼가 고마움을 정성껏 고해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이 훌륭히 발전하고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며, 풍어풍농토록 도와주시고, 객지에 출타한 후손들 모두 성공하고 금의환향하여 풍성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영된 마을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원하오며 깨끗이 준비한 주과포혜로 제사 드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10월 보름. 상향.

아랫당의 제의가 끝나고, 북쪽 방파제 어귀 과거 항구가 없을 때 배를 대던 장

1. 제물 이동
2. 아랫당 제의
3. 용왕뎌이기
4. 경흥당 터제



소에서 용왕뎌이기를 하였다. 용왕뎌이기를 할 때에는 윗당, 아랫당과는 달리 메, 탕국, 잔을 모두 한 개씩 준비하였으며 분향을 하지 않았다. 순서는 참신, 초헌, 재배, 아헌, 계반삼시, 첨잔, 묵념, 재배, 음복 순이었다. 제당에서 지낸 제사와의 차이점은 분향과 독축, 소지가 빠진 것이다. 소지는 하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종이를 바다로 던지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실로 이동하여 제를 한 번 더 올렸다. 밥과, 탕국, 잔 모두 하나씩 올렸으며 분향을 하지 않았다. 순서는 참신, 초헌, 재배, 아헌, 독축, 계반삼시, 첨잔, 묵념, 재배, 음복의 순이었다. 재실에서 지내는 제사는 터 또는 산신에 대한 제사라고 한다. 이를 터제라고도 하는데, 터에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본래 재실 밖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왔으나 점차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터제는 산신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본래 가장 먼저 지내야하지만 현재는 모든 제사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지내고 있다. 모든 제사 과정이 끝나고 재실을 나온 시간은 11시 20분이었다. 이번 제사에서 쓰인 생선의 종류는 고등어, 가자미, 명태, 연어, 농어, 뱀통이었다.

12일 아침에는 제관이 일어나서 자신의 집과 식모의 집, 제당에 처진 금줄을 거두었다. 아침 7시경이 되자 재실로 경로회장 유은종과 유진수가 와서 음복과 식사를 하였고, 8시 정각에는 이장이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제 10월 보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복을 하실분들은 경로당으로 오셔서 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을 방송을 하였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음복을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음복을



하는 주민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재실에서 음복을 마치고 남은 음식은 모두 경로당으로 옮겨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이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음력 10월 보름 동제는 모두 끝이 났다.

이상의 2008년 동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뱃불의 마을제사는 특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맡은 제관에 따라 준비상황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관들은 보통 자신의 집에서 기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올리며, 제관에 따라 준비하는 제물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08년 6월 6일 오후에 경로회 총무인 김정식은 김병철을 만나 마을 제사의 절차를 확인하였다. 김정식은 이번 해에 노인회 총무직을 맡게 되어 단오 제사가 처음으로 준비하는 마을 제사인 셈이다.

현재 마을에는 마을 제사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으며 절차를 조언해 줄 만한 어른이 계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동안 마을 제사가 일정한 순서와 절차 없이 제관의 임의대로 진행되었던 경향이 있어 김정식은 이번에 제사의 절차를 확실히 기록하여 앞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김병철은 1960년인 24살 때 이장을 맡아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으며 제의 절차 또한 잘 기억하고 있었다. 김정식은 김병철의 도움을 받아 제의 절차를 기록하였으며 김병철은 한글로 동제문을 지어왔다. 과거 한문으로 된 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전해 내려오는 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김병철은 새로 한글로 제문을 지어와 이를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병철이 지은 동제문은 다음과 같다.



10월 보름 아침 경로회관에서 음복

“어느덧 해가 바뀌어 정월 보름 · 오월 단오 · 사월 보름이 되어 후손 ○○○는 박씨가신 김씨성 황님과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음 써주신 많은 조상님께 삼가 고마움을 정성껏 고해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이 훌륭히 발전하고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며 풍농, 풍어토록 도와주시고 객지에 출타한 후손들 모두 성공하고 금의환향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원하오며 깨끗이 준비한 주과포화로 제사 드리오니 흠양하시길 바라옵나이다.”

과거 젊은 나이에 제관을 맡아 비교적 상세하게 제의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김병철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윗당에는 총 9상의 제상을 차렸다고 한다.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할아버지의 제상이 각각 한 상이었으며 이 상에는 할머니 수저까지 하여 수저를 두 벌 올린다. 그리고 예전 마을에서 벼슬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마을의 조상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해 일곱 상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 일곱 명의 제상은 이후 하나로 통합시켜 총 세 상을 차리게 되었는데, 일곱 명의 메는 큰 그릇에 밥을 담고 숟가락 일곱 개를 꽂아 마련하였다. 2008년 정월

대보를 동제에서는 이 일곱 명의 조상에게 올리는 큰 메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단오 때는 준비는 하였으나 막상 제를 지낼 때는 올리지 않았다. 음력 10월 보름 동제에서도 일곱 명의 조상을 위한 메는 준비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마을 제사를 지낸 후에 별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별고사는 제사를 지내고 난 후 3~4일 이내에 부정을 탈만한 사유가 생기거나 일주일 이내에 초상과 같은 불운한 일이 생길 때만 지낸 제사이다. 절차는 마을 제사와 같으나 음식은 본제사보다 간소하게 차렸는데, 현재는 지내지 않는 제사이다.

제가 마무리되면 마을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터제를 지내기도 한다. 터제는 터의 기운이 강한 집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요즘은 터제를 지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2008년에는 한 집에서만 미리 금줄을 치고 터제를 준비하였다. 터제는 마당을 깨끗하게 닦은 뒤에 밥, 나물, 콩나물국, 밤, 대추, 꽃감, 사과, 술, 포 등을 올린 후에 간단히 절하고 소지를 하여 끝냈다.

과거에는 마을제사를 지내고 나면 경흥당 앞의 우물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곤 하였다. 경흥당 앞 우물의 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기도 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이 우물의 물로 장만하기 때문에 영감을 많이 탄다고 하여 이 물로 밥을 짓고자 제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특히 제사를 지낸 후 가장 먼저 물을 퍼가 밥을 하면 재수가 좋다고 하여 어머니들은 잠을 자지 않고 숨어서 망을 보다가 마루에 제관들이 나오면 다투어 물을 퍼가 그 물로 대추찰밥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가장 먼저 물을 퍼오는 사람은 물을 퍼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쉼표이나 꼬아리를 우물에 던져놓고 왔다고 한다. 혹시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물을 가져갈까봐 제관들 중 한 명이 우물을 지켰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경흥당 앞 마을 공동우물터



과거 정월 보름 아침에는 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산제(火山祭)’를 지냈다. 화산제를 지내야 동네 불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에 따라서 화산제를 지낸 장소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민은 마을의 북쪽 동네산에서 지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다른 주민은 석리의 높은 봉에서 지냈다고 한다. 화산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화산제는 동제보다 마을 주민들의 인지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태상에 의하면 화산제를 불막이제라고도 불렀는데, 마을의 북쪽 동네산 정상 큰 소나무 아래에 한 아름 정도 크기의 독을 묻어놓았다고 한다. 정월대보름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음력 1월 15일 아침에 물을 바퀴 놓고 제를 지냈는데, 물은 현재 매워진 마을의 우물물을 지고 올라갔으며 제관은 동제 제관이 아닌 1~2명의 제관을 따로 뽑았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제를 지내기 위해 제관과 함께 올라가기도 했다고 한다. 삼실과와 술, 생닭을 제물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닭은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김병철에 의하면, 화산제를 지낸 곳은 석리에 있는 높은 봉우리였으며, 3년마다 지냈다고 한다. 화산제를 지내던 그 산 봉우리에서 마을을 보면 마을이 잘 내려다보였으며, 이 산이 불을 잘 나게 하는 하늬바람이 풀어오는 남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불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화산제는 동네일을 보는 소사와 따로 가려 뽑은 제관 1명이 정월 대보름 아침에 산 봉우리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묻어 놓은 독의 물을 바퀴놓고 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김병철이 동장을 하던 1961년을 마지막으로 지내고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김병철은 당시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이다. 땀 짓을 한다. 화산제 지낸다고 이 동네 불 안 날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여 중단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마을운동 이후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나 양철로 바꾸어 과거보다 불이 날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산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화산제처럼 현재는 사라졌으나 과거 정정1리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서낭당은 마을의 북쪽 도로가 생기기 전 마을로 넘어오던 길이었던 다불재에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서낭당에 오갈 데가 없는 지위가 낮은 귀신들이 모여 산다고 생각하였다. 다불재는 길이 현재에 비해 꼬불꼬불하고 높아 마을 주민들에게는 길을 안전하게 넘어다닐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는 자신이 다불재를 넘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 다불재를 넘어가는 일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상에서 염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 첫 코너는 달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서낭당은 돌이 쌓인 형태에 새끼줄이 둘러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다불재를 넘어갈 때에는 서낭당에 돌을 하나씩 올렸으며,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행렬이 서낭당을 지나 가게 되면 반드시 색형짚을 묶고 난 다음에야 지날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서낭당은 김병철이 동장을 하던 47~48년 전에 사라졌는데, 높고 좁았던 다불재를 넓히고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이상호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마을에는 용한 무당이 한 명 있었는데, 절대 다불재에 도로를 내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 무당은 다불재 넘어 도로를 쓰면 산맥이 끊기기 때문에 차라리 터널을 뚫을 것을 주장했다고 하나 결국 다불재를 넘는 도로가 났다. 도로를 내는 것은 재의 높이를 10m 정도 깎아 내리는 대공사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 처치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이에 김병철이 “서낭당 내가 먼저 꺼낼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먼저 돌을 끌어내리고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갈 데가 없어진 서낭당 귀신들이 윗당 나무 위에 올라 앉아 가지고 조상들을 괴롭힌다는 점쟁이의 말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자 서낭당을 다른 곳으로 모셔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날을 잡아 제관을 뽑고 무당과 술을 들고 갈 마을의 젊은이들이 서낭당을 모실 장소를 찾아 다녔다. 당시에는 땀감으로 나무를 켜기 때문에 큰 나무가 귀했는데, 마침 크기가 조금 큰 나무가 있어서 그곳에 종이를 묶어 술을 붓고 서낭당 귀신을 다시 모셨다. 이때 제관이 “이놈의 귀신 이제 내려오면 뱀아 죽여버린다. 여기 있거라. 어른들 있는 데 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공손하게 비는 대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서낭당에 있는 귀신이 ‘오다가다 죽어서 시체도 감당 안 되는 귀신들’ 이기 때문에 점잖은 말로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것이다.

서낭당을 다시 모셔놓은 나무는 얼마 안 되어 누군가가 땀감을 하기 위해 베어버렸다고 하나, 몇 년 동안은 본래 서낭당이 있던 자리를 지나가는 일부 다른 주민들이 이전처럼 치성을 하었다고 한다. 서낭당이 있던 자리는 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벽을 기어올라 형곶을 묶어두고 지나가곤 했던 것이다. 김병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마을주민들은 자꾸 형곶을 묶어두면 다시 귀신이 되기 때문에 형곶을 풀어버리고 서낭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마을 주민들에게 서낭당이 신앙의 대상에서 완전히 잊히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 ● 김병철의 다불재와 서낭당에 대한 기억

**김병철** 내가 24살 때니까 하마 47~48년 되겠구나. 그때 동장을 처음 해가지고, 그때 마을 어른들이 전부 동네를 좌우하고 할 텐데, 장가를 안 가면 동장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내가 24살 아직 총각인데 동장을 했다고, 그때가 바로 5·16 혁명이 나가지고 혁명. 거기서 군사 기관에서 임명제로 밀어붙이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뭐. 옛날식은 안 된다. 전부 신식이어야 한다. 행정이고 뭐고 전부 군대식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때 막 군대 제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을 면서기보다도 더 낫지. 군대에서 3년 행정 봤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개 너머 요 고개 올라가는 고개, 다불재 거기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서낭당이 있는데 다불재가 좀 높고 길도 좁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재건 아닌가. 막 하자고 대들고 할 무렵에 전부 동민들 대들어 길 넓히고, 재를 한 10m 낮췄다고. 똑 바로 낮춘 10m면 산을 깎아야 되는데, 제당이 서낭당이 있으니까 서낭당을 처치가 곤란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낭당 내가 먼저 꺼낼게 걱정하지 마라. 괘이 가지고 쏘시고 삽 가지고 쏘시고.

#### 조사자 돌탑으로 되어 있었어요?

**김병철** 돌로 산 옆에 길옆에 돌 수북 안 쌓였나. 서낭당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 끌어내려와가지고 다 처리해 버렸어. 뚫고 길도 넓히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노인들이 문제가 점쟁이도 있고 무당 두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썽을 만드는데, 그 서낭당에 있던 서낭당 귀신이 저 동 우리 제당, 그 서낭당을 없애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당 나무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다 이거야. 그래 얘기를 만들어 그런 식으로 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불안하지. 안 그래? 조상들 괴롭히면 우리도 안 괴롭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짜노 조상을 그림, 서낭당을 천상 우리가 떼 떼 모셔주자. 거기 있다는데 그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서낭당을 한 개 만들어 주면 될 꺼 아니냐. 그래 서낭당을 노인들 제관 노인 착출하고 비는 할매 데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술 들고 서낭당을. 너름대 같은 게 있다. 보통 할마이들 점하면 너름대 들어와 움직이는 거. 너름대를 가지고 모시고 어디 저기 가다가 보니, 산에 그때만 해도 그 나무가 없었어. 산에, 원래 딸감이 없으니까 속 다 나무를 베버리고, 요만큼씩 한 것 밖에 없어 산에. 그래 조금 더 큰 나무가 하나 있어 저쪽 너머에. 거기다가 종이 묶어가지고 술 붓고 절하고 이래. 여기가 있거라 여기 오지 말고 어른들 있는데 오면 죽인다고, 제사 지내는데 보통 귀신에 대하

지고 이놈의 귀신 이제 내려오면 밭아 죽여버리고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고 제관이가 할아버지가. 이상한 제사가 다 있네. 귀신한테는 공손하고 비는 게 보통인데. 이놈의 귀신들 한 번만 더 내려오면 전부 몰살 시킨다고 막 지르는 판이라. 어르신 귀신한테 그래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이 귀신은 옳은 점잖은 말 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다는 게야. 전부 가다 오다가 뭐 길가에 잘못 돼 죽은 것 어디 가다 천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시체도 감당 안 되는 그런 귀신이 서낭당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춤을 발아. 춤으로 먹고 산단 게야. 보통 서낭당 지나갈 때 춤을 세 번 발고 지나가거든. 돌 하나 던지고. 춤을 얻어먹고 사는 아주 그 최하위 귀신이기 때문에 점잖은 말 해가지고는 못 듣고 욕을 해야 알아듣는단 얘기가. 그거 또 들어보니 그럴 듯한 거야. 참 재밌다. 모셔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가 보니 그 나무를 누가 끊어 가 버렸어. 나무 베가지고 불 땔라고 가져가 버렸어. 묶어 봐도 큰 신경 쓰겠냐. 나무 얼마 없는. 젊은 아들이니까 그 신경 안 쓰고 베가지고 가버렸는데,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되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이 통관을 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그랬거든. 근데 시집 장가를 가면, 그 쪽으로 가면 반드시 형겅 같은 거 색형겅을 가지고 거기다 묶은 다고. 서낭당에 묶고 그리 가잖아. 여기 사람들은 서낭당 없애 버린 걸 알지만 다른 데 사람들은 서낭당이 옛날부터 있었던 자리를 안단 말이야. 그냥 지나갈라니까 조금 멋있으니까. 우리가 파가지고 돌을 절벽을 맨들어 났는데 그래도 그 절벽에 기어 올라가서 또 묶는 거야. 안 그러겠냐. 그 사람들은 뭐를 하나 묶어야 서낭당이 있던 자린데 맘 편할라면 묶고 가야 안 되겠냐. 이러니 풀아 떼자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또 묶어 놓고. 우리는 보면 풀르고 자꾸 그런 거 하면 또 귀신이 되거든 서낭당이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러다 보니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서낭당을 그리 없앤 기억이 있어.”



# 경정 2리 별신굿 조사 현장 노트

- 조 사 일 : 2002년 4월 25일 ~ 4월 30일(5박 6일)
- 조 사 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
- 조 사 자 : 장장식, 박선주, 이진욱, 김창호
- 제 보 자 : 이정록(남, 61세, 추진위원장)

## 조사내용

### 마을 배경 및 유래

경정 2리에는 167세대(260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 때는 세대수가 200호에 달했다고 한다. 마을의 고유지명은 '백불'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예전에 바닷가 모래사장이 흰모래로 덮여 있었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흰+모래밭'이라는 이름이 변형되어 정착된 것이다.

### 마을당의 형태

마을에 2개의 당을 두고 있다. 하나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를 지내는 당이고, 또 하나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이다. 바닷가 마을인데도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이 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은 웃당과 아랫당으로 불리는데, 웃당이 남쪽에 위치하지만 지형이 높아서 '마쪽'이라고 불리고 아랫당은 '새쪽'이라고 한다. 당에는 '神明각(神命閣)'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웃당 옆에는 수령 380년의 느티나무가 서 있다. 당집 주위로 돌담으로 둘러 주변과의 경계를 만들어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고, 신당안에는 각각 오른쪽에 '김씨동신지위(金氏洞神之位)', 왼쪽에 '박씨기신지위(朴氏基神之位)'라고 쓰여진 2개씩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날이 정해지면 당에 금줄을 치는데 이 금줄은 풍어제가 끝남과 동시에 벗겨내어서 태운다.



## 경정리 풍어굿의 역사

예전에는 4년마다 풍어제가 열렸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5년, 7년 간격을 두고 행해지다가 92년 이후로 10년 만에 풍어굿이 열리는 것이다.

## 무당들의 복장 특징

머리에는 ‘석거리’(하얀끈을 말아 꽃이라고 여기고 머리에 장식하는 것)를 얹는데 이 또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송동숙패는 이마에 띠를 하면서 석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부산지역에 가면 가르마를 가운데로 한 후 가운데 석거리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 굿준비 과정

추진위원회의 구성 : 굿을 이끌어갈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위원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어촌계장(이정록), 부위원장은 이장(김세권)과 새마을지도자(김영문), 위원은 유성중, 박항로, 박홍균, 김병철이다.

준비위원회의 구성 : 실제적으로 굿의 준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김성일), 임원 6명(이귀손, 이정달, 장대호, 김영일, 박창근, 남복이), 총무 1명(유진숙)이 담당한다.

제수비의 마련은 공동어장(수심 15m까지는 정부에서 면허를 주어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에서 생산되는 해물(해녀 · 잠수부에 의해서 채취/경정2리에는 아직도 채취작업을 하는 5명의 해녀와 1명의 잠수부가 있는데 물질을 하는 남자를 ‘잠수부’라고 부른다.)을 판매한 수입으로 작업을 한 해녀와 잠수부에게 60%를 주고 나머지 40%로 충당한다. 제수음식 중 과일과 어물 같은 항목은 기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굿이 치러지는 날을 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보름이나 20일 전에 날을 받으러 가서 정하는데 이번에는 축산 2리에 있는 영명사라는 절에 가서 날받이를 하였다. 날은 꼭 음력 3월 보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력 3월이나 양력 4월 사이에 유동적으로 행해진다.

이번 굿을 위한 총예산 경비는 4,000만원으로 그 중 무당섭외비가 2,200만원이 들었다. 무당들은 섭외비 이외에 굿관에서 주민이나 참가자들이 내는 복돈을 챙긴다.

제수음식은 옷당 옆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제실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곳에는 제관과 음식을 만드는 이주머니(이곳에서는 ‘식모’라고 부름.)만 들어가 음식을 전부 준비한다.

풍어굿을 보러 오는 주민이나 외지인들을 위한 음식준비는 부녀회(회장 이순녀)가 맡아서 하는데, 영해에 나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마련한다. 음식은 마을회관(마을회관은 굿당을 마련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 굿당으로 음식을 나르는데 편리한 편이다.)에서 만드는데 부녀회원들이 전부 참여하여 진행해 나간다.

부녀회장(이순녀)에 의하면 굿이 시작되고 이틀째 되는 날(특히 이번에는 일요일)이라 굿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음식의 양을 배분하여 마련하였다고 한다.

### 제관의 선출

제관은 박노운(임술생, 81세)과 김태상(을축생, 78세)이 선출되었는데, 제관의 선출은 풍어굿 날이 정해지면 마을에 있는 어른들 중 사주를 넣어서 생기복덕을 따져 정한다. 선출시키는 굿이 치러지기 보름전이며 제관의 집에는 외부사람들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고 제관들의 타지출입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날받이와 제관의 결정은 축산2리에 있는 영명사에서 이루어졌다.

### 굿의 의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큰 축제로 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적지 않은 경비를 부담하며 치러지기에 더더욱 정성을 보이고 이러한 기회로 부정의 기운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을의 발전을 바라게 되는 데에서 전통의 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별신굿의 제차

### 4월 27일

선주들은 선주기를 달라고 하는 이장의 안내방송에 따라 각자 기를 들고 나와 배에 단다. 깃발들은 처음 배를 구입할 때 친지들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 다양한 그림과 글씨로 그려진 것을 선물받은 것들이다. 공통적으로 다는 깃발은 태극기가 있고, 각 배의 이름이 쓰여진 깃발이 그 아래에 걸리고 선주들의 취향에 따라 여러개의 깃발을 대나무를 잘라 만든 봉에 달아 맨다.

선주와 선주의 아내는 집에서 가져온 간단한 제물(막걸리, 포, 과일 등)을 배에 차려 놓고 한해 동안의 많은 수확이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절을 하고 소원을 빈다.

오전 7시 30분 경 굿당에서는 징을 쳐서(김장길 : 무당 송명희의 남편) 굿이 시작됨을 알린다. 이때 치는 징을 ‘명금(명검)’ 이라고 부르는데 귀신에게 굿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시작을 알린 후에도 무당들과 마을사람들은 그 전날 만들어 놓은 지화, 등으로 굿칭을 꾸미거나 굿당 밖에서 준비 작업을 계속한다.

굿단은 3개의 단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를 상당(상단), 중당(중단), 하당(하단)이라고 부른다. 상당에는 과일, 용떡, 세굴떡, 허드래꽃(8-9송이)을 얹는다. 중당에는 좌측으로부터 연분홍 고동춘화, 흰 사계화, 다리화, 연화, 연봉, 매화, 연봉, 가새춘화, 사계화, 덩불국화를 화분에 쌀(때에 따라서는 흙이나 모래를 채움)을 채우고 꽃아 일렬로 놓는다. 하나의 화분에는 12송이의 꽃을 꽂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한다.(부산의 경우에는 10송이를 기본으로 함.) 하당에는 드름전과 팔보살(4명씩 2장)을 거는데 흰종이를 오려서 만든 것이다.

#### ● 부정굿(주무 : 김미향)

진행시간 : 9시 30분 - 9시 49분



부정굿

팽과리 4명, 징 1명, 장구 1명이 같이 참여한다.

**무녀복장** : 살구빛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파란끈을 묶음. 머리에는 흰색 석거리(꽃)을 돌려서 잡아 맨다.

**진행과정** : 소지를 태우면서 신단을 한번 휘두르고 바가지에 청수를 떠서 신단 양쪽에 뿌린다. 막내 무녀(안정남, 22세)에게 굿당 밖에도 청수를 뿌리고 오라고 시킨다.(신성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주무가 굿이 잘 진행되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사설을 하고 제관들에게 재배하라고 한다.

● **청좌굿(주무 : 김영희, 61세)** 골매이 서낭을 청하는 거리

**진행시간** : 9시 52분 - 10시 20분

**무녀복장** : 오른손에 노란수건과 부채, 왼손에 연분홍색 수건을 들고, 머리에는 흰색 석거리(꽃)을 꽂았다. 복장은 청색저고리에 쾌자를 입고 허리에 초록색 띠를 두른다.

**징** : 김진환(25세), 장고 · 바라지 : 김정희(43세), 팽과리 : 김동열(51세)

**진행과정** : 주무가 먼저 1배를 올리고 좌우를 향해서 반배를 올린다.

무녀 8명, 잭이 5명, 장고 1명, 징 1명, 팽과리 3명이 동시에 굿청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신단의 대구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신칼을 들고 주무가 춤을 추면서 신칼로 사망을 가르듯이 휘저꾼다.

주무가 제관에게 헌작을 시키고 신칼과 대구포로 제관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주무가 대구포와 신칼을 든 채 관중을 향해 서서 사설을 한다.(굿이 진행되는 동안 관중들이 정성을 들일 것을 당부한다.)

청좌굿





관중들에게 신단 앞에 나와 술한잔, 소지 한 장이라도 올리는 정성을 드리기를 요청하고, 골맥이할배가 10년 만에 마을에 오시는 만큼 다들 반가이 맞아주기를 기원한다.

신단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은 제관 옆에서 보조 무녀가 소지를 올려준다. 제관들의 이름과 생일생시를 말하고 굿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축을 해준다.

주무가 사설을 마치고 모든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것에 맞춰서 잠시 춤을 춘 후 소지를 2매 올리고, 제상의 술과 잔을 내려 제관에게 음복하게 한다.

오른손에 신칼을 들고 왼손에 술잔을 들고 마을의 안녕과 제관의 행운을 비는 덕담을 하고 다음 제관에게 술을 따라 준다.

오징어 한축을 제상에 올려 놓는다.

술잔을 내려 꿩과리 위에 놓고, 어물(3마리)을 마이크 앞에 놓고 무녀(김미향)가 손을 비비며 축원을 한다. 잔을 들어 신단 오른쪽 귀퉁이에 뿌리고, 잔을 제상 위에 다시 올려놓고 어물을 다시 상 위에 올려 놓는다.

“할배를 모시러 가자!” 고 제관(김태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굿당을 나선다.

#### ● 당맞이굿(주무 : 김미향)

**진행시간** : 10시 45분 - 12시 50분

**진행과정** : 굿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풍물패(씨알머리 : 장구 1, 북 2, 징 1, 꿩과리 1, 소고 1로 구성된 충주에서 온 풍물패)와 어울려 무당패, 마을사람들이 함께 흥을 돋우면서 춤을 춘다.

서낭대를 든 제관(김태상)을 앞세우고 웃당으로 먼저 향한다.<sup>03</sup>

웃당에 도착하여 서낭대를 제관이 잡고 서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풍물패와 어울려 춤을 춘다.

주무가 당집(神命閣)안으로 들어가 먼저 헌작한다.

청수를 신칼로 찍어 부정을 치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굿당 주변에 뿌린다.

주무가 굿을 주관하는 사람이나 선주들을 불러 헌작, 재배를 올리게 하고 절을 올릴 때마다 “○○○ 재배로다.”라고 소리를 질러 신에게 고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당안으로 들어와서 헌작하고 재배하기를 권했으나 사람들의 호응이 쉽게 나타나지 않자 무녀는 할배가 화가 났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sup>03</sup> 서낭대는 대나무를 길게 지른 것을 사용하는데 뒷부분에는 댓잎이 조금 남아 있도록 하고 북어 1마리와 한지를 요려 만든 술을 함께 달았다.

당맞이굿





주무(김미향)가 윗당 안에서 백지 두른 갓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와 노랑소수건, 왼손에 신칼을 들고 무가를 부른다.

주무가 서낭님을 모시러 왔음을 알리고 징과 장구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춘다.

손에 다시 신칼과 대구포를 들고 한바탕 소리와 춤으로 판으로 벌인 후 소지를 올리고 술잔을 내려 당밖으로 뿌린다.

2명의 제관을 차례로 불러서 음복을 시킨다.

느름대를 다시 제관(김태상)에게 잡게 하고, 재금을 든 무녀(김미향)가 서낭님을 모시러 온 까닭을 신고하고, 신을 청한다.

느름대가 떨기 시작하면서 무녀가 서낭신의 말(“정성을 들여주니 고맙다.”)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준다.

느름대 앞에 오징어 한 마리, 막걸리 한잔을 차린 상을 놓고 돛자리를 깎는다. 제관이 재배를 올리고 상을 치운 뒤에 다시 당안으로 들어가서 할배(위패)를 들고 나온다. 이장이 위패가 든 곱을 들고 제관은 다시 느름대를 세우고 굿당으로 향해서 풍물을 치면서 돌아간다.(중간에 위패를 제관들이 받아서 모시고 온다.)<sup>04</sup>

굿당 앞에 와서 느름대를 입구에 세우고 위패가 담긴 곱을 들고 제관들이 굿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단에 위패를 모신다. 무당들과 풍물패 마을사람들은 굿당 밖에서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흥을 돋우고 제관들이 나오자 다시 느름대를 앞세워 아

<sup>04</sup> 위패는 나무로 만든 받침대 위에 세우고 뚜껑을 덮고 검은색을 칠하였다.

랫당으로 할배를 모시러 간다.

당안에는 두 개의 위패(오른쪽 : 金氏洞神之位, 왼쪽 : 朴氏基神之位)가 모셔져 있고 1992년 풍어제를 지내고 옮겨온 지화가 꽃혀 있으며 가장 왼쪽으로는 모래가 담긴 호리병 모양의 향아리를 두었다.

당안으로 들어가 제관들이 위패의 뚜껑을 열고 촛불을 켜 뒤 헌작하고 재배하는 동안 풍물패는 밖에서 계속 풍물을 치고 마을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준다.

무녀들이 당안으로 들어가 마을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 헌작과 재배를 시키고 소지를 올려주는데 이때에는 복돈을 위패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 사람들의 호응이 쉽게 나오지 않자 무녀들이 할배가 화가 나서 가야겠다는 식으로 신을 대신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계속 호소한다.

무녀는 바가지에 든 청수를 신칼에 묻혀 계속 뿌리면서 할배신을 모시기 위한 노래를 계속 이어간다. 이에 장구, 징 등의 악기도 계속 장단을 맞춰가고 바라지도 계속 된다.

제관이 마을대표를 불러 헌작, 재배를 하게 하고 장구잡이는 신당 문앞에서 이에 맞는 바라지를 하면서 반주를 한다. 올렸던 술은 당집 밖으로 퇴주를 하고 마을 유자들은 계속 이어 들어와서 헌작, 재배를 하고 복돈을 었는다.

무녀가 오른손에 부채, 왼손에 신칼을 들고 ‘청배무가’를 부르고, “~~가시자. 모시자.”로 바라지는 계속 이어진다.

무녀가 오징어 접시를 들고 춤을 춘 후 술잔을 내려 퇴주를 하고 다시 술을 따라 제관에게 음복하게 한다. 무녀가 술 한잔을 올리고 배례를 한 후 신단 왼쪽에 두었던 향아리를 들고 춤을 춘다.(단지의 주둥아리에 한지를 덮고 왼새끼로 목을 두른 후 새끼줄의 일부를 풀어 신단의 턱에 다른 무녀와 함께 공을 들이며 붙이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다. 향아리가 신단의 끝에 붙는 것은 신이 왔음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무당이 신당 밖으로 나와 대잡이(제관) 앞에 제상(오징어포와 막걸리)을 차리고 재금을 들며 제관에게 재배를 하라고 한다. 이 때 느름대가 심하게 떨리면서 신이 왔음을 알린다. 이 때 무녀(김영희)가 신에게 “할배요, 섭섭한 마음 버리고 굿당으로 가서 좌정하시요.”라고 여러 번을 고한다.

술잔의 술을 땅에 뿌리고 재배를 한 후 하당을 떠난다. 하당에서 가져온 위패를 굿당에 다시 모시고 아기사당으로 향한다.

아기당은 당집은 없고(처녀귀신을 모시는 곳으로 귀신 축에 들지 못한다고 하여 당집을 만들지 않고 신목만으로 대신하고 있다.) 신목 아래에 제단을 시멘트로 만들었다. 제단 앞에서 풍물을 치고 놀다가 서낭대를 세우고 무녀(김영희)가 오른손에 부채와 노란손수건을 들고 왼손에는 신칼을 들고 무가를 부르며 춤을 춘다. 제단에 오징어 한 마리와 술한잔을 올려놓고 징, 팽과리, 북 반주에 맞추어서 모든 무녀들이 바라지를 하면 춤을 춘다. 장단이 윗당과 아랫당보다 격렬하고 빨라진다. 헌작하고 배례할 사람을 찾으려나 아무도 나서지 않자, “에이, 뭍쓸 놈들! 한놈도 없구만...”

이라고 애기신을 대신해서 푸념을 한다. 술을 제단에서 내려 일부를 주위에 뿌리고 제관에게 음복하게 한다. (이 잔을 “명잔: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 혹은 “복잔: 복을 축원하는 의미”이라고 부른다.) 애기씨는 느림대에 내림을 받지 않고 풍물을 울리며 다시 굿당으로 모두 향한다.

되돌아오는 무당패를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큰길로 마중을 나온다. 서로 만나는 지점에 새끼를 꼬아서 만든 얇은 줄을 치고 대치하는 모양으로 마주 선다. 새끼줄 사이사이에 복사한 가짜돈(복돈)을 끼우면서 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밀치며 풍물을 친다. 줄로 무당들을 감기도 하고 잠시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못 이기는 척 무당패들에 밀려 굿당 쪽으로 가서 굿당 앞에 서낭대를 세우고 모두 함께 어울려 크게 풍물을 한판 친다. 풍물패는 모인 마을주민들을 위해 상모를 돌리는 등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흥을 북돋는다. 서낭신을 성대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을주민들의 신명을 푸는 신인대동(神人大同)의 놀이판을 꾸미는 장면을 연출한다. 무당들이 굿당안으로 놀이패를 몰고 들어가면서 당맞이굿과 뒷풀이 마당이 종료된다.

● 화회굿(주무: 박남이, 66세)

**의미**: 양당의 신을 모셔놓고 화회의 동참굿판을 벌임.

**진행시간**: 13시 25분 - 14시 5분

**무녀복장**: 오른손에 노란색손수건과 부채를 들고 왼손에 오렌지색수건을 들고, 흰색꽃머리띠(석거리)를 하고, 남색 쾌자에 연두색 띠를 허리에 두른다.

**진행과정**: 제상에는 쌀 한말, 낫동이 위에 대구포와 오징어 한축, 쫄대 2개, 술 두 잔을 놓는다.

중단에는 당에서 모셔온 위패(오른쪽:金氏洞神之位, 왼쪽:朴氏基神之位)를 모신다.

무녀가 청배무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장구(김동열, 51)가 반주를 해주며 사이사이에 징이 박자를 맞춰준다. 노래를 부르다 춤을 출 때에는 모든 악기가 반주를 해주고 장고쟁이(김동일, 51세)가 바라지를 해준다.

노래의 가사는 무병장수와 무사고를 빌고, 매달 드는 액(예:유월 유두, 칠월칠석 등 이름 있는 날)을 막아주기를 소원한다.<sup>05</sup>

다른 무당(김영희)과 함께 둘이서 각각 오른손에 수건을 들고 마주보며 춤을 추기 시작하고 무기는 다른 무녀가 앉아서 한다.(장구 1, 징 1, 팽과리 3) 김영희 무녀는 제상 옆에 앉고, 박남이 무녀가 다시 혼자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박자가 점점 빨라지고 동

<sup>05</sup> 보는 것은 사람이요, 듣는 것은 귀신이  
라...몸을 성히 해주시고...복도 주고 명  
도 주소.'라고 처성을 들인다.

화회굿





작도 커진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리고 오른손에 신칼 왼손에 대구포를 다시 들고 춤을 추다가 대구포로 제관들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복을 많이 받으소서.”라고 축원을 해주고 제관들에게 명을 길게 해주는 의미가 담긴 복잔을 한잔씩 준다. 그리고는 “공짜술이 어디에 있겠소?”라면서 복값과 명값을 내라고 한다. 부채를 펴 들고 제관들에게 가서 복값과 명값을 받아서 온다. 다시 대상을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옮겨서 젊은이들이 굿당으로 들어와서 술도 올리고 시주도 하고 해야하는데 너무 동참을 하지 않고 밖에서만 서성거린다고 야단을 친다. 어서들 들어와서 술도 한잔씩 붓고, 소지도 올려야 복도 명도 들어 온다고 계속 굿당안으로 들어오기를 권유한다. 김영희무녀는 왼손에 술잔을 들어 잔의 술을 버리고 제상에 새잔을 올린다.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시주를 하라고 하면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해주고 그 사이에 안정남 무녀와 박남이 무녀가 뽕과리에 들고 관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걷는다. 노인들은 험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마을에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없고, 병고가 없기를 계속 기원해 준다. 객석을 돌아다닌 무녀가 한바퀴를 돌고 돌아오자 박남이 무당이 시주(복돈)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으로 절을 올린다. 토끼, 양, 돼지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삼재가 들었으니 소지를 올려 풀어주어야 하니 앞으로 나와 술잔을 올려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앞으로 나오기를 권한다. 다음으로 행사에 찬조금을 낸 사람들과 추진위원회 사람들의 명단을 위원장이 적어와서 무녀에게 넘겨주면서 축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 ● 세존굿(주무 : 김미향)

**진행시간** : 14시 21분 - 17시 10분

**무녀복장** : 목에 염주를 걸고 오른손에 부채와 노란수건, 왼손에 흰 꼬깔 접은 것을 들고 시작한다.

**장구** : 송동숙, 김장길

#### **진행과정**

느린 박자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면서 시작한다. 제상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이곳 경정리의 주소와 굿이 벌어지는 날짜, 시간을 말하고 풍어제를 한다는 것을 신을 향해서 고한다. “9상자의 복을 지고, 10상자의 명을 지고...”라고 무가를 부르면서 세존에게 복을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녀는 손에 들고 있던 고깔을 머리에 쓰고 중의 신분이 되어 “금강산에 절을 지어야 하는데 지어야 할 건물들이 법당, 종각, 암자, 일주문 등 수없이 많아서 시주를 받으러 떠나야 한다.” 이때 제관이 무당에게 다가와서 복돈을 옷에 꽂아주는데 가짜로 복사한 돈을 준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제관이 제상의 술을 새로 붓고 돌아온다. 시주를 받으러 떠난 중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중이 아기

세존굿





씨와 만나는 장면으로 들어간다. 중이 아기씨 집에 시주를 갔다가 하루 밤을 머물게 되는데 문구멍으로 옆방에 자는 중을 구경하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다. 이 때 중이 하는 말이 문구멍으로 중구경을 하면 지옥가기를 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자 아기씨가 문을 여는데 이때 중이 아기씨의 미모에 바로 빠져든다. 중이 쌀을 시주하라고 하자 부모님, 아홉 오라버니가 다 출타중이라 고방(쌀이 든 방)문이 다 잠겨서 쌀을 꺼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주문을 외워 중이 고방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한바릿대만 담아 달라고 부탁을 한다. 쌀을 담는 시간을 연장해서 아기씨와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바릿대 밑바닥에 구멍을 낸다. 아기씨가 바릿대를 다 채우고 이제 다 되었으니 가라고 하자 밤이 늦었으니 하루 밤만 신세를 지고 쉬어갈 수 없냐고 때를 쓴다. 처음에는 아버님 방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자 거절하고 다음에는 어머니 방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자 또 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라버니들 방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자 그것마저 거절을 한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멧대로 자라고 하자 아기씨 방에 병풍을 치고 자겠다고 제의를 해서 결국은 한방을 쓰게 되고 아기씨는 자기가 중의 마누라가 되는 것이 팔자임을 알고 연을 맺게 된다. 시간이 지나 오경이 되어 중이 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아기씨가 매달린다. 중은 다음에 자기를 찾아 올 때, 주고 가는 박씨를 땅에 심으면 박이 줄기를 칠테니 그 줄기를 따라 오면 만날 수 있다고 박씨 3개를 주고 떠난다. 무기는 잠시 중단되고 무녀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기 시작하고 관중들이 시주돈을 들고 나와 무녀 치마끈과 머리끈에 꽂아 주고 함께 춤을 춘다. 이야기는 계속 되어서 당금애기 아기씨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첫국밥도 끓여 주고 애기 배냇저고리, 포대기 등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관중들에게 시주를 할 것을 권한다. 관중들이 봉투를 들고 나와 시주를 하기도 하고 무녀가 직접 관중석으로 흰꼬깔을 벗어서 시주를 받으러 돌아다닌다. 그 사이 재관은 신단에 술잔을 새로 올린다. 당구메기 아기씨가 아들 세쌍둥이를 출산해서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7살이 되고 서당에도 보내게 된다. 아들 셋이 서당에서 뛰어난 실력들을 보이자 다른 학동들이 애비도 없는 호로자

식이 공부는 배워서 뭐하느냐는 놀림을 한다. 15살이 되어 서당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씨에게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처음에는 아기씨가 모른 척을 하고 왕대밭에 물어보라고 한다. 왕대밭에서 가서 물어보니 왕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왕대는 상주막대나 만드는 것이라고 답을 한다. 다시 소나무 밭에 가서 물어보니 부모 돌아가시면 관을 짜는데나 쓰는 것이라고 답을 한다. 아들이 포기를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자 아기씨는 결국 종이 주고 갔던 박씨 3개를 주면서 땅에 심어 보라고 한다. 밤새 박은 줄기가 자라 천리만리 뻗어 나가자 아들이 아기씨를 가마에 태워서 박줄기를 따라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전국의 절들을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찾아다니는데 범어사, 통도사, 불국사, 팔공사, 기림사, 보경사, 관음사, 월송사, 낙산사, 금봉사, 유정사를 거쳐 금강산 암자에 도착하자 박줄기가 끝이 난다. 줄기가 끝이 났으니 여기서 쉬어가자고 하고 법당 앞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 때 물을 뜨러 나왔던 상좌승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스님과 연관이 있음을 알고 법당으로 들어가 스님에게 알린다. 스님은 염불을 모시고 난 후 마중을 나가는데 스님이 어머니(아기씨)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자 아들 셋이 스님이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스님이 아들들을 불러 놓고 자기가 시키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자기 아들됨을 인정하겠다고 몇 가지의 주문을 한다. 소뿔로 산 소를 만들어서 타고 오라고 하고 짚으로 북을 만들어 치면 소리가 나게 하라고 하자 아들이 이를 지혜롭게 다 이루어내고 비로소 아들임을 인정한다. 그리고는 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데, ‘태산’, ‘평택’, ‘한강’ 이라고 하였다.

무가가 잠시 멈추고 세존에 관한 사설이 이어진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세존단지를 모시고 후손들이 잘 되고 아무 사고가 없기를 이 단지를 신체 삼아 귀하게 여겼다. 무녀들은 계속해서 노인분들 위주의 축원을 해주는데 가정의 안락, 자손장성, 건강조심, 무병장수, 자식을 앞세우지 말고 등등의 덕담을 해준다.

오후 3시 55분 관중들을 위한 참(국수)가 부녀회원들에 의해 굿당으로 배달되고 무녀들도 잠시 휴식을 취한다.

주무(김미향)가 색동저고리, 빨간치마에 흰고깔을 쓰고(장삼을 입은 스님복장) 춤을 추면서 다시 관을 벌이기 시작한다. 잠에서 깨어나서 머리 단장을 하고, 양치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가슴의 띠를 풀어 새끼줄로 생각하고 짚신을 삼아 제관의 발에 맞나 확인을 한 후, 신발 문수가 맞다고 하면서 신값을 내라고 한다. 장삼을 벗고 쾌자자락을 뒤로 묶은 후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춤사위가 빨라지고 손에 바라를 들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춤을 춘다. 바라는 끈을 잡고 돌리거나 마주 처서 소리를 내면서 장단을 맞춘다. 그 사이 제관이 하단과 중단의 술잔을 새로 올린다. 바라춤이 끝나자 바라를 바닥에 굴려서 장구쟁이에게로 보낸다. 그때부터 장구쟁이와의 장난스런 대화가 시작된다. 장구쟁이가 중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장구쟁이: “오기를 어디서 왔느냐?”

무녀: “옥이…”

장구쟁이: “고향이 어디냐?”

무녀: “고양이는…”

장구쟁이: “있는 곳이 어디냐?”

무녀: “초가지붕에 달라던 고지…”

장구쟁이: “절이 어디냐?”

무녀: “철로 만든 거는 여기저기에 많고…”

이런 식으로 단어의 발음을 가지고 말장난을 주고 받는다.

제관(을축생)을 불러 절을 하게하고 관객을 향해서 바닥에 앉힌다. 제관이 위세를 하여야(창피를 당해야) 마을에 복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서 절에 갈지 마을에 남을지를 묻는다. 제관이 마을에 남겠다고 하자 동냥을 해오라고 한다. 제관에게 장삼을 입히고 고깔을 씌운 후 김미향 무녀와 함께 동냥길에 나선다. 이때 시주노래를 송명희 무녀가 나와서 부른다. 동냥을 나간 중(제관 김태상)을 도망간 중으로 여기고 도망간 중을 잡아야 마을의 액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잭이들 4명(송정환, 박범태, 김정희, 김진환)이 무대에 나선다.(서로 사촌간이라고 함.) 우선 오랜만에 만났으니 회포를 풀어야한다고 이런 저런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 그 동안의 안부를 묻는다. 굿관의 신명을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를 부르고 흥을 돋운다. 제일 먼저 막내를 도망간 중을 잡으러 보냈는데 병신이 되어서 돌아온다.(병신춤을 추면서 돌아옴.)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중석의 아줌마들에게서 돈을 받아낸다. 그 다음으로 보낸 사촌도 다쳐서 돌아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중석에서 치료비를 타낸다. 고깔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씌어서 머리에 맞으면 도망간 중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둘러싸우고 돈을 받아내는데 고깔을 덮어 쓴 사람은 재수가 좋다는 말로 주민들의 동참을 구한다. 특히 이번이 10년 만에 하는 굿이라 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더 많은 복돈을 받아낼 구실을 만든다. 이런 저런 물건을 넣은 망태(지계짐)와 함께 중(제관)을 도망간 중을 잡아 온 것이라며 굿청 앞으로 끌어낸다. 망태속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는데 바가지, 복조리, 나무주걱(‘똥가래’라고 함.), 천도복숭아(사과로 대신), 단감, 쌀(‘명쌀’, ‘복쌀’이라고 함.) 등이 나온다. 하나 하나 물건을 꺼낼 때마다 중(제관)에게 면박을 주면서 괴롭힌다.

제관들을 불러 무녀(김미향, 김영희)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세존굿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제관들이 헌작.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무당은 마을의 평안을 축원해주는 덕담을 하고 삼재가 든 사람들의 액막이를 기원해 준다. 다시 제관들을 불러 쌀점을 봐주는데 손바닥에 쌀을 조금 올리고 숫자를 센 후 그 쌀을 한입에 털어서 먹게 하는데 씹어 먹지 말고 바로 삼키라고 한다. 쌀점을 본 후 마지막으로 제



관들이 헌작, 재배하는 사이에 무당이 소지를 올려주면서 세준곳이 끝난다.

● 조상굿(주무 : 송명희)



1. 조상굿  
2. 조상굿

**진행시간** : 17시 17분 - 19시 05분

**무녀복장** : 오른손에 부채와 노란수건 왼손에 갈색수건을 들고, 분홍치마에 연두 저고리, 갈색 쾌자에 연두허리끈을 묶고 머리에 석거리 장식을 엮는다.

**장구** : 김장길(송명희의 남편)

**진행과정**

굿청 앞으로 나와 천천히 춤을 추면서 제단에 재배하고 “조상님을 모시러 갑시다.”라는 말로 조상굿을 시작한다. 임오년 10년만에 굿을 벌이는 경정리의 주소를 말하고 예전에 이 굿을 ‘백불동네’라고 불렀다. 주소에 이어 굿이 열리는 날짜를 조상님께 고하고 제관들의 생월생시 또한 고한다. 제관들의 선출도 생기복덕을 가려서 했음을 알리고 이렇게 단을 차려 놓고 조상님네들을 모시려는 정성을 모으고 있음을 알린다. 가가호호의 조상님네들을 청하는데 다들 오셔서 차려놓은 밥 한 그릇이라고 음복하고 가시기를 기원한다. 경정리에서 그 동안 치러져 왔던 풍어제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 동안 들인 정성에 대하여 주기를 바라는 뜻이다. 경정리는 박씨터전에 김씨골맥이이고 제관 중에서 상제관은 박노운이고, 종제관은 김태상이다. 제관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노고를 치성하고, 후손들에게 복과 명을 달라고 조상신에게 빈다. 또한 풍어제의 의미에 맞게 고기잡이가 잘 되게 해주기를 기원하고, 잠수부와 해녀(이 사람들은 진돈을 벌어서 마른돈으로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동시에 저승돈을 벌어서 이승에서 쓰는거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함.)도 작업을 하여 억만금을 벌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어부는 살을 팔아 용왕님께 받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 조상님께서 굶이 살피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조상님들 살아 생전에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하여 고생한 덕에 대한 보답의 자리이니 부디 오셔서 많지 않은 음식이지만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원을 계속 한다. 무녀들이 무가를 부르면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한두 사람씩 단 앞으로 나와 복돈을 놓고 헌작, 재배를 하는데 이때 무당이 옆에 앉아 대주의 성을 물어보고 집안이 다 평안하기를 축원해주고 소지를 올려준다. 쥐띠들이 올해 운수가 좋지 않으니 다들 앞으로 나와 소지 한 장씩이라도 올리면서 조상님께 빌라고 한다. 오유월 개뿔발에 굴러도 이세상이 좋다니까 다들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복 많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조상님께 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 개인의 치성을 올리는 것으로 굿은 거의 진행되고 주무가 마지막으로 새로 헌작을 하고 소지를 올리면서 동네 전체에 대한 기원을 해주는 것으로 굿은 마무리가 된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상단의 용떡 사이에 떡시루를 올리는데 이를 “손님상”이라고 한다. 조상굿전에 개인 치성상들을 하단의 아래에 가져다 놓기도 하는데 내용물은 과일, 어물, 떡, 술, 쌀 등이다.

#### ● 성주굿(주무: 김동연)

**진행시간** : 19시 45분 -22시 25분

**무녀복장** : 연두치마, 분홍저고리, 남색쾌자, 허리에 연두빛 띠, 머리에 한지를 두른 갓을 쓴다. 오른손에 부채와 노란수건, 왼손에 흰수건을 들고있다.

**장구** : 김동열

#### 진행과정

성주굿이 시작하기 전에 성주상을 따로 차리는데, 음식의 내용은 메, 탕, 과일(사과, 배, 오렌지, 대추), 떡, 생선, 오징어포이다. 상이 들어오고 난 후 제관이 나와서 메에 수저를 꼽고 헌작하고 재배한다. 무당이 무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관중들이 나와서 무당의 허리끈에 복돈을 꼽는데 장단이 빨라지자 복돈을 내려 나오는 사람들

성주굿



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 시주가 늘어나자 무당도 흥이 나서 여러 가지 축원을 해주는데 먼저 내일 당장 작업을 나가는 어선이 무사히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이어서 경정리 선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나와서 소지 한 장이라고 올리기를 청한다. 거명된 이름들은 어촌계장(이정록), 이장(김세권), 수협대의원(유영춘), 용성호 선장(이기동), 삼학호 선장(김복덕), 영덕호, 대진호 선장(유천수), 진양호 선장(김명복), 수성호 선장(김민수), 동현호 선장(김일성), 성일호 선장(김성일), 양일호 선장(엄재춘), 양진호 선장(이우천) 순으로 이름을 부르고 본인이 없을 경우 부인이라도 나와서 정성을 들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해녀들이 무사히 작업하기를 축원하고 조업사고가 마을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한다. 다양한 어종으로 풍성하게 수확되기를 어류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축원한다.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민박을 치는 집들이 수입을 많이 올리기를 원하고, 경정리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간 사람들도 모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름 휴가철에 수상사고 나지 말고, 음식먹고 탈나지 말고, 비브리오·콜레라·적조 오지 말고, 사업하는 자 손들 사업번창하고, 군에 간 아들 있으면 무사히 제대하고 나와서 직장자리 빨리 잡고, 차없이 못사는 세상이니 차는 굴러야 하는데 차사고(용달,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경운기, 지게차, 포크레인, 정비차, 자전거, 택시) 없기를 바라고(차사고 없기를 기원하는 부분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복비를 많이 낸.), 남자들은 여자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길에서 강도 만나지 말고, 진학할 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진학운이 들기를 마라고, 모두 모두 모범학생과 청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함.

다시 이야기의 진행이 바뀌어서 예전에 경정마을에서 집을 지을 때 대목들이 성주로 쓸 나무를 베러가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당산에 성주 나무를 하고 가는데 이대목, 김대목, 유대목, 변대목, 안대목, 심대목이 나무를 하러 간다. 성주에 쓸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그전에 산신제를 지내야 하는데 산신제 준비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관과 동네 어른들에게 제수 마련 비용을 받아 낸다. 산신제를 지낼 날 받는 노래를 하면서 날값을 제관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앉은 이들에게 상에 차릴 제수를 준비하는데 드는 돈을 부채를 퍼들고 받으러 다닌다. 날을 받아 상을 차리는 모습을 상에 올라가는 제수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부르고 다음으로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목을 마련하는 장면에서 톱질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에 맞춰서 세월의 무상함을 읊어나가는데 톱질의 구령의 맞춰 “가는 세월 누가 잡고, 오는 백발 누가 막으랴. 다시 젊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인데. 가는 사람 당겨주고, 오는 사람 막아주쇼...”라고 흥을 돋우면서 경정리 주민들을 위로하는 내용, 노인들의 건강은 축원, 세월의 무상함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정신없이 톱질을 하다보니 톱의 날이 다 부러져 새톱을 마련하러 소문이 난 전라도 땅으로 가야했는데 노잣돈이

성주굿



없다고 비용을 구하러 구경꾼들 사이를 다시 돌아다닌다. 본인이 직접 쇠를 달구고 녹여 톱을 만들다가 불뚱이 튀어 입을 다쳐서 병원에 가는 장면에서 모두들 함께 병신춤을 춘다. 너무 열심히 추어서 이번에는 엉치 뼈가 잘못되었는데 이럴 때에는 소주 한 병을 입으로 머금었다가 뱉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으니 이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잘 만들어진 톱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집을 짓기 시작하여 집이 완성된다. 이에 지신밟기를 하고 건립놀이를 시작하는데 3명의 무당이 전라도 목수들로 출현하여 굿청에 선다. 이들은 '농부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주무가 팽과리를 들고 입장하여 노래를 계속 돌려가며 이어 부른다. 재금 1짝을 가지고 팽과리처럼 들고 무녀 두 사람이 춤을 춘다. 주무는 오른손에 부채 끝에 수건을 메고 상무 돌리는 흥내를 내면서 춤을 추다가 수건을 하나 더 붙여서 상무의 길이를 길게 하여 앉아서 상무 돌리기를 계속한다. 이어 김동연 무녀가 마이크를 잡고 경기소리를 시작하는데 이어 3명의 무녀가 돌아가면서 뒷소리를 해준다. 내용은 주로 아까운 청춘을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한바탕 춤과 노래가 끝나고 성주를 모시러 가기 위해 왼손에 대구포, 오른손에 신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단에 있던 촛대를 중단으로 올리고 쌀 뒷박에 홍두깨를 꽂는다. 제관들이 나와서 재배를 하고 소지를 쌀 뒷박 위로 올리고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다. 성주상에는 오렌지, 감, 사과, 오징어, 술, 당과 메를 진설하였다. 무녀가 성주상을 들어 꽂아놓은 홍두깨 위에 균형을 맞춰 들어올리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상이 올라가자 다시 소지를 올리고 제관들이 재배를 한다. 이를 '상을 세운다'라고 한다. 소지를 올리고 짧은 의식이 끝나자 상을 내려 상 위에 있던 쌀로 제관들에게 쌀점을 봐주고 그 쌀은 제관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데 찹지 않고 삼키게 하고 음복을 시킨다. 주무가 술잔에 술을 다시 부어 축원을 하고 상을 물린다.

김동연 무녀가 양손에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춤굿을 한판 벌이는데 중간에 부채에서 무구를 흰수건으로 바꾼다. '오봉산', '뱃노래' 등의 노래를 부르고 좌중의 흥을 돋기기 위해 노래판은 유행가로 넘어가고 관중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하면서 징을 들고 시주돈을 받으러 한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송명희 무녀가 시주가를 부르는 것을 끝으로 절을 하고 성주굿을 마친다.



● **지신굿(주무 : 김동연)**

**진행시간** : 9시 55분 - 11시 55분

**무녀복장** : 오른손에 부채와 노란스카프, 왼손에 분홍스카프

**장구** : 김동열, 김진환

**진행과정**

중단 아래에 개인치성상을 차리는데 각각 가정마다 정성껏 상을 차려 온다. 가장 일반적인 상차림은 숟가락을 꼽은 메, 젓가락은 생선 위에 놓고 국은 무우, 숙주, 시금치 등을 넣고 끓인 것이 많다. 생선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도미, 마른 오징어 등을 쓴다. 탕은 두부, 버섯, 무, 문어 등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하고 떡은 백설기(이지역에서는 '백썸'이라고 부름)를 올리고 생선은 머리를 자르고 진설한다. 개인상을 굿청에 차리는 경우는 집안에서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하다가 죽은 조상이 있는 경우에 많이 하고, 굿청에 상을 차리지 않은 사람들은 집안에 따로 상을 차려 두기도 한다.

무녀들이 해녀, 민박하는 사람, 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무사안일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돈을 많이 벌기를 축원해 준다.



지신굿

● **심청굿(주무 : 김동연)**

**진행시간** : 12시 32분 - 17시 17분

**무녀복장** : 꽃무늬 흰치마에 분홍저고리를 입고 남색 쾌자에 연두색 허리띠를 매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왼손에 손대와 파란수건을 함께 들고, 오른손에는 노란수건에 부채를 들었다. 손대는 종이 끝에 돈을 매달았다.

**장구** : 김동열



심청굿

### 진행과정

관중석의 할머니들을 굿청으로 불러내어 함께 춤을 추면서 복비를 받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심청이를 어루는 장면이다. 심봉사의 부인인 곽씨부인이 심청이를 낳고 첫국밥을 끓여먹고 태어난 심청이를 위한 물건들을 사야한다며 미역, 참기름, 멸치, 간장, 기저귀, 가물치, 포대기, 몸배 등이 필요하다고 노래한다. 하지만 곽씨부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봉사가 해주는 국밥을 먹고 누워 있자니 마음이 안쓰러워 다시 일어나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눕게 된다.

곽씨부인이 죽기 전에 심봉사에게 집안살림과 심청이 돌보는 것을 당부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곽씨부인이 당부 후에 죽은 줄도 모르고 건너마음로 약을 지으러 심봉사는 떠난다. 약을 지어와 달여서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야 부인이 죽은 줄을 알고 약이 원수라고 땅을 치면 통곡을 한다. 평소에 많은 인심을 얻고 있었던 곽씨부인의 초상을 마을사람들이 치러주는데 상여가 나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죽음의 허무함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데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고, 오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 부모형제와 남편, 자식도 소중하지만 내 일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아무도 가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산신제를 지내고 안장을 한 후 심봉사가 축을 읽는 장면이 나오고 축을 마친 후 봉분 앞에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한다. 마을주민들이 심봉사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고 뒷마을의 귀덕애미가 심청이를 심봉사에게 데려다준다. 둘이만 남게되자 심청이는 배가 고파서 울고, 우는 청이를 심봉사가 달랜다. 태어나서 7일만에 애미를 잃고 젖한번 얻어먹지 못한 심청이의 신세가 곽씨부인을 잃은 자기의 신세와 같음을 한탄한다. 하루밤을 눈물로 지새고 아침이 밝자 심청이를 업고 우물가로 찾아가서 동네아낙들에게 젖동냥을 하는데 우물가 아낙이 아기 있는 집을 가르쳐줘서 찾아간다. 이렇게 심청이는 젖동냥으로 자라게 되고 5살이 되자 아버지 길잡이를 해서 동네로 밥동냥을 다닌다. 청이 혼자 밥동냥을 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추운 날 동냥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밥을 얻어온 심청이 돌아



심청굿

오는 소리를 기다리면 안절부절 하다가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반가이 맞이한다.

세월이 흘러 심청이 10살이 되고 춘삼월을 맞이하는데 처음으로 길을 물어 엄마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동행한 심봉사도 함께 통곡을 한다. 이때 관람석에서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이 나오고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된다. 심청이 15살이 되면서 다방면으로 뛰어난 재주 때문에 건너마을까지 소문이 난다. 정승택에서 수양딸이 되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지만 집에 눈먼 부친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간곡히 거절을 한다. 청이가 정승택부인과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해가 기운다. 집에서 기다리던 심봉사가 청이를 찾아나서는 데 동지선달 추운 날 다리를 건너다 개울에 빠진다. 마침 길을 가던 시주승이 심봉사를 발견하고 구해준다. 집으로 데려와서는 옷을 갈아입혀주고 절의 부처님 전에 공양미 삼백석을 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약조를 한다. 몽은사의 시주승은 염주를 주고가면서 한알씩 굴리면서 염불을 하라는 부탁을 한다.

이어서 '단수뽕기'로 점을 봐주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제관들에게 복채를 놓고 상앞에 앉기를 권한다. 쌀에 박아 둔 술잎뭉음을 빼서 물에 적셨다가 제관들에게 그 중 몇개를 뽕으라고 한다. 뽕힌 술잎의 숫자로 점을 봐준다. 굿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절대 된소리 내지 말고 부인들고 입조심을 시킬 것을 당부한다. 속옷과 소금으로 삼재풀이를 착실히 해주어야 하고, 동네책임자가 된소리가 나면 관재수가 생기고 굿을 한 보람이 없어진다고 주의를 준다. 액막음과 수막음을 해야하고, 회계관에 된소리 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관들에게 까마귀 소리를 세 번 흉내 내게 시킨다. 을축생 제관에게는 따로 말울음소리 세 번을 주문한다. 동네터가 세어서 여자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당부한다.

쌀점을 보고 제관들이 쌀알을 받아먹고 그릇에 담겨 있던 청수로 무녀가 제관들의 이마와 눈을 씻어준다. 이 청수로 눈을 씻으면 맑아진다고 하자 관중들도 물에 눈을 적시기 위해서 갑자기 모여든다. 손수건에 물을 적서 서로 돌려가면서 눈을 닦는다. 심청굿이 끝나는 마지막에 주무가 술잔을 부어 축을 한 후 퇴잔 하고 마무리한다.



산신굿

# ● 산신굿(주무 : 박금현)

**진행시간** : 17시 18분 - 18시 38분

**무녀복장** : 연한 보라색치마, 빨간 저고리에 자주빛 쾌자를 입고 오른손에 부채와 살구색 수건, 왼손에 밤색과 자주색 수건을 들었다.

**장구** : 송정환

## **진행과정**

제관들이 헌작후 재배하고 소지를 올리면서 굿이 시작된다. 먼저 산신님을 모시기 위한 노래를 부르는데, 왼손에 대구포, 오른손에 신칼을 들고 신칼에 달린 술로 중간상에 채려진 음식을 쏟고 지나간다. 이는 명과 복을 주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공을 들이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나무를 때어도 이 산천에서 자란 나무를 쓰는데 영험한 산신님을 모셔놓고 그냥 갈 수 없어서 이 굿판을 연다는 설명을 한다.

각 지역의 산신들을 차례로 모시는데 가장 먼저 전라도 남원을 시작으로 진도 산신을 진도아리랑을 부르면서 모셔온다. 다음으로 경기도 산신을 모시고 각 지역으로 산신을 모시러 다닌다. 전국의 여러 산신들에게 자손들의 부귀영화를 빌고 좌정하신 산신들이 놀고 가셔야 한다면서 춤과 노래를 시작한다.

주무인 박금현 무녀는 강릉출신으로 오늘 굿판이 처음으로 서게 되는 자리인 것을 알려주고 송명희 무녀가 젊은 새 무녀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부탁하며 시주돈을 걷으러 다닌다. 주무인 박금현 무녀는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축원을 하면서 제단을 향해서 재배를 한다.

# ● 천왕굿(주무 : 송명희)

**진행시간** : 17시 32분 - 21시 47분

**무녀복장** : 흰치마, 붉은 저고리, 자주색 쾌자를 입고 연두색 허리띠를 두르고 푸른색 고름을 매었다. 오른손에는 노란수건과 부채를 들고 왼손에는 갈색수건을 들고 있다.

**장구** : 김장길

## **진행과정**

주무가 제단을 향해 먼저 춤을 추면서 굿이 시작되는데, 춤을 한판 마친 후 재배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제관들을 불러내서 헌작하고 재배하게 한다. 자손들의 학운을 염원하고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지기를 기원해주며, 효와 충의 덕목이 집안을 지켜준다고 한다.

각 지방의 천왕들을 그 지방의 민요를 부르면서 모셔오는데 그들의 마을에 와서 마을에 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 온갖 영신들을 다 모셔오는데 천왕신을 모시지 못하겠냐면서 강원도를 시작으로 천왕신도 모시기 시작한다.



이어서 춘향놀이가 계속되는데 소리는 김장길이 맡았다. 주무가 축원무가를 부르면서 치맛자락에 걸립을 하는데 다른 무녀들은 뺨가리를 들고 복비를 걷으려 다닌다.

일명 원님놀이(사또놀이)라고 부르는 놀이가 시작되는데 변사또가 춘향이의 대령을 명한다. 마을곳의 추진위원장을 사또로 모시고 춘향이가 사또에게 수청을 들려면 화장도 하고 꾸며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하여 돈이 든다고 하면서 복비를 받아낸다.

심청이는 뺨과리를 대야로 삼아 세수하고 남은 물은 청중들을 향해서 뿌리는 장난을 친다. 분홍색치마로 단장을 하고 징을 거울 삼아 화장하는 흥내를 내고 복채를 화장도구로 사용한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단장을 하는데 장삼으로 비녀꽃은 머리를 만들어서 관중들을 웃긴다.

송정환 화랭이가 춘향으로 꾸미고 징을 술잔이라고 하고 술상을 차려들고 사또에게 수청을 들러 간다. 사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권하고, 술맛이 좋으냐고 물으면서 좋으면 술값을 내라고 한다. 사또와 한참 어르면서 장난을 친다. 춘향이가 노래를 한가락하고 시주를 얻으려 다니는데 자기 같은 며느리를 보면 안된다고 하면서 액땜하는 것으로 치고 할머니들에게 복비를 내라고 한다. 김미향 무녀가 다시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이어 송명희 무녀가 양손에 술잔을 들고 하단상에 술을 바치고 재배를 한다.

천왕굿



#### ● 낫동이굿(주무 : 김동연)

**진행시간** : 21시 45분 - 23시 26분

**무녀복장** : 진분홍치마에 연분홍저고리, 자주색 패지를 입고, 오른손에 노란수건과 부채, 왼손에 연분홍수건을 들었다. 때로는 오른손에 신칼을 들기도 한다.

**장구** : 송정환

#### **진행과정**

낫동이에 관중들에게 시주를 받으면서 시작한다. 낫동이를 이고 춤을 추다가 엎



는다. 제관을 눗동이 위에 앉히고 신칼로 액이 없어지도록 둘러준다. 눗동이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다 같이 한사람씩 액을 풀어준다.

#### • 탈놀이굿

**진행시간** : 23시 32분 - 00시 03분(다음날 새벽)

**무녀복장** : 무녀가 탈을 쓰고 나타난다. 연분홍치마, 녹색저고리에 남색패지를 입고 하얀색 가면에 노랑 수염을 달았다.

**장구** : 김동열

#### 진행과정

힘한 자식들을 낳지 말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주무에 이어 사대부 탈을 쓴 사람이 등장하는데 곱방대를 물고 오른손에는 부채를 들었다. 대감탈이 나타나 자 각시탈이 수줍어 무대 뒤로 숨어 버린다. 머슴탈도 등장하는데 노비를 대감탈이 각시탈에 주려고 하자 처음에 싫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수락한다. 벗짚지고 예비군 모자를 쓴 이, 머리에 대야를 쓴 이 등이 나와 결국에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날의 마지막 판을 마무리한다. 이틀째가 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굿판의 피곤함을 함께 달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 용왕굿(주무 : 김영희)

**진행시간** : 09시 38분 - 12시 45분

**무녀복장** : 연분홍치마저고리에 남색패자를 입고 오른손에는 노란 수건과 부채를 왼손에는 연분홍수건을 들었다.

**장구** : 김정희

**진행과정**

유지들과 선주들의 명단을 불러주고 무사안녕과 사업의 번성을 축원해준다. 노총각, 노처녀들은 빠른 시간내에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해준다. 아들을 얻지 못한 사람은 용떡을 훔쳐다가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하고 내외간에 나눠먹으라고 한다.

주무는 왼손에 신칼을, 오른손에 부채와 노란수건을 들고 굿당에 차려 놓은 동네 상에 축원을 해주고, 부채를 내려 놓고 오징어를 들고 춤을 추다가 다시 대구포로 바꾸어 춤을 춘다. 제판을 불러내서 앉히고 왼손에 다시 오징어를 들고 축원을 해준다.

선주들을 불러 내서 앉히고 중단에 매달려 있던 한지를 가닥가닥 머리에 묶어 주는데 이를 '봉기꽃기' 라고 부르며 배에 갈매기가 앉은 모습을 흉내낸 것이라고 한다. 갈매기가 앉은 것은 주변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만선을 기원해준다. 선주들 머리를 신칼로 쳐주면서 고기를 많이 잡기를 축원해 주고 선주들에게 음복을 시킨다. 주무가 입안 가득 물을 머금었다가 선주들에게 뱉어주면서 머리에 매었던 끈을 풀어준 다음 신칼과 풀어놓은 끈으로 쓰다듬으면서 한사람씩 축원을 해준다. 신칼을 머리위에서 흔드는 것은 액을 씻어주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려준다.

조상들 식상을 굿당에 적게 가져다 놓아 섭섭하다는 사설을 하고 식상대신 쌀을



용왕굿

가져다 놓은 집도 있었다. 음식을 내어온 집집마다 축원을 해주고 관중들과 함께 신나는 춤판을 벌인다. 김동연 무녀의 사설이 잠시 이어지고 관중석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 노래를 한다. 주무 김영희 무녀가 다시 나와 축원을 부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 손님굿(주무: 김동연)

진행시간 : 12시 50분 - 15시 00분

장구 : 김동열

진행과정

홍역을 무사히 이겨내기를 바라는 곳으로 무당이 손대를 들고 굿판을 시작한다. 김장자집에 손님이 찾아와 마당쇠에게 하루밤 자고 갈 것을 청하나 김장자가 거절을 해서 문전박대를 당한다. 가난한 노구할매집에 하루밤 유숙을 청하나 너무 가난하여 잠을 못자고 다시 김장자의 집으로 간다. 나락 한말만 꺾달라고 부탁을 하자 김장자는 또 거절을 하고 마누라가 뒷마당으로 불러들여 나락을 준다. 받은 나락으로 밤에 방아를 쥘어보니 전부가 싸래기라 싸래기로 죽을 쏜다. 상에 죽과 간장을 차려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손님굿



노구할매가 외손녀를 데려오는데, 노구할매가 보이지 않자 장자가 걱정이 되어서 노구할매집을 찾아 간다. 굿하는 소리가 들려서 뛰어올라갔더니 노구할매가 음식을 차려놓고 굿판에 절을 한다. 김장자가 화가 나서 꺾준 장리쌀도 못값으면서 굿을 한다고 야단을 친다. 이에 손님이 화가 나서 노구할매를 벌준다. 노구할매가 손님이 싫어하는 고치불을 피우는데 이는 손님이 매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각시손님이 철언이의 엄마모습으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철언이의 눈에는 각시손님이 자기 엄마로 보인다. 각시손님이 철언이가 있는 절로 올라가서 집으로 가자고 한다. 철언이가 집에 따라 가려고 나오자 각시손님이 주문을 외워서 철언이가 병이 난다. 다음날 주지스님이 철언이의 얼굴을 보자 손님이 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보냈는데 돌아오자마자 철언이는 마당에서 넘어진다. 김장자 내외가 놀라 철언이를 방으로 들여와 눕히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다. 하지만 절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두드러기라 난 것으로 안다. 김장자가 철언이에게 검은 옷을 입혀서 불을 쪼게 하자 손님은 화가 나서 더 심술을 부린다. 흑이 났다고 해서 침쟁이를 불러 덧난 부위를 찢더니 철언이는 더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은 화가 나서 철언이 병을 더 심하게 만든다. 마누라가 손님네가 강림한 거 같다고 김장자에게 말을 하고 손님에게 빌어보자고 청을 한다. 김장자가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하는데 말투가 반말이다. 하지만 김장자의 성격을 아는 손님은 이 정도만으로도 그나마 김장자를 혼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언이를 낮게 해준다.

철언이의 병이 나았다고 마누라가 김장자에게 손님상을 봐주자고 했다가 야단을 맞는다. 김장자는 그냥 내일 아침상에 밥 한그릇만 더 놓으라고 한다. 이말을 들은 손님이 화가 나서 철언이 병을 다시 도지게 한다. 이에 자식 대신에 앓지도 못해 애간장이 다 녹는다고 마누라가 한탄을 한다. 손님이 철언에게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 철언은 재산밖에 모르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 15세가 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으나, 남은 재산은 제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기를 부탁한다. 남편 잘못 만난 모친의 신세를 불쌍히 여기며 부디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하고 손님을 따라 나선다.

김장자 내외의 재산은 노구할매한테로 가고 노구할매의 초라한 집에 김장자 내외가 들어간다. 김장자 내외는 걸식을 하면 동네를 돌아다니지만 모든 집에서 문전 박대를 당한다. 철언이는 부모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김장자내외도 마음을 많이 고치는 것을 보고 집안 살림도 나게 해주고 병도 손님이 고쳐준다.

손님과 철언이 서울 이정승집에 당도하여 굿하는 장면을 보는데 부산굿, 제주굿, 경정굿, 강원도굿, 울산 담비구타령, 영월정선고개 등으로 이어진다. 손대를 쌀대박에 꽂고 제관들의 쌀점을 봐주고 쌀알을 먹게 한다. 재배시키고 현작한 다음에 손님 굿이 마무리 된다.

손님굿



● 제면굿(주무 : 박남이)



진행시간 : 15시 03분 - 16시 23분

장구 : 김진환

진행과정

제면할매를 모시고 지내는 곳으로 제면할매를 모시지 않으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제면할매를 내세워 농사일이나, 어업이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한 씨앗을 나눠줘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는 곳이다.

● 꽃노래(주무 : 김동언)

진행시간 : 16시 29분 - 16시 36분

장구 : 김정희



### 진행과정

덤불국화를 제단에서 내려서 5명의 무녀가 주무의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춤을 춘다. 주무도 손에 꽃을 들고 춤을 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에 차려져있던 지화들을 다 내리고 관중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흥을 돋우는 판이다.

#### ● 뱃노래(주무 : 송명희)

진행시간 : 16시 37분 - 16시 50분

### 진행과정

용선에 배를 매고 부녀회원들이 잇달아 잡고 춤을 추며 뱃놀이를 한다. 주무가 뱃노래 무가를 부르고 다른 무녀들은 춤을 춘다. 용선에 선주들이 돈을 넣으면서 배를 잡고 용선을 흔든다. 무녀들과 주민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뱃줄당기기를 해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내기를 한다.



뱃노래

#### ● 등노래(주무 : 김동연)

진행시간 : 16시 55분 - 17시 33분

### 진행과정

제관들이 당에 놓여있던 지화단지를 가져와서 예전에 꽂아 두었던 것을 뽑아내고 새것으로 갈아 쪼른다.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날을 받고 제수준비를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받으러 다닌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톱질하는 노래를 박자 맞춰 부르고 나무를 하다가 톱이 부러지자 사라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 톱을 만든다.

걸려 있던 등을 내려 들고 춤을 추는데, 제관 등에 태우고 수고했다고 하고 마을



등노래

사람들 위로도 등으로 훑고 지나간다. 그 사이사이마다 등으로 축원을 해준 복돈을 시주받는다. 굿판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원을 해주고 등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한다.

#### ● 대느름(주무: 김미향)

진행시간 : 17시 40분 - 18시 15분

#### 진행과정

굿당 밖에 대를 세우고 느름을 받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무는 손에 바라를 들고 제관이 대를 잡는다. 제관이 헌작, 재배한 후에 이장도 같이 재배한다. 어촌계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수협대의원, 선주들 순으로 개개인의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된다.

대느름의 마지막 단계로 옷당, 아랫당으로 나누어 당에 다시 당할배를 모시고 가서 좌정한 후 제관들이 헌작, 재배한다.

다시 당으로 관중들이 모이기 전에 개인점을 봐주는데 준비물은 생년월일과 성명을 기입한 종이웃,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소금 한 접시에 고춧가루 4숟가락), 입던 속옷, 복채(사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쌀(1되 4홉)을 무당 앞에 놓고 비손을

대느름





하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마지막에서 등을 무당쪽으로 보이게 앉으라고 하고 가지고 온 쌀과 소금, 고춧가루를 등에 뿌리면서 나쁜 기운이 물러가기를 기원한다. 가지고 온 속옷과 종이옷은 태운다.

● 거리굿(주무: 김장길)

진행시간 : 18시 55분 - 20시 30분

진행과정

여러 가지 우스개 소리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마을에 나쁜 기운들을 없애고 복을 짓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지막 굿거리이다. 굿당 남쪽(바닷쪽)의 천막을 걷어 올려서 무대를 바다까지 연장하여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걷어 바닷쪽 천막을 걷어올린 것을 천왕문이 열렸다고 하고 이 열린 문을 통해 영덕할매 밥주기를 한다. 주무는 골매기 수부할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황봉사로 분장하여 갑자기 눈을 뜨고 귀신중에 가장 불쌍한 귀신이 앞을 보니 못하는 귀신이니 귀신밥을 주기를 권하기도 한다.

마을에서 조업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밥을 풀어먹이기도 하고, 해너들, 잠수부, 군대 간 자식들의 무사함을 기원해 준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로 사고를 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짚으로 용선을 만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으로 모든 굿의 절차를 마무리한다.



거리굿







## 9 여가생활과 놀이

청소년의 놀이  
중장년층의 여가와 놀이  
노년층의 여가와 놀이



# 청소년의 놀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낚시줄을 이용하여 게 잡기를 시도했다. 적당한 길이로 낚시줄을 자른 후 몇 겹으로 겹쳐 꼬아서 게를 향해 낚시줄을 내리고 게가 낚시줄을 잡을 때 빠른 속도로 잡아당겨 잡는 방식이었다.

여가는 생업이나 학업 등의 시간에서 벗어난 나머지 시간을 말하는데, 경정1리 뱃불마을의 여가생활은 연령층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놀이를 즐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들끼리의 어울림이 대부분이고 연령층별로 생업이나 주업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여가생활 역시 연령층에 따라서 어울리는 형태와 놀이 종류 등이 달라지게 된다. 1년을 주기로 할 때 경정1리 주민들에게 5월부터 9월 초까지는 여가생활을 즐기기엔 가장 좋은 시기이다. 11월 줄감기를 시작한 미역일과 오징어 건조작업이 4~5월경에 끝나게 되고,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약 네 달의 시간은 마을 주민들에게 달콤한 휴식 기간이다. 특히 오징어 건조작업은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의 구분이 없는 생업전선으로, 이 시기에는 쉼 없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기 쉽지가 않다.

놀이나 휴식의 공간은 연령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마을 내의 여러 공간들 중 학교와 해수욕장을 제외한 여러 공간들은 주로 노인층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노인들의 놀이 공간은 윗당 옆 느티나무 그늘, 노인회관, 북쪽 방파제, 경정슈퍼 앞, 어민대기실, 김정식 집 앞 평상 등이다. 그 중에서 윗당 옆 느티나무 그늘과 북쪽 방파제, 김정식 집 앞 평상은 주로 여름철에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세시에 따른 놀이는 각 세시풍속에서 기술하고 이 장에서는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생활과 놀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청소년들이 마을 내에서 놀이를 즐기는 장소는 총 세 군데에 불과하다. 하나는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 운동장으로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중학생들도 경정분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 등의 운동을 즐긴다. 다른 하나는 해수욕장과 방파제인데, 주로 여름철에 놀이를 즐기는 장소이다.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주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기 등의 놀이를 즐기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물놀이보다는 방파제에서 게나 따개비 등을 잡으면서 논다. 마지막으로 경로회관 2층에 위치한 정보화센터인데,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에게는 정보화센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기는 것이 또 하나의 놀이이다.

1. 축구를 하며 노는 중학생들

2. 정보화센터 이용하는 초등학교생들



### 중학생 놀이 참여관찰

2008년 8월 8일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 운동장에서 세 명의 중학생을 만났다. 축산중학교에 다니는 이혜경, 조성휘, 조용민, 최동준으로 이혜경은 경정1리 주민이고 나머지 세 명은 축산리 주민으로 모두 중학교 1학년 동기생이다. 조사자가 경정초등학교에서 이 네 명을 만난 것은 오후 12시경으로 조용민이 어깨에 작은 가방을 댄 것을 제외하는 모두 빈손이었다. 학교에서 공을 빌려보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학교를 나갔고, 조금 걸어가다가 ‘무엇을 하면서 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여학생인 이혜경은 경정1리에 살고 있는 축산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자신뿐이기 때문에, 같은 성을 가진 동기생이 있는 경정2리 차유마을로 가기를 원했고 나머지 남학생 세 명은 경정1리를 벗어나지 않고 놀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결국 마을에 사는 동기생인 김진욱의 집에서 공을 빌려 공놀이를하기로 결정하고 최동준이 축구공을 빌려와서 학교 운동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축구공이었으나 농구를 하지는 의견이 많아 결국 농구를하기로 하였는데, 여학생인 이혜경은 빠지겠다고 하여 팀 수를 맞추기 위해 조사자가 게임에 참여하였다.<sup>아</sup> 이혜경은 자신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농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 상

태가 좋지 않아 빠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농구를 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농구를 그만두었고 공을 빌린 친구 집에 축구공을 돌려주었다. 잠시 뒤 비가 그치고 다시 놀거리를 찾아야 했던 아이들은 이혜경이 방과제에서 골뱅이를 잡으면서 놀 것을 제안하자 모두 찬성하여 경정해수욕장 옆 등대가 있는 방과제로 향했다.

방과제로 가는 길에 경정1리에 거주하는 같은 학교 친구인 한재윤을 만났다. 한재윤도 방과제로 놀러 올 것을 약속하고 잠시 헤어졌다. 방과제에서 노는 것을 무서워하는 조용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테트라포트 방과제로 내려갔고, 처음에는 골뱅이와 따개비를 줍다가 버려진 낚시줄과 미끼를 발견하고는 낚시를 시도했다.

그러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낚시줄을 이용하여 게<sup>02</sup> 잡기를 시도했다. 적당한 길이로 낚시줄을 자른 후 몇 겹으로 겹쳐 꼬아서 게를 향해 낚시줄을 내리고 게가 낚시줄을 잡을 때 빠른 속도로 잡아당겨 잡는 방식이었다. 가끔 한 마리씩 잡혀서 올라오면 다시 놓아주었고, 약 한 시간동안 게를 잡던 아이들이 오후 세 시가 되자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여 방과제를 나왔다. 이혜경은 이날 방과제에서 놀았던 것처럼 방과제에서 낚시를 하거나 어패류를 잡으면서 노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축산리에 사는 아이들이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으나 버스가 지나갈 시간이 되지 않아 경로회관 2층에 있는 정보화센터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컴퓨터로 하는 놀이는 컴퓨터 게임이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친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 등이었다.

이혜경, 조성휘, 조용민, 최동준 네 명의 중학생에게 학생들의 놀이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남학생은 구기 운동이나 힘겨루기 등을 즐긴다고 하였고 여학생은 마당놀이나 집 안 놀이를 즐긴다고 하였으나, 네 명 모두 성별에 따른 놀이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학생인 이혜경의 경우에도 “농구나 축구 같은 구기 운동을 여자들은 잘 안하지만, 저는 남자나 여자나 하는 놀이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구 좋아해요.”라고 말하였다. 이 네 학생은 축산중학교 줄넘기부로 전국 줄넘기 대회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줄넘기 실력이 뛰어나다. 이 학생들에게는 줄넘기도 하나의 취미이자 놀이이다. 중학생들이 주로 놀이를 즐기는 시간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 방학과 학원 방학이 겹치는 시기 등이다. 네 명의 중학생의 소개를 바탕으로 분류한 놀이의 종류는 표와 같다.<sup>03</sup>

초등학생도 중학생과 비슷한 종류의 놀이를 즐기지만, 그네나 구름다리 등 학교 내에 있는 기구를 이용한 놀이를 보다 많이 즐기며,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어울린다는 특징이 있다. 학부모들은 저학년이 고학년을 따르고 고학년이 저학년을 보살피는 작은 학교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학년과 고학년이 어울려서 방과 후에 술래잡기나 차선 밟지 않기 등의 놀이 등을 즐기는 모습을 볼

01 팀은 손바닥과 손등을 뒤집어가면서 같은 면이 나오면 한 팀이 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02 이곳에서는 게를(게)라고 발음하지 않고 (가:)라고 발음한다.

03 놀이의 분류 제목은 제보자의 소개를 바탕으로 조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분류	놀이 종류
구기 운동	축구, 농구, 배구
특기 놀이	줄넘기
힘겨루기	프로레슬링, 씨름, 팔씨름
바다 놀이	골뱅이 잡기, 꽃게 잡기, 성게 줍기, 따개비 따기, 수영, 낚시
집안 놀이	컴퓨터 게임, TV시청, 음악 감상
마당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땀, 오징어땅콩, 콘짜싹, 뿔어뵈
산들 놀이	산에서 술방울 싸움, 잠자리 잡기
마을 놀이	전봇대 올라가기, 남의 집 창고에 숨기, 물풍선 던지기, 콩알탄 던지기

수 있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정보화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중학교가 도곡리에 위치해 있는 반면 축산향초등학교 경정분교는 마을 정보화센터와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으며, 중학생은 방과 후에 학원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중 한수진, 김정원 등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은 가끔씩 축산리에 있는 노래방으로 놀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여름철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저학년생들이 비교적 더 많이 즐기는 놀이이다.



## 중장년층의 여가와 놀이

중장년층 여성들 중 몇 명은 포항으로 쇼핑을 다녀오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있다. 평일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난 후 출발하여 포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초등학교생인 자녀들이 하교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다.

중장년층은 노년층에 비해 생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놀이의 종류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놀이에 비해 수가 적은데 여행, 고향이나 친지 방문, 등산이나 공연 관람, 잠수 및 물놀이, 음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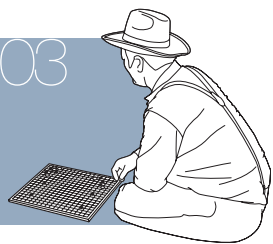
안병군의 경우 오징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작업을 하지 않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특히 한여름에는 이상진, 김창중 등과 바다에서 잠수놀이를 즐긴다. 이상진은 잠수하여 작살로 놀래기 잡기를 잘하고 안병군은 전복 캐기를 즐긴다. 임병욱·정차남 부부는 가끔씩 등산을 가거나 여름철 계곡 등에 피서를 다녀온다. 중장년층 중 남성의 경우에는 저녁에 음주를 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로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안병군은 술자리에서 조사자에게 “이것이 우리의 문화지.”라고 소개하였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청소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가장 큰 이유는 생업에 투자하는 시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년층이 오징어 작업이나 미역 작업만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하여 중장년층은 여름철에도 일을 하거나 오히려 여름에 더 바쁜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이 주로 여가를 즐기는 5월에서 9월까지의 네 달이라는 기간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할 중장년층에게는 여가생활만을 즐기기에 너무 긴 시간이다.

중장년층 여성들 중 몇 명은 포항으로 쇼핑을 다녀오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있다. 평일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난 후 출발하여 포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초등학교생인 자녀들이 하교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다. 시간은 불과 5~6시간 정도밖에 나지 않고 그 중 반은 이동시간이



기 때문에 충분히 놀지는 못하지만, 또래의 여성들이 어울려 쇼핑을 다녀오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식료품이나 자녀들 옷을 구입하고 돌아오는데, 생업이나 가사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다녀오지 못한다고 한다.



## 노년층의 여가와 놀이

남녀를 불문하고 노년층이 가장 자주 즐기는 놀이문화는 단연 고스톱이다. 즐기는 장소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실내에서만 고스톱을 즐기는 반면 여름에는 실외 그늘에서 즐기기도 한다.

노년층의 놀이는 청소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시간이나 장소, 계절의 구애를 적게 받는다. 주로 즐기는 놀이의 종류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고스톱, 바둑, 장기, 윗놀이, TV시청, 노래 부르고 춤추기, 음주, 목욕 등이 노년층의 주로 즐기는 놀이문화이다. 그 외에 계, 경로회,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마을 내외의 조직이나 모임의 사람들과 다니오는 여행도 여가생활의 일종이다. 이 장에서는 각 조직과 모임의 여가생활과 놀이를 제외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여가생활과 놀이를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노년층이 가장 자주 즐기는 놀이문화는 단연 고스톱이다. 즐기는 장소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실내에서만 고스톱을 즐기는 반면 여름에는 실외 그늘에서 즐기기도 한다. 고스톱을 즐기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는 경로회관, 김정식의 집 앞 평상, 집 마루나 방 등이다. 남성은 여름철 김정식의 집 앞 평상에서 주로 모이고 겨울철에는 경로회관 남성 노인 방에서 주

1. 경로회관에서 화투를 즐기는 남자 노인들

2. 화투를 즐기는 여자 노인들



로 모인다. 고스톱을 자주 즐기는 남성의 연령은 50대에서 70대이며 보통 3~10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즐기지만 실제로 고스톱을 칠 때는 3~5명이 즐기며 나머지는 구경을 한다. 고스톱을 즐기는 인원은 보통 3~7명 정도로 남녀가 같이 어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남녀가 섞여서 즐길 때도 있다.

반면 여성들은 실외에서 고스톱을 즐기는 경우를 볼 수 없다. 경로회관, 각 집의 방이나 마루에서 주로 어울리는데, 경로회관에서는 자주 어울리는 중노인들이 주로 고스톱을 치고 각 집의 방이나 마루에서는 경로회 회원이 아닌 중장년층 여성과 경로회원이지만 경로회관을 자주 찾지 않는 노인들끼리 어울린다. 고스톱을 즐기는 인원과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와 같은데, 평균적으로 치는 속도가 남성에게 비해 빠르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바둑두기(김천권, 한상백)

바둑과 장기는 남성들만이 즐기는 놀이이다. 즐기는 장소는 고스톱과 같은데, 두 명이 즐기는 놀이라는 특징 때문에 모이는 인원은 2~4명 정도이고 바둑과 장기를 두는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경을 하거나 훈수를 두기도 한다. 윗놀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많이 즐기지만 자주 즐기는 놀이는 아니다. 대개 여성 중노인들이 즐기며 장소도 경로회관 여성 중노인 방으로 제한된다. 비교적 가끔이지만 여성 노인들 중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집 마루나 방에 모여서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놀기도 한다.

TV 시청은 가장 일반적인 휴식의 형태이다. 경로회관의 여성 상노인들은 경로회관에서 '노는' 거의 모든 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낸다. 종교 방송,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을 즐기지만 그 중에서도 트로트 노래가 나오는 음악 방송을 즐겨 본다. 상노인들은 TV를 볼 때 주로 누워서 시청을 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여성 중노인들과 남성 중노인들도 TV시청을 하지만 비교적 즐기는 횟수가 적은 편이다. 한편, TV시청은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여가생활이기도 하다. 하루 중 저녁식사를 마친 시간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가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며, 드라마, 뉴스, 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을 두루 보지만 날씨 뉴스는 생업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챙겨보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생활이자 놀이이다. 일상적이라 함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가장 적다는 말과 같다. 노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서 잠 자리에 드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빠르다. 그와 관련하여 음주를 즐기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중장년층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가 가장 많은 반면, 노년층은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고 윗당 느티나무 그늘이나 경로회관 등에서 낮 시간에도 음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술은 중장년층이 소주와 맥주만을 즐겨 마시는 데 비해 노년층은 소주, 맥주도 즐기지만 막걸리도 자주 마시는 술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즐기는 오락 문화가 노년층 사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락을 즐기는 노인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남성 노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고스톱이나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정록은 막내 사위가 몇 년 전에 사준 컴퓨터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가끔 하는데, 특히 5월에서 9월 사이의 시간에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게임을 즐긴다고 한다.

윗당 근처 느티나무 그늘에서 바람을 쐬며 대화를 나누는 마을 주민들













# 10 | 구비전승

설화와 속신  
지명유래



# 설화와 속신

경정1리에는 월부산(月浮山, 동네산)이 있다. 현재의 경로회관 뒷산을 일컫는다. 이 산의 정상에는 다섯 말 정도 크기의 독을 묻어두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흘 날 동제(洞祭)를 지낸 후 보름날 아침에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 동네산에 올라가 독에 물을 바꿔 넣고 나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 설화

### 월부산(月浮山)

현재 ‘동네산’으로 불려지는 산이다. 달이 바다에서 솟아 있을 때, 이 산으로 제일 크고 밝게 떠서 참으로 경관이 좋다고 여겨지고 있다. 보름에 부녀자들은 치마를 펴서 달을 담아 오면 득남한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 무등산(武登山)

‘무술산’이라고도 한다. 연대는 미상이나 장수가 말을 타고 이 산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닦았다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산이다. 마을에서는 무당을 청하여 장수놀이 곳으로 칼을 들고 춤을 추고 풍년을 기원하며 연중 1회 무등제를 지내고 있다.

### 경신서당(景新書堂)

연대는 미상이나 약 200년 전에 영해박씨 선비와 강릉유씨 선비가 합모하여 동민에게 뜻을 득하여 서당을 설립하고 수학하니 많은 후진들이 모여 훈학하니 많은 후진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왜정부의 억압으로 폐교되었으나 해방 전까지도 후신이 전연하였다.



## 염장산

염장산은 과거에 영해 향교(盈海鄕校)의 산이어서 그 산에서 양을 키워 향교의 제물로 올렸다고 한다.

## 도달네 이야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달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도달네’는 이기출이라는 사람의 별명이었는데, 그는 뱃불에서 뿐만 아니라 영덕군에서도 마음씨 착하고 항상 남을 즐겁게 해주던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지능이 약간 모자란 사람이어서 남의 품을 팔아 살면서도 성실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 틀림없이 천당갔을 터’라고 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슬하에 자식 둘이 있지만, 이 동네에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그는 흥에 겨우면 재미난 춤을 추어서 못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는데, 마을에서 김영대(남, 1936년생)가 특히 ‘도달네’ 흥내를 잘 낸다고 한다.

## 육아 및 다산 관련 속신

1. 경정리에서는 마을에서 별신제를 지낼 때 ‘용떡’을 만들어 고사상에 올린다. 이 ‘용떡’은 굿을 마친 후에 잘라서 마을 호수(戶數)에 맞게 나누어 준다. 그런데 동네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은 ‘용떡’의 ‘용머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믿어 그 용머리를 서로 먹으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2. 마을 부녀자들은 아이를 얻기 위해 아기를 낳은 산모의 속옷을 입기도 하었다고 한다. 이 때 특히 어떤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무명으로 길게 만들어 입은 속옷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도끼 형체를 만들어 속옷에 항상 달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아들을 낳기 위한 행위였다고 한다.

3. 아이가 태어나면 오래 살라고 ‘아이팔기’를 하였다고 한다. ‘아이팔기’는 (아이가) 병이 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바위, 나무, 하천 등의 장소에 가서 비는 행위를 일컫는다. 명(命)이 길라고 빌 때는, 쌀을 담은 그릇에 초를 쫓아 촛불을 켜고 그릇은 흰 실로 매어 놓고 빈다. 경정리 사람들은 동리의 ‘마짜(남쪽)’개울에 가서 많이들 팔았다고 한다. 또 스님이나 점(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4.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탯줄은 버리지만 ‘배청(배꼽에 실을 묶어 놓은 후 빠진 것)’은 ‘부시(부엌)’에 꺾어 놓았다가 아이들이 아프면 삶아 먹였다고 한다.

5.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친정 고모가 ‘띠(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를 해주면 아이들의 명(命)이 길다고 한다.

6. 아이의 첫 저고리는 아이들이 자라도 농에다 보관해 둔다. 이것은 자식이 죄를 지어 감옥에라도 가는 일이 있을 경우, 보관해 둔 옷을 꺼내 왼쪽으로 틀어 빨래 짜듯이 짜서 몸에 감아주면 죄가 빨리 사해진다고 한다. 재수가 없어 감옥에 갇으니 이를 행하면 재수가 좋아진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7. 아이를 낳은 후 3·7일까지는 집안뿐만 아니라 옆집에서도 조심을 해야 한다. 한 제보자는 딸을 낳은 날과 그 이튿날에도 옆집에서 이불에 풀을 먹이자, 아이 머리에 ‘딱쟁이(딱지)’같은 것이 덮어 써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동네 세 개울이 합쳐지는 곳에서 물을 떠와서 삼신에 빌고 절하고 물을 덮어쓰고 나니 아이가 좋아졌다고 한다.

## 세시 관련 속신

1. 경정1리에는 월부산(月浮山, 동네산)이 있다. 현재의 경로회관 뒷산을 일컫는다. 이 산의 정상에는 다섯 말 정도 크기의 독을 묻어두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흘날 동제(洞祭)를 지낸 후 보름날 아침에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 동네산에 올라가 독에 물을 바꿔 넣고 나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마을이 화마(火魔)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믿음에서였다. 이를 화산제(火山祭, 불막이제)라고 일컬었다. 불막이제를 위해 제관 1명이 선출되었고, 소사와 소사댁이 거들었다고 한다. 제물(祭物)로는 산닭을 꼭 찢으며, 삼실과(대추, 밤, 감)와 술을 차린다. 예전에는 매년 지냈지만 후기에 오면서 3년마다 지내다가 1961년 무렵을 끝으로 더 이상 지내지 않았다. 당시 동장을 맡아보던 김병철(남, 1938년생)은 이 관행이 끊어지게 된 배경을 “그때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있었으며, 그 제사를 지낸다고 마을에 불이 안날 리가 없다.”는 젊은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하누바람(하늬바람:서풍, 남서풍, 북서풍)’이 불 때는 건조하여 불이 많이 났지만, ‘갈바람(남동풍)’과 ‘셋바람(동풍, 북동풍)’은 습기를 머금고 있어 불이 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2. 정월 대보름날 우물을 제일 먼저 퍼 간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여겨, 경정리에서는 정월 열나흘날 밤에 ‘할배네(윗당, 아랫당)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동사(洞舍, 경흥당)앞에 있는 우물물을 먼저 퍼가려고 하였다. 간혹 할배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을 퍼가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제사를 다 지냈다고 하면 우물물을 퍼가는데, 이 때 우물에 빠리(또아리)를 빠져놓고 내가 먼저 퍼갔다는 표시를 남겨 놓아 보름날 아침에 우물에 빠리가 둥둥 떠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날 이 우물물로 ‘대추찰밥’을 지었다.

3. 정월 열나흘날은 ‘농사짓는 날’이라고 하여 오곡밥을 해먹었다.

4. 정월대보름에는 대추, 팥, 밤 등을 안쳐 밥을 지었다. 이 밥을 ‘대추찰밥’이라고 하였는데, 찰밥을 해먹고 나면 밭에 가서 콩을 뿌렸다고 한다. 그릇에 콩을 담아가서 뿌려놓고 다시 (콩을) 주어 담으면서 “굼벥이 쫓자, 굼벥이 쫓자.”를 외쳤다고 한다. 밭에 굼벥이가 많아서 이런 풍습이 있었고 한다.

5. 보름날 집집마다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찰밥을 얻어 ‘검은 개’를 옆에 두고 개 한 손가락 주고 아이 한 손가락 먹이고 하였다. 절구통에 밥을 넣고 그렇게 하는 집도 있었다. 아이에게 복이 있을 거란 믿음에서였다고 한다.

6. 정월 대보름날 풍년을 기원하며 수숫대를 가지고 나락, 보리, 서숙, 지게 등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만들어 두엄더미에 꽂아두고 타작하는 시늉을 냈다. 타작은 ‘할배네 제사(洞祭)’를 지낸 다음 하는데, 느티나무 가지로 타작대를 만들어 부엌문을 두드리며 “제사지냈고 밥하소.”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또 “○○타작아! 이 보리 누(누구) 보리노. ◎◎ 보리세”라고 하거나 “○○타작아! 아재네 보리는 잘되고 우리 보리는 못되고 ……”하면서 농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다. 타작을 다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천석~ 만석~”이라는 후렴구를 넣는다. 타작은 새쪽(동쪽)과 마쪽(남쪽)으로 패를 나누어 했는데, 동네를 돌다가 맞닥뜨리면 서로 많이 두드리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7. 꿈이 안 좋거나 꺼림칙한 일이 있으면 단오 때 베어 둔 ‘약쭉’으로 ‘양밥’을 한다. 양밥은 소금을 밑에 놓고 고춧가루도 뿌리고 나서 쭉을 비벼 넣어서 덩어리를 만들어 쭉뚝을 하듯이 불을 놓는다. 경정1리(벉불)과 경정3리(오매) 사이에 ‘석산(石山)’이 있는데, 이 산에서 돌을 캐기 위해 기계를 안칠 때에도 양밥(소금 2되+고춧가루+쭉)을 하여 “허물없이 탈없이 하여 주십사.”하고 빌었다고 한다. 석산은 원래 묘터가 준비하던 곳이었다.

8. 십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정1리 동민들은 정월대보름에 두 패(새쪽과 마쪽)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였다. 이 때 새쪽(동쪽)이 이기면 어업이 잘되고, 마쪽(남쪽)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새쪽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쪽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줄은 어장촌인 관계로 어장에 쓰는 줄을 사용했으며, 외줄이었다. 마을 앞 해변 모래밭에서 행해졌으며, 남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9. 장은 음력 정월달 말일(午日)에 담근다. 이날 장을 담그면 ‘맛에 변동이 없다’고 여긴다. 한편 경정 사람들 중에는 말날보다는 음력 2월 전에 장을 담가야 한다고 하여 ‘손없는 날’에도 많이 담근다고 한다. 음력 2월은 ‘내월달’, 즉 ‘남의 달’이라 하여 장을 담그지 않는다고 한다.

10. 음력 2월 보름이면 “님(남)의 집 며느리(며느리) 율타리 잡고 운다.”는 말이 있다. 음력 2월 보름을 지나면 앞으로 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므로 ‘마지막 명절’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sup>01</sup>

<sup>01</sup>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단오(端午)를 ‘마지막 가는 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마지막 가는 명절’은 기본적으로 농경 세사와 관련 있어 보인다. 이 지역에서 풍농(尙農)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영등음력 2월 초하루~2월 보름(20일)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발농사일과 논농사준비 시기라서 그렇게 보는 듯하다. 또한 단오를 즈음하여 모내기와 그 이후 김매기 등의 논농사일이 몰리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실질적으로 종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단오가 ‘마지막 가는 명절’로 파악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 민간의료 관련 속신

1. 단오 때 베어 응달에 말린 쭈을 ‘약쭈’이라고 하는데, 코피가 날 때 사용하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여자들이 월경(月經)을 하면서 아플 때, 대추와 호박, 감초를 넣고 삶아서 먹으면 좋다고 한다. 이때 대추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쭈만 삶아 먹었을 경우 눈이 멀어진다고 한다.

2. 단오 때 ‘궁갱이(창포비녀)’을 뽑으면 머리(카락)가 좋아진다고 한다. 김옥출(여, 1936년생)은 어릴 때, 창포, 쭈, 칩, ‘제피(초피)’, 인동덩굴 등을 뜯어 단오 전날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 기타 속신

1. 경정1리는 동해안의 인근 마을과 달리 마을의 터가 평지에 입지해 있다. 이에 대해 “(마을터가) 좋기는 하나 다른 마을은 층층이 올라서며 위치한 반면에 이 마을은 꼭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마을에 태어난 아이들이 똑똑하기는 하나 출세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다.

2. ‘바당(바다)’에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어서 어장 그물에 걸리면 재수가 있어 고기를 많이 잡는다.

3. 꿈자리가 안 좋거나 하면 소금을 가지고 밖에 나가 뿌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 있는 재(灰)’에 자신의 오줌을 타서 밖에 뿌리기도 하였다.

4. 꿈에 나오는 소(牛)는 조상인데, 소꿈을 꾸면 술 한 병을 받아두었다가 저녁 어둑할 무렵, 밖에 나가 “이거 잡숫고 뒤돌아보지 말고 꿈에 손대지 말고 좋은데 가소.”하면서 뿌린다.







# 지명유래

뱃불의 뱃은 소금을 만드는 뱃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즉 소금을 만드는 뱃불이 바뀌어 뱃불 혹은 백불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뱃이 빛으로 되어 한자식 지명인 빛 경(景)자로 써서 경정이 되었다고 보인다.

## 마을관련 지명

● ○ ○ ○

### 뱃불

경정리, 뱃불 마을에 있는 모래톱을 말한다. 뱃불의 뱃은 소금을 만드는 ‘뱃’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즉 소금을 만드는 뱃불이 바뀌어 뱃불 혹은 백불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뱃이 빛으로 되어 한자식 지명인 빛 경(景)자로 써서 경정이 되었다고 보인다. 일설에는 1960년대 이전에 경정1리 마을 앞에 맑고 고운 모래사장인 넓게 형성되어 있어 흰 백(白)자를 붙여 백불이라 하였다 한다.

### 북행산(北行山)

북학산이라고도 한다. 약 150년 전에 영해박씨 후손이 사망하여 매장시 광내에서 학(鶴)이 나타나 북을 향하여 날아갔다고 하여 북학산 또는 북행산이라 한다. 현재 경정에 살고 있는 영해박씨 문중산으로, 경흥당(景興堂) 뒷산을 가리키며 ‘불콩땅’이라고도 한다.

### 낙수골목

경정1리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다섯 개가 있다. 낙수골목은 오골목 가운데 하나며 골목 모양이 낙수바늘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한다.

### 가운데 웅굴

경정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이다.



## 고개와 관련 지명



### 다부릿재

경정 1리 달부고개를 말한다. 다부릿재, 월부티, 월부령이라 한다.

### 쉬는재

경정 서쪽에서 고곡리 안고실로 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높아 쉬어가야 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소칫등

쉬는 재 남쪽에 있는 등성이다.

### 보리재

뱃불 남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 골짜기 관련 지명



### 가뭇골

경정 북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가미솔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큰골’이라고도 한다. 이 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당바우골, 앞가뭇골, 소치골, 지뫼골 등이 있다. 현재 경정1리 윗당[神明閣] 뒤쪽 오징어공장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전체를 지칭한다.

### 마당바우골

소치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당처럼 넓적한 바위 즉 마당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안가뭇골

내부곡(內釜谷)이라 하며, 가뭇골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앞사뭇골’이라고도 한다. 가뭇은 가미솔의 가마가 와전된 것이다.

### 지뫼골

경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뫼골’은 ‘깊은 골’에서 온 말이다.

### 짚골

지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짚이 있었다.

### 소치골

경정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술의 형국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곰등골

경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곰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버등골(蜂谷)

법당곡, 봉곡(蜂谷)이라 하며, 경정1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양지가 매우 좋아 벌들의 서식처가 되어 벌골이라고 하다가 버등골로 불리우고 있다고도 한다.

## 바다의 바위(짚)와 관련된 지명



### 용바위

‘용바’라고 흔히들 표현하며, 현재 석리에 있는 용이 올라간 자국이 있는 바위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4월 초파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거나 걸어서 용바를 보러 갔다고 한다. 『단양부지(丹陽府誌, 순조 13년, 1813)』는 영해부의 역사와 문화, 지리, 국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한 사찬(私撰) 읍지이다. 단양은 영해의 옛이름이다. 용암(龍巖)은 “영해부의 남쪽 15리에 있다. 경정 남쪽(현 경정3리=오매) 바닷가의 바위의 형상이 흡사 구유통 같은데, 40여 보나 되어 완전히 용과 같다.” 고 기록되어 있다.

### 다물

경정 동쪽에서 수구너미(경정2리, 차유마을)로 가는 길이다.

### 소근다물

경정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갓불

경정 남쪽에 있는 모래톱이다.

### 가지바우

성근바우라 한다. 바위의 생김이 성근(性根) 즉 남성의 성기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꽃감바우

흰돌바우 동쪽에 있는 바위로 꽃감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고래바우

꽃감바우 동쪽에 있는 바위로 고래의 입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수수바우

성근바우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 흰돌바우

수수바우 동쪽에 있는 바위로 ‘바위 색깔이 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말뚝방우

‘말바우’라 하며, 뱃불 동쪽에 있는 바위로 배를 매는 말뚝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소방구

소암이라 하며, 말바우 북쪽에 있는 가장 작은 바위이다.

### 비짬

경정 앞에 있는 짬이다.

### 선들바우

경정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 쇠눈방우

새짬 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 내 마음 깊이 들어온 바다, 그리고 어촌 사람들

심일종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연구원

(사)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박사과정

● 누군가가 내 고향을 물어보면, 삼척(三陟)이라고 답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내 내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쑥스럽게도 나는 내 고향 바다, 동해(東海)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내 불완전한 기억으로 내가 기본 삼척의 바다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처음이었다. 그 이전 시기 나를 바다와 연결시켜주는 통로는 묵호에서 아침 첫차를 타고 미로역에 내려 우리 마을로 생선을 팔러 들어오는 ‘고기장세 할머니’가 전부였던 것 같다. 그에 대한 인지를 통해 바다와 배와 어부에 대해 상상해 보는 정도가 가장 먼 바다로 나가는 길이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경험은 그 이후에도 추가란 거의 없었다. 다만 삼척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은 조금 달랐다. 그때 나는 내가 부러워 할 것도 없어 보이는 ‘비닷가놈’을 짝꿍으로 두었다. 그 당시 4월이면 미늘종다리에 고추장을 도실탁 반찬으로 싸가던 나에게 근덕면 맹방이 고향인 이 친구의 각종 어물로 된 반찬은 가히 나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자주.

내가 경상북도 영덕군 경정1리로 조사연구를 위해 떠날 것을 결정했을 때, 나에게는 바로 위와 같은 어린 시절의 파노라마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촌, 그것은 내가 민속 조사를 쫓아 농촌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꼭 들어가 보고 싶던 곳이었다.

서슴없이 간다는 것과 가서 무엇을 볼 것이고, 무엇을 기록에 담을 것인가는 늘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경정1리로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다짐을 해 보았다. 첫째, 필드에서의 기간이 충분하니까 모든 어촌의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것. 둘째, 동해안의 한 조그마한 어촌의 문화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과연 그들이 인지하는 바다·고기·배·어구·생태학적 기술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보자는 것. 셋째, 기존의 농촌 조사 항목을 수정해 볼 동해안 어촌의 조사방법론을 어렵게나마 만들어 학문적으로 기여를 해보자는 것.

아트막하게 쌓여 가던 나의 농촌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촌에 들어가서 아마추어 같이 행세를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은 이후 ‘초짜였다’는 부끄러움을 안고 이 조사후기를 쓰는 자리에 이르렀다. 나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와 깊이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으며, 그들이 인지하는 세계와 어촌 문화는 본시 단번에 알기에는 너무 먼 것이었다. 농촌조사 연구항목은 어촌 조사연구에서 채 벗어 던지지 못하고 말았던 것 같다. 더욱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영덕군내와 서울 등지를 다니며 조사연구한 어촌마을 사람들의 생애사에 대해서는 정작 마을 민속지에는 끝내 담아내지 못하고 글을 맺어야 했다. 모든 만남이 아쉬움을 남기고 흘러갔지만, 지금 경정1리 주민이 선물한 ‘경정미역’이 내 식탁에 오르고 그들이 건조한 오징어와 그곳에서 잡힌 대게를 맛보는 때는 그들이 내 마음 깊이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볼썽 찾아가간 어설픈 연구자를 위해 내가 앓을 자리를 선뜻 내어주던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싶고 그들이 다시 나를 친구처럼 맞이해준다면 나는 보람을 느낄 것 같다. 멀리서 보면 낭만과도 같은 바다가 가까이에서 들여다볼수록 일렁거리며 다가올 때, 그들이 내게 따라준 소주 한 잔이 그리운 밤이다.



# 동해안 바다 마을의 맛과 멋, 웃음을 추억하며

박재홍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연구원  
경기도 내 다문화교육현장 비교연구(2007년)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 어느 무더운 한여름 날의 오후에 처음 찾아간 그 어촌 마을의 첫인상은 긴 버스 여행으로 피곤해졌을 내 몸과 마음을 충분히 달래고도 남을 상쾌함과 아늑함이었다. 마을에서 연중 가장 일이 적은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 멀리까지 탁 트인 은빛 동해 바다와 살포시 감싸안은 뒷산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동안 복잡한 머리와 답답한 가슴 때문에 혼자 꽤나 괴로워하고 있던 찰나에 ‘이곳이다’ 싶은 장소에 발을 디뎠던 것이다.

다행히도 마을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크게 빛나가지 않았지만, 연구에 대한 막연한 압박에 지레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동네 구경 온 다른 마을 사람마냥 마을 구석을 헤집고 다니다 ‘어느 집 손자인가’ 오해받기도 하고, 마을 분들에게 관한 경계심을 갖게 한 것은 아닌지 맘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기우를 의식적으로 조금씩 덜고 나니, 마을 주민들과의 벽의 높이는 차츰 낮아지고 많은 것들이 처음 마을에 왔을 때 느꼈던 편안함으로 돌아갔다. 이심전심이라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띄고 신경 쓰이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나 스스로 느끼면서 연구자로서의 희열을 맛보기도 했다.

그렇게 마을의 일원이 되어 즐기며 공부하다 보니, 100여 일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나간 듯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넘치는 추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 간단한 글로 분명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모든 마을 분들께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 특히, 분주함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던 그분들에게서 성실과 지혜 두 글자를 마음으로 배울 수 있었음에 더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무자비한 질문에도 싫은 내색 않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축산향초등학교 김정분교, 축산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상상한 바다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먹으며 훈련된 탓에 이제는 다른 곳에서 먹는 생선회는 성에 차지 않게 되었기에 이번 여름, 아니 매년 휴가철에는 경정1리를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첫 맛은 새콤하면서 시원하고 끝 맛은 달짝지근했던 이곳 물회의 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 Ethnography about Baetbul village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s continuing in its project, “the year of regional folk culture” by letting the world know of the culture and life in local communities since 2006. The project of “2009 The Year of Gyeongbuk folk culture” has started with the study of the third local area, Gyeongsangbuk-do.

The book is one of the projects of “2009 The Year of Gyeongbuk folk culture” in commemoration. It is the report on the folk cultures of the 2 villages in Gyeongsangbuk-do.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chosen Gunwi-gun Bugyem-yeon Daeyul-li Hanbammaeul and Yeongdeok-gun Chuksan-myeon Gyeongjeong1-ri Baetbulmaeul as the folk villages. From January 2008 to November 2008, two museum staffs from the Folk Research Division of Folk Culture resided in each village in order to document the life in local area from the residents’ point of view rather than that of the strangers. The book is the report on Yeongdeok-gun Chuksan-myeon Gyeongjeong1-ri Baetbulmaeul.

The book is composed of ten chapters. Chapter 1: a general outline of a village, chapter 2: families and relatives, chapter 3: occupation and economic life, chapter 4: social structure, chapter 5: food, clothing and shelter, chapter 6: seasonal customs, chapter 7: daily routines, chapter 8: religions, chapter 9: leisure activities, chapter 10: traditions. The book presents the folk culture of Baetbulmaeul in general.

Baetbulmaeul is a fishing village near the East Sea. The villagers' main business is gathering seaweeds on a seaweed rock, 'Jjam'. In the present, they make a living by seaweed breeding, squid drying, king crab breeding, and summer tourism. It is the same now as in old days that the residents are building their lives near the East Sea. We hope that people understand the business and culture of Baetbulmaeul residents along with the folk culture of Gyeongsangbuk-do throughout this book.